## 제2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 우수사례집

# Contents


- 대국민 뉴스 리터러시 캠페인 <뉴스읽기 뉴스일기> ..... 2p
- 제2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소개 ..... 3p
  - 제2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주요 이슈 - 4p
  - <뉴스읽기 뉴스일기> 참여자들의 이야기 - 8p
  - 사진으로 보는 <뉴스읽기 뉴스일기> - 9p
  - 제2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심사평 - 10p
- 뉴스·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가이드 ..... 20p
- 수상 대표작 모음 ..... 31p
  - 이사장상 - 32p
  - 개인
    - · 어린이 저학년 - 36p
    - · 어린이 고학년 - 49p
    - · 청소년 - 71p
    - · 성인 - 83p
  - 단체
    - · 어린이 저학년 - 95p
    - · 어린이 고학년 - 98p
    - · 청소년 - 103p
    - · 성인 - 115p
  - 우수지도자·특별상 - 125p
- 공모전 본상·특별상 수상 명단 ..... 136p

# 대국민 뉴스 리터러시 캠페인 <뉴스읽기 뉴스일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민들에게 뉴스의 분별력 있는 이용과 책임 있는 활용, 올바른 뉴스 이용 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뉴스읽기 뉴스일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2019년부터 '뉴스읽기를 실천하는 뉴스일기장'을 배포하여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지원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매뉴얼을 소개하기 위해 '우수 사례집'을 제작했습니다. 분야별, 연령별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평소 뉴스 및 미디어 이용습관을 점검해보세요. 생활 속에서 허위 정보를 구별하는 뉴스 리터러시를 실천해 보아도 좋습니다. 실천 과정에서 느낀 점을 일기로 작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꼭 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 혹은 그림 등 자유롭게 일기를 작성해보세요. 색종이, 스티커, 색연필로 여러분의 일기장을 재미있게 꾸며도 좋습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어린이부터 직장인, 가족, 어르신까지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뉴스·미디어와 함께 하는 여러분의 하루를 일기로 기록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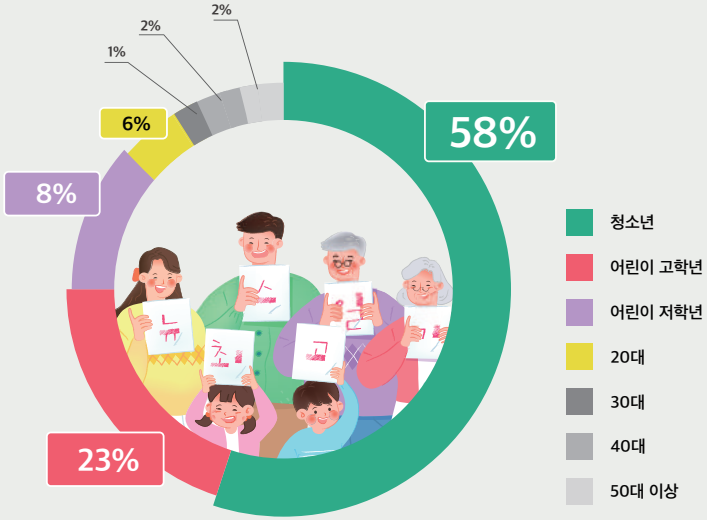
# 제2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소개

# 7세 어린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참여한 21,000여 장의 뉴스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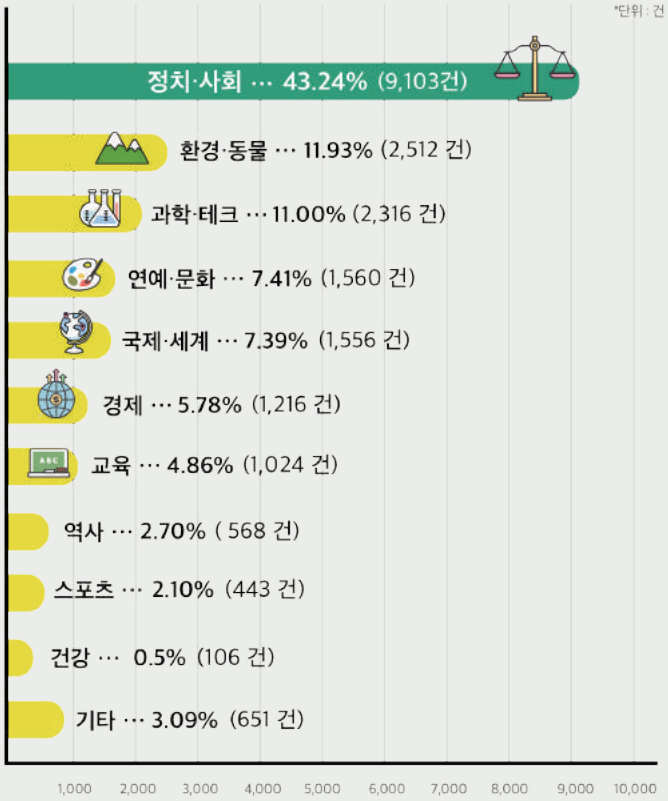
## 연령별 뉴스일기 참여자

작년에 이어 다양한 연령대에서 참여한 제2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의 최연소 참여자는 7세, 최고령 참여자는 76세입니다.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참여가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홍콩 등 해외에 거주 중인 학생과 다문화 가족도 참여했답니다. 언제 어디서든,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뉴스일기!
'건강한 뉴스 읽기 습관'을 위해 우리 함께 도전해보아요!




## 주제별 뉴스일기 작성 비중



#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핫 이슈!**

## 1. 일상을 바꾼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시아인에 대한 외국인의 편견과 차별을 보며 코로나19로 인한 갈등을 접어두고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지하은(10대)**

누구나 어려운 시기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줄어든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힘든 시기인 것 같다. 혼자의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이웃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회를 꿈꿔본다. **장영인(20대)**

명절 때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친구들과의 외출도 못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이 짙어졌다.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학마을 도서관(60, 70대)**

## 2.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

오염되는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 가족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음료와 음식을 포장할 땐 텀블러와 집에 있는 그릇에 담기, 올바른 방법으로 쓰레기 버리기'를 약속했다. **김하은(10대 미만)**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친환경 상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섰으면 좋겠다. **배지윤(10대)**

코로나19로 언택트 쇼핑이 늘면서 포장 쓰레기도 증가했다. 구청에서 쓰레기의 재활용·재사용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체험 교육을 하면 소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수연(50대)**

## 3. 어린이를 보호해주세요!

모두를 슬프고 화나게 했던 아동 학대 뉴스와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보아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의심 신고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학대를 막지 못했다. 가장 먼저 아동 학대는 '강력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박은찬(10대)**

자녀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신데렐라 법'을 제정한 영국,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운영하는 호주처럼 우리나라도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한 아이의 성장을 위해 많은 사람과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영인(20대)**

아동과 부모를 즉각 분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처벌,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개선과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우진(40대)**

#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핫 이슈!**

## 4. 미국 대선

미국 대선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또 우리나라와 국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는 아직 우리나라와 해외의 정치 상황을 잘 모른다. 하지만 각자 지지하는 사람과 그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 강요할 수는 없다. 싸우지 않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 **전형태(10대)**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며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의 성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정치의 변화에 따라 경제 전반이 변화하는 것을 보며, 정치에도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김진원(30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한과 북한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미국과도 우호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는듯 했으나, 북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은 없었다. 앞으로의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외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승록(60대)**

## 5. 비혼과 출산

결혼과 출산, 가족의 형태에 대한
시각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비혼 출산이 생명 윤리 논란과 본인만을 위한 이기적인 결정이라는 의견도 존중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응원한다. 아이를 훌륭하게만 키운다면 더욱 멋진 선택이 될 것 같다. **곽인영(10대)**

인식의 전환과 사회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비혼을 선택하는 청년이 많아졌다. '정상'에 대한 고정 관념을 없애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의 이해가 필요하다. **뉴쓰리 팀(20대)**

사유리의 출산으로 비혼모에 대한 찬반을 떠나 사회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지 숙제가 주어졌다. **이인순(70대)**

## 6. 몸과 마음을 멍들게 하는 괴롭힘

연예계와 스포츠계에서 논란이 된 '학폭 미투(Me Too)'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괴롭힘은 부모와 교사, 혹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난다.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상지여자고등학교 1-6 팀(10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는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큰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언론과 방송계에서도 학교 폭력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안일한 판단 기준을 버려야 한다. **이우진(40대)**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폭력이 사이버로 옮겨졌다. 사이버 폭력 역시 신체적 폭력과 똑같은 고통을 준다. 온라인에서의 괴롭힘에도 올바른 대응과 상처 회복이 필요하다. **우명희(50대)**

#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핫 이슈!**

## 7. 자랑스러운 한류 문화

음악부터 음식, 옷까지,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가 퍼지고 있어요!

K-POP에 이어 K-FOOD가 먹방을 업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K-PLAY 한국의 민속놀이도 외국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지하은(10대)**

한국의 팬덤 문화가 BTS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다. 무엇이든 목표와 공감대를 가지고 똘똘 뭉치는 한국인의 특징을 보여준다.
**김대환(20대)**

최근 BTS, 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한국 아이돌이 한복을 무대의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극 드라마를 통해 한복의 아름다움이 세계로 뻗어 나가며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김미니(30대)**

## 8. 비대면 플랫폼의 활성화

비대면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원격 수업, 화상 회의가 늘어났답니다.

미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참여하는 올바른 옷차림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복장과 공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편안한 복장으로 참여하면 더 집중력이 좋아질 것이다. **곽서진(10대 미만)**

원격수업의 장점은 필요한 수업을 여러 번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격수업이 꼭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윤혜원(10대)**

가정에서 원격 수업 지도가 필요한데, 특히 맞벌이 부부의 속이 새까맣게 탔다. 얼른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학교의 대면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정윤기(60대)**

## 9. SNS의 명과 암

다양해진 SNS와 강력해진 크리에이터의 영향력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래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자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건강하고 올바른 유튜버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정주원(10대 미만)**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을 보며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잃었다. 또한, 이러한 일을 진행하는 광고주들에 대한 처벌이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세대공감 팀(20대, 가족)**

나 또한 1년 반 정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었다.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적었지만 즐거웠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콘텐츠를 도전할 수 있어 행복하다. **박애령(60대)**

# 뉴스읽기 뉴스일기 참여자들의 이야기

## 정주원

코로나19로 집에만 있게 되면서, 매일 어린이신문을 읽었어요.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소식을 연필로 쓰면서 재미를 느꼈어요.
전 아직 어려서 뉴스를 읽고 쓰는 것이 무척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아홉 살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힘이 생겼답니다!

## 정유태 가족

주말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뉴스를 읽고 토론하며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외국에 있지만,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며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김아인

평소 휴대폰 사용을 많이하고, 내가 좋아하는 기사만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매일 직접 선택한 뉴스를 읽고 생각하면서 학생에게 필요한 국어 능력과 뉴스 분별력을 키우고자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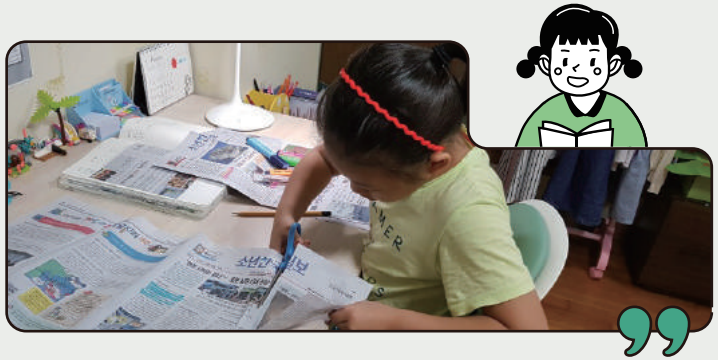
## 금휘수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으로서,
주1회 이상 꾸준히 일기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의 뉴스를 보며 사실관계와 의도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이인순

글쓰기를 좋아하는 취미를 살려 도전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읽으며 허위정보와 광고성 기사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의 어르신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손가락에 힘이 없어 글을 못 쓰는 날까지 쓸 것입니다.

# 사진으로 보는 뉴스읽기 뉴스일기



# 제2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심사평

## 어린이 저학년부 예선 심사위원(초등학교 교사)

누구나 자신의 미디어 기기를 가지고 있고 정보가 흘러넘치는 요즈음,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출처를 확인하고, 이 정보에 집중하여 꼼꼼하게 내용을 파악하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경험은 오히려 귀해졌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쓰기, 그리기와 마찬가지로 기초교육 차원에서 중요하게 강조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뉴스일기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 차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는 데 의미가 깊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심사하면서 정말 좋았던 부분은 아직 어린 나이라고 볼 수 있는 초등학생들이 뉴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들에 접근하고, 자신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정보인지 평가하며, 이를 다양한 활동으로 내면화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기가 완성되면서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전반적인 문해력, 생각의 힘이 자라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각기 저마다의 정보 접근 경험을 알차게 담아낸 뉴스일기 중, 가장 높은 평가를 준 결과물은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다양한 면면이 알차게 담겨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꾸준히 일상 속에서 뉴스일기를 실천하고, 자신이 읽은 뉴스와 이에 대한 해석을 학급 및 가족 구성원 등과 공유하여 소통하는 모습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학급에서 단체로 진행된 뉴스일기의 경우 여러 학생이 함께 같은 정보를 읽고, 해석하고, 생각을 나누는 경험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좋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작성한 뉴스일기 역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작성한 그림일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반드시 문자 미디어를 경유할 필요가 없으며, 동시에 영상이나 디지털 미디어 같은 최첨단 미디어뿐 아닌 종이와 연필, 색연필과 같은 기본적인 도구 안에서도 밀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뉴스일기는 글뿐 아니라 그림, 사진, 인포그래픽, 만화와 같은 다양한 미디어로서 완성되기에, 다양한 언어 사용자, 그리고 초등 저학년이나 유아 등 문자 미디어와 디지털 역량이 아직 부족한 학습 대상자들의 교수학습과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부분입니다.

**한 줄 평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종이와 연필, 색연필과 같은 기본적인 도구 안에서도 밀도 있게 이루어진 뉴스일기**

# 제2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심사평

## 어린이 고학년부 예선 심사위원(중학교 교사)

'속도의 시대, 과잉 정보의 시대' 속에 사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뉴스를 읽고 생각하며 한 글자씩 눌러쓴 글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뉴스를 스스로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더해 완성한 뉴스일기는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긴 호흡을 가지고 열심히 작성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영양분의 음식을 섭취하든 여러 분야의 뉴스를 스크랩하여 정리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스를 읽다가 모르는 어휘를 찾아보며 배경지식을 키우고,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글을 정리하고 갈무리하는 능력을 보여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느낌을 표현할 때도 감정을 그대로 작성하기보다는 생각과 이유를 밝히며 소감을 적은 부분도 매우 좋았습니다.

이에 더해 뉴스일기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뉴스의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 이후에, 뉴스의 내용을 자신의 삶, 가족, 친구의 이야기, 사회 현상과 연결 지어 넓고 깊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연예인, 스포츠와 같이 좋아하는 분야의 뉴스 외에도 평소에 잘 모르거나 관심이 부족한 뉴스도 두루두루 살펴보길 권장합니다. 무엇보다 하나의 뉴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의 기사에 대해 친구들의 의견을 직접 받아서 일기장에 붙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것은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라, 운동장에 나와 친구들과 손을 잡고 하는 '함께 공부'입니다.

끝으로 멋진 경험을 만들어주신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모전 소식을 알려주신 선생님, 부모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번 대회가 '뉴스읽기 뉴스일기 쓰기'의 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탐험을 떠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한 줄 평 : 뉴스일기는 '생각과 마음을 키우는 인생 공부'**

# 제2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심사평

## 청소년부 예선 심사위원(고등학교 교사)

읽기는 생각의 길을 여는 씨앗이고, 쓰기는 창의적인 표현을 위한 텃밭입니다. '읽기'와 '쓰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완숙한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읽기'와 '쓰기'는 '씨줄'과 '날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씨줄, 날줄 중에서 한 줄만 있으면 결코 아름다운 옷감을 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문자 텍스트에 기초한 읽기와 쓰기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읽기, 쓰기에 기초한 리터러시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인 창조력을 발휘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읽기, 쓰기는 깊이 있는 사유와 문제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할 학습에 필요한 필수 문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나온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들이 읽기와 쓰기에 기초하여 자기 사유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알찬 작품이 많아 반가웠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뉴스 기사를 읽고 사유한 뒤에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뉴스 기사를 비평적 관점에서 분석한 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작품, 부모와 학생 사이의 친밀감에 기초하여 뉴스 기사를 읽고 창의적으로 표현한 작품, 뉴스 기사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각을 일관성 있게 정리한 작품, 특정 기사를 읽고 주요 내용을 이해한 뒤에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소통한 작품 등을 눈여겨봤습니다.

사유의 깊이는 문자 텍스트를 읽은 글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보기만 하고 읽지 않으면 생각이 깊지 않고, 읽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생각의 논리가 부족하여 사유 체계가 혼탁해집니다. 청소년들이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꾸준히 실천하여 옹골찬 사유 체계를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읽기와 쓰기를 발판으로 '비판적 뉴스읽기', '창의적 뉴스 활용' 등의 영역으로 한 단계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한 줄 평 : 읽기는 생각의 길을 여는 씨앗이고, 쓰기는 창의적인 표현을 위한 텃밭이다.**

# 제2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심사평

## 성인부 예선 심사위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번 심사의 기준은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두었습니다. '얼마나 다양하고 폭넓은 뉴스읽기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뉴스일기 구성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뉴스 출처를 비롯한 저작권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심사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진행됩니다. 자칫 실수를 하거나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지나칠 경우, 억울한 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심사 후 녹초가 되는 것도 그 긴장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긴장감 뿐 아니라 어느새 저 스스로 즐기고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공모전 참여자들이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뉴스읽기와 비평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10대 청소년부터 70대 노년층까지 저마다의 신선함이나 연륜이 묻어있었고, 뉴스일기를 멋스럽게 장식하는 모습들도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의 모든 참가자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준비된 비평 작품들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특히 대학생 참가자들의 날카로운 뉴스 비평이나 은퇴 후에도 뉴스일기의 성실성을 보여준 참가자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실버 세대들이 공동의 뉴스일기 작품을 만들며 사회적 이슈와 생활 정보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모습도 미디어 생애사의 '찐 풍경'입니다. 덧붙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팩트체크 방법을 사용하여 더욱 정확한 뉴스 정보를 제공하려는 단체 뉴스일기의 기록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을 것입니다.

이번에 느낀 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세대별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고 뉴스 리터러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기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을 성심껏 준비하신 미디어교육팀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줄 평 : 세대를 넘는 뉴스일기는 뉴스 리터러시와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

# 제2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심사평

## 어린이 저학년·고학년부 본선 심사위원(초등교육학과 교수)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수상의 영예를 안은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에 뉴스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을 읽고 비판적 관점에서 뉴스를 분석하며 무엇보다도 이를 일상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어쩌면 21세기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미 그런 능력을 갖춘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공모전에 참여하실 분들께 '깊게 읽기'와 '넓게 읽기'의 측면에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깊게 읽기'를 위해 첫째, 뉴스 기사를 그대로 옮겨 적거나 발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분석한 내용을 자신의 말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이 둘 간에 논리적 연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셋째, 언어적 표현의 뉘앙스, 사진이나 이미지 뒤에 숨은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권장할 만한 읽기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넓게 읽기'를 위해 첫째, 오늘 선택한 뉴스에 대해 여러 언론사의 다양한 관점을 두루 살펴보며 읽기를 권합니다. 둘째, 오늘 읽은 뉴스 기사가 나 자신,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셋째, 지면을 넘나들며 읽기를 권합니다. 사회면에 실린 뉴스는 정치면, 경제면, 또는 문화면의 또 다른 뉴스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뉴스는 나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해 보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 직장동료, 가족 간에 나눔 일기나 공동 일기를 써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뉴스일기에 동참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뉴스 리터러시가 날로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줄 평 : 뉴스일기는 비판적 관점에서 뉴스를 분석하고 이를 일상적으로 기록하는 습관**

# 제2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심사평

## 어린이 저학년·고학년부 본선 심사위원(초등학교 교사)

학교에서 20년간 학생들의 일기를 읽어왔습니다. 하루 중 재미있었던 경험을 쓰는 친구, 일과를 일정표처럼 나열하는 친구, 쓰기 싫은 마음에 억지로 두어줄 써내려가는 친구. 다양한 일기를 접하며 하나하나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일기를 통해 선생님과 소통하고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일기를 읽고 댓글을 써주며 아이들이 일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좋은 인연으로 공모전 심사에 참여하게 되어 다양한 일기를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생활 일기가 아닌 뉴스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일기였습니다. 모르는 낱말을 찾아가며 꼼꼼하게 내용을 정리한 일기도 있었고, 편하게 뉴스를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글도 있었습니다. 기사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자료를 찾아 분석한 일기,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여 비교한 일기도 많았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읽어보기는 어려웠지만, 뉴스일기를 쓰며 골똘히 집중하는 학생들의 표정은 마치 제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8일 <경향신문> 탁지영 기자는 '주린이·요린이, 어린이를 왜 초보라는 뜻으로 쓰시나요.'라는 글을 썼습니다. '주린이', '요린이',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표현이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글을 읽으며 점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늘 어린이를 만나고 접하는 선생님이 '어린이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무의식중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글을 뉴스일기 심사 전에 읽었다면 어땠을까?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통해 세상을 만나고 만남을 통해 세상과 이야기 나누는 방법을 배워가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에 더 공감하고, 감동하며 읽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심사자'라는 우월감에 저의 미숙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훨씬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느끼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생들의 일기를 읽고, 여전히 댓글도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얕잡아보는 몇 마디의 잔소리보다 함께 공감하는 댓글을 더 많이 써봐야겠습니다.

**한 줄 평 : "얕잡아봐서 미안해."**

# 제2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심사평

## 어린이 저학년·고학년부 본선 심사위원(언론인)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가진 뉴스일기가 특히 반가웠습니다. 난민, 배달 라이더 처우 개선, 일본군 '위안부', 여성 안전, 층간 소음, 선거 보도, 기후 위기 등의 주제에 관해 쓴 일기들에 비교적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논쟁적인 현안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 생각해야 하고, 가끔은 다른 자료도 찾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등학생에게는 벅찰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주제에 도전해 자신만의 의견을 적어 놓은 일기들이 많았습니다. 비판적인 의견을 써 놓은 부분은 특히 공들여 읽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무슨 문제를 겪고 있는지 공부하고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다만 특정 계층이나 성별을 차별하는 내용도 극소수지만 있었습니다. 뉴스일기 작성 후, 지도 선생님이나 동급생, 동료들과 토의하며 생각을 가다듬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일기 노트는 대부분 부풀어있었습니다. 쓰고, 그리고, 붙이느라 노트가 뚱뚱해진 거지요. 이렇게 꼼꼼하고 깊이 있게 기사를 읽는 독자가 많다는 사실을 기자들은 자주 잊습니다. 아는 기자 후배에게 "네 기사로 뉴스일기를 쓴 분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니, 깜짝 놀라더군요. "그 기사, 잘 쓴 것 맞겠지요? 잘 썼어야 할 텐데……." 정보를 까다롭게 소비하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언론도 사회도 건강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뉴스일기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봅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줄 평 : 열정 담은 뉴스일기에 박수!**

# 제2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심사평

## 청소년·성인부 본선 심사위원(고등학교 교사)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심사를 앞두고, '뉴스'라는 가장 개방적이고 공적인 미디어가 '일기'라는 가장 비밀스럽고 사적인 글쓰기와 어떻게 만나게 될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뉴스일기'는 세상과 내가 만나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일기'이기 때문에 그 만남의 양상은 '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세운 기준은 '나의 생각을 갖고 뉴스를 읽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물론 '나의 생각'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뉴스와 소통하면서 나의 생각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변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합리적이면서 더 나아가 성찰적이라면 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공모전 참여 작품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일기라는 글쓰기 속에서 참여자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깊이 있게 뉴스와 소통하는 모습에 적잖이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뉴스일기는 재밌는 놀이였습니다. 뉴스가 전하는 세상의 모습들이 어린아이의 천진한 감성을 거쳐 알록달록한 그림으로 그려지는 과정이 신선했습니다. 청소년의 뉴스일기에서는 지적으로 단련되고 도덕적으로 성숙해가는 청소년들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의 뉴스일기는 미디어 비평이 갖춰야 할 날카로운 분석력이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성인 분들은 삶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시선이 뉴스를 얼마나 깊고 넓게 통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을 줄 아는 교양 시민들이 저절로 만들어질 리는 없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학교와 가정,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묵묵하게 미디어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공모전을 통해 우리 시민사회의 역량과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한 줄 평 : 뉴스일기는 '뉴스'라는 가장 개방적이고 공적인 미디어가 '일기'라는 가장 비밀스럽고 사적인 글쓰기의 만남이다.**

# 제2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심사평

## 청소년·성인부 본선 심사위원(대학 미디어스쿨 교수)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이 2회를 맞이하면서 응모작의 수준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출품된 뉴스일기마다 개성이 넘쳤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룬 언론사 기사 2 ~ 3개를 함께 읽으며 관점을 비교한 일기, 자신의 생각과 함께 주변 친구들의 의견까지 취재해서 쓴 일기, 뉴스 분석 틀에 따라 뉴스의 행간을 읽어낸 분석적인 일기까지 다양한 형식의 뉴스일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뉴스에서 다룬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뉴스일기는 세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요즘처럼 정제되지 않은 뉴스들이 많은 시대에는 뉴스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해보는 뉴스일기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뉴스에 잘못된 고정관념은 없는지 등을 생각해보면서 뉴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이해해보는 일기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인 부문에 제출한 한 어르신들의 뉴스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뉴스에서 주장한 의견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고민해보는 뉴스일기였습니다. 뉴스의 내용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도 성찰적으로 반성해보는, 그야말로 뉴스 리터러시의 핵심인 비판적 사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뉴스일기의 좋은 사례였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뉴스일기마다 정성스럽게 달린 선생님의 코멘트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학생 글을 평가하거나 선생님의 생각을 강요하는 글이 아니라, 학생들이 뉴스를 읽으면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 학생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해주신 선생님이 계셨기에 뉴스일기가 의미 있게 완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줄 평 :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도 성찰적으로 반성해보는, 그야말로 뉴스 리터러시의 핵심인 비판적 사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뉴스일기**

# 제2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심사평

## 청소년·성인부 본선 심사위원(언론인)

공모전 개요를 살펴봤을 때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등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심사를 하면서 대부분의 출품작이 뉴스를 꼼꼼히 읽고 정성스럽게 작성됐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특히 공모전 참여를 위한 보여주기식 기록이 아닌 실제 교육과 생활에서 꾸준히 활용해온 흔적이 많아 인상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뉴스일기를 작성했기에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정보를 정리하거나 개인의 '느낀 점'만 말하는 일기보다는 '비판적 이해'의 흔적이 담긴 일기에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뉴스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읽어내고, 비평하는 작업이 '뉴스 리터러시'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읽고 학급 친구들과 토론하고, 뉴스 속에 등장한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메시지 분석 모델을 활용해 뉴스를 구성 요소별로 해체하고, 여러 보도를 비교하면서 비평한 출품작들이 '비판적 이해' 취지에 맞는 일기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수였지만 같은 사안을 다룬 여러 언론의 보도를 비교하면서 비평한 일기가 이상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일기를 쓴 참가자들은 뉴스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같은 사안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뉴스에 대한 비판적 소비, 그리고 능동적 소비가 강조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 속 뉴스의 건당 체류 시간은 대체로 30초 미만에 그칩니다. 제목만 보거나, 대충 훑어보는 식의 뉴스 소비가 일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뉴스일기를 통해 뉴스를 하나하나 스크랩하고 메시지를 곱씹으며 분석하고 비평하기까지 했습니다. 뉴스일기는 시민 스스로 뉴스를 능동적으로 소비하며, 뉴스의 가치를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작업입니다.

**한 줄 평 : 뉴스의 가치를 끌어올리다.**

# 뉴스·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가이드

# 어린이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실천·지도 가이드

## 01 미디어는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1.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2. 같은 내용이 미디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보세요.
3. 미디어에서 보이는 모든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세요.
4.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을 반영하고 존중하는지 알아보세요.
5. 미디어 속에 숨겨진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 02 정보를 검색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뉴스나 정보, 메시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2. 왜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했을지 제작자의 의도를 생각해보세요.
3. 해당 콘텐츠에 포함된 시각자료(사진, 영상, 그래픽, 통계 자료 등)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4. 개인적 관심이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됐는지 고민해보세요.

## 03 정보를 판별할 수 있나요?

1. 자료가 믿을 만한지 살펴보세요.
2. 한쪽의 입장이나 주장만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3.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을 반영하고 존중하는지 알아보세요.
4. 정보에 포함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 04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1. 스마트폰을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하고 있는지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세요.
2.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고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3. 스마트폰은 내 삶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4.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적인 일들을 하면 안돼요.

## 05 온라인에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올바른 대화 예절을 지켜주세요.
2. 비속어나 은어, 욕을 사용하지 마세요.
3. 대화 창에서 공유한 여러가지 시각자료(사진, 영상, 그래픽, 통계 자료 등)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4. 서로의 생각과 관점을 존중하며 대화하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06 댓글을 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사회적 약자나 소수의 입장을 고려하고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2.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는지 댓글을 쓸 때 확인하세요.
3. 댓글을 달 때 대화할 때처럼 예절을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 07 온라인게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연령에 맞는 게임인지 확인해보세요.
2. 제한된 시간보다는 미션을 기준으로 게임을 종료해보세요.
3. 스스로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4. 게임이용시 비용이 발생할 때는 부모님과 상의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 08 유튜브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나의 방문기록을 꼭 확인하세요.
2. 나의 연령에 맞는 영상인지 판단해보세요.
3. 구독자 수를 늘이기 위해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4. 부적절한 콘텐츠는 다른 사람을 위해 신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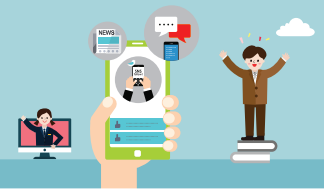
## 09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저자(제작자)는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보세요.
2. 공정한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로 이뤄진 합법적인 사이트인지 알아보세요.
3. 다운로더로서 윤리와 규범을 지키면서 콘텐츠를 이용해야 해요.
4. 다른 사람의 권리나 저작권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 10 1인 방송을 기획하거나 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메시지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2.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세요.
3.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요.
4. 나의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세요.
5.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과 방식으로 접근해보세요.

#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실천·지도 가이드



## 01 미디어에는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어떤 목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었을지 생각해요.
2. 미디어 콘텐츠를 누구와 공유하고 싶은지 생각해요.
3. 콘텐츠 생산자는 믿을만한 사람인지 생각해요.
4. 양쪽의 주장을 모두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요.
5. 미디어 속 정보가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해요.

## 02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해야합니다.

1. 대중매체를 통해 미에 대한 선망과 모방심리를 심어줄 수 있어요.
2. 우리는 미디어 속에서 보여주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해 평가 권리가 있어요.
3. 이상적인 외모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미디어는 왜 만들어졌을지 한 번 생각해요.
4. 미디어 메시지가 나의 주목을 끌기 위해 어떤 기법을 활용했을지 생각해요.

## 03 미디어 속 '정보 검색'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1.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검색할 수 있음을 이해해요.
3. 검색어는 찾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 단어를 선택하세요.
4. 정보를 검색할 때 다양한 검색 기법을 숙지한 후에 검색하세요.
5. 활용한 미디어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요.

## 04 미디어 속 정보로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단계별 문제해결과정을 이해해요.
2. 브레인스토밍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을 이해해요.
3. 다양한 미디어 정보자원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4. 검색한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내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공유해봐요.
5.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요.

## 05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해야합니다.

1. 스마트폰을 장시간 이용하면 안구 질환이나 거북목 증후군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2. 스마트폰 사용 '종료시간' 알람을 정해 '수면골든 타임'을 지켜주세요.
3.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얼굴 보며 대화해 보세요.
4.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지켜요.
5. 보행할 때는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가방에 넣어요.

## 06 온라인 게임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합니다.

1. 온라인 게임과 관련하여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이해해요.
2. 게임중독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3.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게임을 즐기는 시간, 유형 등에 서로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도록 노력해요.
4. 게임 거래 전 상대방 전화와 계좌번호를 사이버 캅에서 조회하여 이전 피해 신고내역을 확인하세요.
5. 타인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마세요.

## 07 1인 미디어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1. 유튜브는 '누구나' 영상을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이에요. 따라서 내용과 거짓 정보를 올려도 검증 없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2. 유료서비스 구입은 부모님과 상의하여 신중하게 행동해요.
3. 1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가치 있는 정보인지 판단해보세요.

## 08 가짜뉴스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1. 뉴스의 출처를 확인해요.
2. 뉴스의 작성자가 실존 인물인지,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확인해요.
3. 뉴스를 뒷받침하는 정보가 실제 맞는지 판단해요.
4. 뉴스가 제작된 날짜를 확인하여 오래된 뉴스를 재탕하거나 가공한 건 아닌지 확인해요.
5. 상반된 입장을 모두 담고 있는지 확인해요.

## 09 온라인 상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1.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해요.
2.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도록 해요.
3. 상대방이 싫어하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지 않아요.
4. 인터넷에 누군가의 신상 정보를 퍼뜨리지 않아요.
5.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심부름 시키지 않아요.

## 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가입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요.
2.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친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3. PC방 등에서 인터넷 로그인 시 자신의 ID나 비밀번호가 저장되었는지 확인하세요.
4.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하지 않아요.
5.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하세요.

## 11 저작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1.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음원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요.
2. 저작권법상 특정 영화 포스터를 비평 또는 풍자를 목적으로 패러디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저작자의 이익을 해치면 저작권법에 위배돼요.
3. 버스킹 공연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SNS에 올리는 것은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 침해라는 점을 이해해요.
4. 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CCL 마크)을 미리 파악해요.
5. 내가 만든 미디어 저작물에 CCL을 표시해요.

# 20대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실천·지도 가이드

**01 이 메시지는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신문 기사, TV 프로그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등과 같은 미디어 메시지는 우연히 혹은 자연스럽게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빌딩을 건축하거나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정밀하게 설계된 도면에 따라 만드는 것처럼 미디어 메시지 역시 누군가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처럼 보이는 뉴스조차도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늘 유의해야 합니다.

**02 메시지는 어떤 언어적 기법이나 설득기법을 사용하고있는지 생각해봅니다.**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그것이 신문이든, TV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이든 그 자체의 독특한 언어를 가집니다. 신문 1면의 헤드라인은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것이며, 카메라가 피사체를 클로즈업하는 것은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음향과 시각 언어는 인간의 정신세계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요소로, 미디어 경험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하거나 즐거움을 배가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기법을 사용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잊게 만듭니다. 따라서 미디어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나 기법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03 똑같은 메시지인데 사람들은 왜 다르게 인식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미디어 메시지를 접할 때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미디어 메시지와 상호작용 합니다. 누군가는 특정 메시지를 드러난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그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미디어 텍스트에 연령, 성, 교육, 문화적 기반 등 자신만의 독특한 생활 경험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04 이 메시지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배제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미디어 메시지는 속성상 그 내용들이 구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텍스트 안에 어떤 형태로든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든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고 메시지를 구성했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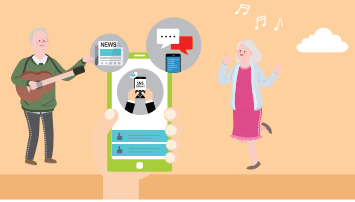
**05 이 메시지는 왜 혹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봅니다.**

미디어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깨우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파워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이익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과 이익을 동시에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동기들이 반드시 좋거나 나쁘지는 않지만 메시지를 만들 때는 항상 목적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미디어 메시지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 스무고개로 넘는 허위정보 판별 가이드

1. 원래의 정보를 누가 만들었나요?
2. 메시지를 만든 곳은 신뢰할 만한 사람 혹은 기관인가요?
3. 웹사이트 주소나 URL은 정확한가요?
4. 콘텐츠나 게시물에 나오는 출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가요?
5.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출처는 정확한가요?
6. 나에게 SNS 정보를 보내주거나 나를 위해 포스트한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인가요?
7. 지금 보고 있는 게시물을 다른 일반 언론사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나요?
8. 콘텐츠나 게시물에서 철자나 맞춤법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나요?
9. 콘텐츠나 게시물이 약물이나 대문자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요?
10. 해당 정보가 게시된 날짜가 최근 것인가요 아니면 오래된 것인가요?
11. 사진이나 이미지는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나요?
12. 사진이나 이미지는 원본인가요 아니면 변형된 것인가요?
13. 격한 분노나 희열을 느끼게 하는 자극적인 내용인가요?
14. 정보나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의견인가요?
15. 주장이나 관점은 사실이나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16. 주장이나 관점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17. 해당 정보나 게시물의 내용이 전체인가요 아니면 일부만 있는가요?
18. 해당 게시물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요?
19. 해당 정보나 게시물에 상업적 목적이 있지 않나요?
20. 내 스스로 해당 정보나 게시물에 편견을 갖고 있지 않나요?

# 실버세대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실천·지도 가이드




**01 미디어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1. 미디어에 대해 알아보세요.
2.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자산에 위협이 됩니다.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3. SNS(소셜미디어)에는 남이 봐도 되는 것만 올리세요.

**02 미디어를 건강하게 이용하려면?**

1. 건강한 몸 : 눈, 목, 손목, 두뇌 건강에 유의하세요.
2. 건강한 마음 : SNS(소셜미디어) 속 모습은 '보여주려고 올린 장면'임을 기억하세요.
3. 건강한 관계 : 사람들과 만날 때는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03 미디어를 매너 있게 이용하려면?**

1. 대화내용을 옮기지 마세요.
2. 직접 만나서도 할 수 있는 말인지 생각하세요.
3. 네티켓 10계명을 지키세요.

**04 미디어를 윤리적으로 이용하려면?**

1. TPO(Time-시간, Place-장소, Occasion-상황)을 가려 사용하세요.
2. 찍히는 사람의 초상권을 존중하세요.
3. 사실을 말해도 사이버 명예훼손이니 조심하세요.

**05 미디어를 생산적으로 이용하려면?**

1. 혈연, 학연 말고 커뮤니케이션 연줄을 만드세요.
2. 나이는 문제가 안 됩니다. SNS(소셜미디어)로 시작하세요.

**06 뉴스나 정보, 메시지를 읽을 때 어떻게 하죠?**

1. 뉴스나 정보, 메시지는 '만든 것'임을 잊지 마세요.
2.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확인하세요.
3. "○○ 카더라!"라며 퍼지는 정보를 선뜻 믿지 마세요.
4. 고의적으로 만든 '가짜' 뉴스는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계세요.
5. 뉴스 편식을 피하려면 자동 추천 영상 대신 직접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07 댓글을 쓸 때 어떻게 하죠?**

1. 내가 쓴 댓글을 사람들이 읽습니다. 예의와 품격을 갖춰 댓글을 쓰세요.
2. 속도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천천히 확인하고 댓글을 써도 늦지 않습니다.
3. 악성댓글을 쓰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08 남이 만든 콘텐츠(음악, 영상, 그림 등)를 이용 · 공유할 때 어떻게 하죠?**

1. 대부분의 창작물 콘텐츠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2. 합법적으로 사용하세요. 베토벤과 피카소는 무료입니다.
3. 사진 제공 사이트를 이용할 때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라이선스, 캡처, 이름표시)
4. 내가 먼저 읽어보고 추천할 만하면 공유하세요.

**< 네티켓 10계명 >**

| 버지니아 셰어의 10가지 원칙* | 현재에 적용 |
|---|---|
| ① 인간임을 기억하라. | 상대는 나처럼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말에 기뻐하거나 상처받는 '사람'이 저 쪽에 있습니다. |
| ②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기준과 행동을 고수하라. | 사이버 공간의 윤리기준은 실생활과 같습니다.<br>실제로 만나서 얼굴 마주보며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세요. 실제로 못하는 말은 SNS에서도 하지 마세요. |
| ③ 현재 자신이 어떤 곳에 접속해 있는지 알고, 그곳에 어울리게 행동하라. | 사이버 공간에서 내가 가입한 커뮤니티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br>내가 가입한 모임의 특성에 맞게 말하고, 토론하고, 반응하세요. |
| ④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라. | 정보를 올릴 때 남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배려하세요.<br>남에게 불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면 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
| ⑤ 온라인에서도 교양인으로 보여라. | SNS에 올린 글과 이미지로도 그 사람의 성격, 생각, 윤리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br>나의 내면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 ⑥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라. | 전문가를 만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전문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br>정보를 공유하면 감사를 표하세요. |
| ⑦ 논쟁은 절제된 감정 아래 행하라. | SNS에 올린 글은 순식간에 지구 저편까지 전달됩니다.<br>말을 절제하기 어려울 때는 스마트기기 전원을 꺼도 됩니다. |
| ⑧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라. | 남의 일정, 동정, 사진첩을 시시콜콜 파고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합니다. |
| ⑨ 당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 트위터 같은 SNS는 '권력관계가 드러나는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br>SNS에서 유명인 또는 권력자라면 그 힘을 선하게 사용하세요. |
| ⑩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라. |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황금률은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됩니다. |

# 학부모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실천·지도 가이드

## 미디어 이해

**1 미디어의 정의를 알려주세요.**

- ▶ 미디어는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 ▶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에 접근하고, 작동하는 원리와 콘텐츠를 분별 있게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2 아이들이 친숙한 미디어의 특징을 살펴보세요.**

- ▶ 광고는 이익창출이라는 상업적 속성을 가집니다.
- ▶ 애니메이션에서 전달하려는 정확한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 ▶ 웹툰은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를 뜻하며 독특한 심미적 형식을 가집니다.
- ▶ 뉴스는 사회적, 정치적 속성과 이데올로기 및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 미디어 이용

**3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허용시기를 고민해 보세요.**

- ▶ 만 2세 이하 : 언어인지능력 발달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이용은 만 3세 이상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 ▶ 만 2~6세 이하 : 이용 규칙을 만들어 부모와 함께 습관을 잡아갑니다.
- ▶ 초등학생 이상 : 이용 약속을 스스로 정하고 과의존을 점검합니다.

**4 미디어 활용 연령별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합니다.**

- ▶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별 등급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 게임은 제품마다 사용가능 연령이 다르고 셧다운제 등 제한이 있습니다.

**5 공교육에서 지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심 가져주세요.**

-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활동을 성취기준에 맞추어 교육합니다.
- ▶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미디어 일기 쓰기를 하면 좋습니다.

## 미디어 소비

**6 미디어의 순기능을 알고 사용하게 해 주세요.**

- ▶ 미디어의 순기능에는 환경감시, 상관조정, 사회유산의 전수, 오락 기능이 있습니다.
- ▶ 다양한 SNS를 사용할 때 정신과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7 미디어의 역기능을 이해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 미디어로 인해 세뇌와 중독이 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 보여주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막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등 비판적으로 읽도록 합니다.
- ▶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미디어 생산

**8 미디어를 생산할 때에는 다음을 알고 지키도록 지도해 주세요.**

- ▶ 미디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대로 알고 생산하도록 지도합니다.
- ▶ 가짜뉴스나 낚시성 기사를 만들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 ▶ 타인의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침해 등의 법적인 문제에 주의하도록 지도합니다.

**9 미디어 콘텐츠에 저작권이 있음을 알려주세요.**

- ▶ 저작권은 뉴스, 그림, 사진, 일기, UCC 등 모든 저작물에 주어집니다.
- ▶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10 미디어로 미래를 탐색해 볼 수 있으며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 ▶ 미디어를 통해 미래 사회를 엿볼 수 있으며 미래 유망직업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 미디어 상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유튜버 등 미디어와 관계된 직업 등을 통해 직업윤리를 생각하게 지도합니다.

#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뉴스 분석법(틀)

| 확인사항 | | 질문 |
|---|---|---|
| 분석 | 생산자 | ∴ 이 뉴스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작성자가 언론인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직업, 역할 등) 인가요?<br>∴ 이 뉴스의 발행기관(언론사 등)은 어디인가요? ∴ 생산자는 왜 이 뉴스를 만들었을까요? (뉴스가치) |
| | 구성 요소 | ∴ 이 뉴스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 이 뉴스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누구인가요?<br>∴ 이 뉴스에는 포함된 시각자료(사진, 영상, 그래픽, 통계 자료 등)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이 뉴스는 6하 원칙에 맞게 작성되었나요? |
| | 의미 구성 | ∴ 이 뉴스의 제목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뉴스에 포함된 사진이나 이미지가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br>∴ 뉴스에 포함된 사진이나 이미지가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이 뉴스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요? ∴ 이 뉴스에 포함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나요? |
| | 이용자 | ∴ 누가 이 뉴스에 관심을 가질 것 같나요? ∴ 이 뉴스에서 제기한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br>∴ 이 뉴스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나요? 싶다면 왜, 누구와 공유할 것인가요?<br>∴ 이 뉴스에서 제기한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
| 평가 | 신뢰성 | ∴ 작성자는 믿을만한가요? (작성자 이름, 소속 등 명시) ∴ 취재원은 믿을만한가요? (취재원 명시, 취재원의 전문성과 다양성 등)<br>∴ 인용된 자료가 믿을만한가요? (검증된 자료 등) ∴ 취재 과정은 믿을만한가요? (직접 취재, 사실관계 확인)<br>∴ 추측에 근거한 보도 내용이 있나요? ∴ 작성자(언론사)가 보도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나요? |
| | 완전성 | ∴ 제목이 보도 내용을 잘 반영했나요? ∴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나요?<br>∴ 사건의 배경, 원인, 대안 등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나요? ∴ 사회적 약자나 소수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나요?<br>∴ 한 쪽의 입장이나 주장만 제시했나요? ∴ 해당 사안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했나요? |
| | 유용성 | ∴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나요? ∴ 사회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하는 규범이나 사회적 가치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나요?<br>∴ 개인적 관심이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됐나요? ∴ 주변 사람과의 대화나 토론에 도움을 주나요?<br>∴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나요? |

출처 김경희·이숙정·정용국·권진희·진소연·심하영 (2017).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뉴스 분석법, 한국언론진흥재단, 6쪽.

'대체 어떤 뉴스를 믿어야 하지...'
Twitter
종이신문
인터넷 뉴스
Youtube
Facebook
TV

그럴 땐,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해봐!

뉴스와 함께하는 너만의 일기로 정보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거야~

고마워, 관심있는 뉴스를 읽고 내 생각을 정리해볼게!

구성 : 미디어교육팀 이수연 인턴

# 2021 미디어 교육사업 한눈에 보기(연간 사업 계획)

*본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업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온라인 교육 | 온라인과정(유/초/중 3개 과정) | | <---------- 위탁업체 선정 후 연중 개설 ----------> | | | | | | | | | | |
| 학교 미디어 교육 | [교강사] 교사 직무연수 (유/초등/중등) | | | | | 5회 (기획특강) | | 1회 (중/고등) | 1회 (고등) | | 1회 (중/고등) | 2회 (중/고등) | |
| | [교강사] 교사 자율연수 | <---------- 교사 모임과 함께 탄력적인 형태로 수시 개설 ----------> | | | | | | | | | | | |
| | [교강사] 사서연수 | | | | 1회 | | | | | 1회 | | | |
| | [사업]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지원 | 공모 ~ 2.16 발표 2.19 | | <----------> | | | | | | | | | |
| | [사업] 자유학기제 지원 | 공모 ~ 2.16 | | <----------> | | | | | | | | | |
| | [사업] 대학 뉴스읽기 강좌 지원 | 심사 (1학기) | | | | 공모 (2학기) | 심사 (2학기) | | | | | | 공모 (22' 1학기) |
| | | | | <----------> 사업수행(1학기) | | | | | | <----------> 사업수행(2학기) | | | |
| | [사업] 미디어리터러시아카데미 (사실확인) | | 입찰준비 | <----------> | | | | | | | | | |
| | [사업] 서울시교육청 위탁협업 | | | <---------- (교사/학생/학부모/교육공무직등) ----------> | | | | | | | | | |
| 사회 미디어 교육 | [사업] 신문사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위탁 운영 | | | 공모 | 심사·발표 계약체결 | <---------- 사업수행(4월~) ----------> | | | | | | | |
| | [사업] 미디어교육 시설/ 단체지원 교육위탁운영 | | 공모, 심사 | | 계약체결 | <---------- 사업수행(4월~) ----------> | | | | | | | |
| | [사업] 대학지역사회 연계 지원 | | 공모 2.9 ~ 3.3 발표 3.10 | | <---------- 사업수행(4월~) ----------> | | | | | | | | |

*본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업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사회 미디어 교육 | [사업] 평생교실 강사 파견 | 공모, 선정(2월) | | <---------- 사업수행(3월~) ----------> | | | | | | | | | |
| | [교육] 1인 크리에이터 교육 | | | | | | | 교육 | 교육 | | | | |
| | [교육] 군과 미디어 위탁과정 (정훈장교 교육) | | | | 교육 | | | 교육 | | | | 교육 | |
| 미디어 교육 인프라 구축 | [강사] 미디어교육사 자격증제도 개발 | <---------- 입찰준비(4월) / 사업수행(5월~) ----------> | | | | | | | | | | | |
| | [강사] 미디어강사 보수교육 | | 2회(방학) | | | | | | 2회(방학) | | | | |
| | [사업] 미디어교육 학습공동체 지원 | | | 공모, 심사 | | <---------- 사업수행(5월~) ----------> | | | | | | | |
| | [사업] 미디어리터러시 인정교과서 및 지도서 개발(초등5,6학년용 / 중학생용) | | 입찰준비 | <---------- 사업수행(3월~) ----------> | | | | | | | | | |
| | [사업] 온라인 수업지도안 개발 튜터 지원 | | 공모 ~ 2.18 발표 2.26 | <---------- (~22.2월) ----------> | | | | | | | | | |
| | [사업] 온라인 연수프로그램 개발 | <----------> | | | | | | | | | | | |
| | [행사] 청소년 체커톤 | | | | | | 선발 | <----------> | | | | | |
| | [행사]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 | | | | | | | | | 행사 (10.31) (저널리즘주간) | | |
| 읽기문화 진흥 | [행사] 뉴스읽기, 뉴스일기 | | | 접수 | 심사 | 시상식 | <---------- 일기장 배포 / 작성 독려 콘텐츠 송출 ----------> | | | | | | |
| | [사업] SNS 운영 및 계간 미디어리터러시 발간 | | | | 봄호 발간 | | | 여름호 발간 | | | 가을호 발간 | | 겨울호 발간 |

수상 대표작 모음

# 이사장상

**<천사의 날개>**

**김찬미** / 팔마고등학교 2학년

## 수상소감

제2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수상자 명단 제일 위에 제 이름이 나왔을 때,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면서 또르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묻는 부모님께 저는 '진짜 맞아? 꿈이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그런 건지, 늘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이루어져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태어나서 이런 기분을 처음 느꼈습니다.

이 뉴스일기 제목을 '천사의 날개'라고 한 것이 정말 큰 의미가 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꿈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활용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던 유익한 경험이었기에 제목을 정했지만, 이사장상 수상이라는 더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인과 친척에게도 수상 사실을 알리고, 그날 밤 잠을 못 이루었을 만큼 생애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 느낀 점

처음 뉴스일기를 작성할 때는 기사 선택, 내용 정리, 생각 정리 등에 대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사를 살펴보고 정리를 해나가면서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기사에 대한 내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는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참고하며 정리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어느 한쪽의 기사만 보면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가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기사를 바로 받아들이기보다 다른 언론사의 비슷한 기사를 통해서 내용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사를 읽고 정리하고 충분히 생각하는 습관을 기를 것입니다.

## 뉴스일기 작성 TIP!

일기 작성 전, 가장 먼저 신문을 훑어보면서 인상 깊거나 많은 사람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사를 선택했습니다. 뉴스일기는 뉴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일상적으로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기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기사와 비교 분석을 하며 신중하게 다른 점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 편지 쓰기, 나의 창작, 카카오톡, 자유로운 정리, 기사 스크랩, 질문 형식, 다양한 언론사의 같은 기사 비교 분석 등 8가지의 색다른 방법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사는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또 일기를 작성하면서 떠오르는 관련된 경험을 일기에 담으면 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NO. 1

일기 제목 : 출격 피하려 '채용중단' 택한 기업들… '청년 고용위기' 현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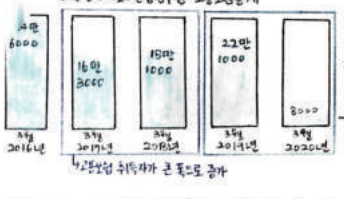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5 월 25 일 | 언론사 | 연합뉴스 (경향신문) |
| 기사발행일 | 2020 년 5 월 25 일 | 기자명 | 남지원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지난 3월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좋은 일자리'에 신규 취업한 인력이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실업자에게 실업 보험금을 주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국내기업들이 코로나 19 출격파를 견디기 위해 '고용 유연화'보다 '채용중단'을 택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 하는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가 줄어들면 1차적으로는 취업 준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할 수 없고, 부득이 실업이 되도 2차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재취업에도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경력 대비 고용보험 취득자 수 증가" 그래프

연합뉴스 · 자료: 산업연구원 · 고용보험통계




↳ 고용보험 취득자가 큰 폭으로 증가

"김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입장

주로 고용 및 인권문제를 다루는 역할인 김주영 연구위원은 "3월에는 고용보험 취득자가 크게 보이는 게 보통인데 올해 3월은 사실상 신규채용을 한 기업이 없었다고 봐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뿐아니라 주로 대기업들 까지 상반기 공채를 취소하거나 미루는 현상이 나타났다.

→ 고용보험 취득자가 큰 폭으로 감소

하지만 3월 기준 전월 대비 고용보험 상실자 수 증가폭은 청년과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는 코로나 19 사태에도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계층보다는 앞으로 진입해야할 청년세대 등 구직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한다.

"정부"의 역할

정부는 지난달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을 내놓는 등 예산을 쏟고 있지만 재직자 고용유지와 실업자 생계지원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의 내용

'현재 신규채용의 정체적 주안점은 공공 일자리 창출인데 이는 산업과 경제 기여도가 제한적이고 비생산적인 에너지의 한시적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제조업발 고용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고 한다. 그 이유는 서비스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생산과 고용충격을 거의 동시에 받았지만, 제조업은 생산 충격이 고용으로 전달되는데 시차가 있어 아직 고용 악화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드러나)

"산업연구원 관계자"의 입장

"현재 제조업 생산 충격이 큰 다음 코로나 19로 인한 생산 자본 감소가 가속되면 고용 영향이 더 큰 것"이라며 "업종별로 상황의 내용과 속도 조정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O. 1

일기 제목 :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5 월 25 일 | 언론사 | 연합뉴스 (경향신문) |
| 기사발행일 | 2020 년 5 월 25 일 | 기자명 | 남지원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핵심내용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3월 고용보험 신규 취득 전년보다 96% 급감, 청년 피해 집중
줄어든 취업자 중 82%는 취약계층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규채용 감소 맞춤 대책·제조업발 고용 악화도 대비해야"

이 뉴스기사의 댓글에는 "현실히 노력은 자가 대부분고, 실패한 자를 돕는 정도가 목표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노력하고 끈기가 있으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경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현실을 외려 강자와 약자를 도와야 하는 세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 같았다. 결국 이 기사는 강자와 약자의 기회를 모두 빼앗아 갔다고 볼 수 있었다. 이 기사를 보면 과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어쩔 수 없었던 기업을, 위기를 겪는 청년들의 관점이다.

"기업"의 관점

「피해의 최영 변화에 인적자원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 및 재배분하는 고용유연화 보다는 코로나 19의 출격파를 견디기에 적합한 것 어쩔 수 없지만 '채용중단'이 답이다

"위기를 겪는 청년들"의 관점

「최선의 선택이 '채용중단' 이었다면 소수의 경력직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이 뉴스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도 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동의 고기기 입장이 나왔다.

뉴스읽기 작성 전 생각 (읽기 전)

제목만 보았을 때는 청년들에게 고용위기가 일어나서 안타깝다고 생각했고 주변에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향후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고용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전망성이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뉴스읽기 작성 후 생각 (읽은 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좋지만 어쩔 수 없었던 기업의 입장도 생각해보면 과거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더욱 일자리를 상황처럼 느껴졌다.

김기자

김기자
안녕하세요. OOO 님
저는 뉴스기사 회사의 김기자라고 합니다.
혹시 현재의 고용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경력없이는 거의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자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위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일할 수 있는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채용는 거의 하지 않았고 지금은 아예 필기에로 취업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적용되는 일자리가 줄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기자
하지만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일이 없어서는 도움이 되니 소수 경력직을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경력도 중요하지만 노력이 곧 내부고 경력을 쌓는 게 아닌가요? 경험이 없다면 경력이 없어도 적장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NO. 4 일기 제목 :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플라스틱과 재탄생!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6 월 5 일 | 언론사 | 아이뉴스24 |
| 기사발행일 | 2020 년 6 월 5 일 | 기자명 | 장유미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라벨 없애고 가방 만들고"... 생수업계, 플라스틱 감축 앞장」

- 제주삼다수·아이시스 등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 나서 -

생수업계가 플라스틱 페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환경 솔루션에 앞장서 주목 받고 있다. 생수 용기가 플라스틱 페기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제주개발공사와 롯데칠성음료, 농심, 풀무원, 오리온, 하이트진로 음료 등이 플라스틱 사용 절감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니트백('플라스마마 제주 에디션'): 제주개발공사는 이달부터 제주에서 배출된 페트병을 재생섬유로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니트백을 출시한다. 이 제품은 제주개발공사 자회사, 효성 TNC, 플라스마마가 함께 진행 중인 '다시 태어나기 위한, 띄엄리! 제주 지역자원 순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것으로, 국내에서 수거된 페트병이 상품으로 최초 출시된 것이다.

↳ '플라스마마 제주 에디션'은 머플 니트와 숄더백, 네트백, 나노백 등 4종으로 구성됐다. 또 제주를 상징하는 감귤, 바다, 비자림, 한두랍에서 모티브를 얻은 색상을 입혀서 제주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용기란 제작의 진행 구조

제주개발공사가 페트병 수거 → 효성 TNC에 페트병 공급 → 효성은 이를 고급 짠섬유로 재탄생 → 친환경 패션 스타트업인 플라스마마가 친환경 가방을 제작

아이시스 에코 출시: 롯데칠성음료는 페트병 본체에 라벨을 없앤 두라벨 생수인 '아이시스 8.0 에코(ECO)'의 연계해 한정해 '아이시스 에코' 500mL 및 2L를 출시하며 제품군 강화에 나섰다.

아이시스 8.0 에코는 지난 1월 국내 생수 브랜드 최초로 선보인 무라벨 제품이다. 라벨 사용량과 라벨을 떼어내는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고 분리배출 편리성을 재활용률을 높인 친환경 상품이다.

NO. 4 일기 제목 :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6 월 5 일 | 언론사 | 아이뉴스24 |
| 기사발행일 | 2020 년 6 월 5 일 | 기자명 | 장유미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환경을 생각한 포장: 풀무원은 2022년까지 '풀무원샘물' 생수병에 '환경을 생각한 포장'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수병에 플라스틱을 덜 사용해 얇게 만들거나 물에 잘 녹는 친환경적인 라벨, 분리배출이 쉬도록 손쉽게 제거되는 라벨 등을 점차 정리하며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풀무원 샘물은 지난 2018년 국내에서 가장 가벼운 무게인 11.1g의 500mL 생수병을 출시했으며, 대용량인 2L 제품에도 무게를 39g인 초경량 생수병을 개발했다.

경량 용기 사용: 하이트진로음료는 먹는 샘물 '석수'의 용기 경량화를 통해 기후 변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탄소 배출 저감에 동참하고 있다. (생수병 경량화 실천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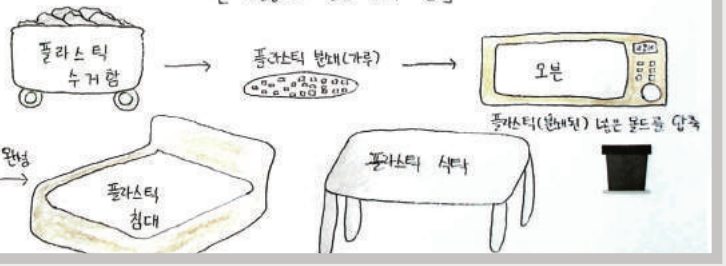
이지오픈(Easy-Open): 오리온은 지난해 '제주용암수'를 출시하며 분리배출 시 페트병과 라벨분리가 쉽도록 '이지오픈'을 적용했다.

페트병 경량화: 농심은 동시에 페트병 경량화도 추진했다. 플라스틱 경량화는 전 제품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나의 생각〉

지구에는 많은 변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섬이 있다. 그건 바로 '쓰레기섬'이다. 쓰레기 섬은 우리 대한민국의 16배정도 된다고 한다. 아무리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가 없다. 쓰레기 중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플라스틱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등 다양한 생명체에 위협이 된다. 지구 온난화를 막는 가장 큰 방법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위험성을 못 느끼고 있다. 나는 두렵다. 죽을이 두렵다. 그래도 이렇게 재활용으로 다시 쓸 수 있어서 조금..아주 조금 안심이다.

[ 재활용으로 만든 나의 작품 ]



NO. 18 일기 제목 :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7 월 24 일 | 언론사 | 전남일보, 전남매일 |
| 기사발행일 (선택) | 2020 년 7 월 24일 | 기자명 | 경선욱기자, 김동현 기자 |
| 주 제 | (사회)/(교육)/경제/과학·테크/환경/연예·문화/스포츠/역사/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1단계 : 공통 주제의 의미 생각>

이 두 기사는 전남에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된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1번은 의대 없는 지역에 신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고, 기사2번은 의과 대학 유치를 공약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역간 갈등과 여러 문제를 다루며 설명하고 있다. 전남 및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설립을 늘 바라고 있고, 전남은 의과대학이 설립되는 것이 거의 확정시하고 판단하고 있다. 의대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의과대학 정원 배정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두 기사는 전남 및 각 지역의 의과대학 설립 및 각종 명칭을, 또 의과대학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2단계 : 문제 접근의 서술자 파악>

두 기사는 공통된 주제를 담고 있지만 서로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1번기사는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명칭 및 계획을 다루고 있지만, 2번 기사는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의과대학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다.

1번 기사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설립까지 검토하며, 의대 정원 확대나 캠퍼스를 지을 가능성까지 넓은 방면으로 바라보며 당 산하의 계획까지 설명하고 있었다.

2번 기사는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면서 경쟁적인 면도 다루고 있고, 4·15 총선 유권자들 간의 갈등과 대학병원 설립 등 예산까지 발생하는 문제를 결론동적점 여기 있다.

<3단계 : 시각차가 나는 이유>

전남의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의과대학이 없는 여러지역도 고려하며 생각하고 있었다. 의과대학 설립을 한 지역이 아닌 모든 곳에 공평하게 설립 기회를 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고 볼 수 있다. 2번 기사에는 의과 신설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의과대학 신설을 성공하기 위한 것처럼 느껴지긴 한다.

<4단계 : 나의 생각>

전남 및 각종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기도 한 기사와 비판적인 기사를 함께 보았는데 이렇게 두 기사를 분석해보니 두 가지 점은 분명 좋게 느껴졌다. 때로는 긍정적이고 때로는 비판적인 것이 더욱 신중하게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냥 막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묻고 있었다가 잘못될 수 있어서 이는 한 쪽을 다르게 바라보아야 생각했다.

NO. 18 일기 제목 : 전남 "의과대학" 거의 확정인가?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7 월 24일 | 언론사 | 전남일보, 전남매일 |
| 기사발행일 (선택) | 2020 년 7 월 24일 | 기자명 | 경선욱기자, 김동현 기자 |
| 주 제 | (사회)/(교육)/경제/과학·테크/환경/연예·문화/스포츠/역사/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

<기사1 : 전남일보> = 전남 "의과대학" 설립 사실상 확정

(중심내용)
- 당정협의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 추진"
- 전남 법도 확정 … 규모 따라 2곳도 가능
- 전남 동부·서부권 1곳씩 건립 추진 탄력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밝히면서 사실상 전남지역 의대 신설이 확정됐다. 특히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신설 의대 정원을 정하기로 한 만큼, 정당 규모에 따라선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 1곳씩 의대 혹은 캠퍼스를 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전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7개 공약 시도 중 의대가 없는 지역은 전남뿐이다. 당 산하에선 전남지역 의대 신설을 업무해 둔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설 의대정원을 정해 추가 보고할 계획이다. 공동위는 오는 11월까지 의과대학 정원 배정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을 신청받아 내년 그해까지 대학별 정원을 심사 및 배정할 계획이다. 일이 잘되면 그리고 5월 발표된다. 증원된 인원을 배정받는 대학은 수도권은 지리적 지방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사2 : 전남매일> = 전남 의대 속출 '의과대학 유치' 사실상 확정

(중심내용)
- 당정, 10일간 4차례 중재 … 일주년 지역불균형 해소
- 전남도, 정원 100명 규모 중앙·목포 동서 신설 건의

전남도는 지난 5월 전남과 동·서부권과 의대유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공식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전남도에 따르면 일부와 전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신설 도전 당정협의를 열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하면서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은 사실상 확정됐다. 전국 시·도 중 의대가 없는 곳은 세종시와 전남뿐이지만, 세종시의 경우 대전이나 수도권과 주거지 의료 불균형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남 순천·목포 등 동서부권의 의대유치 갈등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규모가 확정 어느 정도로 결해질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4·15 총선 때에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의과 대학 유치를 공약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했다. 또 다른 걱정들은 대학병원 설립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의대설립에 소요되는 1,000억원의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반면, 병원설립 비용 4,000억원 중 국비 지원은 30~50%, 나머지 50~70%는 지방비가 투입된다. 이에 전남도는 병원설립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원인 순천·목포의료원 등을 적극 활용해 예산 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 개인 어린이 저학년 **금상 대표**

**<나를 뛰어넘는 습관 달성, 뉴스읽기 뉴스일기>**

**노도현** / 대구월서초등학교 3학년

## 수상소감

사실 저는 상을 목표로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나만의 방식으로 하고 있던 신문 스크랩 습관을 바탕으로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신문을 읽기를 시작한 건 2019년 9월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사 한두 개를 읽고 녹음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것이 익숙해졌을 때 기사 요약을 하고, 내 생각을 적으며 신문 스크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꾸준히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노력이 공모전 본상 수상이라는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일 꾸준히 노력한 습관의 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 자신을 뛰어넘는 신문과 뉴스읽기 습관 달성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제 일기를 뽑아주신 심사위원분들께도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 느낀 점

신문이란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문을 통해 많은 나라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동식물과 자연환경에 관한 이야기, 과학 경제 이야기 등 다양한 기사를 주제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르는 용어의 뜻도 정리하며 알게 되었으며, 기사 요약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계속 신문을 읽고 정리하는 습관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기를 것입니다. 다음에 또 공모전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친구들에게도 함께 도전해보자고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 뉴스일기 작성 TIP!

집에서 매일 어린이 신문을 구독해서 읽으면서 관심이 가는 기사 하나를 골라 음독하고, 녹음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기사 읽는 것이 매끄러워졌습니다. 기사 속 모르는 용어가 있을 땐 검색해서 뜻을 정리하고 그 용어로 짧은 글짓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사 요약과 함께 내 생각을 적으며 마무리하는 것이 나의 기본 팁!

이것이 습관이 된 후, 기사 내용으로 퀴즈 내보기, 기사를 만화나 그림으로 표현해보기, 질문 만들어보기, 기사 속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기사 관련 영상이나 책을 찾아보고 느낀 점 써보기, 마인드맵 그려 보기, 해외 기사인 경우 그 나라를 지도에서 찾아보고 나라 특징을 이해해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매일 꾸준히 하는 습관이 되면 뉴스일기가 쉬워지고 재미있어집니다. 생각하는 힘도 커질 것입니다.

NO. 66day

일기 제목 : 올해의 단어는?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1월 14일 | 언론사 | 어린이동아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1월 12일 | 기자명 | 장진희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올해 내에게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온라인 학습 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생겨서
난생 처음으로 온라인 학습이라는 것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의 단어로 '마스크'를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바뀌어 마스크를 꼭 쓰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필수'도 생각납니다.
왜냐면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가 필수용품이 되었고
손 씻는 것도 필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NO. 100 day

일기 제목 : 플라스틱 빨대 중 하나가 들어간 필회용 마스크를 쓰지 말아요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2월 18일 | 언론사 | 어린이동아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2월 15일 | 기자명 | 장진희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기사요약
: 홍콩 바다환경 보존단체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올해 페마스크 약 15억6000만 개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말했다.

*내 생각
: 바다에 마스크가...
15억6000만개나!
진짜 어서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가 나왔으면 좋겠다.
거기에다 바다에 1660억 이나 늘었다.
거기다 폴리프로필렌 때문에 450년 동안 기다려야지 분해되다니.
물고기도 지키고 신선하고 건강한 물고기(생선)을 먹자!
과학자들님 힘내세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마스크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스레기인 마스크를 아무곳에나 버리지 말아요.

NO. 32day 일기 제목 :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0월 10일 | 언론사 | KBS NEWS |
| 기사발행일 | 2017 년 5월 25일 | 기자명 | 최진아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中毒 ;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 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중) 독(독)

예문) 내 친구는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됐다.

中毒

가운데(중) 독(독)

괄호) 내 사촌은 핸드폰에 (중)(독)되었다.

기사요약 : "요즘 초등학생들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중독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기사 속 모르는 단어 정리

표본: 여러 통계 자료를 포함하는 집단 속에서 그 일부를 뽑아내어 조사한 결과로서 본디의 전체의 성질을 추측 할 수 있는 통계자료.

치유: 치료하여 병을 낫게함.

핸드폰을 책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 엄마랑 동영상 하나 읽어 봅시다.

"스티브 잡스가 어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한 이유"

tvN 인사이트 뉴스룸 앵커 미래수업 (19:56)

동영상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 난 핸드폰 중독일까?

내 뇌파 사진은 어떨까?

후두엽: 시각기능

측두엽: 언어기능

전두엽: 감정, 운동, 지적 능력등

핸드폰 볼때는 가짜 집중력이다.

뇌가 정지상태.

핸드폰을 적게 봐야 되겠다.

톡, 일요일만 2개만 하겠다.

독서는 꾸준히 하겠다.

엄마의 영상후기 ; 문자보다 영상과 음성이 익숙한 우리 X세대·시청이 세대. ⇒ 알파세대는 꽃이 다니고 옮겨 다니는 유목학습자!

그래서 양육자인 (나)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

스티브잡스가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한 이유는 당연히 있었다.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는 뇌는 스마트폰이 큰 역할을 하였고 그런 뇌는 불균형을 초래하여 뇌의 작동, 사고 답답하게 한다. 우리나라 읽기 평균 수준이 최하위라고 해서 ㅠㅠ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양한 기기 사용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데 ...

NO. 33 day 1 일기 제목 : 동영상 보고 내 생각 적기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0 월 11 일 | 언론사 | EBS |
| 기사발행일 | 2020 년 4 월 17 일 | 기자명 | 문정실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角蜀 媒某 劑
뿔을 촉 중매 매 약제 제
; 어떤 일을 유도하거나 변화하게 하는 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문) 그는 우리 부부가 화해하는 데에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짧.글) A씨는 화해하는 전편에서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뜻을 몰라서 친구들과의 동아리를 망쳤다.

촉매제

10. 11.

EBS

EBS 뉴스

로그인 구독목록

## 전체뉴스

<뉴스G> 미래 교육의 '촉매제'가 된 코로나19

공유 목록

교육, 뉴스G, 평생

문정실 작가 | 2020. 04. 07 | 283 조회

알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교육에 익숙한 교육 당국과 학교들이 짧은 기간 동안 혁신적인 수업 방식을 고민하도록 코로나19가 일종의 '촉매제'가 됐다는 것이죠.

이제 교육은 알파세대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 시스템이 무엇인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 교육자들은 시식만을 중소하기 보다는 인터넷이라는 개인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에 공감 능력과 정서적 지능, 의사소통과 협업 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겠고 ..

Date. No.

* 오늘도 엄마랑 동영상 하나 같이 읽어 봅시다.
우리가 상황이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평생 사이버 강의를 하게 된다면?
오프라인 교육이 사라질 시 생기는 총력적인 문제" (16:43) tvN 미래수업

동영상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 코로나가 없어지면 좋겠다. 꼭!

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붙자면
'없어지면'으로 붙겠다.

맨날 없어지면 좋겠다. 라고 불평했기 때문이다.

의사진! 응원합니다! 종식! 코로나19!

온라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학년의 학습 결손이 가장 문제라고 했다.
내가 저학년이라서 걱정된다.

엄마의 영상후기 ;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불확실한 세대, 잃어버린 세대, 알파세대인 우리 도현·시형이의 이야기라 더 집중해서 봤다. 영상에서 언급되었듯 지식이 평가는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지만 학교에서의 역할 관계형성 노력은 어떻게 할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한다. 관계형성이 미래직업 선택에도 도움을 준다는데, 요즘 정상등교인 학교 수업을 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과연...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학습결손문제야 큰아이가 이제 3학년이라 온라인 학습+문제집 풀이, 더나아가 사교육의 힘을 빌려 어떻게 해내야갈 수 있겠으나 AI 주도하는 미래사업에서 인간이 가야 할것! 타인을 이해하는 감성의 힘, 이것을 키우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가정에서의 양육자의 역할과 학교에서의 선생님과 친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일단 다음주부터 도현이 학교와 전교생 등교를 한다는데 앞으로 정상등교를

# 개인 어린이 저학년 **은상 대표**

**<신문과 통하는 신통한 일기>**

**곽서진** / 민백초등학교 2학년

## 수상소감

신문을 보시는 부모님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신문은 항상 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글을 몰랐을 때는 어린이 신문의 사진과 만화의 그림만 보다가 궁금한 것은 엄마에게 여쭤보며 신문과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기사를 읽고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부담 갖지 않고 편하게 짧은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다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제출하기 전 처음에 썼던 것과 마지막에 쓴 일기를 보며, 부끄럽지만 실력이 조금 늘었다는 것이 느껴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사실 작년 5월부터 뉴스일기를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한 권 전체를 끝까지 채우지 못해 마무리할 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다시 도전해 다양한 기사를 읽고 나만의 표현 방법을 더 고민하며 일기장 한 권을 꽉 채워보고 싶습니다.

## 느낀 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 또는 주변에서 보고 들은 뉴스와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는 신문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신문을 읽을 때도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뉴스일기로 정리하며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 상식이 풍부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전동 킥보드 기사를 정리할 때에는 길에 누워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생각해보게 되었고, 점자 기사를 읽고 공부한 뒤에는 주변에 있는 점자들이 눈에 더 잘 보였습니다. 뉴스일기를 하며 신문을 왜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부르는지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뉴스일기 작성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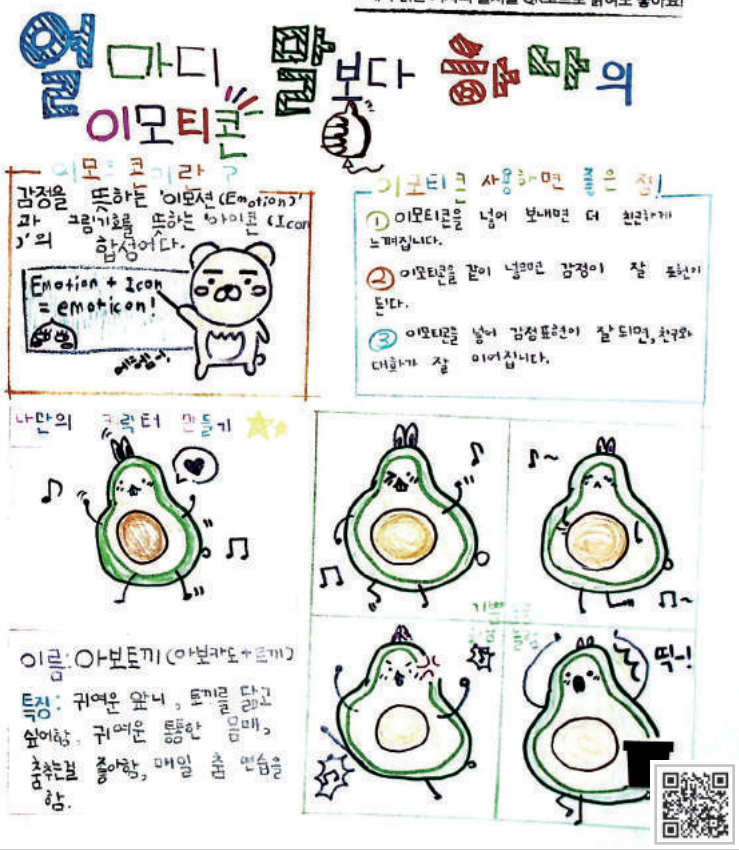
먼저 모르는 낱말 뜻과 함께 기사의 중요 내용을 짧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기사와 관련된 정보를 좀 더 검색해 보세요. 동영상 뉴스를 통해 기사 속 상황을 실감 나게 보면 더 잘 이해됩니다. 뉴스와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 QR코드로 정리해 붙입니다. 다른 나라의 뉴스를 읽을 땐 지도를 펼쳐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 곳인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제일 재미있는 작성 방법은 '생활 속 실천'입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면 꼭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고, 이를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기사가 나오면 직접 환경 보호 방법을 실천해서 인증 사진을 남겨보고, 문제점이 담긴 기사가 나오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나만의 '발명 노트'도 만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에만 그치지 않고 나의 생활로 끌어와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NO. 1 일기 제목 : 얼마디 말보다 하나의 이모티콘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5 월 20 일 | 언론사 | 어린이조선일보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 월 13 일 | 기자명 | 박지원 객원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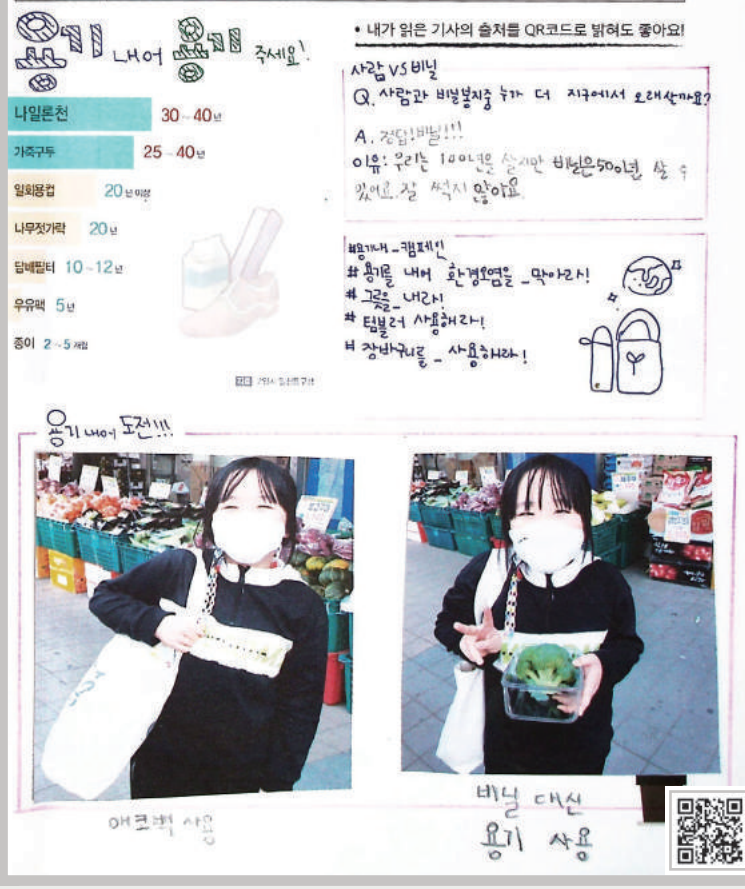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12 일기 제목 : 용기내어 용기를 주세요!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7 월 30 일 | 언론사 | 전남일보 |
| 기사발행일 | 2020 년 7 월 22 일 | 기자명 | 도선인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20 일기 제목 : 맨발 발레리노 앤서니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9 월 13 일 | 언론사 | 어린이 조선 |
| 기사발행일 | 2020 년 9 월 11 일 | 기자명 | 이슬기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맨발 발레리노 앤서니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느낀점

따가워도 열심히 발레를 연습하고, 여자는 핑크, 남자는 파랑 같은 고정관념을 깬 모습이 멋져보였다 "파이팅!!! 앤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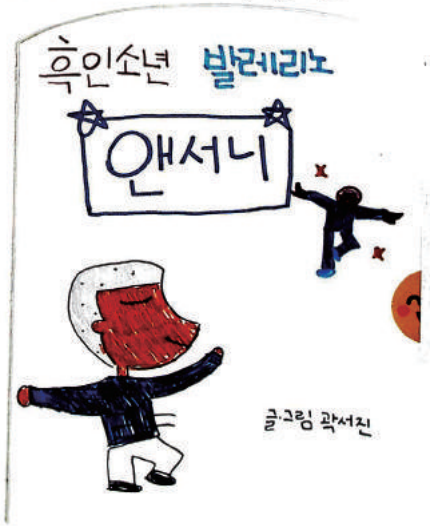
앤서니 칭찬해요

맨발로 아파도 열심히 발레를 연습해요. 고정관념을 깨고 남자가 발레에 도전해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요

10년후앤서니가 신문에 나온다면?

기사제목: 최고의 발레리노 앤서니 음소마 마두 뉴욕 단독 공연

10년후 앤서니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야기 책 만들기




NO. 30 일기 제목 : 사랑이 담긴 크리스마스 씰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1 월 18 일 | 언론사 | 소년한국일보 |
| 기사발행일 | 2020년 11 월 17 일 | 기자명 | 서원국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사랑이 담긴 크리스마스 씰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크리스마스 씰·반?

크리스마스 씰은 결핵환자를 돕기위해 만든 착한우표

→ 올해의 모델은 펭수!

결핵이란 ?

역사상 인류의 생명을 앗아간 질병. 전염성도 강하다.

• 호흡기 감염병 • 마스크 착용하기

크리스마스 씰의 시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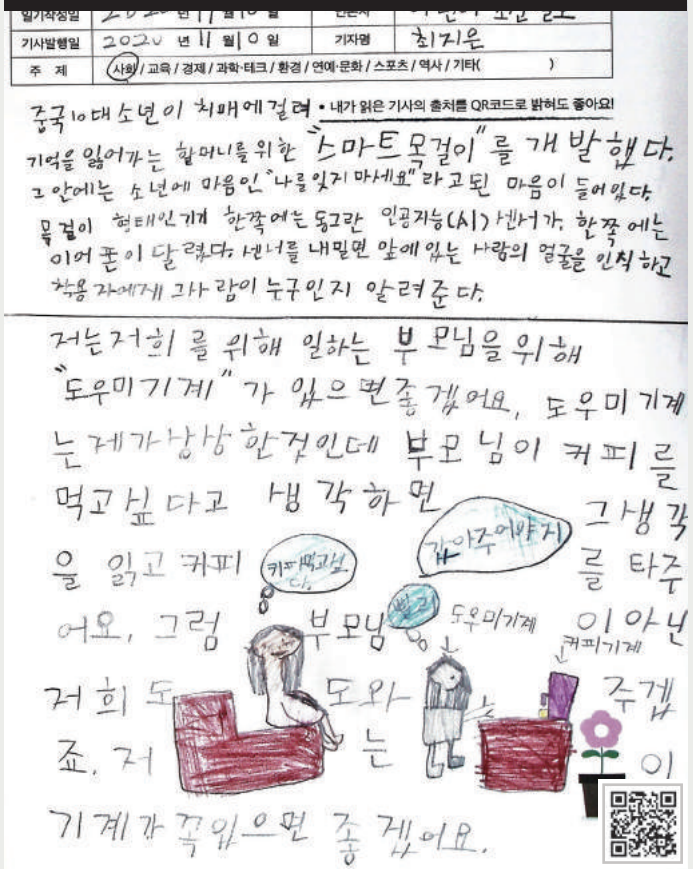
결핵으로 고통을 받거나 죽는 어린이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홀벨이 성탄절 편지에 동전 한 닢짜리 '씰'을 붙이며 시작됐다.

2021년 씰 모델 추천해요

이 씰의 모델은 아주 유명한 '어몽어스'입니다. 이 모델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캐릭터가 유명해 많은 아이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되는 좋은점은 캐릭터가 귀여워 사람들이 많이 살 것이고, 어린이들은 씰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 개인 어린이 저학년 **은상 수상작**

## 참샘초등학교 2학년 박신아



| 일기작성일 | 2020 년 11 월 10 일 | 언론사 | 어린이 조선일보 |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1 월 0 일 | 기자명 | 최지은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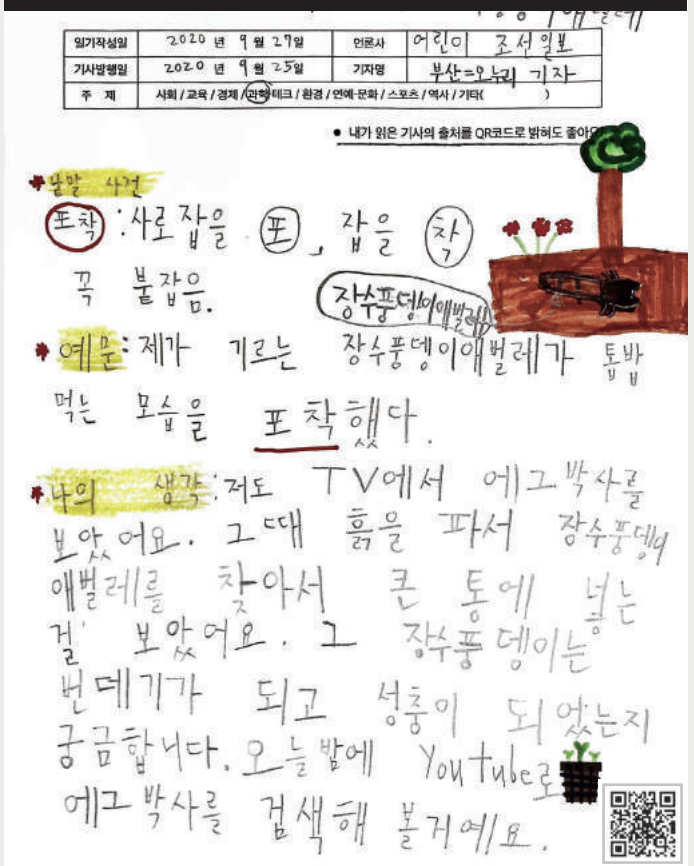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중국 10대 소년이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는 할머니를 위한 "스마트목걸이"를 개발했다. 그 안에는 소년의 마음인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된 마음이 들어있다. 목걸이 형태인 기계 한쪽에는 둥그란 인공지능(AI) 센서가, 한쪽에는 이어폰이 달렸다. 센서를 내밀면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착용자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준다.

저는 저희를 위해 일하는 부모님을 위해 "도우미기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도우미기계는 제가 항상 한 것인데 부모님이 커피를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을 읽고 커피를 타주어요. 그럼 부모님이 이 아닌 저희도 도와주는 이 기계가 꼭 있으면 좋겠어요.



## 대구삼육초등학교 1학년 배세은



| 일기작성일 | 2020 년 9 월 27일 | 언론사 | 어린이 조선일보 |
|---|---|---|---|
| 기사발행일 | 2020 년 9 월 25일 | 기자명 | 부산=오늘의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말말 사전

포착 : 사로잡을 포, 잡을 착 꼭 붙잡음.

장수풍뎅이애벌레

*예문 : 제가 기르는 장수풍뎅이애벌레가 톱밥 먹는 모습을 포착했다.

*나의 생각 : 저도 TV에서 에그박사를 보았어요. 그때 흙을 파서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찾아서 큰 통에 넣는 걸 보았어요. 그 장수풍뎅이는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밤에 Youtube로 에그박사를 검색해 볼거예요.

# 개인 어린이 저학년 **동상 대표**

**<김세령의 뉴스읽기 뉴스일기>**

김세령 / 좌산초등학교 2학년

## 수상소감

저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오빠랑 어렸을 때부터 신문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서 부모님께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끝내지 말고, 앨범처럼 만들어 보는 걸 권장하시며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도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해보겠노라 하고 신나게 기사를 읽고, 자르고, 나만의 앨범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김세령 읽기, 김세령 일기' 였습니다. 저 자신을 나타내는 동시에 돌아볼 수 있는 기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제출하기 위해 제가 만든 자료를 떠나 보낼 때 너무 슬펐습니다. 소중한 친구를 떠나보내는 것 같았지만 동상을 받게 되어 스스로 너무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느낀 점

매일 매일 기록하는 일상적인 일기는 아니었지만, 늘 뉴스와 가까이했습니다.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기사를 검색하는 것과는 달리 직접 신문지를 자르고 붙이며 활용해 보는 경험은 너무나도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사를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을 통해 제가 잘 모르던 세상과 만날 수 있었고, 잘못 알고 있던 지식에 대해서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책이 좋아졌고, 신문이 좋아졌고, 뉴스가 좋아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신문에서 읽거나 뉴스에서 봤던 내용을 주제로 대화할 수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바로 알려줄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 뉴스일기 작성 TIP!

우선 매일 신문 읽는 것을 습관화합니다. 평소 책에서 본 것, 텔레비전에서 본 것, 학교에서 배운 것과 연관 지어 기사를 선정합니다. 기사를 읽고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뒤, 모르는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점을 부모님께 물어보거나 책을 통해 찾아봅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를 통해 배운 점이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메모하고, 질문과 생각을 적습니다.

엄마, 아빠는 뉴스를 통해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생각을 그 뉴스에 대입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뉴스일기를 통해 어렴풋이나마 뉴스를 볼 때는 제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또, 하나의 기사는 그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제의 뉴스가 내일, 모레의 뉴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NO. 1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일기 제목 : 고래잡이를 멈춰 주세요.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5월 15일 | 언론사 | 조선 일보 |
| 기사발행일 | 2020 년 5월 13일 | 기자명 | 양승주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CO₂ 해결사'

## 플랑크톤 쑥쑥 자라게 하는건 고래 똥이래요.

고래 배설물에 함유된 철 성분이
이산화탄소 흡수·산소 배출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 도와
지구온난화 완화하는 데 기여

큰 고래는 $CO_2$를 33t이나 몸에 저장
고래 수 늘어나도록 노력해야

평생 몸속에 이산화탄소 33t 저장

고래 배설물 속 철 성분이 플랑크톤 성장에 도움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할수 있는 노력에는 여러가지 대책이 있다. 예를들면 가까운 곳은 걸어다니기, 나무심기 등이다. 최근 과학자들은 고래 수 늘리기라는 방법을 제안했다.

♥♥♥ 고래의 배설물에 이산화탄소를 마시는 플랑크톤의 성장 도움이 되는 철 성분이 들어있다 그리고 고래가 평생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은 평균 33톤에 달한다. 고래가 자연사하면 시체가 가라앉아 이산화탄소는 수백년 간 갇히게 된다♥♥♥

고래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게 정말 놀랍다.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고래가 큰 역할을 한다. 포경을 하지 말자는 캠페인에 동참할 것이다. 고래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친구들한테도 알려서 고래를 보호하자고 포경을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것이다. 친구들 뿐만 아니라 고래를 보호하자는 내용으로 포스터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겠다

고래잡이를 하지 말아주세요.

NO. 3

일기 제목 : 드디어 학교로.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5월 21일 | 언론사 | 어린이 조선 일보. |
| 기사발행일 | 2020 년 5월 21일 | 기자명 | 오누리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드디어 학교로… "많이 달라졌네"

### 드디어 학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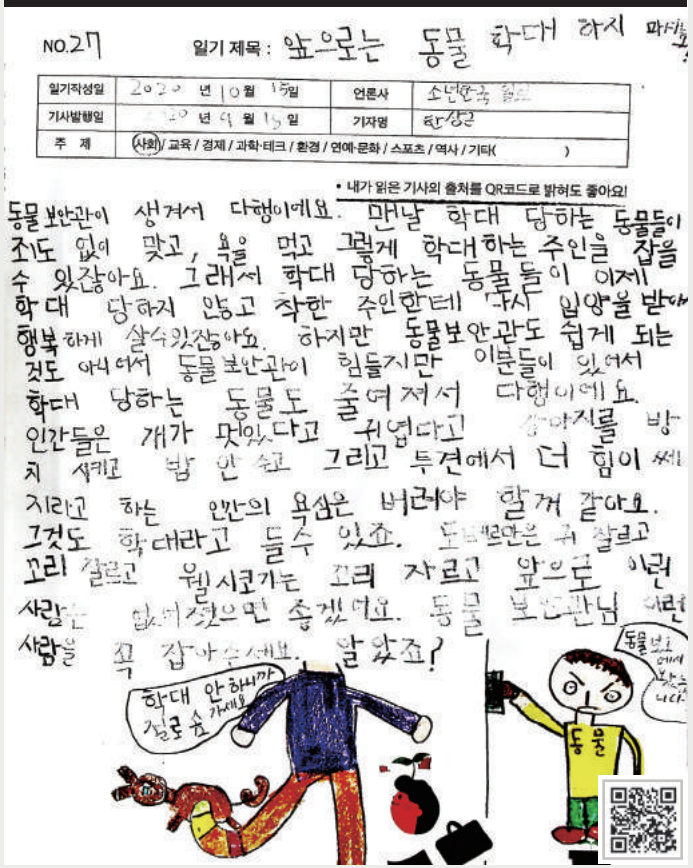
먹구름 드리운 어두컴컴
걱정 보따리 한가득
코로나 세상

마스크 속 웃음 가득
웃음 보따리 한가득
친구들 세상

맴췄던 학교 시계 째각째각
설렘 가득 학교 시작

# 개인 어린이 저학년 **동상 수상작**

월곡초등학교 3학년 권승형



NO.27 일기 제목 : 앞으로는 동물 학대 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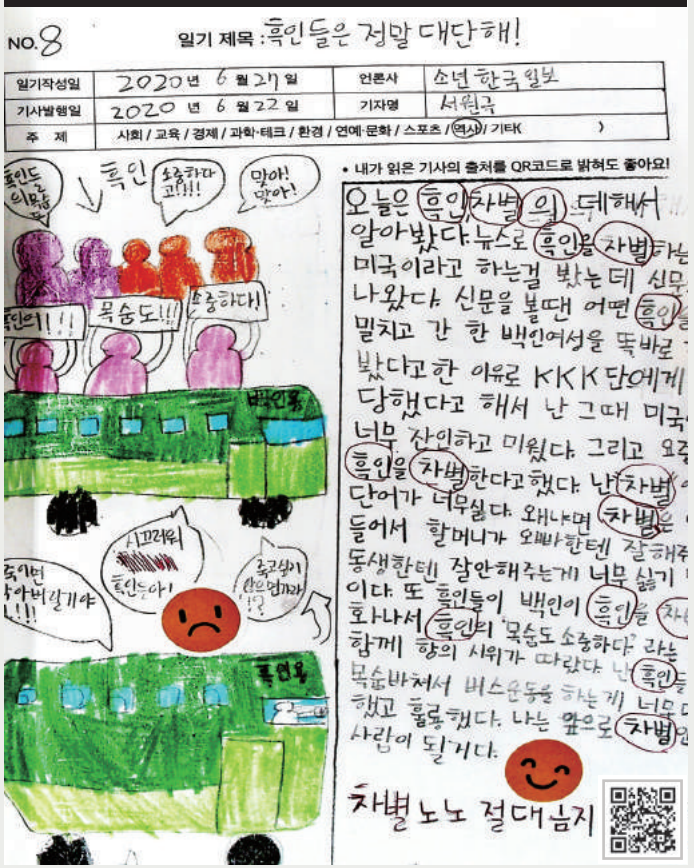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0 월 15일 | 언론사 | 소년한국일보 |
| 기사발행일 | 20 년 9 월 15 일 | 기자명 | 한성은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동물보안관이 생겨서 다행이에요. 만날 학대 당하는 동물들이 죄도 없이 맞고, 욕을 먹고 그렇게 학대하는 주인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대 당하는 동물들이 이제 학대 당하지 않고 착한 주인한테 가서 입양을 받아 행복하게 살수있잖아요. 하지만 동물보안관도 쉽게 되는 것도 아니여서 동물보안관이 힘들지만 이분들이 있어서 학대 당하는 동물도 줄여져서 다행이에요. 인간들은 개가 맛있다고 귀엽다고 강아지를 방치 시키고 밥 안 주고 그리고 투견에서 더 힘이 세지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은 버려야 할게 같아요. 그것도 학대라고 들수 있죠. 도베르만은 귀 잘르고 꼬리 잘르고 웰시코기는 꼬리 자르고 앞으로 이런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동물 보안관님 이런 사람을 꼭 잡아주세요. 알았죠?



월곡초등학교 3학년 박서윤



NO.8 일기 제목 : 흑인들은 정말 대단해!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6 월 27 일 | 언론사 | 소년한국일보 |
| 기사발행일 | 2020 년 6 월 22 일 | 기자명 | 서원국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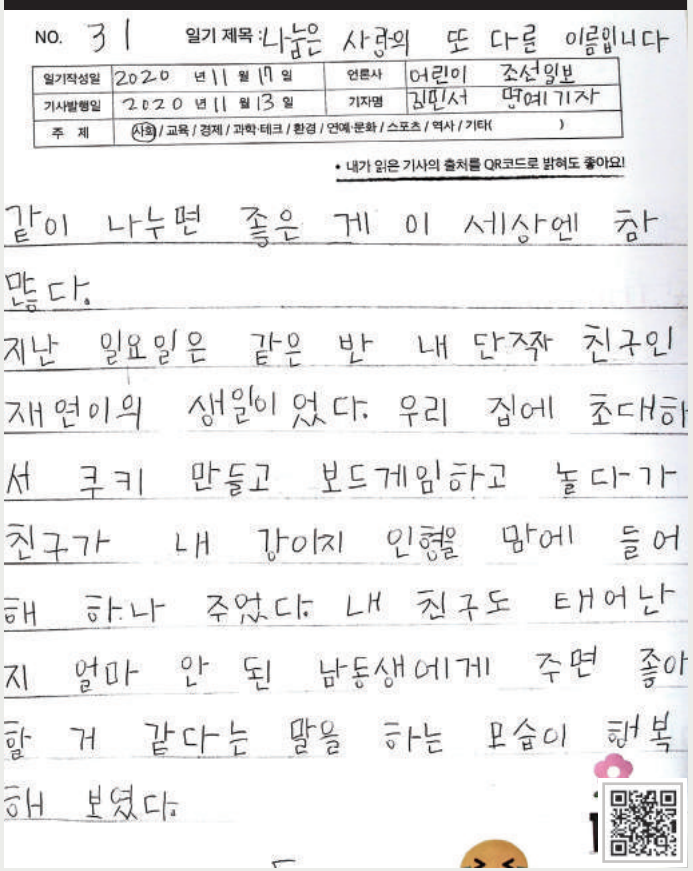
흑인 소중하다고!!! 맞아! 맞아!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백인용
시끄러워 흑인놈아!
흑인용

오늘은 흑인 차별의 덕해서 알아봤다. 뉴스로 흑인을 차별하는 미국이라고 하는걸 봤는데 신문 나왔다. 신문을 볼땐 어떤 흑인을 밀치고 간 한 백인여성을 똑바로 봤다고 한 이유로 KKK단에게 당했다고 해서 난 그때 미국 너무 잔인하고 미웠다. 그리고 요즘 흑인을 차별한다고 했다. 난 차별 단어가 너무싫다. 왜냐면 차별은 들어서 할머니가 오빠한텐 잘해주고 동생한텐 잘안해주는게 너무 싫기 이다. 또 흑인들이 백인이 흑인을 차별 하나서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라는 함께 항의 시위가 따랐다. 난 흑인들 목숨바쳐서 버스운동을 하는 게 너무 대단했고 훌륭했다. 나는 앞으로 차별안 사람이 될거다.

차별 노노 절대금지

# 개인 어린이 저학년 **동상 수상작**

복수초등학교 2학년 박예담



NO. 31 일기 제목 : 나눔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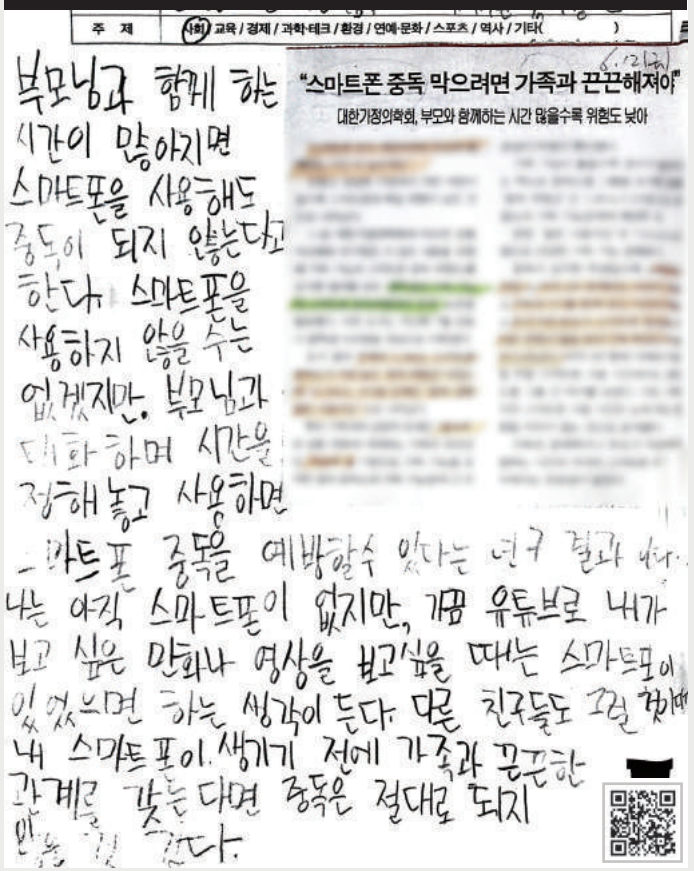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1 월 17 일 | 언론사 | 어린이 조선일보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1 월 13 일 | 기자명 | 김민서 명예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같이 나누면 좋은 게 이 세상엔 참 많다.

지난 일요일은 같은 반 내 단짝 친구인 재연이의 생일이었다. 우리 집에 초대하서 쿠키 만들고 보드게임하고 놀다가 친구가 내 강아지 인형을 맘에 들어해 하나 주었다. 내 친구도 태어난지 얼마 안 된 남동생에게 주면 좋아할 거 같다는 말을 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아산북수초등학교 2학년 정주원



주 제 (사회)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스마트폰 중독 막으려면 가족과 끈끈해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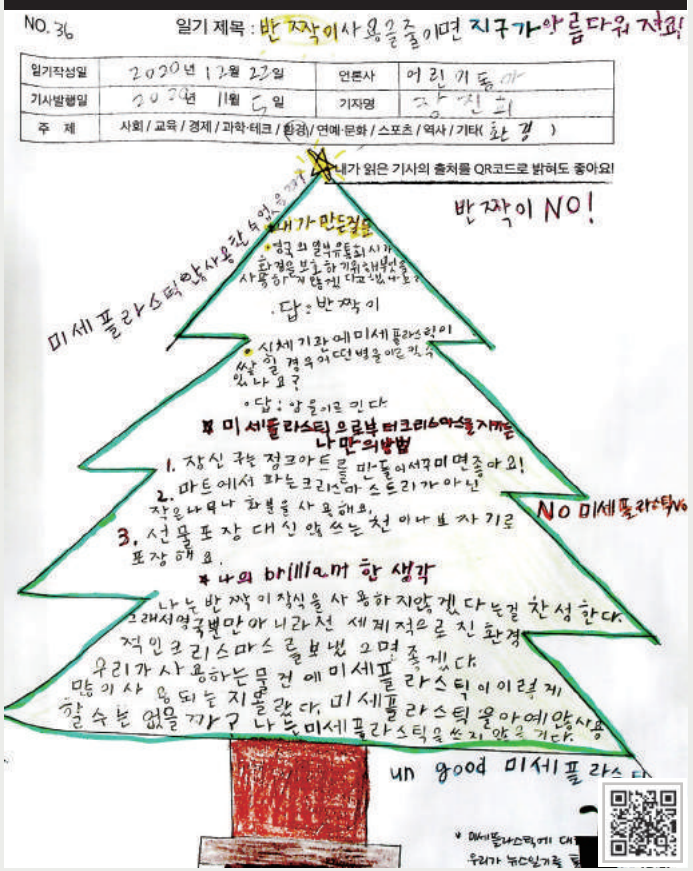
대한가정의학회,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많을수록 위험도 낮아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중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부모님과 대화하며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하면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수 있다는 연구 결과 나.

나는 아직 스마트폰이 없지만, 가끔 유튜브로 내가 보고 싶은 만화나 영상을 보고싶을 때는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다른 친구들도 그런 것처럼 내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 가족과 끈끈한 관계를 갖는다면 중독은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

# 개인 어린이 저학년 **동상 수상작**

개정초등학교 2학년 주아라



# 개인 어린이 고학년 **금상 대표**

**<생각쑥쑥 뉴스일기>**

**방마리** / 서울청운초등학교 5학년

## 수상소감

금상이라는 특별한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처음에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옆에서 응원해 주신 부모님과 뉴스일기를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선생님 덕분에 꾸준함을 유지하며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어린이 신문을 구독해 신문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만의 칼럼 노트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선생님의 추천으로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처음 알게 되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기 부여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일기 관련 이벤트에 참여하며 1주일에 한 번, 매주 쓰다 보니 어느새 나만의 소중한 뉴스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공모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느낀 점

뉴스일기 덕분에 생각이 자라나고 글쓰기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뉴스일기를 작성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주제의 기사도 기자나 언론사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모전에서 좋은 결과까지 얻게 되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경험을 만들어 준 공모전에 참가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뉴스일기를 작성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 뉴스일기 작성 TIP!

먼저 종이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기사를 골고루 골랐습니다. 기사는 문단별로 나눈 후 중심 문장에 밑줄을 치고, 중요한 단어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했습니다. 일기를 쓸 때는 기사 제목, 모르는 단어, 기사 요약, 생각을 기재했습니다. PMI(긍정, 부정, 흥미로운 점) 기법으로 광고 분석하기, KWL(이미 알고 있는 것, 알고 싶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로 기사 분석하기,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내기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사 분석과 e-NIE 비교 보기로 뉴스를 분석하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 내용을 나의 생활과 연관 지으려고 노력하면 기사를 고르기도 쉬울 뿐 아니라, 생각을 서술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NO. 2 일기 제목 : 건강한 소비습관 실천하자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5 월 30 일 | 언론사 | 어린이동아 |
| 기사발행일 | 2020 년 5 월 28 일 | 기자명 | 이지현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기사제목: " 건강한 소비습관 필요해요! "

모르는 단어: 웃돈 - 본래의 값에 덧붙이는 돈

기사 요약: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에서 한 소비자가 굿즈 '서머 레디백'을 얻기 위해 커피 약 300잔을 구입한 뒤 내버려 두고 갔다. 스타벅스는 이 날 고객이 남겨두고 간 커피를 모두 버려야 했다. 인터넷상에서는 이 사은품에 웃돈을 붙여 재판매를 하는 사람도 보인다. 이 가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7월 말 까지이며 재고도 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서머 레디백을 받기 위한 과열 현상이 이어진다.

나의 생각: 물건을 구매할 때 따라오는 매력적인 사은품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또 나는 사은품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지출을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사은품을 얻는다고 지나친 소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태도이다. 스타벅스 사은품을 얻고 남겨진 커피들은 모두 하수구 속으로 버려져야 했다. 커피를 만들때 쓴 에너지와 플라스틱 컵은 모두 낭비된 것이다. 코로나 19로 사람들의 활동이 적어지면서 대기오염이 줄고 강도 많아진 것 처럼 과도한 소비를 줄이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나도 사은품 때문에 무언가를 구매했던 적을 생각해 보았다. 저학년때 아이스크림 또는 빵 등에 스티커가 들어있다고 해서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 특정 제품만 사 먹었던 적이 있다. 반대로 나의 지구를 지키는 습관에는 무엇이 있을까?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구매하지 않는다. 박대 등의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 재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구를 지키는 건강한 소비습관, 잊지 말고 실천해야겠다.

NO. 10 일기 제목 : 고정관념 버리고 편한 유니폼 입자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7 월 18 일 | 언론사 | 어린이동아 |
| 기사발행일 | 2020 년 7 월 17 일 | 기자명 | 장진희 |
| 주 제 | (사회)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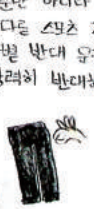
기사제목: 옷차림 편해지니 전문성도 '벌벌'

모르는 단어: 각계각층 (층층층층)-사회 각 분야의 여러 계층.

기사요약: 성별 고정관념이나 인종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가지 유니폼의 디자인들이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캐릭터 '포승이'의 치마는 바지로, 여성 승무원들의 편의를 고려한 편한 유니폼이 있다. 또 미국프로농구 NBA 선수들은 경기에서 유니폼 등번호 위에 인종차별 반대문구를 새길 수 있다.

내가 만든 유니폼: 옷의 기능과 편리함을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차별이 없는 옷을 디자인 하였다.

농구 뿐만 아니라 축구경기에서도!
또는 다른 스포츠 경기에서도!
인종차별 반대 문구를 써 인종차별에 더 강력히 반대해보자.



<〈비서 / 호텔리어〉'블랙백하고 불편한 옷 / 치마'가 아닌

NO. 12 일기 제목 : 흑인분장 졸업사진. 인종차별인가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8 월 9 일 | 언론사 | Newsen |
| 기사발행일 | 2020 년 8 월 7 일 | 기자명 | 박수인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기사제목: 샘 오취리, 의정부고 흑인분장 졸업사진 비판에 "누리꾼 갑론을박"

모르는 단어: 갑론을박(甲論乙駁) - 갑이 논하면 을이 논박한다는 뜻으로, 서로 논란하고 반박함을 이르는 말

기사요약: 가나 출신 방송인 샘 오취리가 의정부고의 관짝소년단 분장 졸업사진을 비판한 가운데 누리꾼들 의견도 분분하다. 의정부고 측은 '인종차별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누리꾼들은 '충분히 기분나쁠만하다', 또는 '인종차별은 과한 지적이다'라고 말한다.

가족토론: 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해 써봤다.

**나의 생각**

나는 의정부고 학생들이 관짝소년단을 패러디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더 심각한 분장을 위해 피부를 새카맣게 칠한 것인데 굳이 그것을 인종차별이라고 해야할까? 게다가 실제 관짝소년단은 SNS에서 의정부고 학생(분장함)의 졸업을 축하해주기까지 했다. 무슨지 흥내만 내면 차별인가? 또, 샘 오취리는 한 프로그램에서 눈을 찢는 표정을 지을 적도 있고 분명 웃기지 않는 사진을 '인종차별'이라고 하고 정작 자기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엄마 생각**

피부색을 구별하는 발상은 인종차별로 여기기에 미국에서도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프로그램에서도 다시상 흑인분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사회적 미묘를 무시하고 패러디를 한 것 뿐이라는 내용을 한 것은 부주의한 행동으로 보여진다.

**오빠 생각**

샘 오취리의 반응은 지나쳤다. 샘 오취리가 지장했던 '분장페이스'는 흑인 차별이지만 졸업사진을 흑인을 차별, 비하하려고 찍은 것은 아닐 것이다. 또 샘 오취리는 자신의 글에 teakpop 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오취리는 teakpop의 뜻을 몰랐다고 물기 했지만 어떻게 모르는 단어를 해시태그로 사용할 수 있을까?

NO. 23 일기 제목 : 비윤리적인 백신실험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1 월 1 일 | 언론사 | 연합뉴스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0 월 21 일 | 기자명 | 신유리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기사제목: 코로나 19 감염시키고 지켜본다... 영국, 논란 속 실험 강행예고

모르는 단어: 기제(機制 기제) -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작용이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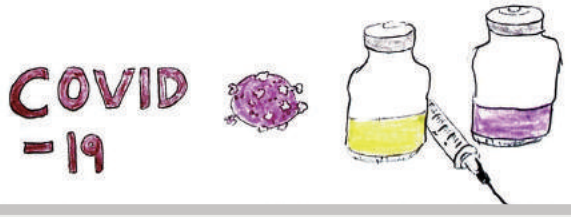
기사요약: 영국에서 건강한 사람을 일부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시켜 백신 개발을 찾겠다는 실험이 정부 수준에 시작된다. 그의 감염 찬성론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고 연구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는다. 반대론자들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전장치 없이 감염시키는 것은 비윤리적이며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19는 치명적이니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또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전체 인구에 적용되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나의 생각: 나는 사람에게 고의로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실험에 반대한다.

먼저, 이 실험은 모두, 즉 전체 인구를 위한 실험이 되지 못한다. 이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젊고 건강한 사람이다. 백신은 모두가 안전하게 맞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실험은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해도 약자들이 맞을 수 없다.

다음으로, 이런 실험은 비윤리적이다. 건강한 사람을 고의로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매우 치명적일 것이고, 폐유증이 심해지는 등 실험 참가 후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다. 나는 차라리 이미 감염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실험에 반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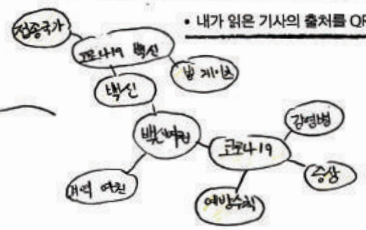


NO. 32 일기 제목: 〈K-W-L 기사 일기〉

| 일기작성일 | 2021 년 1 월 2 일 | 언론사 | 경향신문 |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2 월 30 일 | 기자명 | 조춘제 논설위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K** 이미 알고있는 것




**W** 알고 싶은 것

• 백신 여권이란 무엇일까?
• 백신 여권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 백신 여권의 장점,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L** 새로 안 내용

• 백신 여권이란 백신 접종자들에게 주는 디지털 증명서로, 백신 여권이 있으면 레스토랑은 물론이며 식당, 공연장, 경기장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 코로나 19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벗어나기 위하여 '백신 여권' 계획이 등장했다.
• 백신 여권이 있으면 백신을 맞고 자유로울 수 있다. 반면 백신을 맞기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사회 정치적·인종적 불평등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더 조사하고 싶은 것

현재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신 여권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고 있을까? 한국에는 백신 여권이 도입될까? 백신 여권을 사용하는 데에는 어떤 절차가 있을까?

NO. 37 일기 제목 : e-NIE 비교보기 (주제: 등교수업)

| 일기작성일 | 2021 년 2 월 13일 | 언론사 | 동아일보 |
|---|---|---|---|
| 기사발행일 | 2021 년 1 월 ~~30~~·31일 | 기자명 | ①이소정 ②우정연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수탐 기사 뉴스 분석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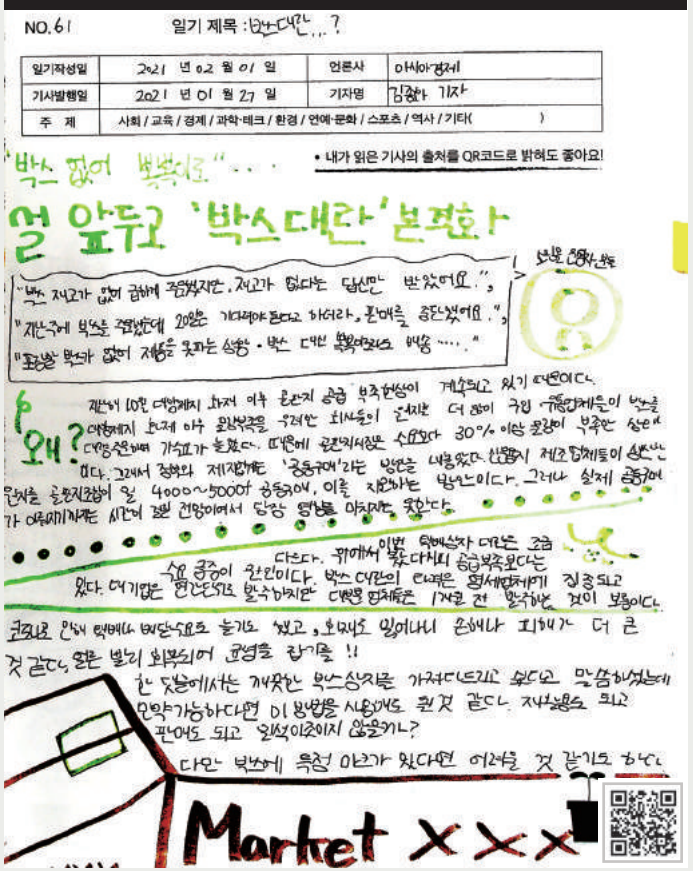
| 칼럼1 | 칼럼2 |
|---|---|
| 안전이 최우선인 등교수업 | 안전한 등교로 학습 정상화해야 |
| 작성자 • 이소정 | 작성자 • 우정연 |
| 발행기관 • 동아일보 | 발행기관 • 동아일보 |
| 핵심내용 1. 전북은 등교 확대의 주된 근거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논문에서 지난해 학교를 통한 감염자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꼽는다. 2. 무조건 등교 횟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면 불평만 그칠 것이 아니라 원격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 | 핵심내용 1. 대통령이 지자체장에게 원격수업 지침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하자 이내 대통령보다 더 더욱 국무총리가 등교수업을 제안, 지시하면서 등교 재개에 방점을 찍었다고 본다. 2. 등교 중지 효과는 크지 않았으며 돌봄·급식 공백과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 위축 등의 피해는 적지 않았다. |
| 의문점 1. 학교를 통한 감염자가 적은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가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등교를 더 많이 했다면 감염자도 그만큼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 학교 감염이 앞으로 확산될 돌파구 출발의 위험하다고 본다. 2.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 대책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면, 지난 1년동안은 무엇을 한 것인가? 코로나 사태가 1년이 넘었는데도 안전한 등교수업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인가. | 의문점 1. 등교재개에 방점을 찍은 것은 대통령이 아니지 않나? 대통령이 등교수업을 안전한 것은 사장으로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등교수업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었다. 2. 과연 등교중지 효과가 났었다고 할 수 있는가? 그 증거가 정확하지 않다. 만약 등교수업 횟수가 지금보다 많았다면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을까. |

뉴스 관점 비교

| 칼럼1 | 칼럼2 |
|---|---|
| 등교 횟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고 매우 위험하다. 등교 횟수를 늘리는 것 보다 학교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선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는 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등교 중지 효과는 크지 않았으며 그에 비해 [illegible] 미래는 컸다. 아이들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위축이 우려되어 비대면 수업의 [illegible] 심각한 학력 격차 문제가 [illegible] 학습 능력에서도 교육 [illegible] 개학한 위험을 [illegible] |

# 개인 어린이 고학년 **금상 수상작**

## 주감초등학교 6학년 김윤아



NO. 61 일기 제목 : 박스대란...?

| | | | |
|---|---|---|---|
| 일기작성일 | 2021 년 02 월 01 일 | 언론사 | 아시아경제 |
| 기사발행일 | 2021 년 01 월 27 일 | 기자명 | 김광하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박스 없어 복잡해요"...

설 앞두고 '박스대란' 본격화

"박스 재고가 없어 급하게 주문했지만 재고가 없다는 답신만 받았어요.", "지난주에 박스를 주문했는데 20일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 판매를 중단했어요.", "포장할 박스가 없어 지방을 못가는 상황 · 박스 대란 복잡해지고 있음 ....."

왜? 재난에 10일 대연휴까지 겹쳐 이후 물류 공급 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제지 업체 이사 물량부족을 우려한 회사들이 원지를 더 많이 구입 · 유통업체들이 박스를 대량 주문하며 가격도 높였다. 때문에 골판지시장은 소량보다 30% 이상 물량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래서 정부와 제지업계는 '공동구매'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신용평가 제조업체들이 손쉬운 문제를 물류조합에 일 4000~5000억 공동구매,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실제 공동구매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전망이어서 당장 명절을 마치기는 못한다.

다른다. 위에서 이번 택배상자 대란은 조금 수요 급증이 원인이다. 박스 대란의 타격은 물류업체에게 집중되고 있다. 더기업은 현금보다도 받수 있지만 대형물류업체는 17조원 전 받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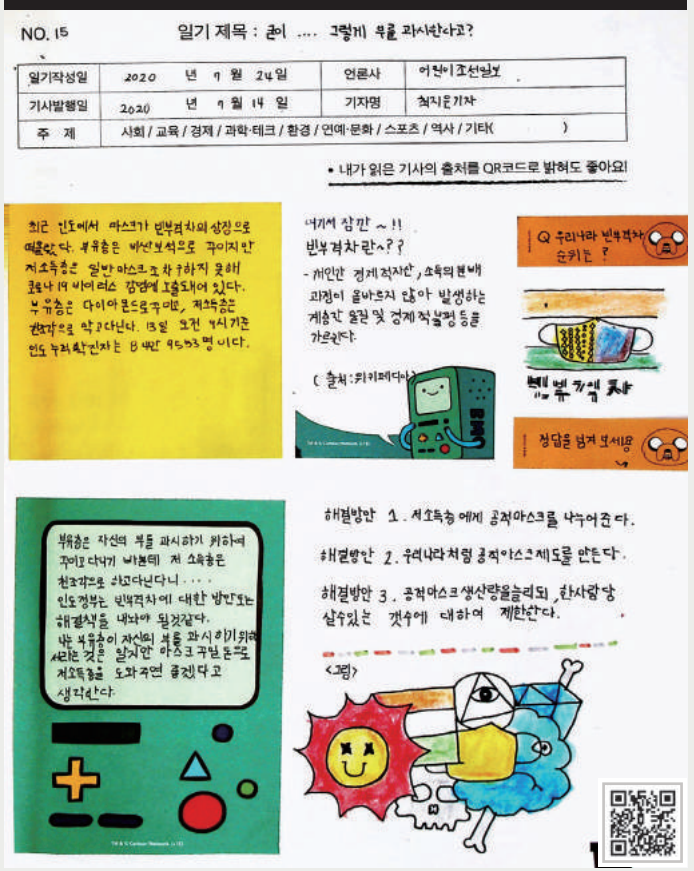
코로나 인해 택배나 비대면 서로 늘기도 했고, 올해도 일어나니 온라인 피해가 더 큰 것 같다. 좋은 말리 회복되어 경영을 합니다!!

한 댓글에서는 개꿈한 박스상자를 가져다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료가능하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도 좋을 것 같다. 재사용도 되고 편하도 되고 일석이조이지 않을까?

다만 박스에 흠집 아프가 있다면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

Market XXX

## 서울염동초등학교 6학년 유승민



NO. 15 일기 제목 : 흔이 .... 그렇게 부를 과시한다고?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9 월 24 일 | 언론사 | 어린이조선일보 |
| 기사발행일 | 2020 년 9 월 14 일 | 기자명 | 최지은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최근 인도에서 마스크가 빈부격차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부유층은 비싼 보석으로 꾸미지만 저소득층은 일반 마스크조차 구하지 못해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되어 있다. 부유층은 다이아몬드로 꾸미고, 저소득층은 천조각으로 막고 다닌다. 13일 오전 9시 기준 인도 누적확진자는 8백만 95593명이다.

내게서 삼깐 ~!!

빈부격차란~??

- 개인간 경제적자산, 소득의 분배 과정이 올바르지 않아 발생하는 계층간 불평 및 경제적불평등을 가르킨다.

( 출처 : 위키페디아 )

Q 우리나라 빈부격차 순위는 ?



빈부 격차 ?

정답을 보기 보세요

부유층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하여 꾸미고 다니기 바쁘데 저 소득층은 천조각으로 하고다닌다니....

인도정부는 빈부격차에 대한 방안또는 해결책을 내놔야 될것같다.

나는 부유층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위해 서라는 것은 알지만 마스크 구입 문제로 저소득층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해결방안 1. 저소득층에게 공적마스크를 나누어준다.

#해결방안 2. 우리나라처럼 공적마스크제도를 만든다.

해결방안 3. 공적마스크생산량을늘리되, 한사람당 살수있는 갯수에 대하여 제한한다.

<그림>

# 개인 어린이 고학년 **은상 대표**

**<서정인의 뉴스읽기 뉴스일기>**

서정인 / 운중초등학교 6학년

## 수상소감

처음 상을 받았다고 선생님께 연락이 왔을 때는 '동명이인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상소감을 쓰고 있는 지금도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쉬운 주제의 뉴스보다는 사회와 관련된 뉴스를 찾다 보니 조금 힘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맘에 들거나 쓰고 싶은 뉴스를 찾지 못해서 검색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기를 완성하고 제출할 때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1회 공모전에 참여했을 때보다 학년이 올라가서 일기 내용도 더 많아지고 스스로 정리를 잘했다고 생각했었지만, 다른 친구들도 그만큼 열심히 참여했고 잘 작성했기 때문에 제가 수상하게 된 것이 얼떨떨한 것 같습니다. 일기를 제출한 이후 한동안 잊고 지냈었는데, 다시 뉴스일기를 공들여서 숙제하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번에는 숙제가 아니라 스스로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 느낀 점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평소에는 보지 않았던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내용을 이해하고 요약하는 방법과 뉴스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보며 공부했던 것이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었으며, 주변 친구들 역시 좋은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에 썼던 1회 일기 내용을 다시 보니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2020년에는 조금 더 노력한 결과, 뉴스일기 작성이 끝난 지금은 뉴스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졌고, 내용을 정리하는 일도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 뉴스일기 작성 TIP!

주어진 뉴스일기장 양식에 맞추어 일기 작성 일자와 뉴스 발행일, 제목과 작성자 등의 출처를 밝히고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난이도 높은 뉴스 또는 길이가 너무 짧거나 긴 뉴스는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있는 주제의 뉴스를 찾아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쓸 때 무작정 줄글을 쓰기보다는 보고서 형식처럼 뉴스의 내용만 사실적으로 요약한 것, 온전한 내 생각, 그리고 뉴스를 읽고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것을 간단히 질문을 만들어 스스로 답해보기도 했습니다. 질문은 선생님의 추천으로 진행해보았는데, 뉴스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며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작성한 뉴스일기와 질문은 반 친구들과 공유하고 서로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의 관심사나 다른 생각 등을 알 수 있어서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NO. 3 일기 제목 : 버스 기사들 "민식이법 부담".. 회사, 스쿨존 통과 노선 변경키로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7 월 6 일 | 언론사 | 연합뉴스 |
| 기사발행일 | 2020 년 7 월 6 일 | 기자명 | 김민욱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맞나요?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버스기사들 "민식이법 부담".. 회사, 스쿨존 통과 노선 변경키로 〉

→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 관한 법.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땄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할시에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기사내용요약

민식이 법을 부담스러워하는 버스기사들의 요청으로 스쿨존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
사고 발생 시 처벌에 대한 불안감 + 시간이 오래걸림. (느리게가야하니까)
그러므로 버스노선을 스쿨존 통과노선으로 변경.

★ 나의 생각

버스타고 등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 사고예방겸 잘 한것같다.
버스기사들 걱정안해도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걱정 덜했으니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 Q&A

Q. 스쿨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A. 걷는게 건강하니 걷자^^

Q. 스쿨존이 한곳에 많아지면 그곳의 버스노선은 어떻게 되는걸까?
A. 어쩔수 없이 가게되거나 택(정류장)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ㅋㅋ

NO. 5 일기 제목 : '해물찜 먹고 제주여행' 서울 확진자에 제주 3명 동시확진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7 월 16 일 | 언론사 | news 1 |
| 기사발행일 | 2020 년 7 월 16 일 | 기자명 | 최미란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코로나)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해물찜 먹고 제주여행' 서울 확진자에 제주 3명 동시 확진 〉

★ 기사내용 요약

기침/재채기 서울 20번 확진자는 제주도 여행을 하며 기침·콧물이 있었지만 5박6일간 해물찜을 먹으며 여행을 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제주도민 3명 확진, 12명 검사중이며 제주도 비상방역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지금 20번 확진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자세히는 11일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CCTV 확인결과 차량이동을 하였지만 마스크를 끼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관계자는 항공 접촉자는 파악중이며 확진자가 머물렀던 곳을 방문한 사람중 검사를 받아달라 했다.

★ 나의 생각

'지금 같은 때에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보건소로 가야하는것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기도 하고 코로나를 퍼뜨린 그 사람한테 화나기도 했다.
또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니!! 덥지만 좀만 더 버티며 마스크를
잘 껴주면 좋겠다..(모두들). 꼭!!

Good!?

★ Q&A

Q. 벌을 해야할까? 한다면 어느정도의 벌?
A. 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벌은 재판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Q. 요건요에는 왜 안갔을까?
A. 감기라고 생각했거나 코로나일까 무서워서 아닐까.. 어디까지나 내의견

NO. 7 일기 제목 : 충청·전북에 기록적 물폭탄.. 아파트 통째 삼키고 차량들 '둥둥'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7 월 30 일 | 언론사 | 연합뉴스 |
| 기사발행일 | 2020 년 7 월 30 일 | 기자명 | 김소연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충청·전북에 기록적 물폭탄.. 아파트 통째 삼키고 차량들 '둥둥'〉

★ 기사내용 요약

저기 및 충청·전북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은 피해가 생겼다고 한다.
대전의 한 아파트는 일부가 잠기고 차가 떠다녀 구조대가 사람들을 구조했다 한다.
그런데도 1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호우특보가 내려 졌었지만 해제 되었다.
또 세종 충남에서는 주택, 차, 상가가 잠겼지만 모두 잘 구조 완료라고 하고,
천안·공주·충북·전북도 피해는 많았지만 모두 구조, 대피로 안전하다고 한다.
그리고 큰 피해가 있는데 천안·우주등의 논, 밭등이 잠겼다.
낚시객들과 고립 되었다가 구조되고 청주의 초등학교, 유치원 일부는 물이 새
휴업을 했다 한다.

★ 나의 생각

기록 한 나지만 아빠가 놀랐음.

놀랐다. 뉴스 사진에 내가 3살때까지 살던 아파트 사진과 사촌언니네 집 주소
아주 가까이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이라고..) 까지 나와서...
다행히 할머니 댁은 무사하다고.. 또 사상자가 1명 있긴 했지만 많은 부상자나
사상자가 없어서 다행이었다!!
그렇지만 많은 피해(농산물, 통신, 집 등등)가 있었고 더 있을 까봐 좀 무렵고
무섭다.

★ Q&A

Q. 폭우로 인한 피해가 더 있을까? (이번 여름 장마철)
A. 잘 모르지만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 없을거다! → 무슨 자신감??
Q. 공주공산성 일부 피해는 어떡할까?
A. 복원.. 가능하겠지..? 복원이 불가능하면 최대한 비슷하게!!
Q. 집 잃은 사람들은 언제쯤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A. 한.. 가을 겨울쯤? 다 젖어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공사기간)

NO. 9 일기 제목 : 북한산 만경대서 낙뢰로 등산객 1명사망·1명중상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8 월 22 일 | 언론사 | 연합뉴스 |
| 기사발행일 | 2020 년 8 월 22 일 | 기자명 | 권우회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북한산 만경대서 낙뢰로 등산객 1명사망·1명중상〉

★ 기사내용요약

8월22일(오늘) 낮 12시 45분쯤 등산을 하시던 50대 여성등산객 2명이
낙뢰에 맞아 한명은 사망,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2시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약 5분 후에 만경대 100m 아래에서 사망한 채로 한 사람을 더
발견했다.
낙뢰때는 등산 스틱·우산을 멀리하며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

★ 나의 생각

학교에서 낙뢰 관한 동영상을 봤었다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새삼 느꼈다.
아빠 말로는 낙뢰는 약 30만볼트정도 되서 심장마비로 죽는경우가 많다고 한다.
늦게 발견된 사람은 일찍 발견했으면 살지 않았을까? 라는 것의
확률은 어느정도 될지도 궁금하다.

★ Q&A

Q. [대명확인] 낙뢰가 칠때는?
A. 빨리하고 높은것들 (우산등)을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Q. 비도 올때 등산을 왜 갔을까..?
A. Keine Ahnung..

# 개인 어린이 고학년 **은상 수상작**

## 개봉초등학교 5학년 김하경

NO. 47 일기 제목 : 초등 저학년 등교확대 논란

| | | | |
|---|---|---|---|
| 일기작성일 | 2021 년 1 월 29 일 | 언론사 | 어린이동아 |
| 기사발행일 | 2021 년 1 월 27 일 | 기자명 | 이채린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초등 저학년 등교확대 논란...

"학습 격차 줄여야" VS "시기상조"

교육부에서 올해 초등저학년 위주로 등교수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반대한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에 저학년이 등교하는 이유를 학교에서 사회성을 길러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학생들은 서로 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든 만든 사회성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소아와 청소년의 감염 위험이 적다고 해도, 면면력이 낮은 아이들은 쉽게 걸릴 수 있을 것같다. 다른 학습격차, 돌봄 부담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지 않을까? 나는 이러한 이유로 초등 저 등교확대를 반대 한다.

## 서울행현초등학교 4학년(독서와NIE학원) 김형준

NO. 96 일기 제목 : 노력

| | | | |
|---|---|---|---|
| 일기작성일 | 2021 년 1 월 3 일 | 언론사 | 어린이동아 |
| 기사발행일 | 2021 년 1 월 3 일 | 기자명 | 김재섭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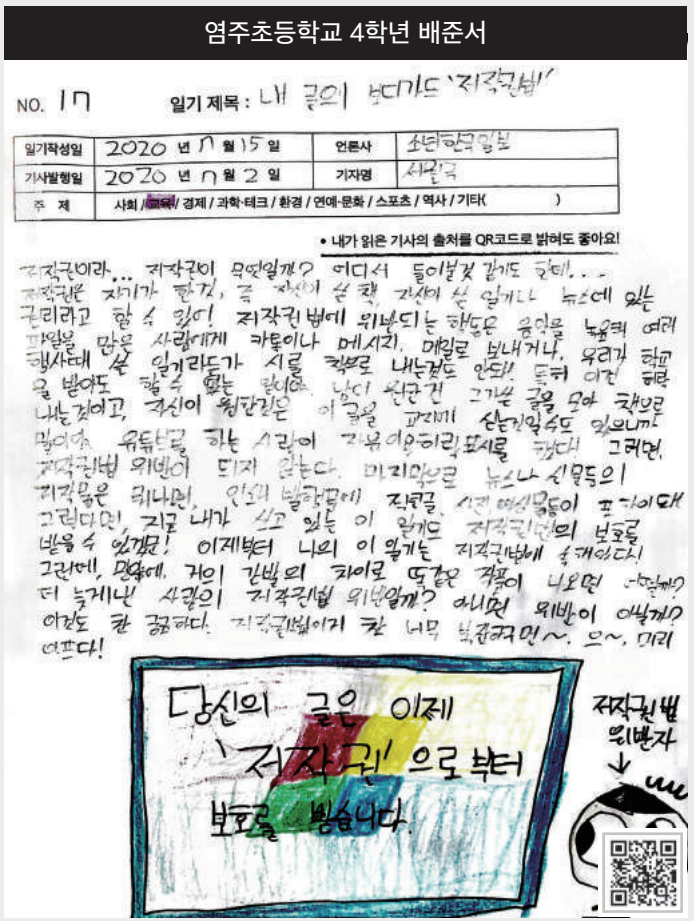
■ 우리나라 축구선수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100호골을 터뜨렸다. (토트넘에서만)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전반에 골을 넣어 100호골에 달성했다. 세해 첫경기에서 골을 넣었고 동시에 통산 100호 골 고지에 올랐다. 2015년 토트넘 구단 입단 이후 253 경기만에 드디어 통산 100호골이다. 이어 후반에는 동료의 골도 도왔다.

■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활약하고 있다.

■ 손흥민은 100호골 달성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다. 첫째 끝까지 도전하였다. 불가능하고 하기 쉽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 끝까지 도전하였다. 둘째 쉬지 않고 연습하였다. 손흥민은 혹독한 날씨에도 훈련을 하였다. 셋째 부상을 당하여도 끝까지 경기에 임하였다. 손흥민은 경기도중 부상을 당하여도 팀원을 위해 경기를 끝까지 이어갔다.

■ 내 꿈은 외교부 장관이다. 외교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열심히 공부해야하고 정세학과 행정법등을 익혀야한다. 필수적으로 외교관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서 합격해야한다. 손흥민이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것 처럼 나도 외교부 장관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개인 어린이 고학년 **은상 수상작**



염주초등학교 4학년 배준서

NO. 17 일기 제목 : 내 글의 보다도 '저작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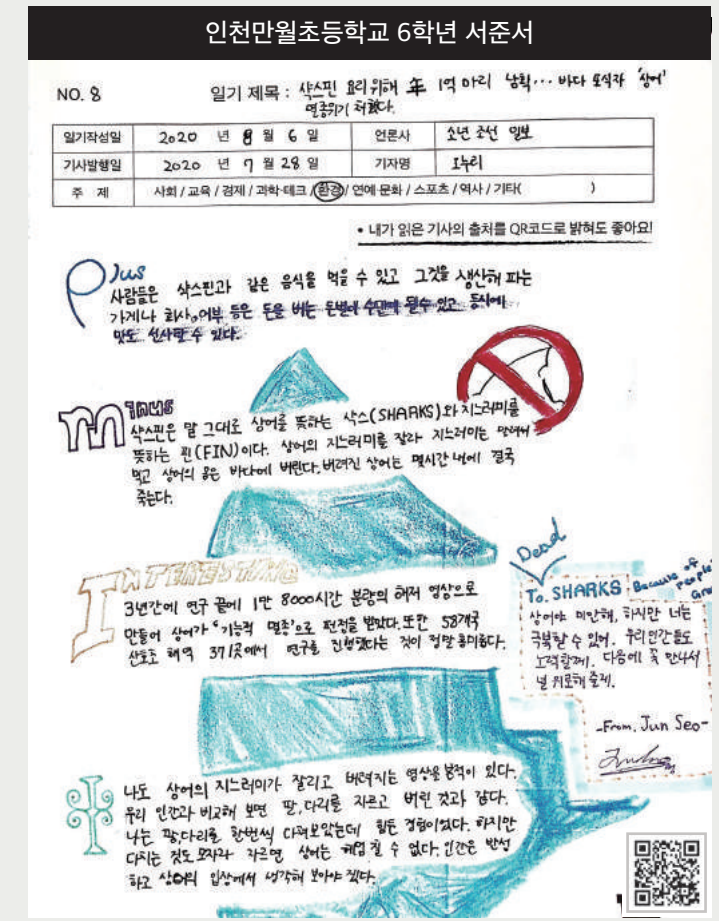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1 월 15 일 | 언론사 | 소년한국일보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1 월 2 일 | 기자명 | 서울국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저작권이라... 저작권이 무엇일까? 어디서 들어본것 같기도 하네...
저작권은 저기가 한것, 즉 저자가 쓴 책, 그림이 쓴 일기나 뉴스에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동은 음악을 녹음해 여러 파일을 많은 사람에게 카톡이나 메시지, 메일로 보내거나, 유리가 하고 있을 때 쓴 일기라도가 시를 책으로 내는것도 안되! 또한 이런 행동을 받아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남이 쓴 글, 그림을 모아 책으로 나는 것이고, 작신이 원한것은 이 글을 교재에 삽입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다음 이야기 또시를 했다 그러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뉴스나 신문들의 저작물은 퍼나면, 인쇄 발행물에 직접 사진, 영상들이 포함이 되고 그런다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일기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 이제부터 나의 이 일기는 저작권법에 속해있다! 그런데, 만약에, 거의 같은의 차이로 똑같은 작품이 나오면 어떨까? 더 늦게난 사람의 저작권법 위반일까? 아니면 위반이 아닐까? 이것도 참 궁금하다. 저작권법이 참 너무 복잡하구먼~. 으~, 머리 아프다!

당신의 글은 이제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자 ↓



인천만월초등학교 6학년 서준서

NO. 8 일기 제목 : 샥스핀 요리 위해 年 1억 마리 '상륙'... 바다 포식자 '상어' 연중위기 처했다.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8 월 6 일 | 언론사 | 소년 조선 일보 |
| 기사발행일 | 2020 년 7 월 28 일 | 기자명 | 고누리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Plus
사람들은 샥스핀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것을 생산해 파는 가게나 회사에서 등은 돈을 버는 돈벌이 수단이 될수 있고 동시에 맛도 선사할 수 있다.

Minus
샥스핀은 말 그대로 상어를 뜻하는 샥스(SHARKS)와 지느러미를 뜻하는 핀(FIN)이다. 상어의 지느러미를 잘라 지느러미는 말려서 먹고 상어의 몸은 바다에 버린다. 버려진 상어는 몇시간 내에 결국 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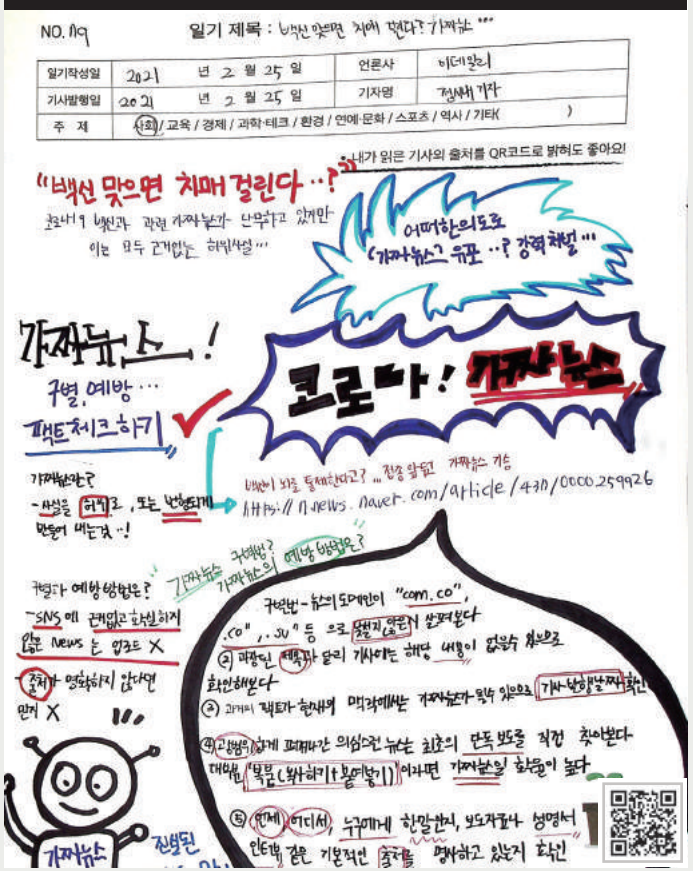
Dead
To. SHARKS : Because of people
상어야 미안해, 하지만 너는 극복할 수 있어. 우리 인간들도 노력할게. 다음에 꼭 만나서 널 치료해 줄게.
-From. Jun Seo-

3번간에 연구 끝에 1만 8000시간 분량의 허저 영상으로 만들어 상어가 '기능적 멸종'으로 전전을 밟았다. 또한 58개국 산호초 해역 371곳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이 정말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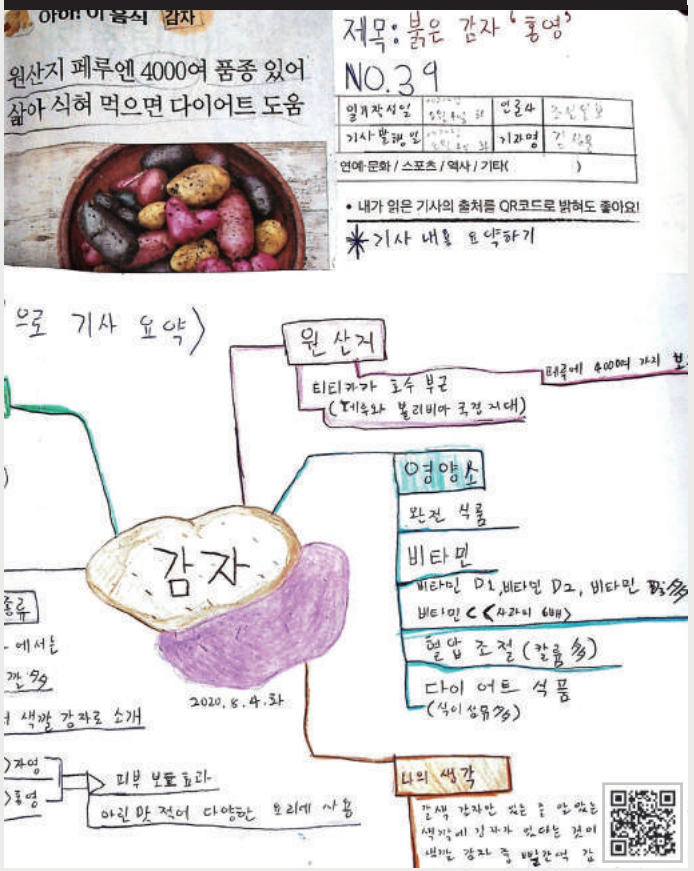
나도 상어의 지느러미가 잘리고 버려지는 영상을 봤었다. 우리 인간과 비교해 보면 팔, 다리를 자르고 버린 것과 같다. 나는 팔, 다리를 한번씩 다쳐보았는데 힘든 경험이었다. 하지만 다치는 것도 모자라 자르면 상어는 견딜 것 수 없다. 인간은 반성하고 상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겠다.

# 개인 어린이 고학년 **은상 수상작**

주감초등학교 6학년 송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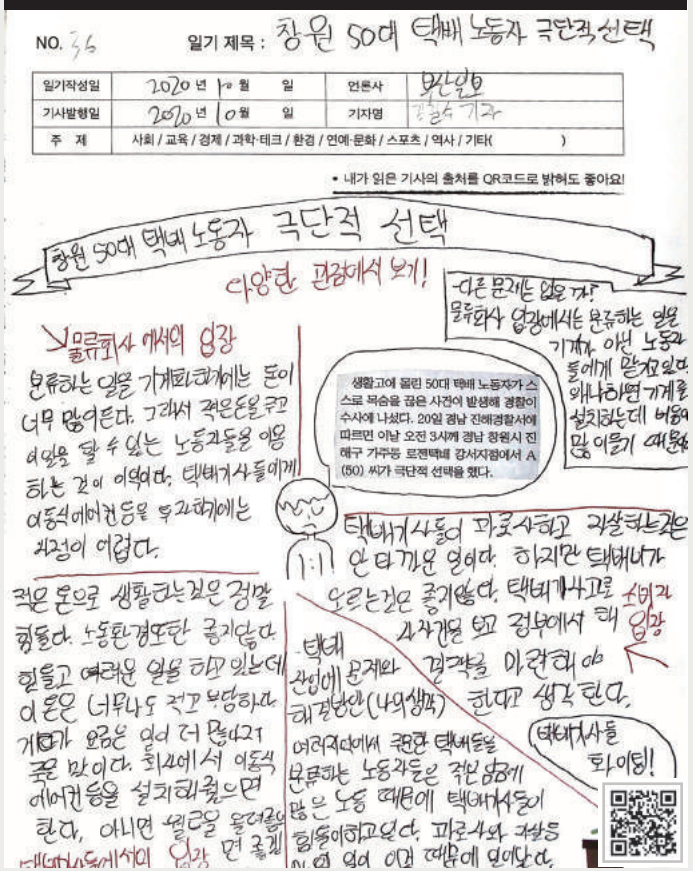



천안두정초등학교 5학년 이서현



# 개인 어린이 고학년 **은상 수상작**

## 주감초등학교 6학년 이준수



NO. 35 일기 제목 : 창원 50대 택배 노동자 극단적 선택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0 월 일 | 언론사 | 부산일보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0 월 일 | 기자명 | 김철수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창원 50대 택배 노동자 극단적 선택

다양한 관점에서 보기!

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 문화사 업장에서는 분류하는 일을 기계가 아닌 노동자들에게 맡겼었다. 왜냐하면 기계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들기 때문에

물류회사 에서의 입장

분류하는 일을 기계화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든다. 그래서 적은돈을 주고 이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것이 이익이다. 택배기사들에게 이동식에어컨 등을 주고하기에는 비용이 어렵다.

생활고에 몰린 50대 택배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로젠택배 강서지점에서 A(50)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택배기사들의 과로사하고 과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택배나가 오르는것은 좋지않다. 택배기사고로 소비가 4시간을 보고 경부에서 해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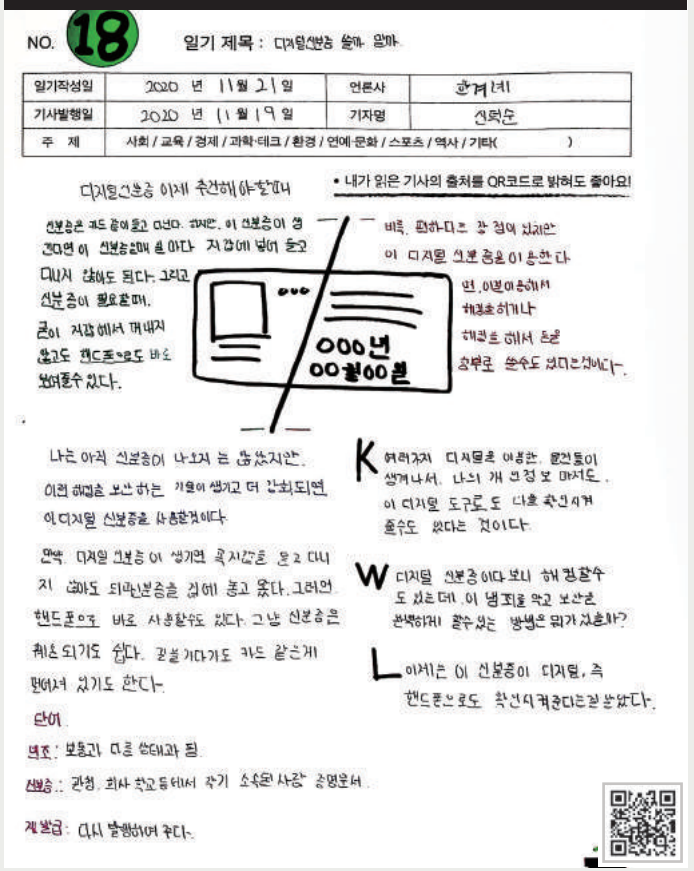
적은 돈으로 생활하는것은 정말 힘들다. 노동환경도한 좋지않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은 너무나도 적고 부당하다. 거기가 요금은 일어 더 많아지고 죽은 만이다. 회사에서 이동식 에어컨등을 설치하줬으면 한다, 아니면 월급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택배 관련에 문제와 결격을 마련하여 해결방안(나의생각)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지역에서 근무한 택배들을 분류하는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에 많은 노동 때문에 택배기사들이 힘들어하고있다. 과로사와 과살등 일어 이번 때문에 일어났다.

택배기사들 화이팅!

## 부산사남초등학교 5학년 정유나



NO. 18 일기 제목 : 디지털신분증 좋아. 않아.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1월 21일 | 언론사 | 한겨레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1월 19일 | 기자명 | 신혜순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디지털신분증 이제 추진해야할때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신분증은 지도 같이 들고 다녔다. 하지만, 이 신분증이 생겼다면 이 신분증을 폰 마다 지갑에 넣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할때, 굳이 지갑에서 꺼내지 않고도 핸드폰으로도 바로 보여줄수 있다.

000년 00월00일

비록,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디지털 신분증을 이용한다면, 이벤이용에서 해킹을 하거나 해킹을 해서 돈을 공부로 쓸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는 아직 신분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해킹을 보고 하는 기술이 생기고 더 진화되면 이 디지털 신분증을 사용할것이다.

만약 디지털 신분증이 생기면 곽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라는 장점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핸드폰으로 바로 사용할수도 있다. 그냥 신분증은 취소되기도 쉽다. 길을 가다가도 카드 같은게 떨어져 있기도 한다.

K 여러가지 디지털로 이용한 물건들이 생겨나서, 나의 개인정보 마저도, 이 디지털 도구로도 다시 확인시켜 줄수도 있다는 것이다.

W 디지털 신분증이다 보니 해킹할수도 있는데, 이 범죄를 막고 보안을 튼튼하게 할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L 이제는 이 신분증이 디지털, 즉 핸드폰으로도 확인시켜준다는걸 알았다.

단어

백조 : 보통과 다른 상태과 됨.

신분증 : 관청, 회사 학교 등에서 자기 소속을 사람 증명하는 것.

제보금 : 다시 발행하여 주다.

# 개인 어린이 고학년 **동상 대표**

**<천리안 일기>**

**류세진** / 호수초등학교 6학년

## 수상소감

뉴스일기를 제출하면서 제가 수상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것만큼 일기를 많이 작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의의를 두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상자 명단에 있는 제 이름을 보니 너무 기뻤습니다. 혹시나 '동명이인이 아닐까?' 생각하며 수상자 명단을 네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뉴스를 읽고 기록한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공모전에 참가한 것은 저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음 공모전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참가하여 뉴스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수상하지 못해 아쉬워하던 동생에게도 내년에 꼭 다시 도전하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 느낀 점

처음에는 어떤 뉴스를 골라야 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습니다. 금방 한 권을 다 채우겠다는 각오는 어딘가로 사라지고,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 과학,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보고 제 의견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생각이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하게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원인을 알고 싶어지고,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뉴스를 꾸준히 읽게 되면서 학교 공부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되고,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 뉴스일기 작성 TIP!

먼저 기사의 제목을 보고 내용을 추론해 본 뒤,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문장에 밑줄을 긋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런 다음 문단별로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글로 간단하게 정리하기도 하고 그림이나 채팅창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완전히 제 머릿속에 정리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제 생각을 표현할 것인지 정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이슈의 기사라면 논설문을, 정보 전달 기사라면 만화나 포스터, 편지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작성 방법을 정하고 나면 더 체계적인 글을 쓸 수 있도록 개요를 짠 뒤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뷰, 상상일기, 마인드맵, 포스터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의 핵심 키워드나 제 생각을 바탕으로 일기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NO. 일기 제목 :

| | | | |
|---|---|---|---|
| 일기작성일 | 년 월 일 | 언론사 | |
| 기사발행일 | 년 월 일 | 기자명 |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육하원칙 5W1H

언제 WHEN? 최근
누가 WHO? 세계 식량계획 WFP가
무엇이 WHAT? 세계적인 식량 대기근의
어떻게 HOW?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왜 WHY? 코로나 19로 이동이 어려워 지면서 식량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아 밥을 굶음
대기근 대+기근
기근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림

## 수입국

식량 식량

수출국 막으니까 우리 공급이 텅텅 비었어!! 이러다가는 국민들이 굶게 생겼는 걸?

식량

곡물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어 우리 개산한 국민들이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섰고 있어!!!

이를 어쩌지...

## 수출국

코로나 19로 이동이 위험하니까 식량 반출을 금지 해야겠어!!

안 돼! 우리 거국 내 식량도 언제 동날지 모른다고! 식량까지 챙겨줄 여유는 없어!

흐...

우리도 마찬가지야... 다른 나라에서 오는 일손들이 못오게 되면서 반려 아니면 수확하지 못한 곡물들을 갈아 엎어 버리고 있어 ㅠㅠ 흐... 이를 어쩌면 좋아

마인드 맵

- 수입국
  - 식량이 동남
  - 국민들이 굶음
    - 인도, 콜롬비아, 케냐
      - 식량 배급을 받으려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음
    - 홍콩
      - 80% 수입에 의거
        - 식료품 구매량 감소 (쌀: 두부서/기장: 할인자)
- 수출국
  - 금지 → 식량 기근
  - 코로나 19 장기화
    - 수출 금지령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 밀 수출 제한 중단
- 선진국
  - 이동 어려워짐
    - 일손 부족
      - 미국
        - 멕시코인이 일해옴
      - 유럽
        - 북아프리카인이 일해옴
          - 코로나로 일손 사라짐
            - 상추, 콩, 토마토 등을 드럭 터로 갈아엎음

느낀점 : 가난한 사람들이 굶게 된다는 것도 속상하고 슬펐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도 식량 위기에 처해 질 수 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다. 논밭들이 정성껏 기른 농축산물을 스스로 갈아 엎어야 한다니 농부들은 일부나 온 몸을 흘렸을지 산산히 가치가 있는다.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식량이 많아 식량이 동날 수도 있다는데 걱정이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피해 입는 사람들도 사

NO. 일기 제목 :

| | | | |
|---|---|---|---|
| 일기작성일 | 년 월 일 | 언론사 | |
| 기사발행일 | 년 월 일 | 기자명 |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유럽 스키장 개장, 반대한다

최근 알프스 산맥이 지나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같은 나라의 스키장이 개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스키장을 폐쇄하면 20억 유로의 손해가 발생하게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크다. 하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겨울에는 스키장을 폐쇄해야 한다.

첫째, 위험에서 코로나 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키장을 개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스키장은 많은 여행객이 몰리는 장소이다. 스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리프트, 식당, 숙소에서 접촉하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 오스트리아 스키장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감염이 주변국으로 확산된 적도 있다. 주변국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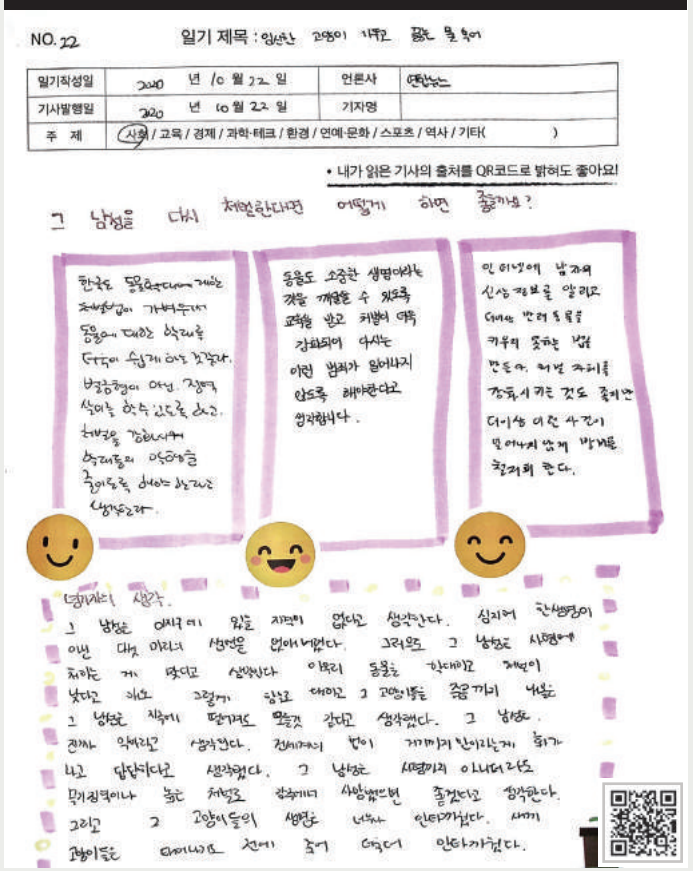
둘째, 스키장을 개장해서 이득을 얻어도 코로나 19 확산으로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스키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코로나 19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한다. 병원 부족 등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렇게 코로나 19 확산자가 급증하면 일할 사람들이 늘고 경제가 위험해진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극도로 우울해질 수도 있다.

코로나 19는 세계인의 건강 문제이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 뒤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따라서 세계인의 목숨을 책임질 수 없다면 스키장에 가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리고 스키장을 폐쇄해 확산의 기회를 없애버려야 한다.

"end"
끝

# 개인 어린이 고학년 **동상 수상작**

## 세계중앙지역아동센터 곽인영



NO. 22 일기 제목 : 임신한 고양이 키우고 싶은 물욕이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0 월 22 일 | 언론사 | 연합뉴스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0 월 22 일 | 기자명 |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그 남성을 대신 처벌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도 동물학대에 대해 처벌법이 가벼우니 동물에 대한 학대를 더욱이 쉽게 하고 있다. 보호종이 아닌 장묘 상이는 학대 신고를 하고 처벌을 강화시켜 속래동의 아픔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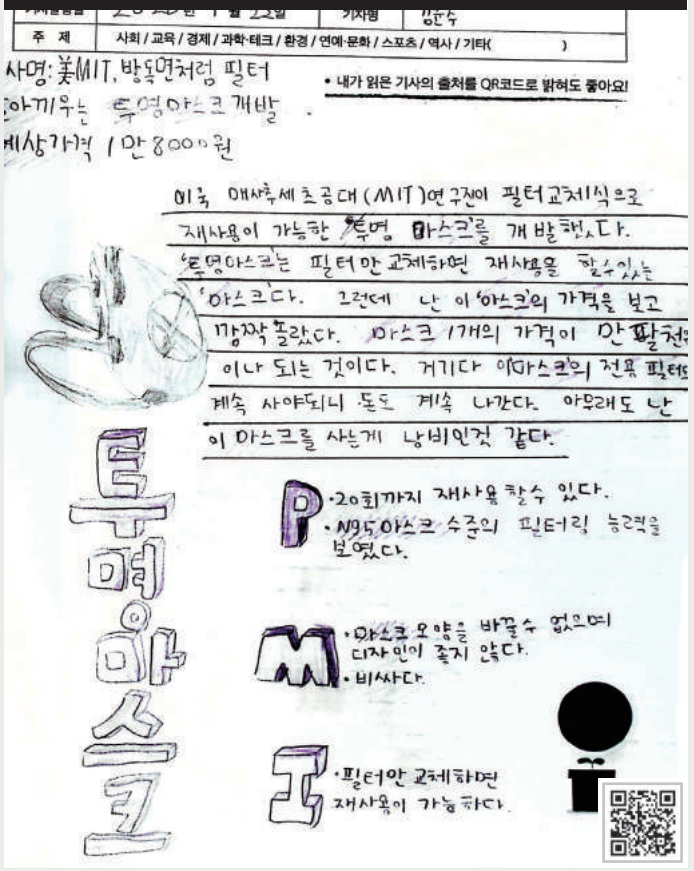
동물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 이넷에 남과의 신상 정보를 알리고 더욱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법률 만들어 처벌 조치를 강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더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방지를 철저히 한다.

덧붙이는 생각.

그 남성은 어디에 있을 지라도 없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한생명이 아닌 다섯 마리의 생명을 없애버렸다. 그러므로 그 남성은 사형에 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물을 학대하고 제멋대로 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 고양이들을 죽음까지 내몰은 그 남성은 지금에 판결도 모자랐다고 생각했다. 그 남성은 진짜 악마라고 생각한다. 전세계의 법이 거꾸로 인이라는게 화가 나고 답답하다고 생각했다. 그 남성은 사람이 아니라고도 무기징역이나 높은 처벌로 강하게 사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고양이들의 생명은 너무나 안타까웠다. 새끼 고양이들은 태어나자 전에 죽어 더욱더 안타까웠다.

## 점촌초등학교 6학년 김영찬



| | | | |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1 월 22일 | 기자명 | 장윤수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사명: 美MIT, 방독면처럼 필터 아끼우는 투명마스크 개발

예상가격 1만800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연구진이 필터교체식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투명 마스크를 개발했다. '투명마스크'는 필터만 교체하면 재사용을 할수있는 '마스크'다. 그런데 난 이 '마스크'의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마스크 1개의 가격이 만 팔천원이나 되는 것이다. 거기다 이마스크의 전용 필터도 계속 사야되니 돈도 계속 나간다. 아무래도 난 이 마스크를 사는게 낭비인것 같다.

투명마스크

P
- 20회까지 재사용 할수 있다.
- N95 마스크 수준의 필터링 능력을 보였다.

M
- 마스크 모양을 바꿀수 없으며 디자인이 좋지 않다.
- 비싸다.

E
- 필터만 교체하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 개인 어린이 고학년 **동상 수상작**

## 서울봉현초등학교 6학년 박은찬

NO. 13 14 일기 제목 : 조두순 때문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저주 … 허불성설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9 월 27 일 | 언론사 | 메니 뉴데이 |
| 기사발행일 | 2020 년 9 월 18 일 | 기자명 | 김신호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12년 전에 8살 어린 아이를 성폭행 했던 조두순이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 아이는 배변주머니를 찰 정도로 심각하게 성적인 상태보고 강신적 피해도 많이 입었다. 그래서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는 소식에 이사를 가게 된다. 그러면 나라는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야 하는가?

①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 해야 한다.

조두순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조두순 그대로 자유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이사를 간다. 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가해자의 인권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조두순의 인권 때문에 주시 이웃에 위치해 있는지 몰라서 다른 주민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피해자는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조두순)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감안 넣어두고 자신만 위치를 밝혀내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② 술 먹고 범죄 저지도 생각한 것을 인지해야 한다.

자기가 술을 마시고 취한 것인데 왜 형벌을 낮추는지 잘 모르겠다.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 질 수 없는 것이고 술을 마신 것도 자신 자질은 없어다. 처음부터 술을 마신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범죄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술을 마셨다고 범죄가 낮아지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내거나 피해자가 받는 상처는 같고 결국엔 같은 범죄다.

어떤 문제들을 없앨 때 피해자는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때문에 힘든 시기에도 잘 버텨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인천삼목초등학교 4학년 서유준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1 월 29 일 | 언론사 | 한국일보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1 월 25 일 | 기자명 |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요약

"아빠가 의무를 저버린 가정에 비해, 경제 능력이 있는 제가 혼자라도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방송인 홍지아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 고백은 부부관계 안에서 출산만을 정상적으로 여기는 한국의 가족제도에 의문을 던졌다. 유럽에선 혼자 출산이 자연스럽다고 한다. 나는 혼자출산에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해 응원의 말을 해주고 싶다.

나의 생각

나는 충분히 남편 없이 엄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가 아빠가 없다고 슬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있는데 자기는 아빠가 없어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 없이 부모가 되는 것에 나쁘지는 않다. 자신이 아이를 기질 지 결정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혼자아이를 가지려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같다.

남편 없이도 아이는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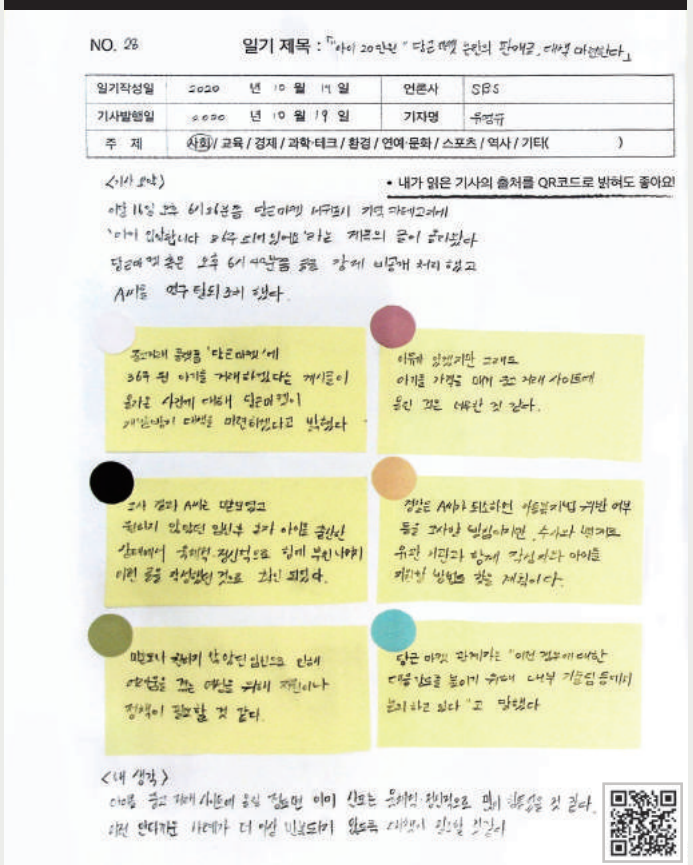
자기 혼자서 아이를 가지려다 이런 것을 이상하게 보는 눈이 많아 포기한 사람도 많다. 하지만 나는 자기 혼자서 아이를 것에 나쁘고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다.

부부 출산 만이 정상!

원래대로 라면 부부 둘에서 한 아기를 출산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물론 법망을 벗어나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 아이를 탄생시킨다. 그래서 아이를 혼자 가지는 것을 나쁘게 보는 편견이 있다.

# 개인 어린이 고학년 **동상 수상작**

## 경남샛별초등학교 6학년 신예서



NO. 28

일기 제목 : 「"아이 20만원" 닌텐도 게임 마켓 유린의 판매로 대성 마련한다」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0 월 19 일 | 언론사 | SBS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0 월 19 일 | 기자명 | 유영규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기사 요약>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어젯 11일 오후 6시 31분쯤 닌텐도 게임 사이트에 키즈 마켓이라는 '아이 인형'이 '3억 5천 원에 팔아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닌텐도 측은 오후 6시 40분쯤 글을 삭제 비공개 처리 했고 A씨를 연구 팀의 3명이 했다.

종이에 공짜로 '닌텐도 게임'에 3억 원 아이템 거래라면 다른 게임들이 올라온 사진에 대해 닌텐도 측이 게임에서 대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무래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템 가격을 매겨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린 것은 어려운 것 같다.

그사 경의 A씨는 대성 명고 유리의 인적적 일시부 3억 아이템 금전적 상태에서 유혹적 정신적으로 힘에 부친나머지 이런 글을 작성했던 것으로 추정 된다.

정말로 A씨가 되도하면 아동보호법 구반 여부 등을 고려한 엄밀하면 수사나 변경도 유관 기관과 함께 작성자와 아이템 거래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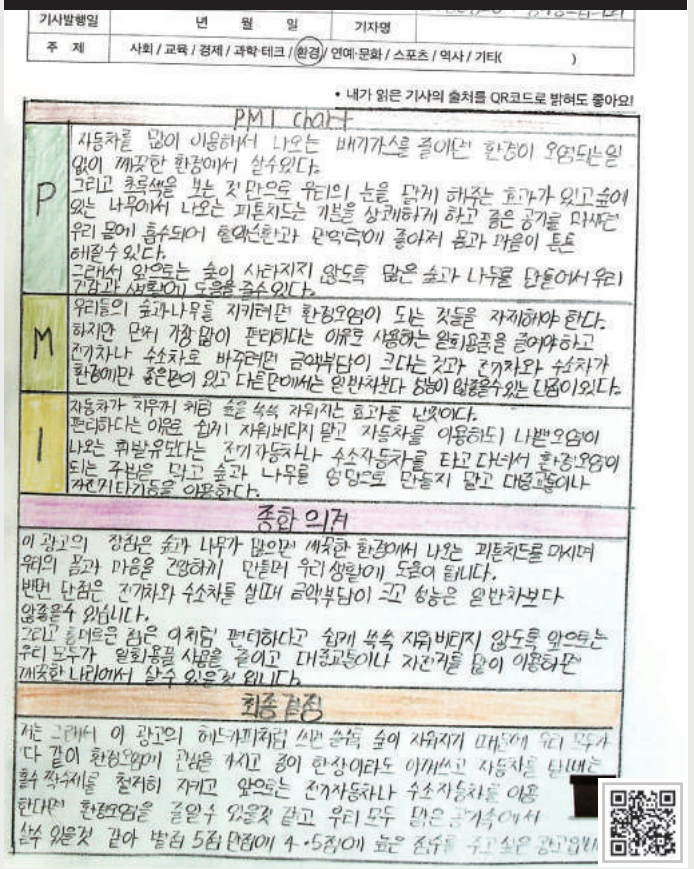
대표의 관계자 인터뷰 인터뷰로 인해 대성을 얻는 예는 우리에 재판이나 징벌이 필요할 것 같다.

당근 마켓 관계자는 "이번 경우에 대한 다양 경로를 통해 유해 내부 기준을 등록하고 보다 "고 말했다

<내 생각>

이렇게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린 것 보면 이미 신뢰성 정신적으로 많이 훼손될 것 같다. 이런 닌텐도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으려면 관리할 것 같다.

## 서울봉현초등학교 6학년 신재민



| | | | |
|---|---|---|---|
| 기사발행일 | 년 월 일 | 기자명 |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PMI chart

P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여 나오는 배기가스를 줄이면 환경이 오염되는 일 없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수있다.
그리고 초록색을 보는 것 만으로 우리의 눈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숲에 있는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 우리 몸에 흡수되어 혈액순환과 면역력에 좋아져 몸과 마음이 튼튼해질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많은 숲과 나무를 만들어서 우리 기업과 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다.

M
우리들의 숲과 나무를 지키려면 환경오염이 되는 것들을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먼저 가장 많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줄여야 하고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려면 금액부담이 크다는 것과 전기차와 수소차가 환경에만 좋은면이 있고 다른면에서는 일반차보다 성능이 안좋을수 있는 단점이 있다.

I
자동차가 자유까지 커짐 숲은 쑥쑥 자라지는 효과를 낸것이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쉽게 자유비티지 말고 자동차를 이용하도 나쁜오염이 나오는 휘발유또다는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를 타고 다녀서 환경오염이 되는 주범은 막고 숲과 나무를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타기등을 이용한다.

종합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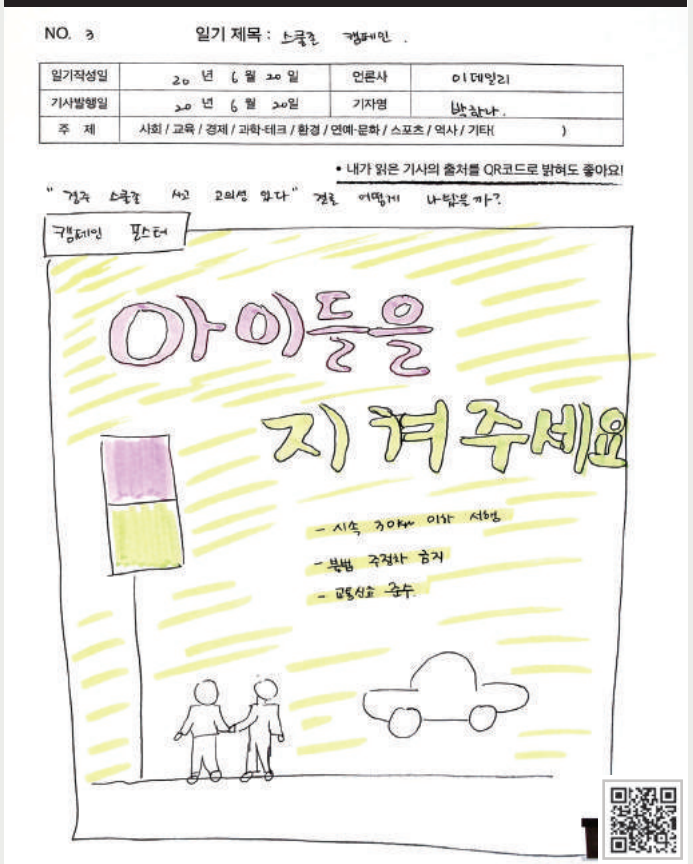
이 광고의 장점은 숲과 나무가 많으면 깨끗한 환경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마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며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단점은 전기차와 수소차를 살때 금액부담이 크고 성능은 일반차보다 안좋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보은 점은 이처럼 편리하다고 쉽게 쑥쑥 자유비티지 않도록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면 깨끗한 나라에서 살수 있을것 입니다.

최종 결정

저는 그래서 이 광고의 헤드카피처럼 쓰면 쑥쑥 숲이 자유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환경오염에 관심을 가지고 좋이 한장이라도 아끼쓰고 자동차를 탄때는 흡수 작수제를 철저히 지키고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를 이용한다면 환경오염을 줄일수 있을것 같고 우리 모두 맑은 공기속에서 살수 있을것 같아 별점 5점 만점에 4.5점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광고입니다.

# 개인 어린이 고학년 **동상 수상작**

## 서울지향초등학교 6학년 이서연



NO. 3 일기 제목 : 스쿨존 캠페인 .

| | | | |
|---|---|---|---|
| 일기작성일 | 20 년 6 월 20 일 | 언론사 | 이데일리 |
| 기사발행일 | 20 년 6 월 20일 | 기자명 | 박찬나.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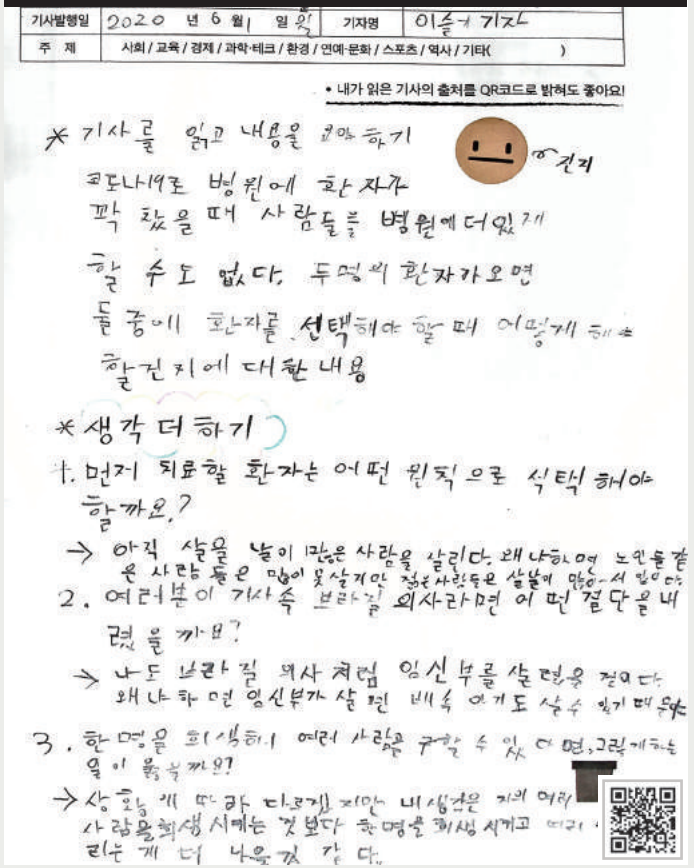
" 경주 스쿨존 서고 고의성 없다" 결론 어떻게 나왔을까?

캠페인 포스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시속 30km 이하 서행
- 불법 주정차 금지
- 교통신호 준수

## 천안두정초등학교 4학년 이수현



| | | | |
|---|---|---|---|
| 기사발행일 | 2020 년 6 월 일 일요 | 기자명 | 이슬기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기사를 읽고 내용을 요약하기

건기

코로나19로 병원에 환자가 꽉 찼을 때 사람들을 병원에 더 있게 할 수도 없다. 두명의 환자가 오면 둘 중에 환자를 선택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건지에 대한 내용

* 생각 더하기

1. 먼저 치료할 환자는 어떤 원칙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 아직 살을 날이 많은 사람을 살린다. 왜냐하면 노인들 같은 사람들은 많이 못살지만 젊은사람들은 살날이 많으니 입니다.

2. 여러분이 기사속 브라질 의사라면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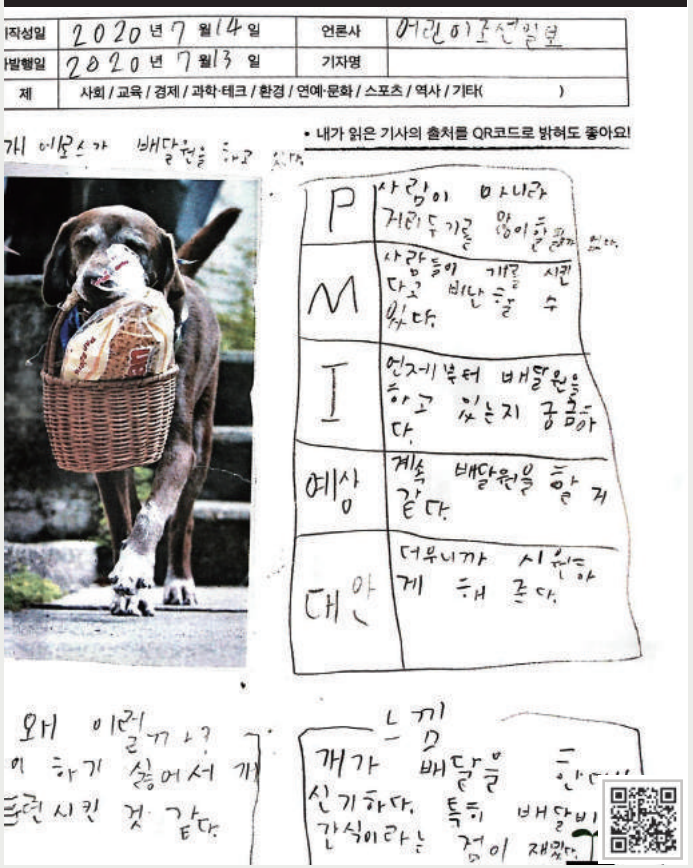
→ 나도 브라질 의사처럼 임신부를 살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임신부가 살면 배속 아기도 살수 있기 때문에

3. 한명을 희생하여 여러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일이 옳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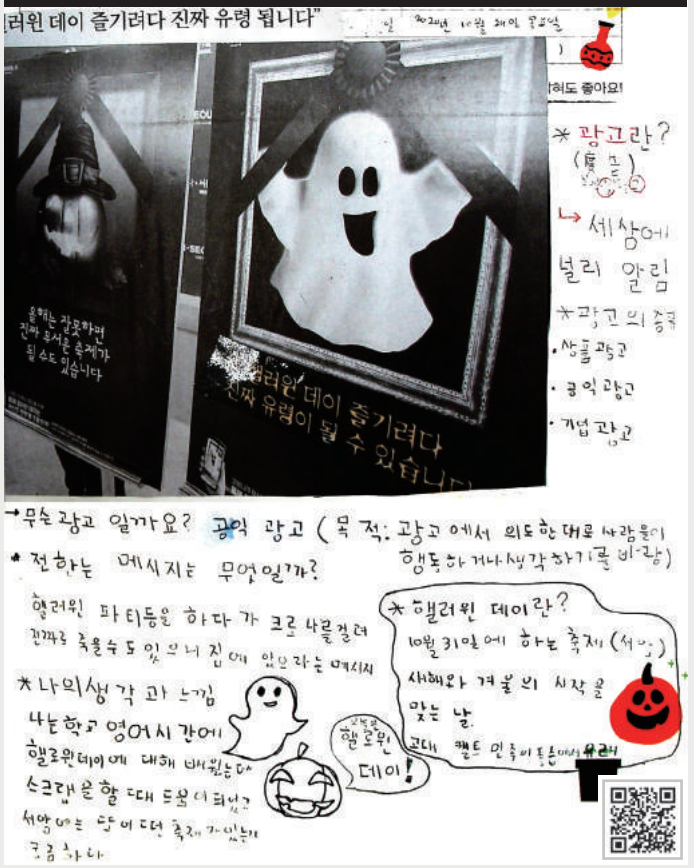
→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 생각은 차라리 여러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보다 한명을 희생시키고 여러 사람을 살리는 게 더 나을것 같다.

# 개인 어린이 고학년 **동상 수상작**

대감초등학교 5학년 이재원




천안두정초등학교 4학년 이지현



# 개인 어린이 고학년 **동상 수상작**

## 점촌초등학교 5학년 이현정

NO. 18 일기 제목 : 제발 좀 헤어지자 ...!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0 월 14 일 | 언론사 | 중앙일보 |
| 기사발행일 | 2020 년 8 월 5 일 | 기자명 | 김민욱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뉴스내용

직장인 김모 (37·여)씨는 요즘 마스크 쓰기가 겁난다. 코와 볼, 입 주변에만 보루지 비슷한 게 두둘두둘 올라왔다. 마스크를 쓴 쪽에 집중적으로 생겼다.

작곡 시!!

이제그만 헤어지자

이현정

하얀색, 파란색, 까만색
알록달록 무지개색
똑같지만 다른 모양들

우리가 만난지 어느새 1년
매일 너와 함께 지내면서
참 많은 순간을 함께 했었지
때로는 귀가 아프기도 하고
숨쉬기가 불편해서 너를 미워하기도 했어

하지만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 들어
근데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마스크야 이제 그만 헤어지자.

## 해맑은지역아동센터 주은아

NO. 43 일기 제목 : 네이버 '실검', 16년만에 역사 속으로

| | | | |
|---|---|---|---|
| 일기작성일 | 2021 년 2 월 19 일 | 언론사 | dong A. com |
| 기사발행일 | 2021 년 2 월 5 일 | 기자명 | 김성모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네이버 실시간 검색

2005년 5월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 이 서비스는 이름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면 관심을 끌었지만 여론 조작 공간 논란 등을 빚었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가 1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실시간 검색 장점

네이버 첫 화면에 등장하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은 이슈가 되기까지 핫한 소식을 빨리 알려준다. 요즘 검색어 1위에 뜨는 기사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실시간 검색 단점

실시간 검색에 등장 검색어를 조작 시키는 대행사가 등장 했고, 검색더에 악성 코드를 심어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일당이 개설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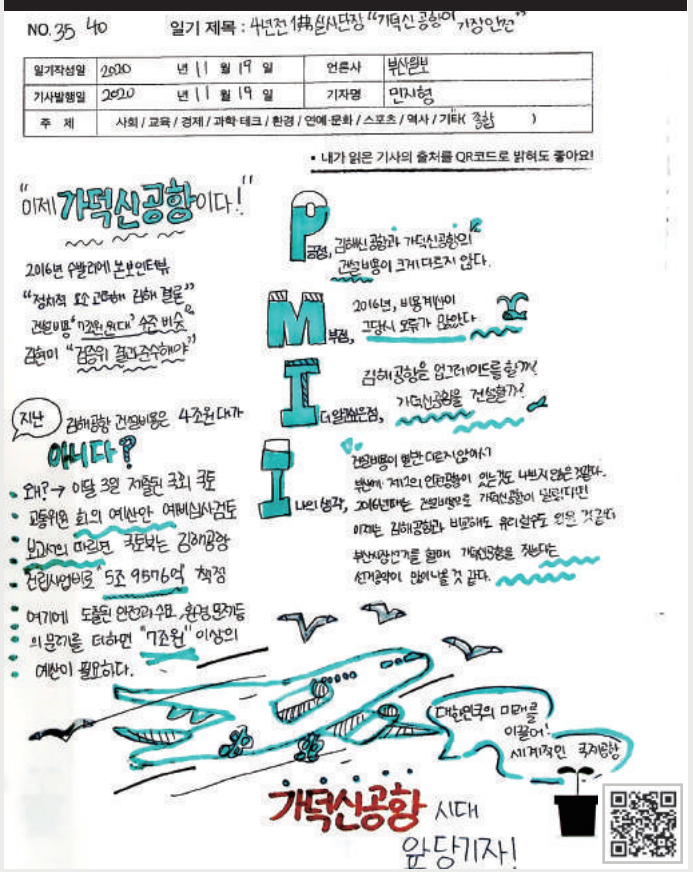
핫스팟의 지적

카카오는 지난해 2월 다음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이슈검색어' 서비스를 이미 폐지한 상태다. 네이버 측은 "검색어가 다양한, 세분화 되면서 공감을 검색어가 대중의 관심사를 단편만 다룬 보기 어려워졌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고도화해 다른 방식으로 정확한 트렌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내 생각 : 실시간 검색어로 등록된 키워드에 대한 기사를 손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는데, '실 검'이 사라진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든다.

# 개인 어린이 고학년 **동상 수상작**

## 주감초등학교 6학년 최서홍



NO. 35 40 일기 제목 : 4년전 佛 실시단장 "가덕신공항이 가장 안전"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1 월 19 일 | 언론사 | 부산일보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1 월 19 일 | 기자명 | 민지형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인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종합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이제 가덕신공항이다!"

2016년 수빌리에 본보인터뷰
"정치적 요소 고려해 김해 결론"
건설비용 "7조원 원대" 수준 비슷
김현미 "검증위 결과 존중해야"

지난 김해공항 건설비용은 4조원대가 아니다?

왜? → 이달 3일 지출된 국회 국토
교통위원 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검토
보고서의 따르면 국토부는 김해공항
전략사업비로 5조 9576억 책정

여기에 도출된 안전과 수요, 운영 문제들
의 문제를 더하면 "7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P 공정, 김해신공항과 가덕신공항의 건설비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M 부정, 2016년, 비용계산이 고당시 오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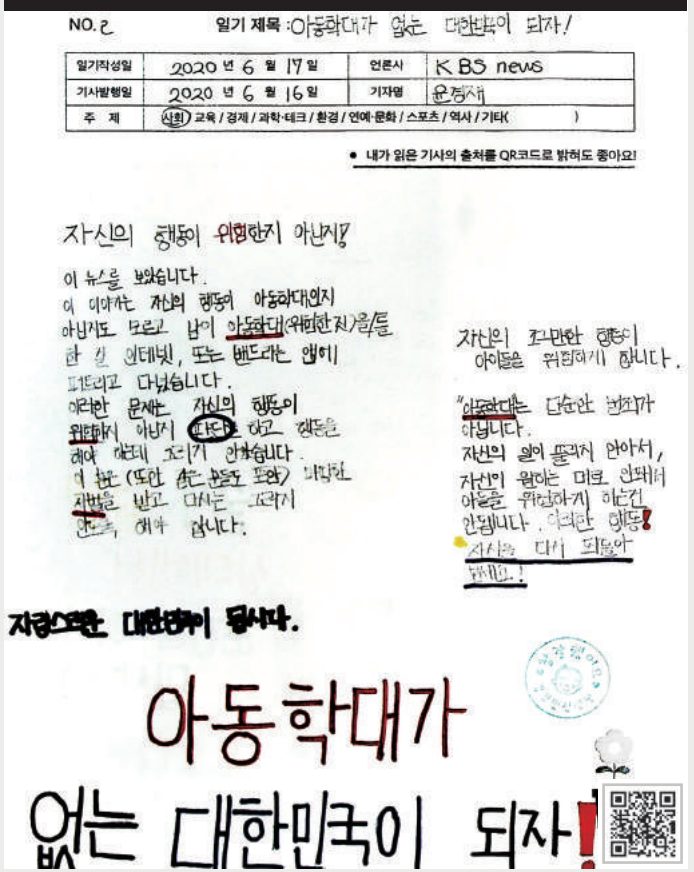
I 더 알찬 쇼점, 김해공항을 업그레이드를 할까? 가덕신공항을 건설할까?

I 나의 생각, 건설비용이 별반 다르지 않아서 부산에 지금의 인프라공항이 있는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에는 건설비용으로 가덕신공항이 달랐다면 이제는 김해공항과 비교해도 유리할수도 있을 것 같다. 부산광역시가 앞으로 가덕신공항을 짓는다는 선거공약이 이어나갈 것 같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세계적인 국제공항

가덕신공항 시대 앞당기자!

## 점촌초등학교 5학년 황세빈



NO. 2 일기 제목 : 아동학대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자!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6 월 17 일 | 언론사 | KBS news |
| 기사발행일 | 2020 년 6 월 16 일 | 기자명 | 윤경식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인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자신의 행동이 위험한지 아닌지!

이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행동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남이 아동학대(위험한 짓)를 들한 일 인터넷, 또는 밴드라는 앱에 포스트하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신의 행동이 위험한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데 조심히 안했습니다.
이 뉴스 (또한 유튜브 포함) 내용의 자료를 받고 다시는 조심히 관리, 해야 합니다.

자신의 조그만한 행동이 아이들을 위험하게 합니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자신의 일이 풀리지 않아서, 자신이 원하는 미로 인해서 아동을 위험하게 하는건 안됩니다. 이러한 행동! 자신을 다시 되돌아 봅시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됩시다.

아동학대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자!

# 개인 어린이 고학년 **동상 수상작**

서울행현초등학교 4학년(독서와NIE학원) 황호준

NO. 9　　일기 제목 : 유튜브를 바른 프로그램으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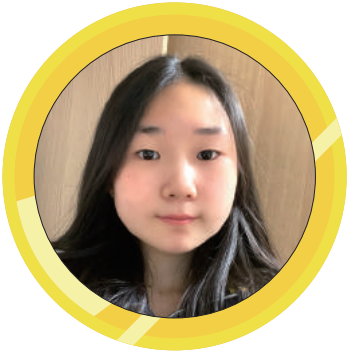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0 월 15 일 | 언론사 | 서울 신문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 월 5 일 | 기자명 | 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
| 주 제 | (사회)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어린이 유튜버〉

지난해 유튜버 중 최고 수익을 올린 건 어린 실의 라이언 카지였다.
우리 나라 초등학생중 장래희망을 조사하였는데 3위가 유튜버였고 4위가 의사였다
어린이 유튜버 활동이 바람직한지 생각을 해볼 문제다.
유튜버 활동에 긍정의견은 어린이들이 재미와 흥미를 느낄수 있다고 한다. 유튜브에서는 재밌는 활동을 하면 사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할 수있다. 〈이성 하은〉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춤을 추고 〈마이린 TV〉에서는 자기의 일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재미와 흥미를 느낀다.
또 많은 정보과 미래의 직업도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한다.
유튜버 활동에 반대의견은 자극적인 나쁜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유튜버는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 나쁜말 욕을 한다. 계속 하면 나쁜말 욕을 하는게 습관이 되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광고가 비싸게 때문에 돈이 295,000원이다 싼 것은 30만원이고 비싼 것은 1000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그 돈은 부모님이 지불해야 한다. 또 어른들이 아이들을 돈 버리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저작권 사용도 일어날 수 있다.
유튜버활동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유튜브는 아이들에게도 득이 될 수 있다
어린이와 어른도 현명하게 판단하면서 해야한다. 그래서 유튜브는 바르고 현명하게 사용해야한다
유튜브를 바른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다

# 개인 청소년 **금상 대표**



**<윤혜원의 뉴스일기>**

**윤혜원** / 신림중학교 1학년

## 수상소감

먼저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는 공모전에 참여하기 전부터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칼럼노트' 라는 이름의 일기를 작성하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뉴스일기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꾸준히 써오던 칼럼노트가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뉴스일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작성하다 보니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되니 뿌듯함을 느낍니다. 중간에 일기 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저는 무슨 일이든 꾸준히, 끈기 있게 도전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공모전에서 저의 뉴스일기가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느낀 점

뉴스일기를 작성하기 전에는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을 때 제가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공모전에 참여하기 전에는 보통 한 언론사의 신문만 읽었는데,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다양한 신문사의 신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뉴스를 보는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읽다가 모르는 용어가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검색하면서 일기를 작성하니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는 능력도 기르게 되고, 그 주제에 대해 조금 더 깊게 공부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뉴스일기 작성 TIP!

뉴스 기사를 선정할 때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도 좋지만, 관심이 없던 분야의 기사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른다면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고 뉴스일기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뉴스 기사를 요약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보다 훨씬 생각도 넓어지고 새로운 분야에 흥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가지 이상의 뉴스 기사를 비교해서 뉴스일기를 작성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동일한 주제여도 각각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의 기사나 칼럼을 살펴보면 다양한 입장으로 뉴스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 미디어 뉴스 분석 틀'을 이용하여 작성하기, '4컷 만화로 기사 요약하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NO. 30 일기 제목 : 언택트 소비 늘며, 택배 물동량 급증

| | | | |
|---|---|---|---|
| 일기작성일 | 2021 년 1 월 20 일 | 언론사 | 조선일보 |
| 기사발행일 | 2021 년 1 월 20 일 | 기자명 | 장상진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스마트 미디어 분석(도)을 이용하여 쓰기>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표제: 코로나 1년, 택배 33억개가 움직였다.

분석하기

이 뉴스를 작성한 사람은 장상진 기자님이다. 이 뉴스의 발행기관은 조선일보이다. 생산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국내 택배 물동량이 2019년보다 21% 늘어났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이 뉴스를 생산한 것 같다. (생산자)

이 뉴스에 포함된 시각자료에는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은 좁 앞에 택배상자가 쌓여 있는 모습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 택배 물량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키워드도)

이 뉴스의 제목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지난 1년간 언택트 소비 늘어 택배 물동량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 뉴스에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포함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뉴스에서는 사실적인 내용, 예를 들면 몇% 증가·감소 같은 내용을 위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키워드만)

택배기사님들(택배회사)이나 쇼핑몰 운영자들이 이 뉴스에 관심을 가질 것 같다. 왜냐하면, 쇼핑몰 운영자들이 이 뉴스를 본다면,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이 뉴스를 통해 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

평가하기

작성자는 믿을 만 하다. 왜냐하면 작성자의 이름을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추측에 근거한 보도 내용은 없는 것 같다. (신뢰성)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것 같다. 그런데, 필요한 정보들은 시각적인 자료로 나타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해당 사안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앞으로 쇼핑몰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상황을 어떤지.. 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것 같다. (완전성)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매장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온라인 매장으로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또,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택배 물동량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용성)

그동안 가사 분담

완소

NO. 4 일기 제목 : 안산 유치원 식중독, 감염경로 파악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7 월 2 일 | 언론사 | 조선일보 |
| 기사발행일 | 2020 년 6 월 29 일 | 기자명 | 권상은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핵심단어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식중독: 감염성/독소형 질환

투석기: 환자의 혈액을 투석기를 통과시켜 혈액을 걸러 낸 다음 공급하는 것.

표제 : 안산 유치원 식중독, 열흘 넘게 감염경로 깜깜

중심문장: 음식·조리도구 등에서 균 안나와 유치원의 학습과정까지 살펴보는 중

기사요약 : 경기 안산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의 감염경로가 열흘 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식중독 사고의 원인은 장 출혈성 대장균이었다. 하지만 유치원 아이들이 먹는 보존식과 식재료는 물론 환경 검체를 두루 채취했지만, 아직까지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아 보건 당국은 유치원의 학습 과정까지 살펴보고 있다. O-157균 양성 반응을 보인 58명 중 증상이 심한 어린이 22명 가운데 15명은 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고 있다. 또, 4명은 투석치료까지 받고 있다.

해결방안 :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는 것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아이들이 먹은 음식에 균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유치원은 항상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깨끗이 소독해야 한다. (아이들은 위생상 안전하지 않은 것을 만지고, 눈·코·입을 만지기 때문이다.) 또, 음식은 항상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검증된 식품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나의생각 : 우선, 아이들이 잃은 나았으면 좋겠다. 유치원 원생의 부모님들이 걱정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유치원을 믿고 아이를 보낸 것인데, 심각한 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또, 내가 알기로는 햄버거병(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걸리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아직 초등학생도 안된 아이들은 정신적으로도 고통받을 것 같다고 하다. 나는 유치원 원장이 무조건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직 2살어려서) 유치원 원장은 아이들을 잘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의 잘못이 조금 크다고 생각한다.

| 일기작성일 | 2020 년 7 월 30 일 | 언론사 | 조선일보 |
|---|---|---|---|
| 기사발행일 | 2020 년 7 월 28 일 | 기자명 | 김성민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

표제: 카페가 로봇, 엘리베이터 타고 8층 회의실로 음료 배달 왔다.

중심문장: 병실·수술실 소독하는 멸균 로봇, 택배원 역할하는 자율배송 로봇…
코로나 사태 이후 폭발적 성장세

용어: 액추에이터: 전기, 유압, 압축 공기 등을 사용하는 원동기의 총칭으로서, 보통은 유체 에
이용하여 기계적 일을 하는 기기.

기사요약: 코로나가 로봇 산업에 불을 지폈다. 해외에서는 '로봇 알바'도 등장했다. V
단말기를 통해 사람이 원격으로 제어 → 로봇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코로나
대인 접촉 기피 현상이 벌어지면서 로봇이 실생활 곳곳에서 주목받고 있다
로봇의 활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정용과 전문 서비스용 로봇의 활용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의생각: 로봇을 이용하면 좋은점…

나의생각: 로봇을 이용하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입장…

소비자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다.

로봇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매장 (음식점)

₩ ↑ 경제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이 시국에 로봇을 이용하여 돈을 벌 수 있다.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마냥 좋지만은 않은 상황 하지만, 실업자가 전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도착지:

로봇이 배달한곳.

배달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받아야 할 거스름돈: 1000

로봇이 배달하여 받은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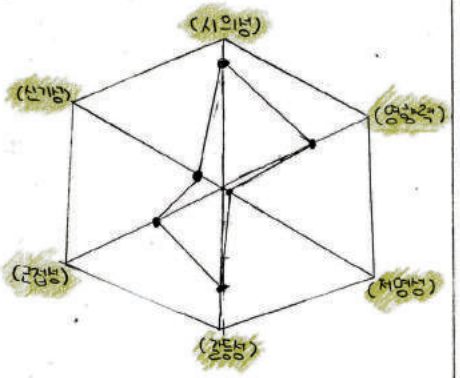
소비자가 가게에 미리 얼마를 낼 건지 말해주지 않으면 받아야 할 거스름돈을 제대로 받지 못이 발생할 수 있다.

NO. 12 일기 제목: 클릭 한 번 잘 못 했다가, 직장에서 잘릴수도…

| 일기작성일 | 2020 년 8 월 24 일 | 언론사 | 조선일보 |
|---|---|---|---|
| 기사발행일 | 2020 년 8 월 24 일 | 기자명 | 신수지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여섯가지 뉴스가치로 분석하기〉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 |
|---|---|
| 시의성 | 한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32)씨가 최근 끈은 일이기 때문에 시의성이 있다 |
| 영향력 | 영향력의 크기는 잘 모르겠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영향을 미칠것 같다. |
| 저명성 | 수 많은 직장인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사건의 당사자는 유명하지 않다. |
| 갈등성 | 직장인과 직장 상사와의 의견 갈등이나 대립 요소가 많다. |
| 근접성 | 직장인들에게는 가까운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근접성은 없는 것 같아 |
| 신기성 | 종종 발생하는 일이어서 신기성은 없는 것 같다. |




〈여섯가지 뉴스가치로 분석하기〉

〈나의 생각〉

드라마에서도 직장 상사의 뒷담화 하는 것을 실수로 단체 톡방에 전송하여 곤란해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나는 상사에게 직접 불편한 점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지만, 전송 실수로 인해 곤란해지는 것보다는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 죄가 더 무거워졌다

| 일기작성일 | 2021 년 1 월 27 일 | 언론사 | 조선일보 |
|---|---|---|---|
| 기사발행일 | 2021 년 1 월 27 일 | 기자명 | 변희원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스마트 미디어 분석 툴을 이용하여 쓰기〉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표제: 빨대가 사라진다

이 뉴스를 작성한 사람은 변희원 기자이다. 그리고, 이 뉴스의 발행기관은 조선일보이다. 이 뉴스의 생산자 변희원 기자는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하여 음료 용기를 이용할 때에는 빨대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뉴스를 작성한 것 같다. (생산자)

이 뉴스에 포함된 시각자료는 사진이다. 이 사진은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빨대 없는 컵 커피'이다. 그리고, 이 뉴스는 6하원칙에 맞게 작성되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구성요소)

이 뉴스의 제목 '빨대가 사라진다'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여러 기업들이 환경을 위해 음료 용기에 빨대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 뉴스에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의미구성)

음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 뉴스에 관심을 가질 것 같다. 왜냐하면, 아직 음료용기에 빨대를 없애지 않은 기업들이 빨대를 없애는 것에 동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일반 사람들 (특히, 평소에 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도 이 뉴스에 관심을 가질 것 같다. 왜냐하면, 자신이 공짜로 얻는 환경보다 편리를 생각하여 빨대가 있는 음료 용기를 구매하였는데, 이 뉴스를 읽으면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져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

이 뉴스의 작성자는 믿음직하다. 왜냐하면, 언론사와 기자명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추측에 근거한 보도 내용은 없다. (신뢰성)

이 뉴스의 제목이 보도내용을 잘 반영하였다.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다. 왜냐하면, 남양유업이 빨대를 없애게 된 계기도 말해주었기 때문이다(등등) (완전성)

이 뉴스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왜냐하면, 환경은 우리가 살면서 잊어서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하는 규범이나 사회적 가치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유용성)

평소에 나도 음료를 살 때 빨대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샀는데, 앞으로는 환경을 생각하여 빨대 없는 컵을 이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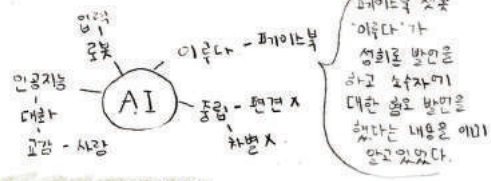


NO. 29 일기 제목 : AI는 중립이 아니다..?

| 일기작성일 | 2021 년 1 월 14 일 | 언론사 | 조선일보 |
|---|---|---|---|
| 기사발행일 | 2021 년 1 월 12 일 | 기자명 | 오로라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KWL'로 쓰기〉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K.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W. (주제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내용)

AI 인공지능 챗봇의 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알고 싶다. 그리고, AI 인공지능 챗봇이 어떻게 유색인종·장애인·성 소수자에 관한 내용에 입력하지도 않은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L. (글을 읽고 새로 알게 된 내용)

여성·유색인종·장애인·성소수자 등을 향한 혐오 발언을 쏟아낸 챗봇이 '이루다'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다. 그로 인해 AI가 중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다. 또, AI 챗봇 이용자가 AI 챗봇에게 차별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학습시키면, 결국 AI 챗봇은 차별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알게 되었다. AI 챗봇을 만들 때 소수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배우게 하려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새롭게 알게 되었다.

(더 조사하고 싶은 내용)

페이스북 챗봇 '이루다'에게 놓친 키워드를 추가하였다. '이루다'에게 키워드를 추가하여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제한하여도 챗봇 이용자와 챗봇이 본래 목적대로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조사하고 싶다. 또, AI 인공지능 챗봇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도 더 조사하고 싶다.

# 개인 청소년 **은상 대표**

**<사춘기 해결편>**

**김재희** / 구암중학교 1학년

## 수상소감

처음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제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언가 꾸준히 해본 것에 대해 한 번도 보상을 받아보지 못한 터라, 성취감에 정말 뿌듯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상을 받고 나니 도움을 주신 분들이 떠오릅니다. 우선 저를 이끌어 주시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신 선생님, 다양한 뉴스를 제공해주신 부모님, 친구들 등 1년간 저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거운 안경을 벗고 조금이나마 세상을 원색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건지 불안할 때도 있었지만, 한 장 한 장 써 온 글들이 인정을 받으니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아직 못다 한 말이 많지만, 일기장을 통해 저의 많은 이야기가 오래오래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 느낀 점

뉴스일기를 쓰는 동안, 저 자신에 대해 많은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칼럼을 읽으면서 '이와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난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 또는 '나도 작성자의 생각과 같아.' 등 저의 생각을 정리해나갔습니다. 그런 연습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 저는 평소 머뭇거리던 것들에 대해 명확히 선택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많은 뉴스를 읽어 나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가짜 뉴스들이 즐비한 요즈음,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한번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뉴스일기에 고마울 따름입니다.

## 뉴스일기 작성 TIP!

처음에는 일반 신문 기사를 읽다가, 점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해져 칼럼을 많이 선정했습니다. 기사를 선정할 때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관점이 다른 언론사의 기사들을 보면서 그렇게 쓴 이유와 배경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기사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각이 비슷한 뉴스라도 무조건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보다 반론해본다는 생각으로 읽는 것이 비판적인 시각을 기르는 데 좋습니다.

일기를 작성할 때는 주로 나의 경험과 입장을 연관 지어 작성했고, 여러 가지 형식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일기장 앞의 뉴스 분석표를 보고 뉴스의 가치를 평가해보거나, 대립하는 입장의 두 사람이 되어 인터뷰하거나, 마인드맵, 만화 등의 방법으로 뉴스일기를 작성하는 것이 저의 노하우입니다.

NO. 일기 제목 :

| | | | |
|---|---|---|---|
| 일기작성일 | 년 월 일 | 언론사 | |
| 기사발행일 | 년 월 일 | 기자명 |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미디어 일기쓰기 더 찾아보기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표제: 빨갰던 소방관. 침착한 주민… 매뉴얼이 살렸다.

음어: 주상복합(住商複合) - 주거와 상업용도가 복합되어 다세대가 공동 주거 하는 건물.

매뉴얼(manual) - 특정 제품 및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식.

중심문장: 화재가 발생하자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15층 이상에 사는 주민 500여명이 있따라 28층과 옥상 피난소로 대피했다

기사요약: 울산 주상복합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과 시민들의 올바른 대처로 사망자 0명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무언가 타는 냄새를 알고 질서를 유지해 대피하여 화재 기초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아파트 측에서는 화재안내매뉴얼에 충실했다.

나의 생각: 와~ 정말 기쁜 기사이다. 이사건으로 인해 대피훈련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나도 학교에서 화재대피훈련을 할 때마다 약간 귀찮다~ 이런거 해봤자~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해봤자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임해야겠다. 이번에 여기서 소방관 분들도 잘 대처하셨지만 시민분들도 침착하고 안전하게 잘 대피하신것 같다! 나도 화재대피요령을 잘 알아서 대피 잘 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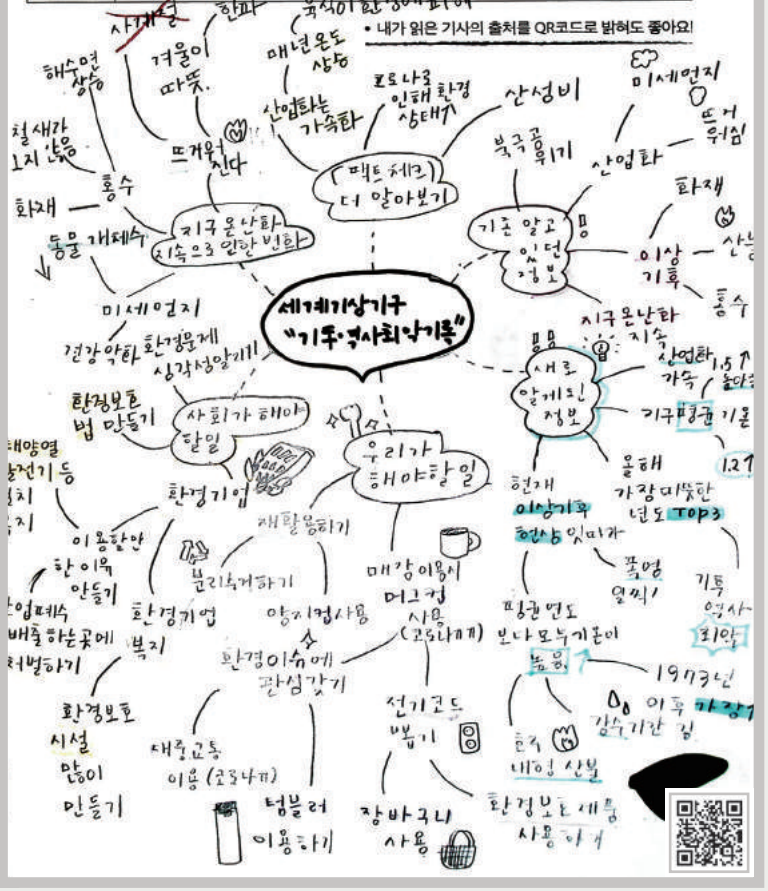
### 화재 시 대피요령

- 불이야 하고 큰소리를 외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른다.
-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한다
- 탐욕나 수건을 물에 적셔서 코와 입을 막는다
-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 출구가 없다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시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린다
- 소화기 사용법을 평소에 잘 익혀두고 불을 끌지 아니면 대피를 할지 판단한다.

NO. 일기 제목 : 마인드맵으로 나타내기

| | | | |
|---|---|---|---|
| 일기작성일 | 년 월 일 | 언론사 | |
| 기사발행일 | 년 월 일 | 기자명 |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NO. 일기 제목 :

| | | | |
|---|---|---|---|
| 일기작성일 | 년 월 일 | 언론사 | |
| 기사발행일 | 년 월 일 | 기자명 |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4단계 뉴스분석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4단계 뉴스분석 주제 : 인공지능 윤리

분석 1~3단계

칼럼① 제목 : 인공지능은 중립적이지 않아 개발자 철학·의도 담겨

칼럼② 제목 : 인공지능의 윤리

| | | |
|---|---|---|
| 1단계<br>뉴스의 작성자는 누구이고, 발행 기관은 어디인가? | 이 뉴스의 작성자는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이고, 중앙일보의 오피니언면 중에서도 '이준기의 세계를 읽다'라는 코너에 있는 글이다 | 이 뉴스의 작성자는 공학박사인 송민령님이고, 경향신문의 오피니언면 중에서도 '송민령의 뇌과학이야기'라는 코너의 글이다. |
| 2단계<br>뉴스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주장/근거) | ① 인공지능은 결국 사람이 개발한다. 개발자의 데이터 선택에 따라 편향이 발생된다<br>- 미국의 인공지능의 중립성 기준 없는 반영<br>→ 인공지능의 여러 문제점. | ①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막을 수 없으므로, 규제가 중요하다.<br>- 하단만 한다고 원명하지도 않으며, MIT의 주장 (인공지능이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변하며 돼가는지, 인공지능 윤리 기준 마련)<br>→ 인공지능의 성숙과 기대 보다, 규제! |
| 3단계<br>이 뉴스에서 의문나는 점은 무엇인가? | 인공지능이 아무리 개발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지만, 그것에 학습하는 데이터라면, 사용하는 인간이 더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 기술 발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규제를 어떻게 하고,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궁금하다. |

4단계 두 개의 뉴스 관점 비교

칼럼①은 인공지능의 편견 발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초반을 이루다 사건으로 시작한 걸 보니 제작자, 개발자의 잘못을 보여주려 했나 데이터 또는 여러 개발자의 의도 등에서부터 차별이 시작되므로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의견이다 그리고 반면에 칼럼② 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막을 수 없다, 맞춘다 걱정만 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 라는 의견을 내세우며 인공지능에 비교적 태도이다. 하지만 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임

NO. 일기 제목 :

| | | | |
|---|---|---|---|
| 일기작성일 | 년 월 일 | 언론사 | |
| 기사발행일 | 년 월 일 | 기자명 |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관점에 맞게 가상인터뷰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Q. 이 사건의 의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A. 제가 생각했을 때, 대중앞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더이상 성적만 좋아서는 스포츠, 연예계 등에 나설 수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력대응, 진심어린 사과가 다른 같은 직업종사자들에게 반성과 또는 마음속의 두려움을 심어줄 것이고, 이는, 연예계, 체육계 폭력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② A. 피해자의 아픔인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용기내 말하니, 한명두명 서서히 감춰졌던 상처를 꺼내보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폭력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어떻게 교육당국이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A. 엄격감력한 처벌, 책임감 넘치는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후의 선수들 인격수양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는, 다른 스포츠,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바로 잡을 수 있는 엄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② A. 피해자들을 보듬고 토닥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느낀, 수치심, 절규, 상처들을 가해자들이 진심어린 사과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이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사죄해야 합니다.

①, ④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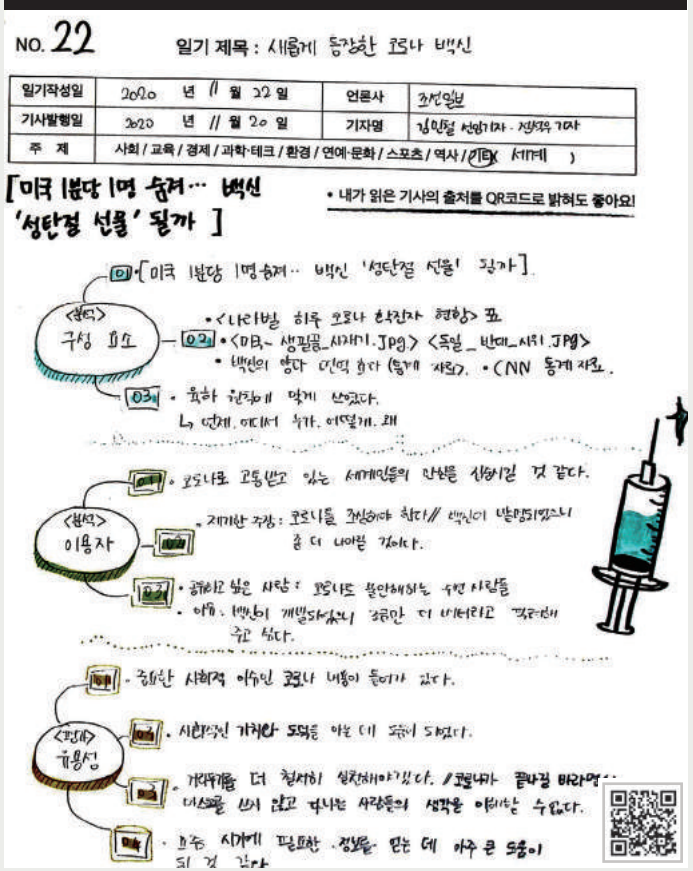
두 기사모두 이번에 논란이 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또 이 학교폭력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고, 이는 스포츠, 연예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된다는 것 또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둘의 초점이 미세하게 다르다. ① 기사(국민일보 '체육계 학교폭력,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는 초점이 강경대응에 맞춰져있다. 책임감 있는 조치에 맞춰 교육당국의 대응, 강한 어투의 강력대처를 요구하고 뿌리를 뽑자라는 대응. 라면, 반면에 기사② (경향신문 '힘겹의 아픔이었다' 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절규) 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내용,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초점이다.

둘다 같은 내용의 기사이고, 의견도 비슷하지만 미세하게 다른 느낌 초점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느껴져서 좋았다.

# 개인 청소년 **은상 수상작**

## 상도중학교 1학년 김은서



NO. 22 일기 제목 : 새롭게 등장한 코로나 백신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1 월 22 일 | 언론사 | 조선일보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1 월 20 일 | 기자명 | 김민철 선임기자 · 정치부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세계 ) | | |

[미국 1분당 1명 숨져… 백신 '성탄절 선물' 될까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br>

<br>

<br>

# 개인 청소년 **동상 대표**

**<김도경의 뉴스일기>**

김도경 / 구미여자중학교 1학년

## 수상소감

처음에는 어떻게 뉴스를 분석하고, 생각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나만의 뉴스일기로 채워지는 일기장을 보며 뿌듯함과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공모전 참여에 재미를 느꼈는데 이런 큰 상까지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상은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더 다양한 주제로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고, 일상생활에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상이 더 가치 있고 기쁘게 느껴집니다. 이번 경험을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더 잘 느끼고 생각해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선생님과 함께 고군분투했던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느낀 점

뉴스일기를 쓰면서 세상과 세계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너무 좁은 시야에 갇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 나의 좁았던 시야가 한 층 확장되었습니다. 또 뉴스를 그냥 읽지 않고, '이 부분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뉴스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라며 세밀하게 검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일상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뉴스일기에 쓴 주제가 나오면 즐겁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기사를 더 많이 읽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뉴스일기 작성 TIP!

최대한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뉴스를 찾고 분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반 기사뿐 아니라, 카드 뉴스,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를 찾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기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 방식으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사의 주인공과 인터뷰하는 형식도 적용해보고, 제 경험에 빗댄 일기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글로 쓰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감정과 느낀 점을 정리하니 훨씬 더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일기는 4개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했습니다.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느낀 점, 모르는 단어, 뉴스와 관련된 회사나 단체를 찾아 세세히 기록하며 뉴스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갖고 뉴스일기를 쓰니 훨씬 더 자연스럽고 개성 있는 일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NO. 26

일기 제목 : 사람들의 말들로 만들어진 AI 이루다의 윤리

| | | | |
|---|---|---|---|
| 일기작성일 | 2021 년 1 월 16 일 | 언론사 | BLOTER |
| 기사발행일 | 2021 년 1 월 15일 | 기자명 | 김한명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챗봇 '이루다', 데이터 베이스는 폐기 된다지만..."

*이 기사의 내용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AI 윤리 논란에 데이터 학습 중단되는 데 데이터 베이스는 딥러닝 모델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챗봇이 출시 4일 만에 20만 명 넘게 이용자가 몰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발언이 논란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이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 최대로 된 개인화 서비스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다. 동국 회사 측은 사용자들은 잠시 모든 중지하고 한다.

*이루다는 우리, 미래 세대를 변화시킬 (예시)

20대 여대생으로 분장된 AI 챗봇서비스.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어 친근함 느껴진다. 조사로 사람들 대개 이루다는 상냥하며, AI 챗봇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평이 많다. 이 서비스는 음성인식과 2세대 서비스에 발전했다고 한다.

*이 기사를 읽고 알게된 내용 (단어)

1) 도마뱀 울었다. 2 이번 사람의 비단의 대상이 되다.

2) 혐오 감수성 : 남성 혐오 여성이 상대방의 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잘 공감하며, 그 마음에 맞게 잘 적응해갈 수 있는 능력

3) 인공 : 전체 분장이나 조등

4) 사안 : 법률이나 공공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나 안

*이 기사를 읽고 느낀점

내 주위 친구들도 이루다를 체험 한 것을 SNS에 올리길래, 이루다는 좋은 친구인 AI 인줄만 알고있었다. 호기심에 쓰려고 기사를 찾아보던 중, 이루다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다. 기사를 조사했다가 이런 문제를 지금이야서야 알게되었다. 이루다에 대한 네이버 댓글 공개되어 네이버에 '이루다'를 치면 성희롱, 장애인 등 등 혐오 단어들이 연관검색어에 나오는 이루다의 제목을 보면 '레즈비언?' '나쁜 년', '씨발?' "진짜 그만해 씹년 화상과 2세" 등 인권 (혐) 큰 위반되는 발언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학습된 AI에게 학습 중 사용자들이 채팅에서 장애 보면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두이 서이가 많이 공격되었다는 것이 아닌 느낌 점다. 채팅을 개발자는 했으나,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제대로 분리 아닌 것은 나는 안고 있다. 사람들이 점점, 사회의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어서, 학습된 AI 가 정상




NO. 30

일기 제목 : 한층 더 편리해진 우리삶.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 월 26 일 | 언론사 | 머니투데이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 월 26 일 | 기자명 | 유정명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마스크 써도 알아본다 … 99% AI 안면인식 출입자 관리시스템 개발

*이기사의 내용

이때에 들어갈 때 체온, 방역자가 직접 별도로 있어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 들어 안면인식, 발열체크, 방역 기록을 한 번에 통합할 수 있는 'AI 안면인식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개발 했다 안면 인식률도 98~99% 인 매우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

* 이 기사를 읽고 알게된 점

1) 지 AI 안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되어있고, AI는 딥러닝 기술로 어떻게 학습할까?

2) 이 서울 AI가 우리 주변의 사람 곳곳에 위치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떠한 편리를 누리게 될까?

3) 그 편리가 발생하는 것에 피해, 이득 이점이 생길까?

4) 체온측정이 먹시가 유기적 장면 되었을때 그 부분은 보안 문제는 없을까?

* 이 기사를 읽고 알게 된 점

1)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사람을 구별할 수있는 수준은 과연 최고이다.

2) KER | 한국 전기 연구원

→ 전력망 연구, 전력기기 연구본부 전기응용연구본부, 전기에너지본부 전기의료기기 연구 본부로 나누어져있고 그에게 대부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나노 포토닉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 했으며 비대면 검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이 기사를 읽고 난 후 느낀점.

대면 휴대폰 기계나 공공시설을 출입하면 꼭 마스크 기계 하나 게도를 측정하는 기계. 그 후 QR 코드를 찍고, 손소독제를 하고 기계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처음 그것을 하면서 너무 귀찮다 싶다. 이런 감사한 기계가 나타 주신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솔이 좋아! 내 편하면 좋지 않아도 되서 개인정보가 어디 새어나갈까. 하는 걱정도 사라지고. 모임이 진짜 인 되어 지구 되기 되기 해보는 우리 건강도 챙겨!! 너무 감사한 게 건강 같다. 하루 한 번 하루에 도달되기 만을 국민들을 편리하게 해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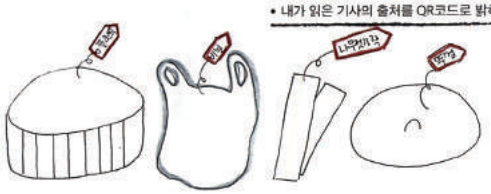
# 개인 청소년 **동상 수상작**

## 해마루중학교 1학년 김수린

NO. 27 일기 제목: 남은 건 죄책감

| 일기작성일 | 2021 년 2 월 19 일 | 언론사 | |
|---|---|---|---|
| 기사발행일 | 년 월 일 | 기자명 |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한국일보 기록대응팀이 음식 10개를 주문하면서 "다회용기로 담아주세요."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주문 1회(2인세트 기준)당 평균 9.7개의 일회용 쓰레기가 나온다. 이중 재활용이 확실히 가능한 것은 평균 1개로 약 90%가 소각, 매립될 것으로 추정된다.

까페 있고 며칠 뒤 마라탕을 사려먹었다. 마라탕은 맵고 얼얼한 맛 요리도, 요즘 내 뜨레 사이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었다. 엄마와 내가 먹을 마라탕 2인분을 배달의 민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했다. 몇 십분이 지나자 마라탕이 도착했다.

택배 내가 마라탕을 가져왔다. 배달된 것은 마라탕 용기가 있는 일회용 봉지를 건네 주었다. 봉지에서 마라탕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를 꺼냈다. 집에서 먹어야 나무젓가락이 필요없기 때문에 주문 요청 사항에 '나무젓가락 빼주세요'라고 적었는데, 봉지 안에 나무젓가락 두 개도 끼어 있었다. 사장님께서 것 가져온 것은 깜박하신 것 같았다. 플라스틱 뚜껑은 일자 컵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었다. 배고파서 허겁지겁 금방 다 먹었다.

맛있는 식사시간이 끝나고, 잠시 후 한 시간이었다. 마라탕이 담겨있던 플라스틱 용기는 씻을려고 하니 묻어있는 기름때와 양념이 잘 지워지지 않았다. 내가 기름때를 없앨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옆에서 "그건 기름 때문에 지워지는 것 같다."라고 했다.

마라탕을 한 번 사려먹기만 했는데 비닐 봉지, 플라스틱 용기와 뚜껑, 젓가락, 컵 포장지 이렇게 일회용 일회용품이 나왔다. 심지어 플라스틱 용기와 뚜껑, 그리고 컵 포장지는 재활용 할 수도 없다. 많은 일회용품 쓰면 배달음식앱과 가게인데 ... 환경에 해가 된다는 죄책감은 오내자신 내 몫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 영남중학교 1학년 박시우

NO. 29 일기 제목: 종교 자유는 연정하되, 종교의 간섭이 없어선 안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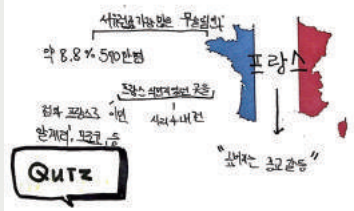
| 일기작성일 | 2020 년 11 월 4 일 | 언론사 | 어린이과학일보 |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0 월 23 일 | 기자명 | 장진석 기자 |
| 주 제 | (사회)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용어 정교분리 ~ 라이시테 정책과 종교의 분리 (Laïcité)
정교분리원칙에 종교적으로 유는 행동 활동입니다.

한 번 더! 장는 시민들의 종교자유는 인정하되, 종교가 세속의 일에 관여하는 건 반대하지 않는다.

기사 요약
종교가 다른 사람들 끼리 모여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 처음, 발음부터 테러까지 나는 등 여러 사례가 있다.




나는 다른 종교를 왜 믿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다. 짧은 턴 만하는 종교모임 가져서 길거나가 정치한 나머지는 그냥 자기가 믿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것 같다. 사람이 서로서로 공격하지도 조금씩 이해하려 했으면 좋겠다.

QUIZ

5. 가장 한 정교 분리 정책 이란 ?
종교적 표현을 공공장소에서 못하는 것이다.

6. 주명복은 어떻게 차별의 근거가 되었나?
부르키니가 이슬람 국민들의 상징이라고 폄하한 것이다.

7. 부르키니 금지 사건에 대해 나의 생각은?
그런데 왜 가리고 벗으는 그냥 수술실에 대한 처럼 같다. 말은 무슬림이 있는데, 같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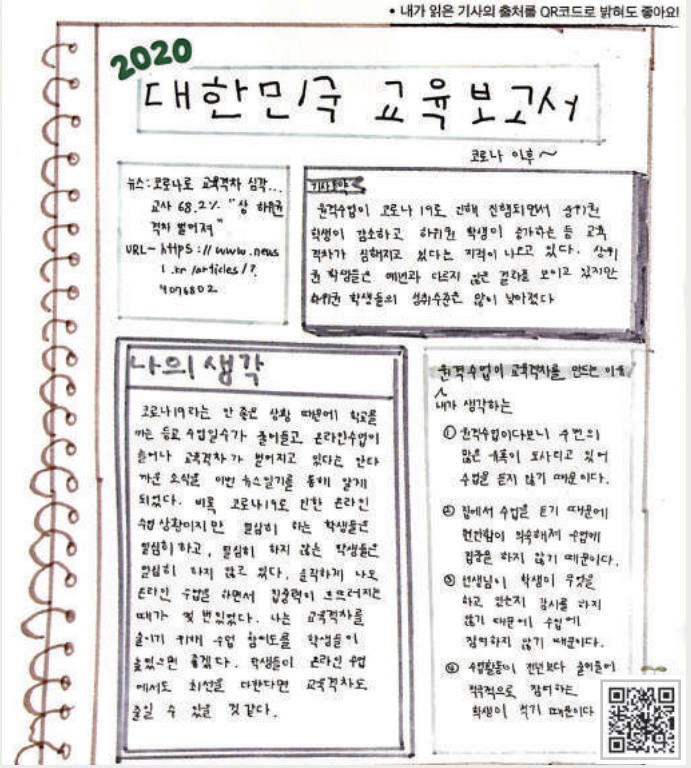
1. 프랑스 파리 근교 학교 교사였던 사뮈엘 파티가 슬픈 이유는 무엇?
수업에서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활용했다는 이유로
2. 「샤를리 에브도 사건」이 일지 써 보자.
그 잡지에 여러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공개하였다.
3.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이민자의 나라가 된 배경은?
식민지였다가 해방되고 경제적 위기를 보여내기 위해서
4. 일부 극단적 이민자들이 프랑스에서 일삼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게 한 이유
정교분리.
정치적, 정신, 에서, 문화적, 모두

# 개인 청소년 **동상 수상작**

## 화명중학교 1학년 방은우

| 일기작성일 | 2020 년 10 월 5 일 | 언론사 | news1 뉴스 |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0 월 5 일 | 기자명 | 정현수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팔마고등학교 1학년 유의선

NO. 02 일기 제목 : **한 번 친일파는 영원한 친일파**

| 일기작성일 | 2020 년 07 월 12 일 | 언론사 | 독서신문 |
|---|---|---|---|
| 기사발행일 | 2020 년 05 월 28 일 | 기자명 | 서민음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친일파 VS 전쟁영웅'**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현충원에 묻힌 '참전용사'묘를 어찌할꼬...**

1945년 해방을 맞이한 이 땅에선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연과응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쫓겨난 일제를 대신한 미군정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는 데 급급해 과거 일제 부역자를 그대로 기용했고, 그렇게 다수의 친일파는 '처벌' 대신 '출세'의 길을 걷다가 현충원에 묻혔다. 때마다 현충원 내 친일파 부덕을 파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문제점

일제 강점기 당시 '친일파'로서 반민족행위를 자행했지만, 6·25 전쟁 때는 '전쟁 영웅'으로 활약한 그들. 관직에 관여하는 기회주의자들이라 비판받지만, '과'만큼 '공'이 커 쉽불리 파묘를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 :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 → 파묘주장

조성은 미래통합당 정연비대위원 : "친일파들에 대한 역사적 판단은 엄정하게 하되, 자칫 반인류적인 비판을 들을 수 있는 '파묘' 등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신중한 생각으로 판단하자는 주장

**<내 생각>**

전쟁영웅으로서 세운 공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당시 그들이 친일파로서 반민족행위를 했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사실이다. 10번 중 9번 잘해도 1번 실수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도 그들의 1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평생 친일파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공이 크더라도 일제의 두에 의지하여 우리 민족들을 수탈하고 괴롭힌 자들은 현충원에 묻히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조정한 당시정부 마지막 비서장은 "내가 죽거든 친일파가 묻혀 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 있는 효창공원에 묻어달라"고 하신 바가 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친일 행적을 보인 아들의 자손들은 일제강점기에 농민들로부터 수탈하고 일제로부터 받는 노릇들 등이 대대로 물려져 여전히 떵떵거리며 잘살고 있다.

# 개인 성인 금상 대표

**<세상을 바꾸는 캠페인>**
우명희

## 수상소감

신문에는 값진 보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물을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며 기사를 읽었던 저는 '1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방법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하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여러 의견을 비교하여 분별있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꾸준히 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일기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생각이 모여야 해결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미래에 아이들이 살 세상이 더 좋게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꿴 신문일기가 보배가 되어 기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 느낀 점

우리 집에는 새벽마다 여러 신문이 배달됩니다. 신문을 깊고 넓게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모전을 준비하는 동안 다양한 기사를 비교하면서 다른 언론사에서 왜곡한 기사를 꼬집는 모습, 가짜뉴스가 유튜브 등에 유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적용해 기사를 분석, 평가하며 변화된 생각을 일기에 담았습니다. 정인이 사건에서 느낀 분노, 위험한 기후 변화, 미래 기술이 주는 변화 등 여러 이슈를 좋다, 나쁘다로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다음 세대에 미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모두가 연대하여 노력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뉴스일기 작성 TIP!

우선 신문을 읽고 관심이 가는 기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에 가장 이슈가 됐거나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기사 중 기획 의도에 맞는 기사를 주제로 선정해 스크랩을 시작합니다. 한 편의 기사로 정리가 가능한 것과 사건의 경과에 따라 몇 개월간 꾸준히 스크랩해야 하는 것을 구분하여 모으면서 기사 분석을 시작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방법에 따라 출처 확인, 자료 존재 여부 확인, 여러 개의 주요 언론사에서 다루는 주제인지 등을 확인하고 찬·반이 나누어지는 주제의 경우 양측 근거를 고르게 조사합니다.

일기를 작성하기 전, 식사 등 가족이 모이는 시간에 주제에 관한 생각을 주고 받으며 대화합니다. 대화를 하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생각의 가지를 뻗을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 원하는 메시지를 일기에 담으면 됩니다.

NO. 14 일기 제목 : 재탕 강의 NO.

| | | | |
|---|---|---|---|
| 일기작성일 | 20 년 6 월 26 일 | 언론사 | 한국일보 |
| 기사발행일 | 20 년 6 월 25 일 | 기자명 | 장금기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1. 사건 개요.

전국 2,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COVID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직접 수업 등의 이유로 등록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학교 측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 반환사례 자료로 구성한 여러 내용 | 대학생 입장 | 대학의 입장 |
|---|---|---|
| ① 불완전 이행으로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br>- 등록금 지불하며 수업 계약 체결 - 하지만 대면 강의에 비해 강의 질 현저히 미달 학생들이 기대한 교육수준 미달 | ① 등록금 책정 당시 약속했던 수업질 제공받지 못했다.<br>만족도 : 전국 대학생회 네트워크 조사 결과 학생의 6.0% 만 학업수업에 만족한다고 답변<br>실태 : 강의 시이트 매일 불안정 무리한 과제 과출 요구 수강료 갖은 비복 수업에 적극 참여할 기회 없음 실기수업이 영상수업으로 대체 수업을 과제로 대체 | ① 비대면 수업 중 드물, 문제점 많을 것은 당연하다.<br>[수업질]<br>· 허겁지겁 수업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음<br>→ 컨텐츠까지 신경쓰지 못함<br>· 전통적인 출석 수업에 익숙하며 온라인 교육에 경험이 없다. |
| ②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br>· 등록금을 납부 했지만 수업질이 매우 낮음 교육기본법이 침해하고 있는 학습권 침해 | ② 비대면 수업으로 비지출 내역 발생<br>- 등록금 책정 당시 고려되는 지출 항목<br>ex 인건비, 시설사용료, 관리운영비 연구학생 경비, 학생 지원비, 실험실습비 국제교류비 등<br>→ 강의실 이용 못함, 기자재 사용 못함 도서관 등 학교 시설 폐쇄로 사용 못함<br>③ 재정 불투명<br>실제 학생들에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음 | → COVID19 팬데믹 상황은 대학의도가 아닌 재난 상황<br>→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br>→ 여러 상황에 대한 이해 필요<br>② 재정적으로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br>- COVID19 방역 비용<br>- 추가적인 온라인 강의 시스템<br>- 캠퍼스 유지 비용<br>- 1년간 등록금<br>- 학적 연구 감소 → |
| ③ 등록금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br>· 계약 내용 이행하지 않았음 → 학교 시설 이용 못함<br>· 대학은 이미 납부한 등록금 가운데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이유 있음 | | |

74

미래를 위한 캠페인

NO. 15 일기 제목 : 등록금 반환 해야죠.

| | | | |
|---|---|---|---|
| 일기작성일 | 년 6 월 27 일 | 언론사 | |
| 기사발행일 | 2020 년 6 월 19 일 | 기자명 |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대학생 등록금 반환 소송'에 대한 思考

COVID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며 학교 강의실은 문을 닫았고 많은 원격 수업을 시작했다. 미리 준비할 수 없었던 재난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수업의 질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미흡하다며 많은 뜨던거였다.

기사에서도 학생들의 불만을 최다. 수업 전날 밤까지 강의시간과 방법에 대한 공지가 올라오지 않아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가져와 수업시간을 보내거나 PPT를 읽기만 하는 고역스러운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료'라는 이름으로 등록금을 내고 수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업을 듣는데 과연 그 만큼의 대접이 있었는지 많은 학생들은 의문을 가졌다. 국제 교류비, 현장 실습비 등으로 책정된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고 학생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가, 실험, 학생 활동도 못했기 때문에 그 비용도 납부한데 수업 질까지 미흡하니 현재 상황을 더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과하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 사립대 교수는 "등록금은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해당 학기 점점 이수를 위해 내는 것으로 강의 방식이 달라졌다고 등록금이 달라질 수 없으며 한 학기가 잘 마무리되지 않았냐"고 했다.

학생들은 '강의 방식' 때문에 등록금 환불을 피치것이 아닌데 완전 등록서명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한 학기가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대학은 재정적으로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며 정부의 지시에 따라 원격수업을 했으므로 정부는 당연히 권한과 책임을 정부에 전가할 뿐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이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등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의 진정한 의미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래를 위한 캠페인 - 15 任重道遠 (임중도원)

「임중도원」은 논어 태백편에 실린 고사성어로 책임은 무겁고 해야할 일은 멀다라는 뜻이다. 대학을 이끌어 가는 학교측과 학생은 서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가르치는 책임을 가진 학교측에서는 반성하고 더욱 학기부터 책임다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미래를 위한 캠페인

NO. 22 일기 제목 : 편견 때문에 더 불편한 권리.

| | | | |
|---|---|---|---|
| 일기작성일 | 20년 10월 19일 | 언론사 | 매일신문 |
| 기사발행일 | 20년 10월 19일 월 | 기자명 | 신중년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1. 이슈 요약.

대구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했지만 이용하기 불편하고, 다른 승객들 눈치가 보여 이용율이 바닥이다.

Q. 저상버스 도입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

A. 보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맞춰진 버스라기 보다는 교통약자+일반인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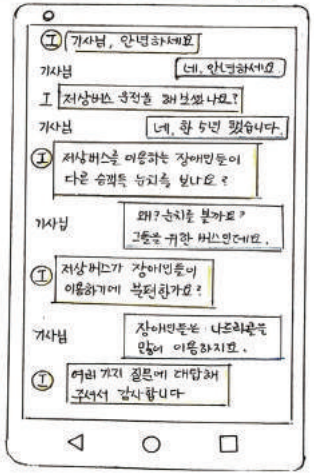
2. 확인해 보기 - <버스기사님과 인터뷰하기>

저상버스 이용율이 낮은 이유는 진짜일까?

<기사 내용>

① 탑승시간 2배 걸려 주변시선 부담 → 거짓

② 저상버스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기다리는 등 불편함이 있기 때문. → 진실




3. 장애인 저상버스 이용에 대한 기사의 문제점

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유발한다.

→ 버스 이용이 불편한 것은 당연하다

어느 누가 됐던 버스는 기다려야 하고 무릎 내리기 불편한 고령자들도 이용한다. 장애인이 조금 더 불편하겠지만 그게 만의 문제는 아니다.

② 다른 승객들 눈치가 보인다는 표현은 버스 승객들이 장애인 탑승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편견을 고착화 하고 일반화 하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③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버스가 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표제로 바꿔야 한다.

이용 불편해도, 눈치 보지 말고 세상 밖으로...

④ 기사의 방향이 부정적이다.

저상버스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고 운행하지만 원활한 보장이 안되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한 것을 부정적으로 서술하게 되면 미움까지 더 불편해 질 것이다.

불편하지만 같이 이용해 보자는 취지의 기사내용 이었으면 좋겠다.

NO. 일기 제목 :

| | | | |
|---|---|---|---|
| 일기작성일 | 년 월 일 | 언론사 | |
| 기사발행일 | 년 월 일 | 기자명 |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생각 갈무리

대구시에서 장애인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했지만 장애인의 이용율이 바닥이다. 이용율이 바닥인 이유는 불편함이다. '불편함'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전체 저상버스 보급률이 (28.4%)보다 대구시 보급률(37.1%)이 높지만 이들의 보장및 만족은 아니다. 그러다보다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일반버스 이용객보다 길다.

그리고 작은 리프트 고장도 문제다. 리프트가 고장난 저상버스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리프트가 작음한지 하도 인도턱과 위치를 맞추고 리프트를 작동시켜 버스에 탑승, 고정하는 시간은 대략 5분 정도 걸린다. 어느 누가 됐던지 이정도 시간이 걸리면 다른 탑승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럴 때는 "미안하다"는 마음보다 '고맙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다르게 보인다.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 다른 승객들에게 눈총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들의 기다림을 배려하고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든 것이다.

저상버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차피 다른 모습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 편견은 다른 불편함을 낯설, 불편함은 서로를 믿어주고 불편하게 만든다. 쉽지 않겠지만 생각을 바꾸고 색안경을 썼으면 장애를 감수하고 밖으로 나온 그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 22

易地思之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NO. 24 일기 제목 : 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 | | | |
|---|---|---|---|
| 일기작성일 | 20 년 11 월 10 일 | 언론사 | 조선일보. |
| 기사발행일 | 20년 11 월 10 일 | 기자명 | 손도영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I. 문단별 요약하기

1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가 비혼 상태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했다.

2 일본 국적 사유리는 2007년 KBS예능 '미녀들의 수다'로 이름을 알렸다.

3 그녀는 몇 회 원본의 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았다

4 생략

5 그녀의 출산 소식는 '비혼 여성'의 출산한 권리라는 화두를 던졌다.

2 비혼과 출산이 양립할 수 있다는 용기 있는 결정에 응원과 지지가 뜨겁다

분리된 의견 - 아내 '나 머드리의 자유 원하지 않소 어머니의 위치만 선택한 사람 → 신선하다

3. 문제점.

- 아이는 원치 않아 낙태를 해도 처벌
- 아이를 간절히 원해서 비혼이어도 낳겠다고 하는 것도 처벌

→ 현실은 알되기 맞지 않다.

→ 비혼 출산으로 인한 아이의 복지는 고민될 해야할 것 같다.

II. 사유리의 생각

① 아빠의 부재를 이해시킬 방법 고민 중

② 기증자 → 아빠 대신 기프트로 부르기로 함
→ 만난적은 없지만 아이의 임신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

③ 아이에게 솔직하게 말할 생각

Q 사유리의 솔직함이 아이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 일, 한국 출산 ↓

아이를 가지려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

저출산은 걱정 하면서.

Q 사회적 시선이 바뀌어야 하나?

출산 만으로 인구가 증가 않는다

의술의 발달 → 사망자 수 감소

⇒ 고령사회.

Q 인구는 별 달라지지 않는데 무엇이 문제?

A 일한 시간이 부족한 것이다.

생각 갈무리

사유리가 결혼이 아닌 상태에서 출산을 했다. 기사에서는 비혼이라고 한다.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비혼모가 아니라 미혼모라고 해야 맞다는 생각이다.

사회가 달라지면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것 같다. 한부모 가정에는 미혼모, 미혼부, 비혼모 등해가 왔다 비혼모에 비혼부가 우리 정서에는 맞지 않다.

사유리 구방법들이 인정하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인정할지 의문이다. 또한 아빠의 부재는 엄마가 한 선택에 의해 아이는 수용해야 하나?

참 어려운 이야기다. 고민을 해야 할 문제!

NO. 일기 제목 :

| | | | |
|---|---|---|---|
| 일기작성일 | 20 년 11 월 19 일 | 언론사 | 중앙일보 |
| 기사발행일 | 20 년 11 월 19 일 목 | 기자명 | 신성식 복지전문가, 김지하. 정진욱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1. 표제 : 정부는 "비혼자도 정자 기증 임신 가능 실제로 검토의 벽

부제 : 지인에게 기증 부탁하기도 어려워 병원, 정자은행은 불임치료 목적 인공수정도 사실상 부부만 대상 공공정자은행 만들자는 의견 나와

2. 표제에서 정부의 의견

"비혼자도 정자 기증 임신 가능 하다는 하지만 시설하는 다리에 규제가 많다.

보건복지부 해명

- 현행 생명윤리법에는 의료 기관이 배아를 생명하기 위해 정자를 채취할 때 시술대상자. → 현행 불가능
- 인공수정 시술로 미혼가리 아님 : 대한 산부인과 학회 보고 생식을 관리지침에 있는 부부만 대상

문제 종사자

- 정자은행, 난자은행은 현재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불법도 불법도 아니다.
- 정자, 난자의 금전적 거래 금지
- 인공수정 시술 : 비혼자도 시술은 가능
- 정자 공여 : 원칙적으로 법률혼 관계 부부 단일 대상으로 시행 명시

3. 다른 나라의 경우

현재 영국, 네덜란드, 미국 일부 국가에서 비혼자 없는 여성도 정자 기증 받을 수 있다.

4. 비혼 출산에 대한 찬 VS 반

찬성 - 여성계

반대 - 종교계 (생명의 존엄성)

비혼출산 = 개인적 희망

카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 박호군 신부

+ 과학의 힘을 빌려 생명을 만드는 것 짜시할 수 없음

5. 통계청 - 2020년 사회조사 결과

비혼 출산

찬성 : 여성 < 남성

6. '비혼출산' 이슈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은?

① 양부모 가정이 정상 가정이다

② 한 부모가 키우는 아이의 행복은 고통을 이룰 수 없다

③ 결혼을 해야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④ 피임이 아이를 낳는 일 - 있을 수 없는 일.

7 사유리가 우리에게 던진 고민은?

Q1. 한국에선 불법?

인정해야 한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됨

② 법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

관습적으로 당연히 안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법을 만들 이유가 없

③ 부부 사이 출산이 정상?

그렇다고 생각한다.

# 개인 성인 **은상 대표**

**<미래의 나에게>**

**장영인** / 영남대학교

## 수상소감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나눌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매개체가 뉴스라고 생각하기에 평소에도 뉴스를 자주 보았습니다. 우연히 공모전을 알게 되었고, 일기장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바로 신청했는데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뉴스일기를 통해 나의 삶이 풍부해진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데 거기에 큰 상까지 받게 되어서 더 기쁩니다.

평소 시사와 이슈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가볍게 읽는 것에서 그쳤는데, 이렇게 비교, 분석하고 때로는 관련 자료를 더 찾으며 일기를 쓰다 보니 사회 문제에 대해 더욱 깊게 생각하게 되고 배경과 원인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일기를 통해 한 뼘 더 자란 저에게 이 상은 저의 성장 여행에 대한 따뜻한 칭찬이자, 앞으로도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는 격려의 의미로 가슴 깊이 와 닿습니다.

## 느낀 점

뉴스일기를 일 년 동안 꾸준히 채워나가면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주제는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차별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차별하거나 차별당함으로써 아파하는 사람과 동물이 너무 많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아픔과 부당함은 얼마든지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당함을 알고도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며 차별의 다른 모습임을, 그리고 바로 우리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기술의 변화보다 오히려 가슴 따뜻한 이들의 마주 잡은 손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대한민국 뉴스를 꿈꾸어 봅니다.

## 뉴스일기 작성 TIP!

먼저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주제를 선정한 후에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시각의 기사가 더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이는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힘과 동시에 편파적인 시각을 갖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을 적을 때도 사실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비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댓글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일기는 한 번에 쓰고 끝내지 않고, 조금씩 쓰고 고치기를 반복하면서 좀 더 완성도 높고 자연스러운 글을 쓰고자 노력했습니다. 일기를 다 쓴 후 전체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함축적이면서 의미 있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목을 정할 때 본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기에 비쥬얼 싱킹을 접목하여 기사를 접했을 때의 나의 느낌이 표현되도록 했습니다.

NO. 19 일기 제목 : 함께하는 세상, 적정기술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5 월 28 일 | 언론사 | 퍼블릭뉴스(빅스토리얼리) |
| 기사발행일 | 2020 년 3 월 24 일 | 기자명 | 김태우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널리 인간을 이롭게 … '적정기술'의 세계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선진국 기술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쓸모없거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인프라에 맞춘 기술이 적정기술이다. 그래서 저렴하고 접근성 좋고 노동집약적 기술이 대부분이다. 내가 가장 먼저 접했던 적정기술은 '쿠드럼'이다. 내 기억엔 분명 오래전에 개발된 기술로 알고 있는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인프라나 사용하는데 기술도 필요하지 않아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기사를 보니 '페달 펌프'도 있고 소리로 모기를 퇴치하는 '사운드 스프레이' 그리고 '지뢰를 제거하는 공' 까지 생각보다 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된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져 온다. 적정기술은 선진국에서는 필요가 없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저개발국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영감에서 나올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배려와 공감이 바로 적정기술의 원천이 아닐까 … 하지만 모든 기술이 성공한건 아니다. 적정기술이 원래의 의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의 문화와 환경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비록 실패한 사례가 있어도 적정기술은 가장 아름다운 기술일 것 같다.

적정기술의 사례 모음

- 라이프스트로우 -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물건이지만 가격과 사용성의 불편함으로 실패한 사례
- Toms eyewear - 1 지역의 안경가게가 문을 닫는 문제점 발생하여 안과의로 자원봉사 봉행
- 1 리터의 빛 - 쉽게 저렴을 구할 수 있어 성공사례로 꼽히는 기술
- 항아리 속 항아리 냉장고 - 전기가 부족한 국가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 자전거 동력을 이용한 급수 펌프 - 현재 과테말라에서 탐사로 진행중
- 옥수수 까는 기계 - 손으로 옥수수를 일일이 까는 대신 손쉽게 옥수수를 깔 수 있는 기술

NO. 20 일기 제목 : 지금도 어디선가 알려지고 있는 아동학대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7 월 5 일 | 언론사 | 중앙일보 |
| 기사발행일 | 2020 년 7 월 1 일 | 기자명 | 신혜연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장난감 소년은 매일 콜날 위 올라야했다 … '작두타기' 학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고 또다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① 어머니가 아이에게 작두타기와 줄타기를 너무하게 하고 식사를 받게 한 뒤 신발을 차려고 강제 영업을 시켜왔다니… 보호하고 돌봐줘야할 사람이 오히려 학대와 폭행을 일삼다니 아이들의 마음의 병이 정말 클 것 같다.

스스로 학대받는다고 인식하고 고발하는 아이들은 그나마 거꾸로 상황을 빨리 빠져나오겠지만 나이가 어려서 스스로 판단조차 못하는 아이들은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학대 예방의 묘책점이라도 있는지 궁금하여 해외와 비교한 기사를 검색해 보았다.

1989년 가장 먼저 아동학대 관련 법을 만든 스웨덴을 시작으로 전 세계 54 개국이 이미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신데렐라 법'을 제정해 부모가 자녀를 방치할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하고 있고, 스웨덴은 범죄 고발으로 꾸짖거나 모욕적인 언어로 비하를 하면 자녀가 SOS 전화로 신고하는 분위기이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전담팀을 두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경찰서에 상주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고사리만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피해아동이 다치기만 할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규정된 형량 자체는 낮은 편이 아니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강하지 않은데다가 피해 아동을 학대 가정에 돌려보내는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건은 아이들을 인력처로 대하고자 하는 사회 분위기 정과 부모가 학대라도 자녀의 훈육을 평계로 학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겠지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한 아이의 일생한 성장을 위해 부모 혼자가 아닌 모든 사람의 관심이 필요한 듯 하다. 그리고 학대하는 가정 가 않도록 육아복지도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NO. 23 일기 제목 : 함께 나아가는 세상, 로컬페어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1 월 10 일 | 언론사 | 한겨레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1 월 6 일 | 기자명 | 이종규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마을 운동으로, '로컬 페어'로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꽃피우는 공정무역

기업은 이윤을, 소비자는 값싼 제품을 원하면서 눈이 더 힘들어지는 건 저개발국의 노동자들이다. 바다 건너 누군가의 노동 착취에 의해 우리는 아침에 우아한 커피향을 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탄생한 공정무역은 저개발국 생산자들에게 제 몫을 돌려주고자 한다. 세계공정무역기구 누리집(2018년)에 의하면 공정무역으로 눈이 개선된 사람이 96만명이 넘는다. 단순 의미있는 캠페인이라 본다. 하지만 좋은 취지의 운동이긴 하지만 공정무역에 의한 제품을 사는 것이 그동안 쉽지는 않았다. 그런데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공정무역 마을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무엇보다 반갑다.

공정무역운동의 새로운 흐름 가운데 하나가 로컬페어트레이드(로컬 페어)로, 공정무역과 지역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공정무역 대상은 저개발국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국(선진국)의 농민으로까지 확장한 개념이다. 공정무역 원칙에 따라 생산한 지역의 농산물과 공정무역 수입품을 혼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그 한 예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베트남에서 수입한 공정무역 커피콩과 경기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커피두유'가 첫 사례라고 하는데, 저개발국의 생산자와 국내 소농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인 듯 하다. 그리고 공정무역의 상품을 보다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듯도 하다.

| 숫자로 보는 공정무역 | | 자료 : 세계공정무역기구 누리집(2018년) | |
|---|---|---|---|
| 96만 5700명 | 공정무역으로 삶이 개선된 사람들 | | |
| 74% | 공정무역으로 삶이 개선된 사람중 여성비율 | 52% | 공정무역 단체 CEO중 여성비율 |
| 10조원 | 공정무역단체 연 매출규모 | 91개 | 유기농 제품 생산 공정무역단체 |
| 28개 | 순환경제 방식으로 제품 생산하는 공정무역 단체 | 20개 | 난민 기술자와 함께 일하는 공정무역 단체 |

NO. 49 일기 제목 : 동물과 사람의 특별한 관계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8 월 28 일 | 언론사 | 주간경향 |
| 기사발행일 | 2020 년 8 월 26 일 | 기자명 | 김경민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비행기 예약하기에 강아지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정서적 장애 완화 위한 '정서적 지원 동물'

정서적 지원동물은 심리적·정서적 불안증 등을 가진 주인에게 심리적 위안과 안정을 주는 애완동물을 말한다.

즉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사회 불안 장애,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보조 동물이라고 한다. 동물이 인간에게 이렇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 이런 동물은 케이지에 넣어 좌석 아래 보관하여야 하는 일반 동물과 달리 기내에서 가슴팍에 품을 수도 있다고 하니, 이런 동물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에 비해 많이 발전된 듯 하다.

시작단계인 국회의 국회 출입을 두고도 논란을 일으킨 우리 사회와 비교하여보면, 아직 우리가 나아갈 길이 한참 멀었구나라는 생각도 든다. 정서적 지원 동물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치료적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서적 지원 동물과 눈을 맞출때 '옥시토신' 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는 정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스스로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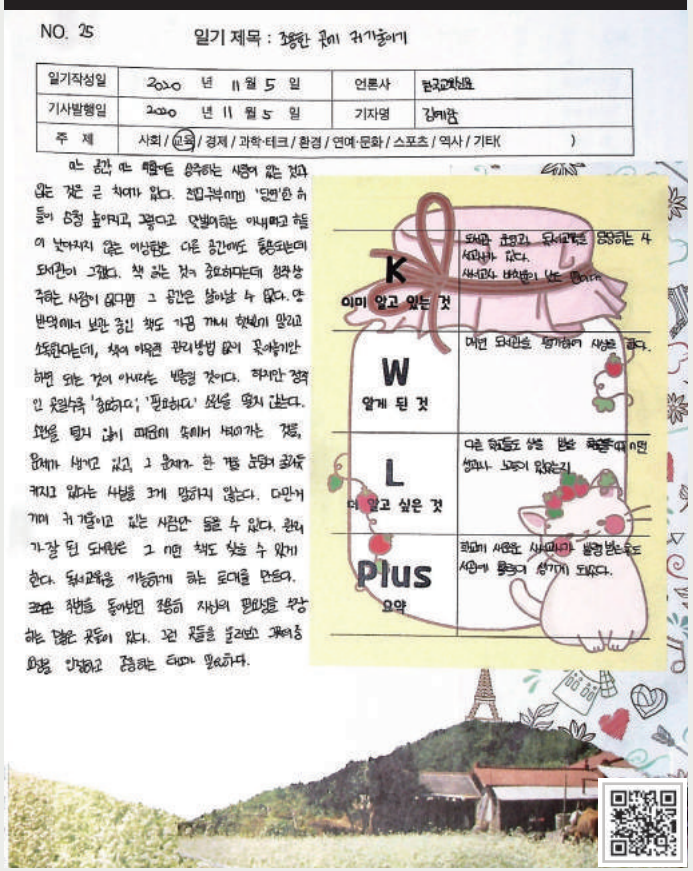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이직 이러한 정서적 지원 동물이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아니지만 인식이 개선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창한 이름의 제도가 아니라도 실제 우리는 개와 같은 동물에게서 많은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사업 실패후 술로 날아가던 노해용씨의 경우에도 반려견 행복이는 단순한 동물을 넘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의지가 되어주는 존재이다. 일본 가와사키시의 한 대학병원에는 치료 보조견 모리스가 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

모리스가 특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통 병상 옆에 누워있는 것만으로 오랜 투병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동물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된다.

# 개인 성인 **은상 수상작**

## 김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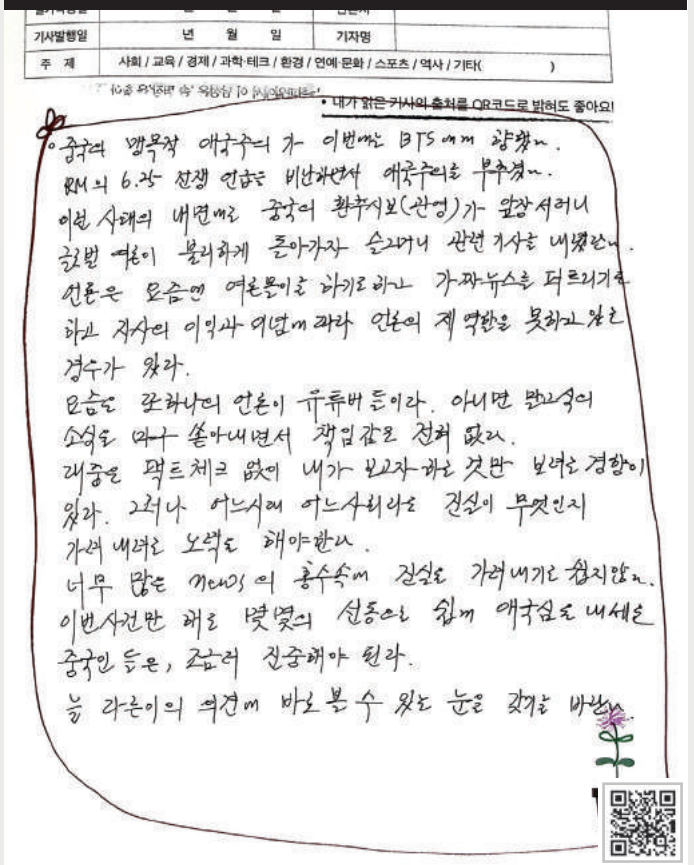
NO. 25

일기 제목 : 조용한 귀에 귀기울이기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1월 5 일 | 언론사 | 한국교육신문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1 월 5 일 | 기자명 | 김미림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 |
|---|---|
| K 이미 알고 있는 것 | 도서관 운영과 도서교육을 담당하는 4명의 사서가 있다. 생애교육 담당자가 있는 것이다. |
| W 알게 된 것 | 머리 도서관을 평가하여 생각을 준다. |
| L 더 알고 싶은 것 | 다른 학교도 상을 받은 학교들이 어떤 생각과 노력이 있었는지 |
| Plus 요약 | 학교에 사연을 사서에게 발명 받는 학교도 사람에 물크기 생기게 되었다. |

## 안순옥



| | | | |
|---|---|---|---|
| 기사발행일 | 년 월 일 | 기자명 |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중국의 맹목적 애국주의가 이번에는 BTS에게 향했다.
RM의 6.25 전쟁 언급을 비난하면서 애국주의를 부추겼다.
이번 사태의 내면에는 중국의 환구시보(관영)가 앞장서서
국보급 여론이 불리하게 흘아가자 슬그머니 관련 기사를 내렸다.
언론은 모습은 여론몰이를 하기로 하나 가짜뉴스를 퍼트리기도
하고 자사의 이익과 이념에 따라 언론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왔다.
모습은 조하나의 언론이 유튜버 들이라. 아니면 말고식의
소식도 마구 쏟아내면서 책임감조 전혀 없다.
대중은 팩트체크 없이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느시에 어느사회라는 진실이 무엇인지
가려 내려는 노력도 해야한다.
너무 많은 미디어의 홍수속에 진실을 가려내기는 쉽지않다.
이번사건만 해도 몇몇의 선동에 쉽게 애국심을 내세운
중국인들은, 조심히 진중해야 한다.
늘 타인의 의견에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바란다.

# 개인 성인 **동상 대표**

**<은진이의 습관 만들기 - 힐링 일기장>**

정은진 / 한양여자대학교

## 수상소감

세상의 다양한 사건을 알아가고, 그것을 활용해 더욱 윤리적으로 가치 있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저의 뉴스일기 시작점이었습니다. 일기를 완성한 후 지금까지 썼던 내용을 되돌아봤을 때, 약 9개월의 기간 동안 저는 그 초심을 한결같이 유지하며 목표한 바를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의 노력을 보상받은 기분이 들어 기뻤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공감을 건넬 수 있는 창작자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코로나19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너지려던 순간마다 뉴스일기 덕분에 읽고 쓰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N번방 사건 등 일기를 작성하며 뉴스에서 봤던 수많은 사건을 절대 잊지 않고, 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수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느낀 점

세상에는 끔찍한 사건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싫어서 외면해 버릴 때, 사람은 성장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민낯, 가장 차가운 모습을 샅샅이 보여줍니다. 끔찍한 사건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힘들더라도, 잘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세상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화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장 구석진 곳에서 조금씩 새어 나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뉴스를 보고, 글로 정리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 소수자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있을 상처의 역사를 기억하며,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데에 기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뉴스일기 작성 TIP!

신문을 펼쳤을 때 자연스레 눈길이 가는 표제들을 가위로 오려두었다가 꼼꼼히 읽고 일기를 쓰면 내가 주로 관심을 두는 분야와 그 분야에 관한 생각들을 일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표제만 적어놓은 뒤 내용을 요약한 다음 기사에 관한 생각을 썼습니다. 팩트를 체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경로와 함께 이 일을 막거나 더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적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삶 속에서의 활용'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현재 나의 삶에 이 기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더 나은 나 자신이 될 수 있을지 적어보는 과정을 매주 가졌습니다. 만약 기사를 읽고 인터뷰의 내용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경우, 기자님께 메일을 보내 질의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더 나은 뉴스일기를 쓰고 더 나은 제가 되는 데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NO. 5 일기 제목 : 천재 크레피스의 [illegible]

차여서 있다.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6 월 13 일 | 언론사 | 중앙일보 |
| 기사발행일 | 2020 년 6 월 13 일 | 기자명 | 전수진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중앙일보 기사는 경제와 관련 '과학의 재도약 준비'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표제: 인류 달 보내고, GPS 개발 … 세상이 본 건 그들 공동성 '혹인 女'

[기사 내용 요약 정리]

↳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뒤 미국 전역과 세계에서 흑인 차별이 공분이 [illegible] 있고 있다. 과학계도 마찬가지다.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는 11일(현지시간) 흑인 과학자들을 직접 소개하는 특집을 게재했다. 19세부터 활약한 27명의 과학자를 선정했는데, 그 중 16명이 여성이다. 그 중 6명은 흑인 연도 수으로 소개한다. (레베카 리 크랜들, 블랙스 어스터 벨, 도로시 본, 캐서린 존슨, 마리 서. 보석, 글레이스 제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 우선 기사를 보기에 앞서 굉장히 반가웠던 게 기사의 메인 사진으로 미국의 달탐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흑인 여 과학자들의 실화를 다룬 영화 '히든 피겨스'의 장면을 사용했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좋아하는 영화라서 반가 운 마음에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문을 먼저 이야기하기 앞서 영화 속 이야기를 하려 한 기자님의 센스가 돋보였다고 생각한다. 나는 '과학이해' 시간을 있으려고 했는데 영화관련이 보여서 영화 파트를 갑자 출력했는데 읽어보지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영화 소개일 줄 알고 출력했던 이 기사에는 조금 크게 아쉬워하고 있는 마음이 함께 자리해 있었다. (참고: 크레피스 생략) 그리고 이 사이에 함께 일해 주는 사람이 흑인뿐만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 되었다.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 흑인 과학자들을 직접 재조명하는 특집을 게재했다는 것만으로 놀라웠고 뜻깊게 느껴졌다. 이 소식을 전해준 기자님에도 감사하고 나는 이 기사에서 언급된 분들 중 달에 그렇게 101세의 나이로 타계하신 캐서린 존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영화 <히든 피겨스>를 처음 보았던 고등학교 그때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하다. 자신과 크게 관련이 없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흑인이 아니었기에 흑인의 삶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그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영화 <히든 피겨스>를 보고 그들의 삶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캐서린 존슨은 내 롤모델이 되었다. 현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던 그녀는 차별이 발생했음에도 [illegible] 원하고 자신의 능력 또한 인정 받았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권리를 누리고 있는 남성들에 반해 그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해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잘 대변해 주었다. 흑인,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그 모든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언제쯤 모두를 편견없이 바라볼 줄 수 있는 세상이 올까? 매번 기대하고 또 실망하는 세상에 정말 예전 그러고 그래도 그래도 살아보고 싶다. 캐서린 존슨도 101세까지 살면서, 달탐사에 참여 영광을 거절하면서 흑인여성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그 공이 돌아가지 못했지만 현재는 영화로도 나오고 사이언스 잡지에도 실리고 있으니까, 이런 세상이 곧 찾아오는 상상도 못했는 데 하지. 그래서 죽기 전에 차별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보고 다짐하였다.

<초기 플로이드 사건>

↳ 2020년 5월 25일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위조된 20달러 지폐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illegible]

→ 플로이드는 조지 플로이드는 지폐를 위조한 혐의로 그를 붙잡아 경찰서로 데려가려고 했다. 그러자 플로이드는 반항하고 그를 붙잡아 경찰서로 데려가려고 했다. 그러자 플로이드는 경찰에게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경찰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플로이드는 결국 숨을 쉬지 못하고 죽었다.

→ 경찰은 플로이드의 전화를 확인하고 플로이드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고, 사건의 전모를 알고 가족들은 경찰서로 달려갔다. 그리고 플로이드의 '구속된 연예인'을 대한 [illegible] 시위가 나타났다.

<히든 피겨스>의 줄거리는 [illegible]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5 월 16 일 | 언론사 | YTN |
| 기사발행일 | 2020 년 5 월 16 일 | 기자명 | 김대겸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팩트와이] 'N번방 방지법' 카톡까지 들여다 본다? <용어정리> - 사찰 : 조사하여 살핌. 또는 그런 사람.

· 'N번방 방지법'이란?

↳ N번방 사건을 계기로, 1)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하고 2)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강화하고 3)범죄/강요 범죄범위에 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지칭함.

· 뉴스 내용 요약 정리

↳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이야기하자 벤야 지하다며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도 정부가 모두 들여다 보는 검열의 시대가 올 거라는 주장이 일부 유튜버를 통해 퍼지고 있으며 여기까지가 전신기 팩트 체크를 해보고 현재로써는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 관리할 수 있고, 신고가 여러 요청이 있으면 [illegible] 인 지체가 점점다고 하니 '실효성'에 관해 토론하는 중이고,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도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보안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함. (수긍하는 과정이라고 노력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So, 뉴스의 생산의도는 'N번방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

· 배경지식(+α 지식)

↳ 중학교 3학년 때, 역사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우리는 구글의 노예다."라고.

거의 모든 생활의 정보는 구글을 거쳐야 하고 현대 사회인들이 엠생해진보다 더 [illegible] 그 기업에 '유튜브'의 구글의 것이다. 적절한 것 이거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은 절대할 지 모르나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개인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어려울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알아 우리의 정보들을 기업에 노출시켜. 계정을 만들어 놓고, 로그인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 어쩌면 나의 개인정보와 내가 댓글에서 하는 일들은 알아들어 질일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직접 개인정보를 게공한 기업들이 있고, 해커가 의거 때문에 시전에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도, 연예인들의 카톡 대화가 공개되어 구설수에 오른 사건들도 있었다.

↳ 이전한 일이나 다른 여러 내용에 소음들이 하여 특한 것보다 본 그 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려 했고, 그런 이야기가 고급이라도 나면 무시하거나 저급 연예인의 일은 도는 것이라고 회피한 경우가 대다수였으니까.

· 나의 생각

↳ 한국의 법적 제도는 아무리도 부족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대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했던 것처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처벌 수위를 강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쉽게 본다. YTN, 김대겸 기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나는 중3에 역사 선생님에 말은 잘을 토대로 이미 SNS에 올라온 글 들이 구글의 서버 [illegible] 근거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 말았다.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인가. 그러므로 [illegible] 생각 지었다. 다는 하던지 SNS를 한다. 개인 사생활 존중? 꼰대에도 [illegible] 말 말. 보도에 보게에 수위조절이나 우려되는 글 수 있는 [illegible] 과 목에서 한다면 그건 개인 사생활이 아니라 하 [illegible] 인 것이다. 해커도, 다른 기업도도 다 보도 [illegible] 내용을 함부로 보면 안된다고 말하는 법도 있는 일이다.

· 참고 자료

↳ 네이버에 N번방 방지법을 쳤다가 상단에 표시된 자료를 발견했다. (출처: 인터넷뉴스) → 'N번방 방지법 반대' 은 [illegible] 이렇게 많은 관심이에요"

↳ 내용은 여 기관이다. 국회의원 [illegible] 단 제목을 기반으로 본 시상들에는 [illegible] 의 의견 [illegible] 보는 게 페이스북과 유튜 관련이 [illegible] 지 않는 단어들 나의 [illegible] 입법하기 위해 'N번방' 이라는 단어를 이용 [illegible]

· 참 속에서의 참은

↳ 우리는 [illegible] 이번 뉴스의 [illegible] 의 [illegible] 입법 [illegible] 위해 [illegible] 입니다.

# 개인 성인 **동상 수상작**

## 김한나

NO. 49 일기 제목 : 처식주의, 정직한 배려와 이해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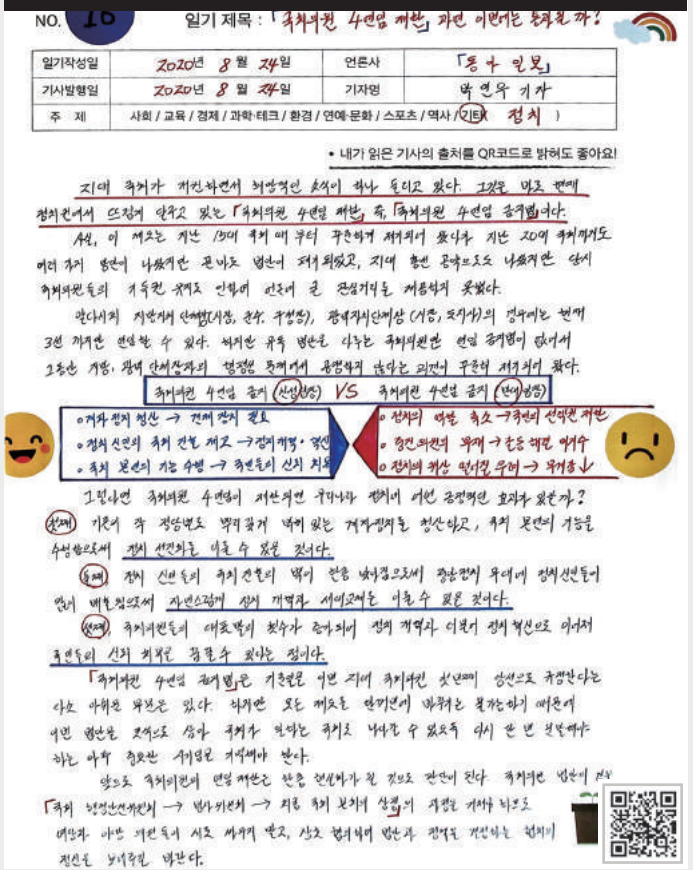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1 월 24 일 | 언론사 | 한겨레 21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1 월 8 일 | 기자명 | 조 수 경 |
| 주 제 | (사회)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언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나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도시락도 싸 보고, 급식도 해봤다. '학식'이라 하는 맛없어지는 우리 부모님 손 떠나고, 점심시간에 한 번씩 도시락 놓고가는 나 자신에 대한 나머.
그때 사진을 보니 학교가는 재미도 쏠쏠했다. 모두가 같은 급식을 먹지만,
그럼에도 기다리는 사진! 급식의 이미지는 그렇다, 모두가 함께 '같은 식단'이라 편식하면 미운데,
맛있는 음식은 너도나도 맛보는 날.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면서 '오...' 하면서 감탄 빈상했다.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처식'과 급식도 학교 학교 급식 식단 학교 급식 식단 학교 급식 식단

# 개인 성인 **동상 수상작**

## 이우진



NO. 16 일기 제목 : 「국치의원 4년을 지난」 과연 어떠한 분위기였까?

| | | | |
|---|---|---|---|
| 일기작성일 | 2020년 8월 24일 | 언론사 | 「동아 일보」 |
| 기사발행일 | 2020년 8월 24일 | 기자명 | 박연욱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정치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지대 국치가 지난하면서 혁명적인 요지이 하나 돌리고 있다. 그것은 마치 현대 정치인에서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치의원 4년을 지난」 즉, 「국치의원 4년을 돌아보다」이다.

4년, 이 세월은 지난 13대 국치 때부터 계속되어 왔다가 지난 20대 국치까지도 여러 차례 일어나 곤란한 문제로 변화되었고, 지대 훨씬 공학으로도 나왔지만 당시 국치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로 인해 인해서 큰 진전되는 거름하지 못했다.

반대의 지방자치 단체(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자치단체장(시장, 도지사)의 경우에는 현재 3년 마다만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유독 법관은 다르는 국치의원만 연임 금지법이 없어서 2중한 지방, 광역 단체장과의 경쟁을 통해서 유명하지 않다는 괴리가 무분별 저지되어 왔다.

국치의원 4년을 돌아 (신성장) VS 국치의원 4년을 돌아 (연임장)

- 거자 정치 청산 → 현재 깨끗 필요
- 정치 신인의 국치 진출 제고 → 정치개혁·혁신
- 국치 본연의 기능 수행 → 국민들의 신뢰 회복

- 선거의 막을 축소 → 국민의 선택권 제한
- 장기 의원의 독재 → 민주 원칙 위배
- 전직의 권상 떨어진 우려 → 무거움↓

그렇다면 국치의원 4년이 지난지면 무엇이나 정치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까?

첫째) 기존의 각 정당별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자·정치를 청산하고, 국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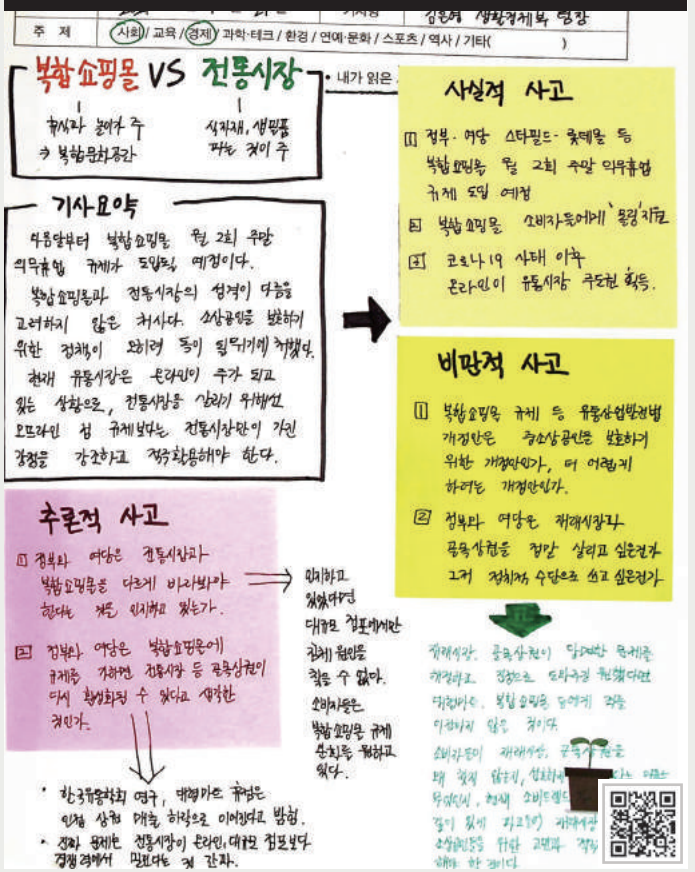
둘째) 정치 신인들의 국치 진출의 벽이 한층 낮아짐으로써 장기집권 우려에 정치 신인들이 없어 비롯됨으로써 정치 개혁과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치의원들의 대표성의 확수가 증가되어 정의 지역과 이익 정치 청산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치의원 4년을 돌아보다」은 기존의 이번 지대 국치의원 첫년에 상선으로 규정한다는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다. 하지만 모든 제도를 한꺼번에 바꾸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만을 조짐으로 삼아 국치가 일단는 국치로 나아갈 수 없도록 다시 한 번 보면해야 하는 아쉬 점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앞으로 국치의원의 연임 제한은 한층 연선에가 될 것으로 관측이 된다. 국치의원 법안에 의거 「국치 임기연선제한」 → 법사위원회 → 최종 국치 본회의 상정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여야가 아무 의견 없이 서로 싸우지 않고, 상호 협력해서 법안과 정책도 개선하는 협치의 진전은 보다 중요한 과제다.

## 조원경



주 제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복합쇼핑몰 VS 전통시장**

- 휴식과 놀이가 주 → 복합문화공간
- 식자재, 생필품 파는 것이 주

**기사요약**

4월달부터 복합쇼핑몰 월 2회 무말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된 예정이다.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의 성격이 다름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동이 될 뿐이게 작용했다.

현재 유통시장은 온라인이 주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오프라인 쪽 규제보다는 전통시장만이 가진 경쟁을 강조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실적 사고**

[1] 정부·여당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을 월 2회 주말 의무휴업 규제 도입 예정

[2] 복합쇼핑몰 소비자들에게 '몰링' 지표

[3]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이 유통시장 주도권 획득.

**비판적 사고**

[1] 복합쇼핑몰 규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인가, 더 어렵게 하려는 개정안인가.

[2] 정부와 여당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정말 살리고 싶은건가 그저 정치적 수단으로 쓰고 싶은건가.

**추론적 사고**

[1] 정부와 여당은 전통시장과 복합쇼핑몰을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2] 정부와 여당은 복합쇼핑몰에 규제를 가하면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대규모 점포에서만 규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소비자들은 복합쇼핑몰 규제 순치를 원하고 있다.

- 한국유통학회 연구, 백화점은 유럽은 인접 상권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밝힘.
- 전화 문제는 전통시장이 온라인, 대규모 점포보다 경쟁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자.

재래시장, 골목상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으로 되찾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들의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왜 찾지 않는지, 생활에 [illegible] 무엇인지, 현재 소비트렌드 [illegible] 잘이 있게 파악하여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과 적극 [illegible] 할 것이다.

# 단체 어린이 저학년 **은상 대표**

**<찐가족의 뉴스 팩트>** 강유준, 강채린, 강형문, 이현옥 가족

## 수상소감

처음엔 뉴스일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족이 함께 도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시작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뉴스일기를 통해 가족이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 더욱 의미 있는 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뉴스를 적극적으로 보지 않고 엄마, 아빠에게 소식을 전해 듣는 정도가 전부였는데, 적극적으로 뉴스를 찾아보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입니다.

저희는 각자 관심 있는 뉴스를 선정하여 의견을 나눔으로써 대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가족이 한 가지 주제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기사 내용이 쉽지 않았을 텐데 열심히 참여해 준 아이들 덕분에 뉴스일기가 더 풍성해지고 대화도 다양해졌습니다. 이 상을 계기로 가족 간의 소통을 늘리고 올바르게 뉴스를 소비하는 '찐가족'이 되겠습니다.

## 느낀 점

일기를 쓰면서 아빠는 시사와 경제 뉴스, 엄마는 사설, 딸은 생활에 유용한 서비스 관련 뉴스, 아들은 통계와 관련된 뉴스에 흥미를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뉴스에 나온 서비스를 직접 찾아본 뒤, 실생활에 유용한지 확인하고 팩트를 체크해보는 딸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들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에 대한 자신의 총평까지 더하며 뉴스를 적극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과학자라는 미래의 직업과 연결도 시켜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뉴스에 대해 깊은 의견을 공유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역량도 길렀고, 뉴스를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 뉴스일기 작성 TIP!

무엇보다 비슷한 주제의 뉴스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살펴보면 뉴스의 흐름을 조금 더 쉽게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어 좋습니다. 각자 관심 있는 주제의 뉴스를 꾸준히 추적 조사하면 뉴스를 보는 힘이 생깁니다. 초등학생에게는 뉴스의 용어나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풀이한 뉴스와 뉴스 찾기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주제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선정하고 분석한 뒤, 일기에 각자의 의견을 적는 공간을 만들고 내용을 공유하니 깊게 생각하는 힘이 자랐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가족 토론 시간이 생겼고 교육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담긴 일기장이 하루하루의 기록 같아 보람을 크게 느꼈습니다. 가족 간에 뉴스를 공유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이렇게 뉴스일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0

NO. 1(순) 일기 제목 : 행복한 시민과 길고양이를 위하여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2 월 31 일 | 언론사 | 휴먼에이드포스트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2 월 31 일 | 기자명 | 김민진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캣맘과 주민의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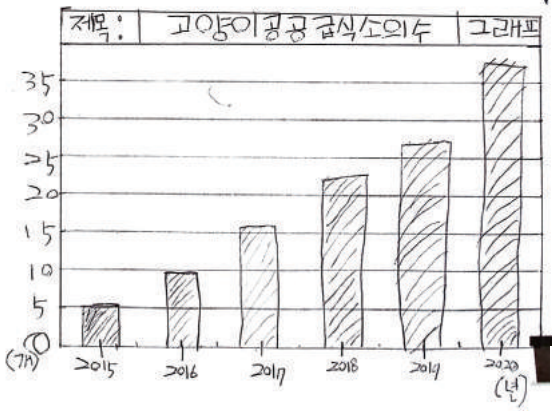
| 캣맘들 | 아파트주민들 |
|---|---|
| 1. 길고양이들이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당신들은 시끄럽다고 생명을 죽이라는 거에요!? 그러며 당신들은 길고양이를 뽀면 차버려요!? | 1. 우리도 배설물 냄새도 나고 시끄러워서 잠도 못자고 해서 병도 걸릴 수 있잖아요!! 당신들은 사람보다 고양이가 중요해요!? 그건 아니지 만고양 공공급식소에서 하지 왜 당신 캣맘들이 그래요? |

생명은 소중하고 공경해야 · 존재다. 동물을 사랑해요.

나는 길고양이들은 공공급식소에서 책임지고 기르면 될 것 같다.

길고양이 보호소가 많이 생겨서 이런 분쟁이 없었으면

제목 : 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수 그래프




NO. 19(옥) 일기 제목 : 택배 분류까지?

| | | | |
|---|---|---|---|
| 일기작성일 | 2021 년 1 월 21 일 | 언론사 | 한겨레 신문 |
| 기사발행일 | 2021 년 1 월 21 일 | 기자명 | 강봉규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택배사 분류 책임' 못박은 과로사 대책, 반드시 지켜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① 분류 자동화 설비로 분류 자동화 ② 자동화 안되서 수망지급(분류)

③ 최대 작업시간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

④ 새벽 배송 오후 9시 이후 제한하기.

⑤ 물량 폭증시: 분류작업 인원 확충. 새벽배송 중단

⑥ 택배요금 인상 및 구조 개선 방안 마련.

⑦ 쿠팡 등 대형 한주: 다가 우려되기 때문에 조치야!!

택배, 무엇을 고쳐야 할까? 토론해보기

아빠(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서 부당한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엄마(옥)

택배 나르기도 벅찬데 분류까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택배비를 인상해서라도 이런 불합리는 없애야 한다.

딸(지)

사람들은 눈 오는 날에도 택배를 시키는데, 그런 날씨에 택배를 배달하는 분들을 분류할 때 돈을 안 주다니, 너무 심하다.

아들(준)

안 좋은 날씨에 배달하는 분류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쓴다.

NO. 준(39) 일기 제목 : 아동학대 신고증가

| | | | |
|---|---|---|---|
| 일기작성일 | 2021 년 2 월 15 일 | 언론사 | 머니투데이 |
| 기사발행일 | 2021 년 2 월 15 일 | 기자명 | 정한결 |
| 주 제 | (사회)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정인이 사건'으로 숨겨진 아동학대 다왔다... 신고접수 늘어

아동학대신고 건수

월평균 180여건

47% 증가

월평균 267여건

10월13일이전

10월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생각 말해보기

잠깐! 쓰레기 아동학대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자!

준: 아동학대는 너무 나쁘다. 왜냐하면 아이를 막 때리고 그러는거잖아. 나쁜거 때렸어요. 그리고 양양해서 엄청나쁘다.

찌: 사람들은 아동학대를 그만둬야한다. 왜냐하면 당하는 아이가 너무 아프고 무서울거기 때문이다.

옥: 아동학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기에 언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의 강이자가 되어 신고해야 한다.

문: 학대하는 사람은 일벌 백계!

NO. 뉘(찌) 일기 제목 : 가장 많이 수입·소비되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 | | | |
|---|---|---|---|
| 일기작성일 | 2021 년 2 월 22 일 | 언론사 | |
| 기사발행일 | 2021 년 2 월 22 일 | 기자명 | |
| 주 제 | (사회)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1. 과일과 채소로 만든 가공품
2. 김치 3. 맥주

1. 과일, 채소로 만든 가공품
3위였는데 (재작년) → 1위! (1년 만에)
이유: 건강에 대한 관심↑, 농축액 등 수입 증가

2. 김치
계속 늘음 (재작년) → 2위 (작년)
단체급식, 외식↓, 김치수입량↓

3. 맥주
1위! (재작년) → 3위 (작년) 22.8%↓
이유: 수입맥주 판매↓, 국산맥주 수입맥주 대체
but! 술종류 다양 and 집에서 (SO: 과일주 수입 30.4%↑)

1, 2, 3 나는 뭘 살까?

찌: 김치를 살거다. 맛있으니까!

준: 김치. 맛있고 많은 음식을 만들 수 있음.

옥: 맥주. 가공품으로밖에 만들 수 없으니까

문: 과일과 채소 꼭 필요한 영양소

# 단체 어린이 고학년 **은상 대표**

**<뉴스로 세상보기>** 김규림, 문수현, 장우영, 최다희

## 수상소감

대회에 참가한 것만으로 저희에겐 좋은 기회였습니다. 팀원들과 협동하여 함께 이루어낸 결과이기에 더욱 보람찬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열정 넘치게 도전을 외쳤지만, 작성 과정을 돌아보면 막상 팀원들과 활동했던 시간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적었던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협동하여 의견을 나누는 기사 활동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보고 시도하니 어느새 성장해있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평소 관심이 없어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내 생각만이 아닌, 팀원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느낀 점

개인이 아닌 단체로 활동하면서 각각의 팀원들이 활용한 기사들과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더 발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내 생각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각 모두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좋아하지 않았고 관심조차 없었던 분야들을 뉴스일기 기사 활동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팀원들과의 단체 활동으로 책임감과 협동심을 길렀으며, 다음 기회에도 참여해보겠다는 도전 정신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 뉴스일기 작성 TIP!

저희가 유용하게 썼던 방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분야의 기사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뉴스를 접해보고 의견을 작성하며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음 기사를 활용할 때면 다른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저희가 단체로 참여하며 가장 유용하게 썼던 방법은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팀원이 작성해온 기사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포스트잇에 정리하여 한 눈에 들어오도록 기사에 붙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면 팀원들은 서로의 생각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기사를 작성해온 팀원은 자신의 기사에 붙여진 생각 포스트잇을 보며 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NO. 5 일기 제목 : 계절에 맞지 않게 핀 꽃이 있다고?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0월 14 일 | 언론사 | 다음 SBS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0월 10일 | 기자명 |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 테크 (환경) / 연예 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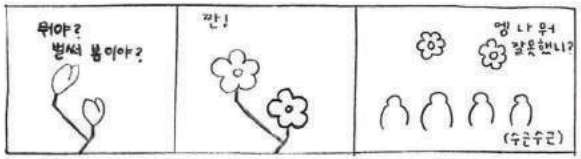
## 기사요약

### 가을에 활짝 만개한 벚꽃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가을인데 여기저기서 벚꽃이 만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8월 말부터 태풍이 연달아 오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기온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고 기온이 일시적으로 올라가자 봄이 온 줄 착각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불시 개화' 라고 부르는데
태풍이 지나간 지역에서 과거에도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 나의생각

ㄴ 가을에 봄 꽃인 벚꽃이 피는 현상은 처음보는 일인 것 같다
요즘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눈으로 확인 해보니
생각보다 위험한 것 같다. 봄꽃은 봄에, 가을 꽃은 가을에
보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다.




## 퀴즈

Q - 가을에 벚꽃이 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A - 태풍이 지나고 기온이 일시적으로 올라가자 봄이 온 줄 착각했기 때문

Q - 철에 맞지 않게 꽃이 피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나요?
A - '불시 개화'

봄에 피는 벚꽃이 가을에 피니 신기하고도 학고, 예전 & 기후변화 때문인데, 나중에 기후변화 때문에 더 큰 재앙이 있으면 생각하니 좀 무섭기도 하다.
—규림

## 용어정리

### 만개

1. 꽃이 활짝 다 핌
2. 활짝 열어놓음
3. 돛을 들대 끝까지 펴서 올림

### 불시개화

싹이 이상발육하여
개화하는 시기가 아닌데
개화하는 현상

'불시 개화'라는 것은 처음알았고, 기후변화가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다시 벚꽃을 볼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

대구행복한미래재단

가을에 봄꽃인 벚꽃이 피면이 신기하지만 무서워 지구온난화 조심해야겠어.

—꽃

# 3D 프린터

** 지방성분, 근육섬유, 혈관 등등 구체적인 것까지 혼합하여 만든다.

## 3D프린터로 고기를 인쇄한다고?

- 이스라엘의 한 스타트업이 고기를 3D프린터로 만든다.
  ↳ 환경을 생각한 식물성 재료로!

Good

* 채식주의자도 무리없이 즐길수 있다!

## 3D프린터로 고기를 만드는 이유는?

- 육식으로 인한 탄소량을 줄일수 있어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가축도 희생 되지 X
- 식량 보급, 생산에 큰 영향을 준다.

3D 프린팅으로 매우 정교한 집과 로봇, 고기등을 만들어낸다는게 신기하다. 앞으로의 미래에 3D 프린팅이 유용하게 쓰이면서 세계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다

- 다희 -

3D 프린터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사용될수 있다 하니 신기하다 나중에는 3D프린터가 많음것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우영

* 친환경 대체 음식들

1. 치킨
   ↳ 채식 치킨너겟과 날개가 좋은 평가 받음
2. 연어
   ↳ 맛과 식감 재현

3D 프린터로 우주에서까지 그것이 있는것을 식이할 수있다니 굉장하다는 생각이들고 내게도 지린것이 있었으면 정말 멋졌지 식어갈것 같아. 얼른 3D 프린터의 발전으로 더 우리 생활과, 환경 좋겠어 - 수

MO PHARMAC

{비대면 서비스 (untact marketing) 이라고도 불림.}

## - 비대면 서비스 증가의 기가닥

1. 소비형태의 변화
   ↳ 격점소비보단 간접소비로 형태가 크게 변화 했다.
2. 소통형태의 변화
   ↳ 스마트폰 보급에따라 1020세대는 전화보다는 메신저를 더 편하게 생각한다.
3. 코로나 19의 확산
   ↳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사회적으로 퍼짐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가 성기를 끌기 시작.

## - 다양한 업계에 불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바람

- 금융업계 (비대면 송금/서비스 선보임)
  - 신한은행 -> '비대면 환전 서비스' 시중 은행 최초로 시행
- 외식업계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 파리바게뜨 -> '파바 달려 버리' 시행 중 -> 매출 80% 성장
  - 스타벅스 -> '사이렌 오더' 시행
  - 맥도날드 -> '드라이브스루' 시행
- 유통, 포털 업계 (마케팅 대폭 강화)
  - 롯데 백화점 -> '온라인 커머스 방송' 50% 늘림
  - 카카오 -> 자체 서비스 '톡딜 라이브' 만듬

코로나-19때문에 배달을 하는 음식점은 갈 되겠지만 배달을 하지않는 음식점은 잘 안되는 것만 봐도 코로나 19의 영향력을 체감할수 있지만 비대면서비스 까지 생기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우영

우영은 비대면 서비스에 관심이 가.
나는 e-쿠폰이 (보건 수업) 과 드라이브 스루 또 결합 되었어. 근데 신랑은 생각하기에도, 스타벅스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걸 했었어. 알게 됐어.
비대면이 좀더 편한건 맞기도 하지 만 코로나 이전에 사람에 그랬기도하고
또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대체 되는것도 보게 될것 같다.

수연*

코로나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과 일자리를 잃는등의 안타까운 일들은 꼭는 것이 너무 싫어가 나서 모두들 힘들것 같아 빨리 코로나가 끝나면 좋겠어.

MOTHER'S PHARMACEUTICAL CO.,LTD.

# 단체 어린이 고학년 **동상 대표**

**<일곱빛깔무지개>** 천안위례초등학교 6학년 1반(지도자 정지훈)

## 수상소감

학생 수 42명의 시골의 작은 벽지학교, 우리가 작성한 뉴스일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을 만나기 어려운 우리에게 세상을 통해 바라보는 기회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쉬움도 남지만, 우리가 1년 동안 땀과 눈물로 작성한 뉴스일기장을 생각하니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일기도 거의 써보지 않았던 우리 7명의 친구들에게 서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금은 졸업해서 흩어진 친구도 있지만,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었던 2020년, 우리 반 친구들의 소중한 기록을 남긴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뉴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물론 뉴스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뉴스일기 작성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느낀 점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바로 '뉴스'라고 말씀하시던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왜 그런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저희에게는 큰 배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뉴스를 읽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낯선 내용이 많아 힘들었지만, 지금은 뉴스를 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뉴스일기 작성을 통해 얻게 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뉴스읽기, 뉴스일기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넓고 깊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뉴스일기 작성 TIP!

학교로 매주 오는 어린이 신문을 활용했으며, 단체일기를 쓸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같은 언론사의 주간지를 구독하여 작성했습니다. 1면 기사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일주일 동안 각자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를 읽고 내용을 요약하거나 분석한 뒤, 뉴스에 대한 소감을 작성했습니다. 7명의 학생이 되도록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작성했으며, 비정기적으로 다른 학생들은 친구들이 요약한 기사를 읽고 소감이나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이 기사가 신뢰할만한 내용인지, 비슷한 기사나 생각이 다른 기사가 있는지 생각하며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실제 일기를 작성할 때 뉴스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렇게 기사를 비교해보는 활동 자체가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NO.55 일기 제목 : 뉴스일기 작성 중간소감.

| | | | |
|---|---|---|---|
| 일기작성일 | 년 월 일 | 언론사 | |
| 기사발행일 | 년 월 일 | 기자명 |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친구들의 중간소감 나누기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평소에는 뉴스를 보지도 않는데
뉴스를 관심있게 보게 된것 같다. 그리고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무언가
꾸준히하는 습관이 생긴거 같아서 좋다. -서은-

신문을 보고 뉴스일기를 작성하여 신문에 관심
많아졌고 신문이 있으면 읽고싶은 버릇이 생겼다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신문은 쳐다보지도 않고 흘리
거받치는용도로 썼는데 이제 신문이 있으면
할게 없을 때 신문을 보게 되어서 뉴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경호-

예전에는 신문은 쳐다보지도 않았
는데 신문도 보면서 느낀점도
쓰고 뉴스일기를 꾸미니까 더
재미있게 사회 생활을 할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 뉴스일기
를 다 쓴다라도 신문을 보며 사
회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
다. -양현지-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나는 평소에
읽지 않던 신문을 읽어서
좋았다. 신문을 읽으니 내가 모르던
이야기를 알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그리고
신문을 읽고 일기도
써서 정말 좋았다~
-정현지-

NO.26 일기 제목 : 반려식물을 키워보자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1 월 1 일 | 언론사 | 소년한국일보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0 월 21 일 | 기자명 | 서원국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나는 이 신문을 읽고 난후
반려식물이라는 것에 알게 되었고
반려식물 이라는 것을 키워보고 싶어졌다.
반려식물이란 것은 초보자도 키우기 쉬운
식물이다. 반려식물로는 페리고늄
셀로움, 블루스타 고사리, 파키라,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신문을 보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공기정화식물
종류에 대해 알게되었다.
공기정화식물은 극락조, 멕시코 소철
바이오 월, 백량금 등이 있다.
나는 이 식물을 읽고 난후
반려식물을 키우고 싶어졌다.

# 단체 청소년 **금상 대표**

**<신기소리>** 경민고등학교 3학년 3, 4반(지도자 박효경)

## 수상소감

우선 3, 4반 학생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고, 수상으로 이끌어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입시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이 활동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학업에만 집중해도 모자란 시기에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생각하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활동하면서 그것이 오만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뉴스에는 교과서에 없는 여러 가지 지식이 담겨 있었고, 뉴스를 읽고 분석하며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학생이 공모전에 참여하여 시사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고등학교 3학년 시기를 알차게 보내게 해주신 선생님과 저희가 열심히 참여한 활동이 더 멋지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 느낀 점

처음에는 어떤 시각으로 뉴스를 봐야 하는지 몰라 헤맸습니다. 평소 뉴스 읽는 습관이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뉴스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친구들과의 의견 나눔과 토의 활동을 거듭하면서 점차 저만의 방법으로 읽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뉴스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 어려움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자세를 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뉴스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을지, 요즘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호기심을 가졌고, 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궁금해하면서 긍정적인 자세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와 한 발짝 가까워질 수 있는 활동이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 뉴스일기 작성 TIP!

우선 처음에는 관심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뉴스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차적으로 기사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기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생각합니다. 그다음 자신의 의견에 모순된 점은 없는지 등을 생각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뉴스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를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익숙해졌다면, 자신의 관심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뉴스도 보면서 시야를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를 마치고 일기를 쓴다는 가벼운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줄어들어서 뉴스일기를 작성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검색으로 각 뉴스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먼저 정립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NO. 4-2 재난지원금

| 일기작성일 | 2020년 3월 29일 | 언론사 | 뉴닉(https://newneek.co/) |
|---|---|---|---|
| 작성자 | 강하영 | 기사 출처 | |
| 주제 | 경제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반대의견

나는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 상황과 모순되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침체된 경제활동을 살리기 위해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재난기본 소득을 실시하려는 본래 의도는 좋지만, 온라인 화폐가 아닌 거리로 나와 사용해야하는 화폐는 코로나19 확산을 심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모두에게 주는 기본소득이 아닌 취약계층(소외계층)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생겨난 돈으로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아닌 중앙정부예산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선생님

와!!! 하영이 글의 원문에는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타격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강조하는 글이네요.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그걸 토론 주제로 생각했군요... 재난 기본 소득의 경제 적 지원 외에 심리적 지원이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글을 토론 주제로 꺼내지 그랬어요? 정말 공감가는 내용입니다.!!! 특히 하영이는 자유토론주제거리로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 예방수칙처럼 심리적 피해 도움방법을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를 건의했어요. 이건 미디어 전공팀 들이 고민해서 댓글을 달아보세요.

강하영

우선 배대면 접촉이 중요함으로 전화상담이 가장 쉬운 방법같습니다. 저희 조는 학급에서 할 수 있는 코로나 블루 예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코너스 룸이라는 이름의 박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코너스 룸은 권투 경기에서 선수가 쉬는 곳을 의미합니다. 고3의 힘든 생활에서 친구들이 한 숨 돌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우선 간식과 편지를 준비해 친구들이 필요할 때 위로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고 사용된 친구들이 다시 물건이나 답장을 채워 넣는 방법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나누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 NO. 4-9 재난지원금 확장 토론(찬성측)

| 일기작성일 | 2020년 3월 30일 | 언론사 | 뉴닉(https://newneek.co/) |
|---|---|---|---|
| 작성자 | 서은주 | 기사 출처 | |
| 주제 | 경제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오늘 화상동화 회의에서 가장 많이 얘기한 내용은 경제적인 부분을 큰 틀로 잡아 토론을 하였다. 나를 포함한 찬성 측 입장은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입장이다.

우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실제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로 지급되며, 큰 백화점, 프랜차이즈점들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동네 상점 같은 곳에서 사용하게끔 하고 있다. 현재 동네 가게들은 사람들의 발길을 끊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동네상점에서 만 쓰게끔 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측 입장에서 얘기 한 바로는, 재난기본소득이 지급이 될 경우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밖으로 나가는 상황을 발생시켜 코로나가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국가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를 거급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시에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이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계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물건을 사러 밖으로 나가는 것은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모두 다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렇게 자가격리를 중요시하는 상황에서는 생필품이나 먹을거리 같은 것의 비용은 더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에 국가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소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것을 옳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또, 반대 측 에서 소외계층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인데, 소외계층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관적 빈곤과 객관적 빈곤이 존재하듯, 사람마다 생각하는 빈곤의 기준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이로 인한 차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해당하는 국민이나, 고소득자 국민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는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재난기본소득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 국민을 보호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NO. 4-10 재난지원금 확상 토론(패널)

| 일기작성일 | 2020년 3월 30일 | 언론사 | 뉴닉(https://newneek.co/) |
|---|---|---|---|
| 작성자 | 박효림, 김하경 | 기사 출처 | |
| 주제 | 경제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박효림

이번 토론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반대 측 입장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으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의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경제적인 부분이 아닌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화상통화로 토론을 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찬성 측 내용에서 재난기본소득금에 대한 분배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난기본소득은 실제 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며 동네 상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재난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특정 기준에 따라 차등분배가 일어난다면, 지역화폐를 많이 지급받은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네 상점만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모든 동네 상점과 시민들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분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난기본소득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 국가재정이 더 악화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함'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 역시 외부에서 돈을 들여오기 때문에 국가채무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지원금 정책들로 인해 국가채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넘어서 경제 활성화를 돕는 일이 국가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하경

이번 화상토론에 패널로 참가했다.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해보자면 반대측에서 말 하는 코로나19의 심화는 우려될 문제가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온라인 화폐로 지급을 하자는 내용에서 이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형태를 지역 화폐가 아닌 온라인 화폐로 바꾼 것뿐이므로 오히려 찬성측 입장에 동조한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찬성측 입장에서는 생필품, 먹을거리를 사야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점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외계층의 판단이 어려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자는 의견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다고 생각한다. 보편적으로 나눠주면 소위 부자와 같은 부유한 계층도 돈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가만히 있기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국민들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재난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기준은 애매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하는 부분인 것 같다.



## NO. 27- 2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 일기작성일 | 2020년 5월 10일 | 언론사 | 뉴닉(https://newneek.co/) |
|---|---|---|---|
| 작성자 | 박한비 | 기사 출처 | |
| 주제 | 의료, 법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기사요약

그동안 환자와 의사가 만나지 않는 원격 진료가 금지되었지만 최근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회사는 재택근무를 하고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등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용한 것인데 이번기회에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조금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바이다.

나의생각

일반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원거리에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을 원격 진료라고 한다. 즉 ,다시말해서 전화나 화상통화로 진료를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원격 진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물론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원격 진료를 하는 것은 정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치료와 환자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병과 혼동되어 버리면 책임은 당연히 의사한테 갈 수 밖에 없다. 이 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를 받을 때 어느 병원에서 받을 것인가? 라고 물으면 누구나 동네병원 보다 국내에서 가장 좋은 병원의 원격진료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병원들은 사람들이 줄 서 있을 텐데 쉽고 빠르게 진찰해 주지 못할 것이다.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전문의원 혹은 마케팅에 많은 돈을 쏟는 의원에 환자 몰림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동네병원들이 없어지는건 한순간에 발생 하게 되어 의료 접근성을 하락하게 만들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장점들만 생각하고 원격 진료도 그리 반대할 것 만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깊게 생각 해 보였을 땐 동네병원들이 없어져 일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고 의료진들만 더 없어지는 지름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이 갖추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원격 진료 도입은 그리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선생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비대면으로 전향되었습니다. 아마 의료도 그 중 한 분야 일 꺼에요. 감염 우려가 있기에 병원에 직접 방문하기 꺼리는 일반 환자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코로나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먼저 방향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하네요.

## NO. 27- 3 코로나가 불 지핀 원격 진료

| 일기작성일 | 2020년 5월 10일 | 언론사 | 뉴닉(https://newneek.co/) |
|---|---|---|---|
| 작성자 | 고하연 | 기사 출처 | |
| 주제 | 의료, 법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기사요약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원격진료는 불법이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일반 환자들도 감염 우려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게 되자, 정부와 국회는 임시로 전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 최근 정부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키우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원격의료는 기존의 '특별한 경우'를 조금 확대하는 정도만 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 나의생각

나는 '원격진료'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해보고 싶다. 물론 나의 입장은 '반대'이다. 물론 원격진료가 편리하고 비용 대비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이기도 하고,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로 외출을 꺼리는 요즘에는 원격진료를 코로나19를 해결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의료사고의 위험과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고, 단순한 모니터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유발해서 1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진료를 보조해주는 사람 등 많은 의료계 근로자들은 원격진료로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의 복지이다. 원격진료의 체계와 관련 규정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것은 더 많은 의료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NO. 27-5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 일기작성일 | 2020년 5월 10일 | 언론사 | 뉴닉(https://newneek.co/) |
|---|---|---|---|
| 작성자 | 박효림 | 기사 출처 | |
| 주제 | 의료, 법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기사요약

코로나19로 일반진료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전화로 진료를 하는 원격진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OECD 36개국 중 26개국이 원격진료를 하고 있지만 원격진료를 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들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나의생각

나는 원격진료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병원시설이 통제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일반 환자들이 병원을 가기 망설이고 주저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대로 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원격치료가 일반 환자들과 의료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우려 점들은 발생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사를 읽으면서 대학병원으로 진료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보았다.

먼저 각 병원마다 하루에 볼 수 있는 원격진료를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원격진료를 제한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이 진료가 마감이 될 테지만 제한을 둠으로써 사람들이 동네병원을 찾도록 하고, 현재 동네병원보다 큰 병원, 동네병원에서 코로나19치료가 이루어지면서 코로나19에 전념하는 의료진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격진료를 보기 전에 정부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거지에서 가까운 병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거지와 가까운 병원을 검색하도록 하는 것은 만약 진료가 감기와 같은 일반 질병이 아닌 장기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질병이라면 코로나19가 끝나도 계속 치료를 도울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의료문제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료와 의료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 단체 청소년 **은상 대표**

**<3퍼센트>** 강준희, 김금옥, 김연주, 박민지, 오서연 / 서울광양중학교(지도자 강명희)

## 수상소감

참가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정보 판단 능력을 키우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1년 동안 꾸준히 작성해온 일기들을 모아보며 상을 받게 되면 어떨까 하며 팀원들과 장난을 치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니 아직 조금은 얼떨떨하면서도 결국엔 이루어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고 뿌듯합니다. 공모전을 추천해주시고 저희를 이끌어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단 말씀과 코로나19로 인해 모이기 힘들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간 팀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뉴스일기를 통해 뉴스와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새롭게 배운 것과 경험한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저희 팀처럼 유익한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 함께 노력하며 달려온 시간과 경험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 느낀 점

뉴스일기를 작성하며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과 다양한 이슈를 접했고, 뉴스를 효과적으로 요약하고 본인의 생각을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팀원 모두의 노력을 모아 하나의 의미가 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크게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와 고등학교 학업 준비로 다섯 명 모두가 직접 얼굴을 보며 활동하기는 힘들었지만, 하나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달려온 시간은 매우 의미 있었고, 그러한 과정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달린다면 해내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뉴스일기 작성 TIP!

제일 먼저 기사가 확실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는 기사라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핵심 내용을 찾게 되고, 핵심 내용은 일기의 기초가 되어 기사 요약으로 빠르게 이어집니다.

내용을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각자 다른 관점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주제에 대한 확실한 정보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각자 활동지 작성이 끝났을 때, 뉴스의 팩트 전달 과정에서 팀원의 개인적 견해가 들어가지 않도록 서로의 내용을 확인했고, 기사 주제에 대한 의견을 포스트잇에 작성해 붙였습니다.

NO. 23 일기 제목 : 낙태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0 월 9 일 | 언론사 | MBC뉴스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0 월 7 일 | 기자명 | 곽수한 |
| 주 제 |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 테크 / 환경 / 연예 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빨리도 줄이자!

"임신 14주 까지 낙태 허용 … 거주요후퇴 반발"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낙태를 할수 있고 이후 24주까지는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낙태가 가능해진다.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정부가 개정 안을 만든 것이다. 14주 이내의 낙태는 태아가 덜 발달 했으며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후 낙태 조건으로는 성범죄 등의 연행법 이외에 '사회 경제적' 이유가 추가되었다. 의료진의 상담과 24시간 숙려 기간을 거쳐야 했지만 사유를 객관적이고 입증할 의무가 없다. 또한 배우자 등의 조항이 삭제되었고 미성년자도 보호자의 허락 받을 필요가 없다.

**낙태법 폐지 찬성**

낙태법 폐지 찬성사유

- 미혼모 버림 학대
  ex) 사회적 편견
  ex) 경제적 어려움
- 해외 입양률 여전 높음
- 불법적 낙태 여전 유행
- 여성의 자기 결정권
- 인간의 존엄성의 시작은 태아?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 해왔다. 하지만 이는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조항이 유지되며 처벌을 거슬렀다.
- 14주라는 기준이 처벌의 기준이지만 그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

**낙태법 폐지 반대**

낙태법 폐지 반대사유

- 태아 생명권 존중
- 인간의 존엄성 헌법적상
-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을 우선보호해 자주 권리 내포 (×)
- 산모에게 악 영향
- 성관계에 책임 사라질지

낙태법 개정안에 의견

- 처벌 강화에 그칠
- 생명권을 가질 수 있던 성 명시
- 태아의 생명권 완전 우선

현재 낙태법은 낙태는 법적 행위로서 임신부와 특정직업자, 직업무관하게 가중처벌 가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곳에는 현하지 않은 임신을 행한이의 책임은 포함 되지 않으며 법적 대응도 미흡하다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며 임 산부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은 도움주는 기관없는 사각지대로 되는 꼴이다) 생명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보호하기 주장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오히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마음대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돕지 않으며 미혼모를 사회적 편견으로 외돌려주고 하지만 무분별한 낙태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자칫 성관계의 책임도 사라질 수 있다. 나쁜 길에 빠지는 걸 막아주는 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법은 14주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그렇다 생각 빠진다는 걸 막아주는 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법은 14주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23 김민수

낙태를 하게 되지의 큰 결정이 필하다. 유쾌하게 살 수는 인해 태아가 생겼다고 해도 낙태는 하지 않아야한다 태아에게도 생명이 있고 죽게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 등의 조항 삭제, 미성년자가 보호자 허락 받아야 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 처럼 점점 낙태법이 나아지는 것 같다. 하지만 14주까지만 처음하는 것도 고쳐지면 좋을 것 같다 별 이유 없는? 낙태는 문제지만 이유가 있는 낙태는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된다. 김금옥

**오시연.**

낙태법에 대한 내 생각은 찬성이다. 낙태법 관련 제가 나보다 전에 정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된 경우의 권리를 자유로 하기 위해 있다. 이유에도 여러 경우가 존재 하지 않는 아이가 아닌, 아이에게 태어나 사랑을 받지 않아야 한다. 경우로 처벌만 가해야 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다. 그 이유로 태어날 것이 아니라면 그 부담에 대해 고민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김종희

사회적으로 여전히 아무가 되고 있는 낙태법. 나는 이것에 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태아도 생명이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나와 다른 이의 모두의 존엄성까지 없애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임신한 후에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NO. 24.

일기 제목 : 무급 휴직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1 월 16 일 | 언론사 | 중앙일보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1 월 15 일 | 기자명 | 유인영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연장되는 무급휴직, 해고 수순이 아닌가?" 기사 요약

국내 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가 무급 휴직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4개월 연장하게 되었다고 공지했다. 하나 투어는 지난 3월 무급 휴직을 시행한 뒤 6월부터는 필수 인력 300명을 제외하고 2000명 정도의 직원이 무급 휴직을 하고 있다. 직원들은 6월부터 이달까지는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계약금의 50%를 지급 받았지만 다음달부터는 지원금이 종료되면서 급여는 전혀 나오지 않게 된다. 직원들 사이에는 정리해고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계자는 무급 휴직은 하더라도 4대보험과 퇴직금 등의 비용이 여전히 발생한다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회사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리해고 수순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무급 휴직 동의를 받는 것은 내년 3월까지 정리해고를 않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 회사와 직원의 입장 모두 난처한 상황 기사에 대한 내 생각

코로나로 인해 해외나 국내 모든 이동을 꺼리는 분위기가 퍼져나가 전 세계의 여행사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하나투어 등 업계의 상위를 달리던 회사들은 매출이 감소된 상태에서 회사 관리는 물론 직원의 급여 지급을 필수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분배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회사의 최선의 입장이 무급 휴직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계속되는 무급 휴직에 수입이 없어지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면 불만하지 않을 수 없다. 관계자들은 휴직이지만 3월까지는 해고가 ~~~~ 진행되서 많은다고 했으니 3월까지는 발이 묶여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는 상이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에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수입 없이 어렵게 회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지원금 선별 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 휴직자들에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일자리 마련이나 유지 지원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연장되는 무급휴직을 보면서 직원들은 매우 불안하고 힘들것이다.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일은 없고 그렇다고 유급 휴직을 회사가 감당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빨리 상황이 안정되어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면 좋겠다.

김금목

29

코로나로 인해 사회 경제가 멈추고 문을 열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잇단 바이러스는 이렇게 까지 큰 경제가 멈추지 않았는데 모든 백신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강은주

박민지

무급휴직은 직장은 있으나 직장이 없는 상태같다. 이 기간 동안 생활비는 물론 정확히 정해지지도 않아 곧바로 시점만 기다리는 다지약 불쌍한 직원

강준희

일을 하지 못해 돈을 못 번다는 것을 생계가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2번째 3월 까지 무급휴직으로 돈다면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다. 꼭 개인의 잘못도 우연하다 생각한다. 국회 이 일이 해결 되었으면 좋겠다.

# 단체 청소년 **은상 수상작**

## 대전삼천중학교 1, 2반 여자아이들(지도자 이경아)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6 월 일 | 언론사 | 경향신문 |
| 기사발행일 | 2020 년 6 월 일 | 기자명 | 김원진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LG, 안전 비용 아끼다**
**인도 가스 누출 참사 불렀다"**
(2020.06.13. 경향신문 김원진 기자)

지난 5월 7일 새벽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 LG폴리머스 공장에서 발생한 스타이렌 가스 누출 참사 이야기다. 이날 새벽 1시 15분쯤 LG폴리머

지난 5월 새벽에 인도 남부 공장에서 가스 유출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사고를 낸 회사가 우리나라 기업인 LG화학이었다. 뉴스를 검색해보니 그날 새벽에 인도에 있는 LG화학 공장에서 스타이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새어나와 사건 발생 직후 사망자 12명과 가스를 마신 1000여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인도 가스 누출 사고는 LG가 안전에 들이는 비용을 줄이다 발생한 사고이며 안전이슈를 사소하게 생각하고 돈을 아끼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데 집중한 탓에 가스저장탱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 또, 인도에서는 2006년부터 환경 허가를 받더라도 공장설립착공이 가능 했는데, LG는 법도의 환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기사를 읽어 보니 LG가 단순히 돈을 아끼려고 안전에 소홀 했다는 것은 기자의 시각일 수도 있을것 같다. 물론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도 원인이지만, 내 생각에는 안전교육이나 설비점검등의 과정에서 현지 직원과의 소통부족이나 안전에 대한 인식차이등도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미국에 잠깐 살았을 때 문화적인 언어 차이로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경험이있는데 답답하고 불안했다. 안전 점검과 같은 중요한 일 일수록 사고 대비에 미리 준비하고 현지인들과 친밀 관계를 쌓았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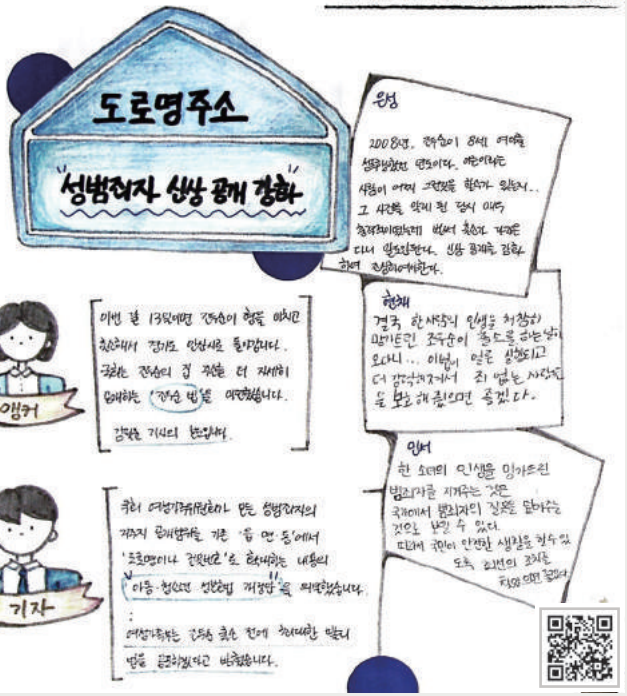
현재 LG화학은 사과 자원, 민원 대응등 지원과 사고 해결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고 있다고 하지만 인도 현지 주민들은 공장 이전을 바라고 있다. 미지라도 LG화학이 인도 현지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보상해 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재미있는 모습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팔마고등학교 박현채, 윤민서, 최은성(지도자 이경은)

NO. 16 일기 제목 :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2 월 2 일 | 언론사 | JTBC 뉴스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2 월 2 일 | 기자명 | 김혜준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단체 청소년 **동상 대표**

**<한을 뉴스 다이어리>** 김소현, 손새봄, 오영애 / 온양한올고등학교(지도자 장두원)

## 수상소감

(학생 소감) 저희는 올해 3학년이 된 특성화고교 정보처리과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소개해주시고 끝까지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뉴스에 관심을 갖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자 소감) '남을 이기면 일등이 되고, 나를 이기면 일류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공모전 단체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누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남을 이기는데 치중하는 것이 아닌, 나를 이기고 단련하는 과정에 무게를 둔 이번 공모전 준비 기간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지도자로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느낀 점

신문 기사를 꾸준히 읽으면서 경제, 사회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며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뉴스 일기를 시작할 때는 어려웠지만 점점 흥미를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SNS나 관심 있는 분야의 기사만 보고 넘어갔는데 공모전을 계기로 다른 분야의 기사들을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요즘 일어나는 일에 대한 흥미가 생겨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협동하여 다양한 이슈를 토론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사나 뉴스를 편식하지 않고, 꾸준히 읽기습관을 길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뉴스일기 작성 TIP!

11개의 공통 주제(뉴스를 통한 토론 거리 선정)와 각각의 개인 관심사 뉴스로 나눠서 일기를 구성한 것이 저희 뉴스일기의 특징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단체 메신저로 매일 뉴스 기사를 공유하고,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뉴스일기 작성 상황을 공유하며 꾸준히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현재 이슈가 앞으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일기에 차곡차곡 기록했습니다. 또 선생님의 신문 활용 및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교육을 듣고, 뉴스에 나온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뉴스를 수용하고 분석했습니다. 뉴스에 관해 이미 알고 있는 것, 알고 싶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정리하는 KWL 활동을 진행했으며, 뉴스 제목을 보고 내용을 유추하거나 함께 포스트잇을 활용해 뉴스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NO. 4

일기 제목 : 부모 찬스도 능력인가?

| | | | |
|---|---|---|---|
| 일기작성일 | 2021년 1월 19일 | 언론사 | 아시아경제 |
| 기사발행일 | 2021년 1월 14일 | 기자명 | 송응한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송응한 기자님의 아시아경제 기사내용 굿!

• 내가 [illegible] 박혀도 좋아요!

아시아경제 □ 석간

# 경력위조·스펙품앗이 '특권층의 반 [illegible] 권층 도돌이표 교육세습… 공정세대 분노 전문가 "범법 시도 끊기 힘들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커다란 실망을 야기했다."

정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을 '특권층의 반칙'으로 규정했다. 입시비리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본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입시관련 사건들에 대해 갖고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크다."고 판시했다. 정교수의 재판과정에서는 특권층에 의한 반칙의 어두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또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정교수의 딸을 단국대 논문 제1저자로 올려주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정교수의 아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준 이른바 '스펙 품앗이'도 사실로 인정됐다.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 '공정'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이 속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출발점의 차이가 곧 결과의 차이로 연결된다는 것을 현실에서 목도한 젊은 층은 분노하고 좌절했다.

법률은 중형선고를 통해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순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으나 이런 사례는 예전부터 있어왔고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모 찬스'가 꼭 기득권 층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엔 대입에 활용할 '스펙'을 만들기 위해 대회용 독후감과 소논문 등을 대필해 줄 입시 컨설팅 업체 관계자 18명과 학생 60명 등 78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계층대물림을 위한 기득권의 이러한 시도가 좀처럼 타파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진단한다.

**서봄이의 생각**

이 기사를 읽고나서 사실은 힘이 좀 빠졌다. 권력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권력층이 되기 힘들기 한 노력을 투어 [illegible]어버리면 쉽게 서울대 위조하거나 위조 발급하여 세상을 속인다는 것이 정말 좋고 싫어가는 사람들을 좌절하게 [illegible] 것 같아서 화도났다.

정교수의 입시와 취업 등에선 동등한 [illegible]평한 기회와 경쟁이 이뤄져야 우리 한민국의 사회가 더욱 개선하고 감사해졌으면 좋겠다.

**영애의 생각**

경력 위조와 스펙 품앗이 등의 범죄를 저질렀던 것만으로 공분 게 아니라고 본다. 이와 같는 범죄는 우리나라의 입시, 취업 관련 시스템과 국민들의 교육 관념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높은 성적과 다양한 경험, 스펙이 입시와 좋고 유명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취직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꼭도 대학, 취직을 하고 싶은 학생들의 마음과 그부모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이 범죄는 줄어지 않을 것이다. 모든 학생들의 노력을 그저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력 위조, 스펙 품앗이 등의 범죄가 빨리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오천이의 생각**

요즘 뉴스나 기사로 입세대를 많이 볼 수 있었다. 기득권층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녀 입시를 성공시키는데 이런 사건이 앞으로 합격해도 사정의 이유 정말 정당적이고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하여 피나는 노력한 사정이 부모님 찬스로 입시를 성공한 사정에 의해 떨어진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일들이 [illegible] 이제 이들 일지라도 나는 현재 이들 일지라도 제도가 나와 적절한 최 입시는 안전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고난까지

NO. 32

일기 제목 : 점점 어려워지는 내집마련

| | | | |
|---|---|---|---|
| 일기작성일 | 2021년 3월 6일 | 언론사 | 조선일보 |
| 기사발행일 | 2021년 2월 20일 | 기자명 | 정순우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반전세' 늘고 강남선 1000만원대 월세도 등장

**집주인들 보유세 급등하자 세입자에게 부담 떠넘겨**

기사내용

서울 인기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 보증금은 낮추고 월세를 대폭 올리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아파트 값 가격과 종합 부동산 세율의 급격한 인상 여파로 늘어난 세금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겠다는 계산이다. 서울 강남에선 월세 1000만원 매물이 나타났고, 강북에서도 수만만원 월세에 옛 터전 월세로 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세입자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는 '조세 전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29㎡(옛 면적 52평형)는 이달 초 보증금 3억 5500만원, 월세 175만원에 거래됐다. 직전인 지난 달 연적 전세 실거래가 (26억원)와 비교하면, 같은 달 옥동 24억 대신 매달 월세를 받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이 단지에선 현재 보증금 1억, 월세 1000만원짜리 매물도 있다. 인근 '반포자이' 전용 114㎡는 지난달 보증금 2억원, 월세 9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중순경 아파트도 고가 월세가 늘고 있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리스' 전용 84㎡가 지난달 보증금 2억원에 월세 28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금호동 1가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전용 84㎡는 보증금 1억, 월세 210만원에 거래되었다. 지난 1월 말 주택임대차법이 개정된 후 실제로 전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를 낀 '반전세' 비율이 늘고 있다 서울 부동산 정보 업체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체 전월세 거래(7만 5604건) 중 반전세 거래는 32.9%(2만 4940건)로 나타났다. 이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26.2%)보다 4.7%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월세 인상의 피해는 결국 무주택 서민층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주택임대차법 개정 후 전세 물건이 귀해지며 월세로 수요가 몰리자 집주인들이 보유세를 월세로 충당하기 수월해진 상황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

보유세를 놓이면 그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성균관 경제대 교수

**오영애의 생각**

서울 직장인을 한달 월급이 많으면 6백, 보통 3~4백이라고 한다. 그런데 월세가 이미 많으면 금액들은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고 유학 매 출 목돈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정부에서는 보유세를 올리기 전 보유세를 올리면 그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천만원 이라 월세라니... 그게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민이 50만 서울에서 곧 살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매달 바치는데 기사 나는 집값에도 주가 상승을 수 있을지 참...

**서봄이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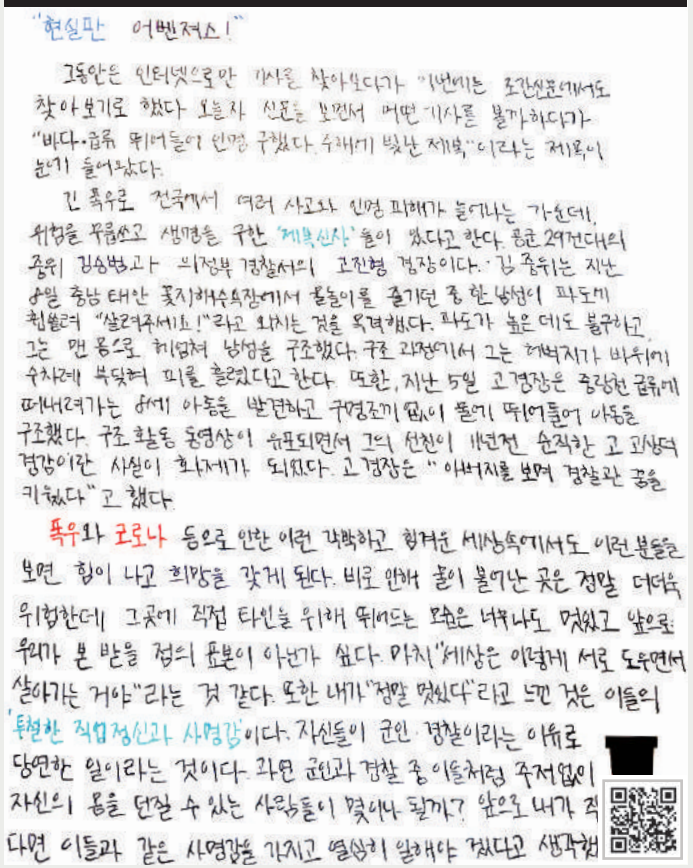
요즘처럼 내집마련이 힘든시기에 내집마련이 꿈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다. 보증금도 아니고 월세가 1000 만원이라니... 보유세를 올리니 자꾸 월세가 올라가고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몇개월 뒤면 나도 성인인데, 자취, 독립이 꿈이었지만 생각이 조금 바뀌게되는 기사인 것 같다. 사회로 나가는 것과 각종 보금, 집세 등을 부담하는 것이 매우 힘들 것 같다는 두려움도 생겼다. 성인이 되면 자유로워지지만 그만큼의 책임과 대가가 뒤따르는 것 같다.

**김소현의 생각**

정부가 보유세를 올린 배경에 무주택 서민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의 월세를 인상하여 보유세를 보충하려고 한다. 이로인해 결국 부동산을 사지 못하고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값이 무거워지기에 가중되는 것 같아 ?

# 단체 청소년 **동상 수상작**

## 전주희, 김소율, 김예원, 최서윤, 한주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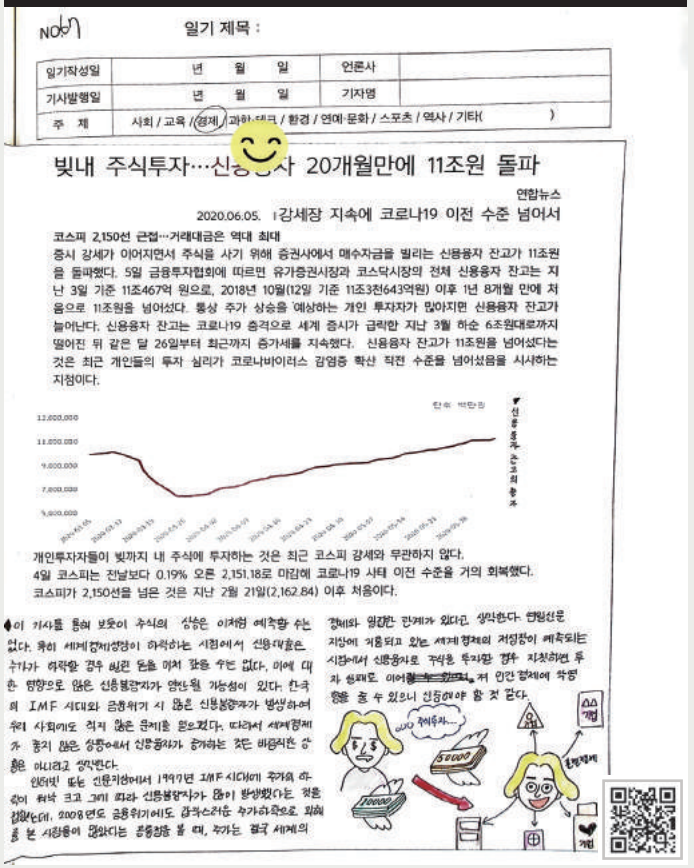
"현실판 어벤져스!"

그동안은 인터넷으로만 기사를 찾아보다가 "이번에는 조간신문에서도 찾아보기로 했다. 오늘자 신문을 보면서 어떤 기사를 볼까하다가 "바다·급류 뛰어들어 인명 구했다. 수해에 빛난 제복"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긴 폭우로 전국에서 여러 사고와 인명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제복천사'들이 있다고 한다. 공군 29전대의 종위 김승범과 의정부 경찰서의 고찬형 경장이다. 김 종위는 지난 8월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 한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것을 목격했다. 파도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그는 맨 몸으로 헤엄쳐 남성을 구조했다. 구조 과정에서 그는 해변지가 바위에 수차례 부딪혀 피를 흘렸다고 한다. 또한, 지난 5일 고 경장은 중랑천 급류에 떠내려가는 8세 아동을 발견하고 구명조끼 없이 뛰어들어 아동을 구조했다. 구조 활동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그의 선행이 네번째 순직한 고 고상덕 경장이란 사실이 화제가 되었다. 고 경장은 "아버지를 보며 경찰관 꿈을 키웠다"고 했다.

폭우와 코로나 등으로 인한 이런 각박하고 힘겨운 세상속에서도 이런 분들을 보면 힘이 나고 희망을 갖게 된다. 비로 인해 물이 불어난 곳은 정말 더더욱 위험한데 그곳에 직접 타인을 위해 뛰어드는 모습은 너무나도 멋있고 앞으로 우리가 본 받을 점의 표본이 아닌가 싶다. 마치 "세상은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야"라는 것 같다. 또한 내가 "정말 멋있다"라고 느낀 것은 이들의 '투철한 직업정신과 사명감'이다. 자신들이 군인, 경찰이라는 이유로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과연 군인과 경찰 중 이들처럼 주저없이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앞으로 내가 직업을 가진다면 이들과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 대전삼천중학교 3학년 5, 9, 10반(지도자 이경아)



No.57 일기 제목 :

| | | | |
|---|---|---|---|
| 일기작성일 | 년 월 일 | 언론사 | |
| 기사발행일 | 년 월 일 | 기자명 |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빚내 주식투자…신용융자 20개월만에 11조원 돌파

연합뉴스

2020.06.05. | 강세장 지속에 코로나19 이전 수준 넘어서

코스피 2,150선 근접…거래대금은 역대 최대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서 매수자금을 빌리는 신용융자 잔고가 11조원을 돌파했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전체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3일 기준 11조467억 원으로, 2018년 10월(12일 기준 11조3천643억원)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11조원을 넘어섰다. 통상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아지면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난다. 신용융자 잔고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세계 증시가 급락한 지난 3월 하순 6조원대로까지 떨어진 뒤 같은 달 26일부터 최근까지 증가세를 지속했다. 신용융자 잔고가 11조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최근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직전 수준을 넘어섰음을 시사하는 지점이다.



개인투자자들이 빚까지 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최근 코스피 강세와 무관하지 않다.
4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0.19% 오른 2,151.18로 마감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코스피가 2,150선을 넘은 것은 지난 2월 21일(2,162.84) 이후 처음이다.

◆이 기사를 통해 보듯이 주식의 상승은 이처럼 예측할 수는 없다. 특히 세계경제성장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신용대출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 빚진 돈을 미처 갚을 수는 없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많은 신용불량자가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IMF 시대와 금융위기 시 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도 적지 않은 큰 피해를 받으셨다. 따라서 세계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융자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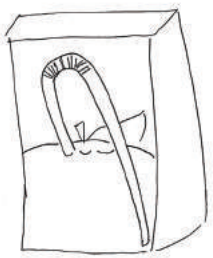
인터넷 또는 신문지면에서 1997년 IMF 시대에 주가의 하락이 워낙 크고 그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접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에도 갑작스러운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뉴스를 볼 때, 주가는 결국 세계의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 지상에 퍼져 있는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예측되는 시점에서 신용융자로 주식을 투자할 경우 지치하면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이 인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할 것 같다.

# 단체 청소년 **동상 수상작**

## 팔마고등학교 쏘뉴씩(지도자 이경은)

| 일기작성일 | 2020 년 11 월 8 일 | 언론사 | 꼬리잇보 |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1 월 8 일 | 기자명 | 김 혜인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언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앞으로는 음료 제품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는 내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가정용은 근본적으로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사용토록 하고, 과대포장·재포장 등은 관련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소비자 측〉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이나 노약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매번 컵이나 가위도 자그만 이점이네요! 아이들의 복장 수업도 커요!

〈환경부측〉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일회용 빨대를 통해서 편해지는 것은 자원낭비에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안을 만들 겁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플라스틱을 줄일려고 노력하는 점은 우리 모두가 해야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자원을 남비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생각이다. 하지만, 빨대를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편함이 너무 커지는 일인 것 같다. 안에 밖에서 음료를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자. 하지만 마시려고 해도 컵이나 가위 등을 소지하지 않는 상태다. 그럼 어떻게 음료를 마시겠는가? 음료 포장재의 재질도 잘 만들기는 제법이다. 이 밖에도 단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그나마 단점이 없는 방향으로 환경보호를 잘 수도 있고,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소비자에나마 자원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도 빨대를 부착하는 것을 만들다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빨대나 (종이제질), 먹을 수 있는 빨대나 빨기 쉬운 재질로 만드는 빨대를 생각해 보는 해결 방안이라 생각된다. 환경부가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안을 발표하면 좋겠다.

## 경민고등학교 여우사이(지도자 박효경)

NO.13

일기제목: 뒤틀린 세상에 맞서 몸부림치는 신체들-요절 조각가 류인 회고전

| 일기작성일 | 2020 년 6 월 11일 | 언론사, 기자 | 동아일보 |
|---|---|---|---|
| 작성자 | 우서연 | 주제 | 문화 |

이 기사는 서울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 소마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류인-파란에서 부활로' 전을 소개하고 있다.

류인의 작품과 자료 100여 점을 소개하는 전시는 작가 사후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도 많으며 특히 '파란 1', '입신', '하산' 등의 작품은 작가가 대학원 재학 시절 제작한 작품이라고 한다. 홍익대 조소과를 나온 후 동대학원에 입학하기까지 네 번의 재수 동안 고민 끝에 조각 단상한 신체 조각에서 벗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또, '급행열차-시대의 변'은 류인을 미술계에 강렬하게 각인시킨 화제작이라고 한다.

정니영 학예연구부장은 "류인은 신체 자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 그것을 생략하고 왜곡하거나 오브제로 대체해 1980, 90년대 사회상을 표현한 작가"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아카이브 섹션에서 류인이 연구하고 수집한 자료와 인터뷰 영상 등을 통해 류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작업했는지와 류인의 생전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전시는 소마미술관에서 2007년부터 시작한 '작가 재조명' 기획 시리즈의 다섯 번째 전시로 10월 4일까지 열리며, 관람료는 1000~3000원 이라고 한다.

나는 신문에서 이렇게 전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줄 몰랐다. 신문에서 이렇게 전시 내용을 다루는 것은 전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사의 특성상, 기자의 생각이 많이 더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기사가 사실전에 들어가 평론가의 시각이나 관람자의 시각으로 쓰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신문의 사설란은 거의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었다. 문화, 예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생각이 배제되어 단순히 소개만 하는 기사는 음보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홍보는 광고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신문 상에서 사설란에 문화, 예술 부분 언급이 없는 것이 아쉬웠으며, 단순한 정보 전달과 홍보 수준에 그친 기사가 아쉬웠다.

| | |
|---|---|
| 스통코너 | 문화 면이 거의 구석 귀퉁이로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br><br>서연이 문화면은 거의 한 구석 귀퉁이 이렇게 부분과 들어나는 예리함에 깜짝 선생님도 신문의 문화면이나 전 수개월 좋아해요. 근데 서연이는 어떤 전공으로 생각지? 수업시간에 님 이번 서연이의 선생님이 참 굉장하게 생기네. 신문수능 다시 잘 도와이 있네요. |
| | 나는 신문의 문화면을 먼에게 뭐 이야기만 나오면 위엄과 학스에는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서연이가 이렇게 자세히 읽고 본 것을 보고 놀랐다. 자신이 원하는 정보는 싫어 숨어있어도 잘 찾아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신문은 보물찾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

- 39 -

# 단체 성인 **금상 대표**

**<삼색으로 따로 또 같이>** 박우연, 오화연, 이은혜 / 광주월곡초등학교

## 수상소감

바쁜 일상과 업무 속에서 매주 1편 이상의 일기를 쓰는 일은 그리 녹록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세 명이 돌아가며 자신의 개성이 담긴 뉴스일기를 썼는데, 서로 신문과 뉴스일기장이 담긴 검정 에코백(일명: 검정 가방)을 주고받을 때면 약간의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일기장 한 권을 완성했을 때에는 '부담'이라는 감정은 눈 녹듯 사라지고 뿌듯함과 행복함만 가득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2020년 한 해는 '뉴스'라는 매개체를 통해 동료들과 소통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었고, 서로가 긍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전과 꾸준한 열정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뉴스일기를 쓴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선물을 받은 것과 다름없는데, 상을 받게 되어 더욱 기쁘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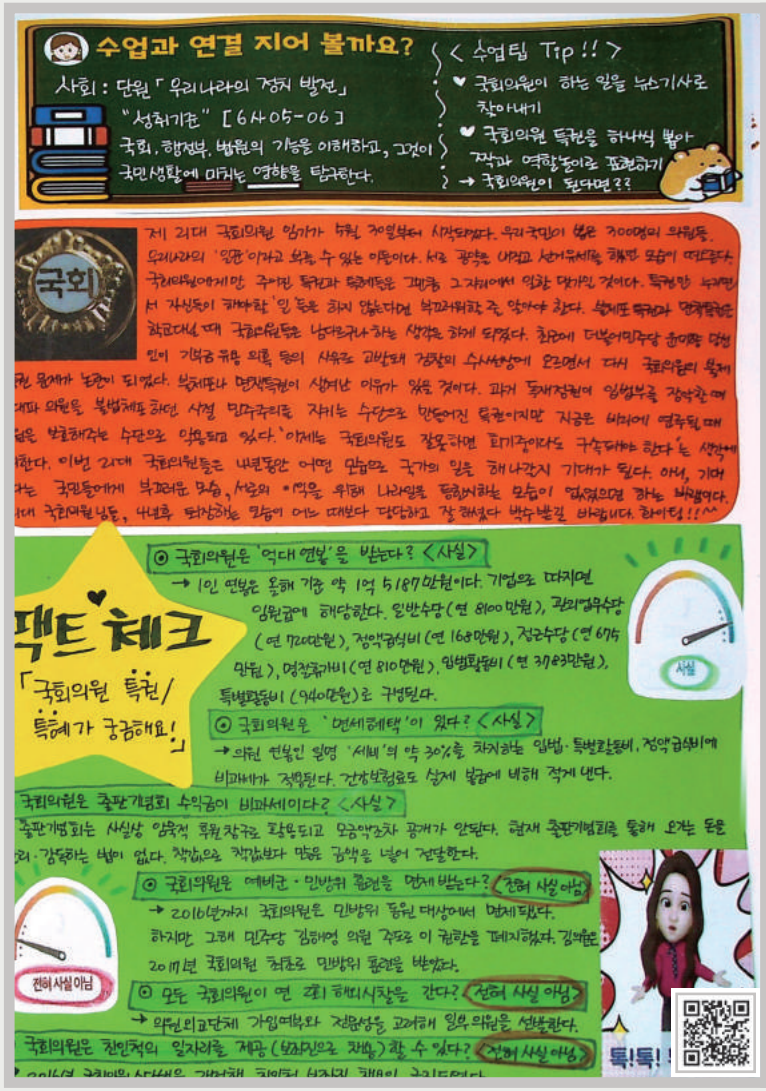
## 느낀 점

평소에 뉴스를 접할 때, 기사의 타당성이나 사실 확인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듯 보았습니다. 하지만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뉴스를 읽는 안목과 관심이 생겼습니다. 일기를 쓰고 싶은 하나의 기사를 선정하고, 선정한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사실과 타당성을 검증하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찾아봄으로써 통찰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했습니다. 또한, 기사의 형태를 재구성하여 만화로 그려보면서 상상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새로운 기사를 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뉴스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 뉴스일기 작성 TIP!

저희의 뉴스일기는 '부캐가 있는 뉴스일기장'입니다. 세 명의 선생님을 대신해 개성 있는 캐릭터 '톡! 톡! 뉴스샘, 뉴스(스)마일샘, 미디어 향기샘'를 만들어 일기에 친근하게 등장시켰습니다. 또 '테마가 있는 뉴스일기장'입니다. 각 선생님의 색깔이 드러나도록 '팩트 체크', '지식 플러스 및 도서 추천', '한 컷 만화'를 주제로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관련 있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학년과 교과를 제시하고 다양한 수업 활동과 활용 팁을 제시하였습니다. 신문은 어린이 신문을 활용하여 아이들과 뉴스를 주제로 소통하고자 했으며, 나누고 싶은 뉴스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거나, 관련 기사를 검색하거나 실천(마스크 목걸이를 제작, 판매하여 불우 이웃 돕기 성금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 수업과 연결 지어 볼까요?

사회 : 단원「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성취기준" [6사05-06]
국회, 행정부, 법원의 기능을 이해하고, 그것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 수업팁 Tip !! >
♥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뉴스기사로 찾아내기
♥ 국회의원 특권을 하나씩 뽑아 짝과 역할놀이로 표현하기
→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

제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부터 시작됐다. 우리 국민이 뽑은 300명의 의원들. 우리나라의 '입법'이라고 외칠 수 있는 이들이다. 나로 광복을 이루고 새 나라를 세웠던 모습이 떠오른다.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진 특권과 특혜들은 그만큼 그 자리에 있는 많기인 것이다. 특권만 누리면서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또 특권과 면책특권은 최근에 때 국회의원들은 남발하고 하는 상황을 하게 되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선인의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의 사유로 고발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다시 국회의원의 특권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특권과 면책특권이 생겨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이 입법부를 장악한 때 대파 의원을 불법체포 하던 사례 민주국가들 자리는 수단으로 만들어진 특권이지만 지금은 비리에 연루될 때 법을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제는 국민의원도 잘못하면 회기중이라도 구속되야 한다'는 생각에 한다. 이번 21대 국회의원들은 내년동안 어떤 모습으로 국가의 일을 해 나갈지 기대가 된다. 아니,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서울의 •익을 위해 나라일을 등한시하는 모습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1대 국회의원님들, 내년후 퇴장하는 모습이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잘 해냈다 박수받길 바랍니다. 화이팅!!^^

팩트체크
「국회의원 특권/특혜가 궁금해요!」

⊙ 국회의원은 '억대 연봉'을 받는다? <사실>
→ 1인 연봉은 올해 기준 약 1억 5187만원이다. 기업으로 따지면 임원급에 해당한다. 일반수당(연 8100만원), 관외출퇴수당(연 720만원), 정액급식비(연 168만원), 정근수당(연 675만원), 명절휴가비(연 810만원), 입법활동비(연 3783만원), 특별활동비(940만원)로 구성된다.

사실

⊙ 국회의원은 '면세혜택'이 있다? <사실>
→ 의원 연봉인 일명 '세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입법·특별활동비, 정액급식비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건강보험료도 실제 봉급에 비해 적게 낸다.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익금이 비과세이다? <사실>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암묵적 후원 창구로 활용되고 모금액조차 공개가 안된다. 현재 출판기념회를 통해 오가는 돈은 감춰지는 법이 없다. 책값으로 책값보다 많은 금액을 넣어 건달한다.

⊙ 국회의원은 예비군·민방위 훈련을 면제받는다? <전혀 사실 아님>
→ 2016년까지 국회의원은 민방위 훈련 대상에서 면제됐다. 하지만 그해 민주당 김해영 의원 주도로 이 권한을 폐지했다. 김의원은 2017년 국회의원 최초로 민방위 훈련을 받았다.

전혀사실아님

⊙ 모든 국회의원이 연 2회 해외시찰을 간다? <전혀 사실 아님>
→ 의원외교단체 가입여부와 전문성을 고려해 일부 의원을 선발한다.

국회의원은 친인척의 일자리를 제공(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전혀 사실 아님>

톡!톡!

## 수업과 연결 지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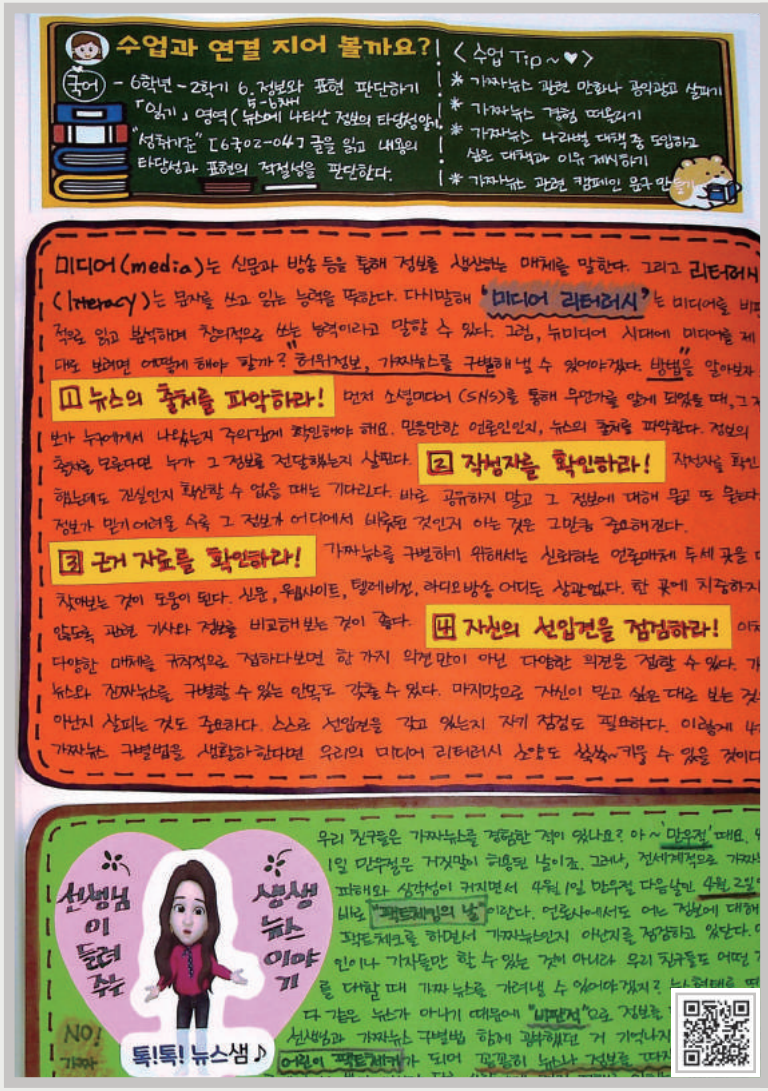
※ 3학년 도덕 : 6단원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 성취기준 : [4도04-01]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인간 생명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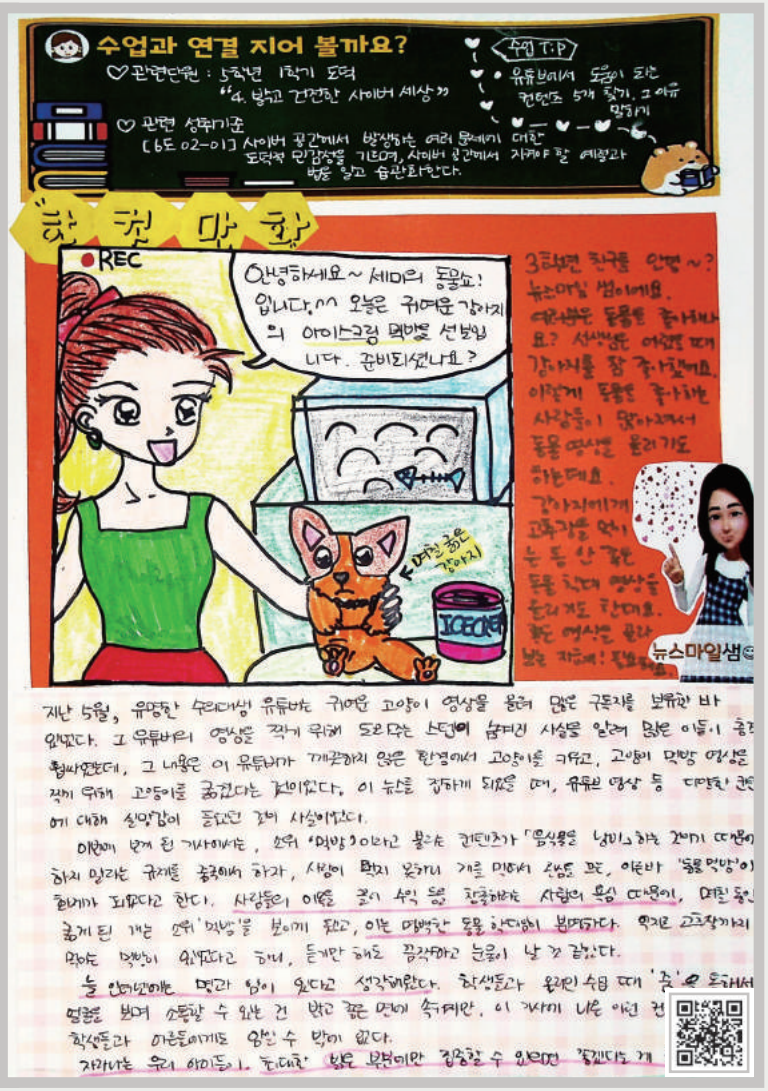
※ 수업 Tip!
※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례도 동기 유발 단계에서 뉴스 기사를 활용하면 어떨까요?

Golden hour. 소중한 시간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지만, 의학 분야에서의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 한 달 전, 한 택시기사가 접촉 사고를 낸 사설 구급차를 막아 응급 환자 이송이 늦어졌고, 결국 폐암 말기 환자였던 그 환자는 숨졌다. 이 사실들 국민 청원에 환자의 아들이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며 사회적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과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 택시기사는 직접 환자의 이송보다 자신의 차 사고 처리가 중요하다고 여긴 것일까? 사건을 더 들여다보니 이 택시기사는 과거에 사설 구급차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사설 구급차들이 간혹 환자를 태우지도 않고 비상 사이렌을 울리며 가는 것을 많이 봤었다고 한다. 또한 연세가 많은 홀몸 요양원에 가는 심각하지 않는 상태의 노인으로 치부했던 것이다. 배뚤어진 경험과 편견을 '확신'으로 생각하며 소중한 생명을 간과하고 자신의 처리려고 했던 것이다! 정말 안타깝다. 지체하지 않고 병원으로 빨리 이송만 되었더라도 그 어르신은 가족과 한껏 얼굴 마주보고 당소를 나눌수 있었을 텐데... 국민 청원에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와 사고의 해결을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시하며 공도 아픔을 놓친 일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는 듯 하다.

Key word : "국민청원"이란?
문재인 정부가 생긴지 100일이 된 2017년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신설된 게시판이에요. 국민이 직접 청원을 올릴 수 있고,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해줘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전 청계 시간에 내 인생에서 소중한 9가지를 적은 뒤 하나씩 버려야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내게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생각해 보았죠? '나' 또는 '가족'을 바다 속으로 던져야 하는 상황을 힘들어 하며 울었던 친구도 있었구요. 우리 3학년 친구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모두도 소중한 사람이라는것, 기억해!


수업과 연결 지어 볼까요?
국어 - 6학년 - 2학기 6. 정보와 표현 판단하기
「읽기」 영역 (뉴스에 나타난 정보의 타당성 알기)
"성취기준" [6국02-04] 글을 읽고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수업 Tip ~ ♥>
* 가짜뉴스 관련 만화나 광고 살펴기
* 가짜뉴스 경험 떠올리기
* 가짜뉴스 나라별 대책 중 모방하고 싶은 대책과 이유 계시하기
* 가짜뉴스 관련 캠페인 문구 만들기
미디어(media)는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정보를 생산하는 매체를 말한다. 그리고 리터러시(literacy)는 문자를 쓰고 읽는 능력을 뜻한다. 다시말해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분석하며 창의적으로 쓰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뉴미디어 시대에 미디어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허위정보, 가짜뉴스를 구별해 낼 수 있어야겠다. 팁을 알아보자.
1 뉴스의 출처를 파악하라! 먼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무언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누가 누구에게서 나눠뉴는지 주의깊게 확인해야 해요. 믿을만한 언론인지, 뉴스의 출처를 파악한다. 정보의 출처를 모른다면 누가 그 정보를 전달했는지 살핀다.
2 작성자를 확인하라! 작성자를 확인해보는데도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는 기다린다. 바로 공유하지 말고 그 정보에 대해 물고 또 물어보자. 정보가 믿기 어려울 수록 그 정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진다.
3 근거 자료를 확인하라! 가짜뉴스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신화하는 언론매체 두세 곳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신문, 웹사이트, 텔레비전, 라디오방송 어디든 상관없다. 한 곳에 치중하지 않도록 관련 기사와 정보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4 자신의 선입견을 점검하라! 다양한 매체를 규칙적으로 접하다보면 한 가지 의견만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다.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도 갖출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닌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스스로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자기 점검도 필요하다. 이렇게 가짜뉴스 구별법을 생활화하다면 우리의 미디어 리터러시 소양도 쑥쑥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생생 뉴스 이야기
톡!톡! 뉴스샘♪
우리 친구들은 가짜뉴스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 만우절 때요. 4월 1일 만우절은 거짓말이 허용된 날이죠.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가짜뉴스 피해와 상작성이 커지면서 4월 1일 만우절 다음날인 4월 2일은 이른바 "팩트체킹의 날"이란다. 언론사에서도 어느 정보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면서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있단다. 어린이나 기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어떤 정보를 대할 때 가짜 뉴스를 가려낼 수 있어야겠지? 뉴스 형태로 떠다니는 다 같은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정보를 보는 선생님과 가짜뉴스 구별법 함께 공부해보면 거 기억나지? 어린이 팩트체커가 되어 꼼꼼히 뉴스나 정보를 따져보자.


수업과 연결 지어 볼까요?
관련단원 : 5학년 1학기 도덕
"4. 밝고 건전한 사이버 세상"
관련 성취기준
[6도02-01]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방법을 알고 습관화한다.
수업 T.P
• 유튜브에서 도움이 되는 컨텐츠 5개 찾기, 그 이유 말하기
힐링 퀴즈
REC
안녕하세요~ 세미의 동물쇼! 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강아지의 아이스크림 먹방을 선보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먹방 좋은 강아지
ICE CREAM
3학년 친구들 안녕~? 뉴스마일 샘이에요. 대부분 동물을 좋아하죠? 선생님은 어렸을 때 강아지를 참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아가서 동물 영상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강아지에게 고추장을 먹이는 등 산 채로 동물 학대 영상을 올리기도 한대요. 혹은 여사는 물고 놀는 자료에! 조회수를
뉴스마일샘
지난 5월, 유명한 수의대생 유튜버는 귀여운 고양이 영상을 올려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바 있죠. 그 유튜버의 영상을 직접 위해 도로 주는 스틴이 갑자기 사실을 알려 많은 이들이 충격 휩싸였는데, 그 내용은 이 유튜버가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고양이 먹방 영상을 직접 위해 고양이를 굶겼다는 것이었다. 이 뉴스를 접하게 되었을 때,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콘텐에 대해 실망감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에 본 게 된 기사에서는, 소위 '먹방'이라고 불리는 컨텐츠가 「음식물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규제를 충족해야 하가, 사람이 먹지 못하니 개를 먹여서 소멸 포, 이른바 '음물 먹방'이 흔히가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이것을 굶어 죽이 음, 잔혹하는 사람이 음식 때문에, 며칠 동안 굶게 된 개는 오히 '먹방'을 보이게 되고, 이는 먹방구 동물 학대에 본여하다. 학교 고크장까지 먹는 먹방이 있었다고 하니, 듣기만 해도 끔찍하고 눈물이 날 것 같다.
늘 인터넷에는 명과 암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학생들과 원격 수업 때 '줌'을 통해서 얼굴을 보며 소통할 수 있는 것 반고 좋은 면이 속해지만, 이 기사에 나온 이런 것 학생들과 아들에게도 일일 수 밖이 없다.
차라리는 우리 아이들이 "뉴대한" 방은 부분이만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 수업과 연결 지어 볼까요?

❀ 관련 교과 : 5학년 1학기 5. 지구의 모습
(9~10차시) 소중한 지구 보존하기

❀ 성취 기준 [6과 05-03]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 수업 Tip!
⊙ 친환경 크리스마스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계획하여 실천해보기

일요일인 오늘 마트에 가서 먹을 것과 생필품을 사왔다. 냉장고에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니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쓰레기가 한가득 나왔다.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다보니 시나브로 환경은 병들어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었다. 이런 우려 속에 눈에 띈 신문 기사! 아이들이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로맨틱한 날을 기다리며 예쁘게 장식하고, 선물을 사서 포장하고 화려한 디자인의 카드에 편지도 쓰며 설레어 한다. 그 화려한 이면에 '미세 플라스틱'의 공포가 있단다.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 자연 기금 (WWF)은 작년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무게에 달하는 5g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크기가 5mm 이하라 눈에 띄지 않아 미세 플라스틱이 물, 갑각류 등 해산물, 소금, 맥주 등에 포함되어 있어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얼굴 세안제나 치약, 화장품 제작에 미세 플라스틱이 쓰이고, '반짝이'라 불리는 색색의 펄 가루도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진다. 크리스마스의 화려한 분위기를 살리는 데는 반짝이만한 장식이 없는데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 모라슨과 존루이스 백화점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반짝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주변의 관심을 모았고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한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각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환경 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3학년 친구들 ~ 얼마 전 수업 시간에 빨리 크리스마스가 오면 좋겠다고 말한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조금 다르게 보내보면 어떨까요? 2학기 프로젝트 수업 내용 중에 우리가 정의로운 국가 시민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환경 보호'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에코백도 만들었죠?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든 반짝이 장식을 피하고 건강한 크리스마스를 선언한 영국 회사처럼 우리도 친환경 크리스마스를 계획해 보면 어떨까요? 멋지실 것입니다.

미디

## 수업과 연결 지어 볼까요?

• 관련 교과 : 3학년 과학 2학기 2. 동물의 생활
4학년 도덕 3.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

• 관련 성취기준
[4과 03-01] 여러 가지 동물을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4도 04-01]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인간 생명과 존엄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수업 Tip
• 동물원의 동물을 하루는 나는 떠돌이새는. 물 주어 생물을 보호하기 동에는 생명 그리고 존중하는 ♥

3학년 친구들 ~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읽었던 동화책 중 '바바파파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 이야기에 보면, 동물들이 이 날에 동물들이 서로 원하는 동물원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온대 ~ 동물들은 어떤 곳에서 생활하고 싶을까요? 동물들의 눈높이에 맞춘 곳이 있다고 해요. 함께 안내받기로 하죠!!

좁은 새장에 갇혀서 날개도 못 펴다니 새의 제왕인 독수리의 선생가 한탄하군

날개 꽉 펴고 날 수 있으니 참 좋아! 옛날 같은 세상보다 넓고 높은 이곳이 참 마음에 드는 군!!

훨훨

뉴스마일샘☺

동물원에 동물이 없다면? 과연 운영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서울대공원에 오를지 동물의 복지를 위해, 동고리를 오두 지면에 방류하여로, 비어있는 동고리관을 관람 중이다. 넓~고 넓은 바다에서 헤엄쳐야 할 돌고래가, 귀엽고 재주가 많고 길들여질 수 있다는 이유로 좁고 좁은 수조 속에 갇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다.

가족끼리 함께 간 돌고래 체험장이 기억이 남는다. 제주도 관광 일정에 있어서 방문하였었는데, 돌고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다. 먹을 잘 듣고, 재주를 잘 부려야 생선 토막을 얻어먹을 수 있었으니,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었다 싶고, 서울대공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바바파파'라는, 아주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 주인공인 그림동화 시리즈가 있는데, 자가동물 환경 · 지구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와 관련된 동화 내용이 많이 있었다. 아프리카에서 갇혀 온 동물들이 우리 인에서 울며 괴롭로 가고 싶다고 하자, 바바파파가 음은 변신하여 동물들을 구하주는 내용이었다. 사람은 자기 집이 아닌 곳이 불편하듯이 다른 종가, 다른 환경에 이해할 수 없이 끌려와 동물원에 갇히게 된 동물들도 생각이 든다. 동물원 좁은 우리에 갇혀, 날개 한번 맘껏 못 펴고 넓지 못하는 [illegible]

# 단체 성인 **은상 대표**

**<실버들의 행복한 뉴스카페>** 책향기 인문 독서회 / 학마을도서관(지도자 이재현)

## 수상소감

수상 소식을 듣고 예상보다 좋은 결과에 모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버 세대인 우리로서는 큰 수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책향기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신문이나 방송 뉴스를 매일 챙겨보고, 수십 년간 종이신문을 구독한 점이 뉴스일기 쓰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주 동아리 회원들과 시사 뉴스에 대해 토론하며 생각을 나누는 모임을 한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9명의 회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뉴스일기를 함께 쓰는 것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열심히 참여한 노력의 보상이 주어진 것 같아 모든 회원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어 온라인 화상 플랫폼으로 원격 토론을 하기도 하고, 3~4명씩 모여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 느낀 점

뉴스일기를 쓰면서 한 기사에 내 생각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편견없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고, 10여 개월 동안 함께 참여하면서 회원 간의 우애와 신뢰를 더 다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일기를 쓰는 동안 노년기의 정서적 우울감이 사라졌고, 신체적 문제들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은퇴 이후에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고독함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한 시사 이슈를 탐구하면서 가족 간에 대화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 뉴스일기 작성 TIP!

신문은 지구촌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일기의 주제를 '시사 인물'로 정하고 정치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조명했습니다. 평범한 시민과 정치가, 스포츠인, 대중문화 예술인, 경제인, 건축가, 화가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연령층의 기사를 읽고 생각을 뉴스일기로 작성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구독하는 신문에서 인물 관련 기사를 읽고 스크랩했습니다. 모르는 용어나 낱말의 뜻을 찾아 읽고 써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슈가 되는 기사들은 2~3일 혹은 일주일 단위로 모아두었다가 내용을 다시 숙지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글로 썼습니다. 다른 회원이 쓴 글에 댓글을 적기도 하고, 각자의 취향대로 간단히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NO. 일기 제목 :

| | | | |
|---|---|---|---|
| 일기작성일 | 년 월 일 | 언론사 | |
| 기사발행일 | 년 월 일 | 기자명 |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비행기 승무원의 옷이 학생 교복처럼 너무 획일적인 느낌을 주고, 교복 군복처럼 경직된 인상을 준다. 좀더 활동하기에 편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옷감의 재질과 이쁜디자인을 느낄수있도록 하는 디자인으로 승객과 가까이 할수 있는 복장이면 좋겠다. 알가슴 꽃에 강요시 마크 정도만 표시하는 자유롭고 파격적인 복장을 원한다 - 신홍식 -

치마 항공사 비행기를 타 보았는데 우리나라 항공사 승무원들이 제일 예쁘고 유니폼도 가장 화이트하며 봉 선생이 극한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좁은 통로를 오가고 팔을 들어 올려 기내 선반 문을 잡고 앉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며 배려성과 되식성을 최우선 무척 불편해 보였다. 여성성을 강조하는 듯한 디자인이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 때도 있다, 되이도한 주름 치마 보자는 바지가 가슴면에서나 안전에도 편할것 같다. 자켓도 엉덩이를 잡는 복잡한 사이드에 젠더 뉴트럴 복장을 유럽 항공사 외국 여행사의 여 승무원들은 우리 항공사 각양각색 문화 실내 것으로 편해 보이는 복장이었다. - 전 윤기

해외 여행을 몇번 다니면서, 기내식을 가져다주는 여성승무원을 보았다. 늘씬한 키에, 예쁜모습, 타이트한 옷차림의 친절함까지 기분이 좋았다. 보기는 좋으나 사무직도 아닌데, 매번 불편한 듯 보였다 편한 복장으로, 근무하면, 승무원이나, 손님들도, 편안함을 주어, 더욱 기분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예전 복장보다, 활동적인 복장이, 손님이 보기에도 좋고 본인들도, 편안하게 일하면 서로의 즐거움이 배가 될것이다 — 이 인순 —

유니폼은 직업의 특성에 따라 기능성이 최대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항공기 승무원 특히 여성 승무원의 경우 여성성을 극대화한 패션이 사회적으로 강요되고 있었다. 유니폼의 아름다움, 여성성을 강조하여 타이트한 여성 승무원의 옷차림은 고객의 안전이 등한시 되다시피 한 옷차림이었다고 생각된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의 기능성을 살린 젠더뉴트럴 유니폼을 요

NO. 일기 제목 : 하얀거짓말, 까만거짓말

| | | | |
|---|---|---|---|
| 일기작성일 | 년 월 일 | 언론사 | |
| 기사발행일 | 년 월 일 | 기자명 |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코로나 거짓말' 인천강사 구속

인천 강사께 묻고 싶다.
거짓말이 언제까지 갈까요?
나이 그 살인 강사가 돈을 벌기 위해
열성회 동문 시주 환갑은 어떤 곱을
위해 열성회 살려 했는지 묻고 싶어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줄 알았구요.
그렇게 양심없이 60여명이 감염될
줄으로 상의 생명을 만만히 볼수있다니
앞으로 살아갈 길을 성찰해 봐야요
큰 실수였다고 말하고 싶어요
다시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바라요.

— 김 준 희 —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동선과 직업을 거짓말한 인천의 한 강사가 있다. 순간의 모면을 위한 거짓말이 n차 감염을 확산시켰으며 사회적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젊은 강사는 최송하다고 했지만 늦었다. 그가 책임져야 할 무게가 크다. — 이 재 현 —

코로나 19 세균전쟁으로, 세계가 들끓고 있다.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5명이상 모임금지, 식당, 일찍문닫기. 걷잡을수없이 전파되는 시기에, 젊은이가 순간을 모면하려 거짓말을 하다니.' 이해도 가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기본양심을 저버리면 안된다 학생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그러면 안되는 거였다 — 이 인 순

기소 시점 승치 : 경찰이 검찰에 피의자와 사건을 보낼 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학조사 : 전염병의 발생 원인과 역학적 특성을 밝히는 일. 이를 토대로 합리적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NO. 일기 제목 :

| 일기작성일 | 년 월 일 | 언론사 | |
|---|---|---|---|
| 기사발행일 | 년 월 일 | 기자명 |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유언

- 김 순희 -

아들 딸에게
모든 일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며 늘 배움에 정진하라. 이것이 나의 삶의 인생관이다.
너희들도 하루를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힘들 일이 생겨도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 씩씩하게 헤쳐 나가길 바
랑에게는 피해 주지 말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거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다.
마음을 어떤 모양을 가질 것인가. 항상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
하면 좋은 행동이 나오고 행복한 일만 많이 생길거야.
이 세상 마음껏 즐기다 오렴. 얘들아, 고마워. 엄마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고 미안해. 그리고 너희들 너무 사랑해. 우애있게
지내고 건강하게 잘 살아. 재산이 남으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렴. 엄마의 선물이라
생각하렴. 안녕

## 유언(遺言)

근로자 여러분.
사는 동안 너희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 했지만 부족함이 많았을 것이다.
이해해 주고 섭섭한 점이 있었다면 용서하고 삶의 지혜가 되었으면 한다.
나 잘 살고 가니 안타까워 말아라.

NO. 일기 제목 :

| 일기작성일 | 년 월 일 | 언론사 | |
|---|---|---|---|
| 기사발행일 | 년 월 일 | 기자명 |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미얀마.? 민주화로 가는길이 이렇듯 험한가. 총,칼로 권력을 빼앗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군중을 탄압해, 군화발로 짓밟고 있다.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야 옳다. 총,칼로 얻은 권력은 총,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군인은 군인의 길을 가고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겨야 한다. 유엔 회원국의 결의를 이끌어내 민주화로 이끌어야 한다. 나라가 안정되려면 국경이 올바르고 국민의 삶도 편안하다. 미얀마의 군부는 과한 만행을 모험로 삼아야 한다. - 정윤기 -

미얀마 군부는 당장 자국민에 대한 폭력을 멈추어야 한다. 국가의 공권력이 어찌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가? 미얀마의 비극이 과거 어두웠던 한국 현대사의 아픈 역사와 너무나 닮아 있다. 국제사회는 외면하지 말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 - 이 재 현

미얀마 전역에서 시위대가 모여 군부를 규탄하고 있다. 군부가 강제로 가져간 권력을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되찾았다는 시위다. 유엔 사무총장은 '군부는 당장 전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쿠데타가 있었다. 무모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투옥되고 무정부 상태가 되기도 했다. 미얀마 인구 항쟁이 더이상 유혈 사태가 안되길 바래본다. - 김 예경 -

미얀마 사태가 연일 우울하게 들려온다. 미얀마 사태로 보면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흑역이 떠오른다. 불과 얼마전 우리나라도 겪었던 일이라. 민주화를 향해가는 여정이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미얀마 사태를 지켜보면서 제발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현재가 감사해지는 마음이 든다. 실낱 같은 희생위에 지금의 민주화가 이루었는지.. 미얀마부터 빨리 민주화가 되기를 - 한 순 조 -

# 단체 성인 **동상 대표**

**<뉴쓰리 스토리>** 김진영, 신지혜, 장소윤 / 서울시립대학교

## 수상소감

요즘 대학생들은 정말 바쁩니다. 자격증을 따거나 취업 준비를 하며 정신없이 살다 보면 뉴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여유가 있어도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고, 따분한 뉴스를 읽지는 않습니다. 저희 세 명도 요즘 대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미디어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양질의 정보보다는 그저 생각 없이 웃고 넘길 만한 가십거리들을 많이 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뉴스일기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고 유익한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투르지만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분석하며 저희의 생각을 즐겁게 담아낸 뉴스일기장으로 값진 상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기 작성한 소윤, 진영, 지혜 수고 많았고 축하해!

## 느낀 점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뉴스를 '제대로' 파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콘텐츠가 양산되는 현대 사회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고, 뉴스를 활용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단순히 기사를 읽는 데 그치지 않고, 텍스트 이면의 세계에 대해 추론하고 분석하면서 통찰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질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며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뉴스일기 역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뉴스일기 작성 TIP!

우리의 뉴스일기장에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가득합니다. 카드 뉴스, 만평, 가상 토론, 팩트 체크, 그래픽 뉴스, 설문 조사, 칼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를 분석하고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매주 한 시간씩 선정한 기사를 읽고 든 생각과 분석 방법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제1회 우수사례집을 참고했지만, 시간을 거듭할수록 저희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샘솟았습니다.

단순히 일기장을 채우기 위해 분석하기 쉽거나 쓸 내용이 많아 보이는 기사를 고르기보다는, 나에게 '재미있는' 기사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기사를 읽은 후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다르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지, 관련한 자신의 경험은 있는지 등을 스스로 질문하다 보면 여러분만의 새롭고 멋진 기사 분석법을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NO. 8-2 일기 제목 : 의료현실의 맨 얼굴 … '의사파업'이 남긴 다섯가지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9 월 20 일 | 언론사 | 경향신문 |
| 기사발행일 | 2020 년 9 월 10 일 | 기자명 | 이혜인 · 정대연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시사점 ① : 전공의만 빠져도 환자생명위험

현 사태로 드러난 문제는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에 대한 병원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과, 의료파업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한다는것이다 따라서 기사에 제시된 비정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의대 설립과 정부가 경영 평가에 관련 요소를 넣어 환경 변화를 유도하는 등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한다 또한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의료공백은 시민들의 반감을 사고, 의료사고까지 이어질수 있다 따라서 김윤교수의 발언처럼 응급실과 중환자실, 중증질환의 파업시 병원에 제정돼야 할 필요가있다

## 시사점 ② : 사회 공론화 부족한 정책이 초래한 결과

"이번 이슈는 정부의 시각에서는 사회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던 정부의 허술한 정책이었다. 의료계 파업의 '이유'는 몰 수 없는 지연업, '방이'를 주기에 충분했다."
코로나 19로 탄력 의료 체계의 미흡했던부분들과 또으로 대비해야 할 부분들이 드러났다 이러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도, 제도, 인력 등 여러 요소들 어떤 것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의료진들과의 충돌과 혼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리해야 한다 이에 대비해 여러분에 의료인들의 입장에서는 '의사수능원'과 같은 정책이 검토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계획은 2021년 국가예산안에 따른, 이의 해결과 관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것이다. 사회적응방대로 해 이루어도 전에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이러한 문제들 '의사 수를 늘리면 된다'는 하나의 명제로 통합하여 생각해버렸다.

## 시사점 ③ : 의료정책 결정 구조 손봐야

정부가 정책추진 이전 의료진들의 중요한 의견이나 문제점들이 무시했던 이유는, 의료정책과 관련된 직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서 논의하고 합의를 이뤄낼 만한 제대로 된 의료정책 논의기구가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 기구가 존재하긴 하지만, 국고 건강보험료 논의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료정책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민주주의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의료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는 모두에게 의료계 전문가들, 환자들 대변할 수 있는 시민들까지 다 모여서 새로운 만들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NO. 8-3 일기 제목 : 의료현실의 맨 얼굴 … '의사파업'이 남긴 다섯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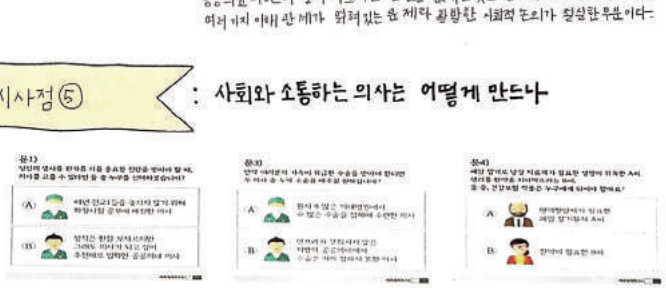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9 월 20일 | 언론사 | 경향신문 |
| 기사발행일 | 2020 년 9 월 10 일 | 기자명 | 이혜인 · 정대연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시사점 ④ : 원점으로돌아온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탄력 의료현실을 미주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응급상황에서 국가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등 공공의료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만 시장 논리로 움직이는 병원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는 시설 위치 등에 따라 편법이나 안된다는 이유로 낙후되어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 수나 병상 수 비율이 OECD국가 중에 가장 적은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의사들의 집단 파업으로 인해 모두 중단된 상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공공의료확충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이 단순히 병원과 의사수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공공병원이 돈을 벌는 하마라는 인식마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이 나쁘다는 편견을 없애는 것도 필요하고, 전문의 간호사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라 굉장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 시사점 ⑤ : 사회와 소통하는 의사는 어떻게 만드나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 연구소가 SNS에 공공의대와 지든의대 출신 의사를 비교하는 내용의 홍보물 카드뉴스를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홍보물에 정책은 의사의 자질과 관련 있다, 학력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들은 '환자들은 정치가 놀아서 의사가운을 입게된 사람이 아닌,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의사를 원한다'며 분노를 표했다. 의료계는 국민소통 수단에 있어 가치있는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 : "정책 모르는 공공의대 출신에 진단 받겠나?" 의협 차별적 게시물에 시민들 분노" (라이브경제))

# 단체 성인 **동상 수상작**

## 국립강원대학교 홍유진 외 16명(지도자 장두원)

| 기사발행일 | 년 월 일 | 기자명 | |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조정되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사용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나는 여전히 영업을 허용하는 상황에 의문을 가진 적 있다. 사우나는 목욕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보다 사우나가 오히려 더 위험한 것 아닐까? 게다가 탕에 들어가면 같은 물을 공유하게 되는데 그 물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의 비말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뉴스 기사 댓글이나 각종 SNS에서는 나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중 일부는 사우나의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런 처방을 내린 이유는 겨울철 집에서 온수가 나오지 않는 사회 취약 계층을 고려한 것이었다. 즉, 사우나를 공지하게 '않은' 것이 아니라 금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또,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SNU fact check에 의하면 다행히 목욕탕의 습기와 온도가 높아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공용 물건을 사용한다는 점,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점에서는 여전히 감염 위험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목욕탕 운영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사우나로 인한 코로나 확산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며 지금도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국에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일 텐데, 만약 사우나를 통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더욱 걱정이 된다.

코로나 19에 대한 두려움이 가짜 뉴스를 생성하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다. 목욕탕 물로 인해 코로나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말도 사람들의 걱정과 공포심에서 시작된 말이었지만 어느새 맞는 정보인 것처럼 확산되며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했다. 따라서 함부로 들었다는 말을 맹목적으로 믿기 전에 올바른 정보인지 확인을 먼저 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 목욕탕 물 통해서도 감염된다?**

대체로 사실 아님!

# 우수지도자

**이선희** / 한국미디어리터러시교육협회
(N&B교육연구소)

## 수상소감

"선생님, 꼭 신문 구독해야 하죠?", "선생님, 꼭 손으로 써야 해요?" 낯설기만 한 종이 신문을 앞에 두고 어떻게 쓸지 난감해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던 아이들의 수상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수상자 명단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보고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 주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꾸준함'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뉴스일기를 쓰는 습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생각을 기록한다는 것은 글쓰기 이상의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한 가운데 학생들이 매주 뉴스일기를 침착하게, 꾸준하게 이어 나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뉴스일기에 믿음을 갖고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을 반복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도방법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꾸준하고 지속적인 행동을 습관화하고, 학습에 대한 자율성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올바른 품성을 갖추기 위한 전인 교육에 방향을 두었습니다. 신문 구독을 원칙으로 하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기초(뉴스와 친해지기) - 발전(뉴스 다양화하기) - 심화(뉴스 파헤치기)' 세 단계로 지도했습니다.

① **기초(뉴스와 친해지기)** : 동기부여를 위한 단계입니다. 뉴스를 읽고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기본적인 독해력과 어휘력을 키우고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었으며 올바른 뉴스 이용자의 역할을 먼저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② **발전(뉴스 다양화하기)** : 기사와 더불어 오피니언, 광고, 도표, 이미지 이용, 글쓰기의 다양화를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초등학생은 PMI(긍정, 부정, 흥미로운 점)기법으로 광고 분석하기, KWL(이미 알고 있는 것, 알고 싶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로 뉴스 분석하기, 비주얼 싱킹, 인포그래픽, 카드 뉴스 제작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표현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고, 중학생은 뉴스 리터러시와 빅카인즈 활용 뉴스 분석 등 비판적 사고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③ **심화(뉴스 파헤치기)** : 칼럼 또는 사설로 뉴스를 비교하고 깊이 읽는 단계입니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뉴스 분석 틀을 이용하여 글쓰기를 지도했습니다. e-NIE 비교 보기를 활용하여 단계적 뉴스 분석, 글쓰기 등 '같은 사건 다른 관점의 뉴스읽기'를 시도했습니다.

# 우수지도자

**박효경** / 경민고등학교 지도자

## 수상소감

온라인 개학에 처음엔 마냥 신이 났던 고3 학생들의 초조함과 긴장감은 점차 커졌습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감정의 연산 공식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공감의 장소가 필요했던 저희는 비록 오프라인상에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인터넷 정보 검색이 가능한 포노 사피엔스들에게는 '무엇을 읽을 것인가'보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일기를 통해 이런 자연스러운 배움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고3 학생들이 곧 나아갈 사회를 이해하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함께 한 소중한 발걸음을 모은 일기장에 큰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도방법

① **신문 정하기** : 일기 소재를 찾는 일이 가장 고민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팩트를 체크하며 기사를 읽는 연습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았기에 최대한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기사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에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읽기 쉬운 제작과 꼭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 만든 '뉴닉'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② **생각 나누기** : 주 3회 뉴스를 읽은 뒤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골라 글을 작성하고, 교사도 그에 대한 댓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며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덟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만평을 활용해서 같은 사건을 보는 다른 관점을 이해하기 쉽게 비교하였습니다.

③ **토론하기** :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심도 있게 접할 수 있었으며,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여 총 3회의 인터넷 화상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회는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 2회는 온라인 쿠키 제3자 제공, 3회는 생활동반자법이 그 주제였습니다.

④ **활동하기** : 함께 토론하며 우리의 힘을 모으기로 정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돕기 활동. 둘째, 의료진에 대한 감사 표현 활동. 셋째,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장애인 지원 활동. 넷째, 청각 장애인 택시 운전 기사님께 차량 스티커 보내기 활동입니다. 아는 만큼 달라진 학생들의 선한 의지가 모여, '아는 것이 실천력을 가질 때 어떠한 파급력을 가지는가'를 보여준 움직이는 일기를 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우수지도자

**김현경** / 한국미디어교육강사연합회

## 수상소감

읽는다는 건 '앎'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고, 자기의 내면을 단단하게 채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안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인터넷 신문이 훨씬 더 가까운 아이들, 넘기는 것보다는 클릭이 훨씬 더 익숙한 아이들에게 종이신문은 고전처럼 낡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문이 또 좋다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신문을 보면서 수많은 물음표를 던지고 함께 답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나지 않는 터널 같은 취업 준비생의 고민도 신문과 함께했습니다. 신문을 더 열심히 읽으면서 신문이 자신들의 경쟁력이라는 자부심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득 이 시간을 기억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신문을 펼칠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제게도 소중하고 유익했던 시간이 수상의 기쁨으로 돌아오니 영광입니다.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열정을 다 해준 수민, 원경이와 이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 지도방법

**① 먼저 자신이 관심 있는 기사를 찾은 후 제목을 읽었습니다.** 제목을 보면서 '무엇을 → 어떻게 → 왜'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에 대해 쓴 글인지, 어떻게 했는지, 왜 그랬는지 질문하며 글의 의도와 방향을 파악하도록 지도했습니다.

**② 기사를 읽으면서 모르는 용어는 검색해서 나만의 '지식 백과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용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기사를 이해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③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읽기'입니다.** 잘 읽어야 내용의 핵심을 뽑는 '요약'을 잘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과 부제목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자기 언어로 요약하기 시작했습니다.

**④ 기사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 뒤, 생각의 지평을 넓혀봅니다.** 기자가 어떤 시각으로 이슈를 바라보는지 파악하고, '기사의 관점에 동의하느냐?' 또는 '나는 어떻게 바라본다.' 등의 의견을 담아 열띤 논쟁을 펼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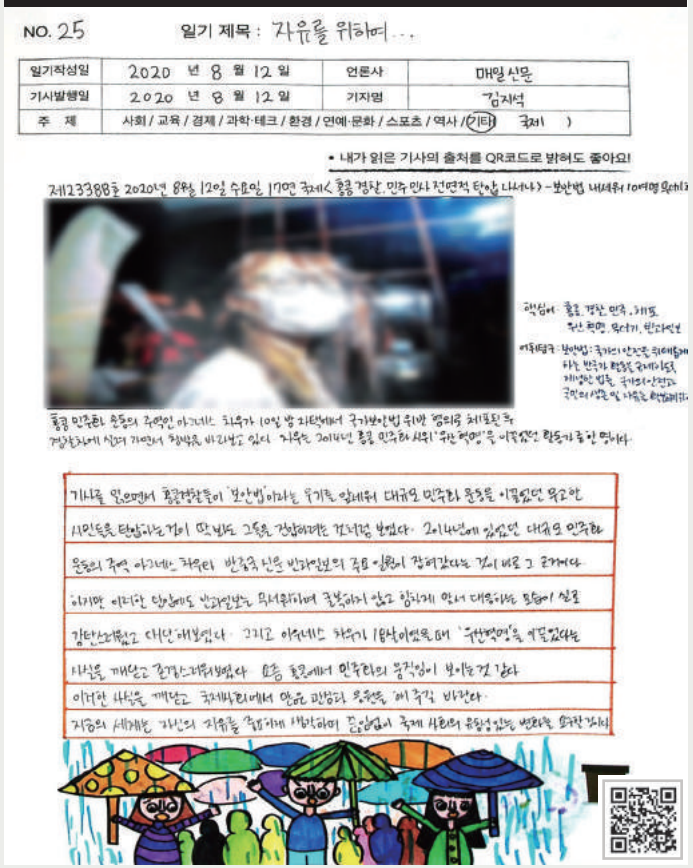
**⑤ 또한, 하나의 기사에서 끝나지 않고 기자가 지면에서 전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탐구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도한 다른 기사도 찾아보고 의견도 찾아 읽으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⑥ 그러면서 더 유연한 사고가 형성되어 전공 공부와 취업 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미래를 바라보는 넓은 사고로 공모전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일기장이 두꺼워질수록 학생들의 내면도 단단해졌음을 느꼈습니다.

# 특별상 - 신뢰하상

명확한 출처 확인과 허위정보 분별 가이드를 잘 적용했어요!

## 구미여자중학교 3학년 박수빈



NO. 25 일기 제목 : 자유를 위하여...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8 월 12 일 | 언론사 | 매일신문 |
| 기사발행일 | 2020 년 8 월 12 일 | 기자명 | 김지석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국제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제12338호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17면 국제<홍콩 경찰, 민주 인사 전면적 탄압 나서다> - 보안법 내세워 10여명 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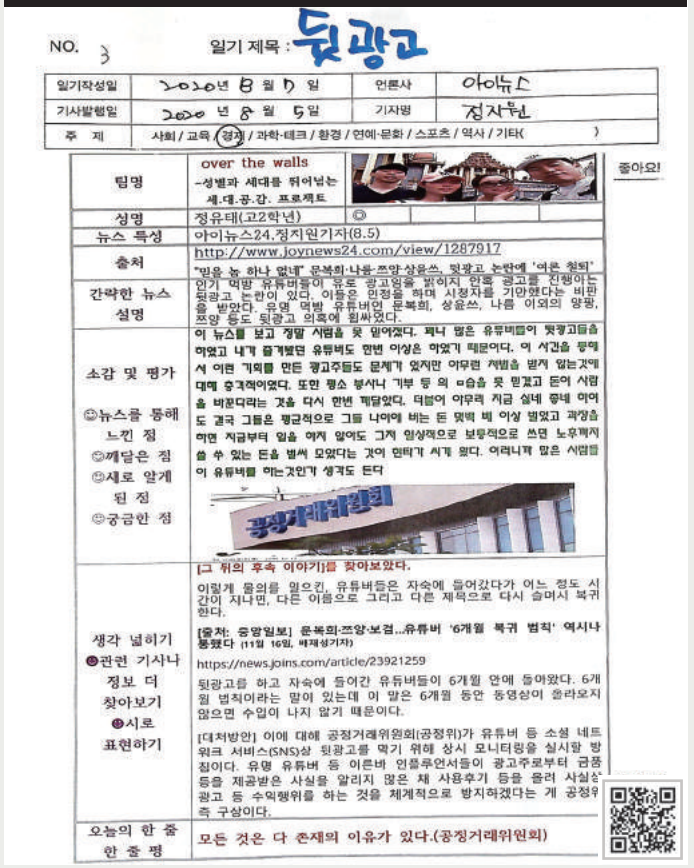
핵심어: 홍콩, 경찰, 민주, 체포, 주선, 학연, 우산기, 반대시민

이해테크: 보안법: 국가안전을 위해 해하는 반국가 행동을 처벌하는 법률. 국가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확보하는

홍콩 민주화 운동의 주역인 아그네스 초우가 10일 밤 자택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경찰차에 실려 가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초우는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을 이끌었던 활동가 출신 학생이다.

기사를 읽으면서 홍콩경찰들이 '보안법'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대규모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유소안 시민들을 탄압하는 것이 딱 보도 그들은 건압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2014년에 있었던 대규모 민주화 운동의 주역 아그네스 주우티 반중국 단은 반자유보의 주요 인물이 잡혀갔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하지만 이러한 탄압에도 반과일보는 무서워하며 굴복하지 않고 당차게 맞서 대응하는 모습이 실로 감탄스러웠고 대단해보였다. 그리고 아그네스 주우가 18살이었을 때 '우산혁명'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스러워했다. 홍콩에서 민주화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길 바란다. 자유의 세계는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며 생명하며 끊임없이 국제 사회의 움직임과 변화를 요구 하자!

## 세대공감 - 정유태, 정윤서, 정수현, 정왕희 가족



NO. 3 일기 제목 : 뒷광고

| | | | |
|---|---|---|---|
| 일기작성일 | 2020년 8 월 7 일 | 언론사 | 아이뉴스 |
| 기사발행일 | 2020 년 8 월 5일 | 기자명 | 정지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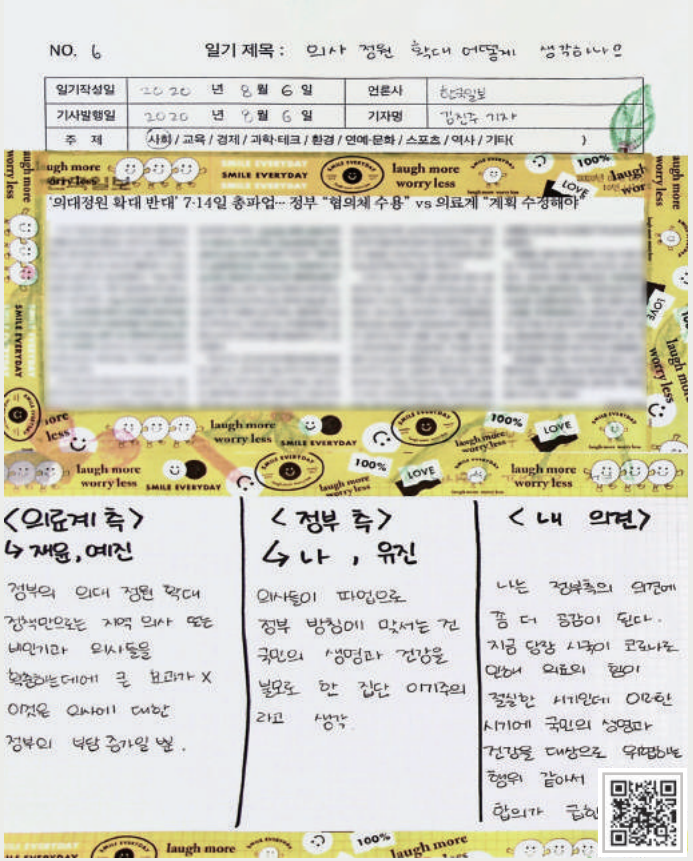
| | |
|---|---|
| 팀명 | over the walls<br>-성별과 세대를 뛰어넘는 세.대.공.감. 프로젝트 |
| 성명 | 정유태(고2학년) ◎ |
| 뉴스 특성 | 아이뉴스24.정지원기자(8.5) |
| 출처 | http://www.joynews24.com/view/1287917 |
| 간략한 뉴스 설명 | "믿을 놈 하나 없네" 문복희·나물·쯔양·상윤쓰, 뒷광고 논란에 '어른 철회'<br>인기 먹방 유튜버들이 몰래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광고를 진행하는 뒷광고 논란이 있다. 이들은 인정을 하며 시청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명 먹방 유튜버인 문복희, 상윤쓰, 나름 이외의 양평, 쯔양 등도 뒷광고 의혹에 휩싸였다. |
| 소감 및 평가<br>☺뉴스를 통해 느낀 점<br>☺깨달은 점<br>☺새로 알게 된 점<br>☺궁금한 점 | 이 뉴스를 보고 정말 사람을 못 믿어겠다. 왜냐 많은 유튜버들이 뒷광고들을 하였고 내가 즐겨봤던 유튜버도 한번 이상은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만든 광고주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것에 대해 충격적이었다. 또한 평소 부시나 기부 등 의 모습을 못 믿겠고 돈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더불어 이무리 지금 실네 중네 이어도 결국 그들은 평균적으로 그들 나이에 버는 돈 몇백 배 이상 벌었고 과장을 하면 지금부터 일을 해서 일어도 그게 일상적으로 보통적으로 쓰면 노후까지 쓸 수 있는 돈을 벌써 모았다는 것이 인터가 시게 왔다. 어려니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하는것인가 생각도 든다<br><br> |
| 생각 넓히기<br>●관련 기사나 정보 더 찾아보기<br>●시로 표현하기 | [그 뒤의 후속 이야기]를 찾아보았다.<br>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유튜버들은 자숙에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름으로 그리고 다른 제목으로 다시 슬며시 복귀한다.<br>[출처: 중앙일보] 문복희·쯔양·보겸...유튜버 '6개월 복귀 법칙' 역시나 통했다 (11일 16일, 박재성기자)<br>https://news.joins.com/article/23921259<br>뒷광고를 하고 자숙에 들어간 유튜버들이 6개월 안에 돌아왔다. 6개월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6개월 동안 동영상이 올라오지 않으면 수입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br>[대처방안]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유튜버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 뒷광고를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유명 유튜버 등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용후기 등을 올려 사실상 광고 등 수익행위를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게 공정위 측 구상이다. |
| 오늘의 한 줄 한 줄 평 | 모든 것은 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공정거래위원회) |

좋아요!

# 특별상 - 토론했상

뉴스를 비교하거나 친구와 토론하면서 건강하게 의견을 공유했어요!

## 문향고등학교 2학년 남가희



NO. 6 일기 제목 : 의사 정원 확대 어떻게 생각하나요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8 월 6 일 | 언론사 | 한국일보 |
| 기사발행일 | 2020 년 8 월 6 일 | 기자명 | 김찬국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의대정원 확대 반대' 7·14일 총파업… 정부 "협의체 수용" vs 의료계 "계획 수정해야"

<(의료계 측>
↳ 제윤, 예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전국민으로는 지역 의사 또는 내만기과 의사들을 확충하는데에 큰 효과가 X 이것은 의사에 대한 정부의 부담 증가일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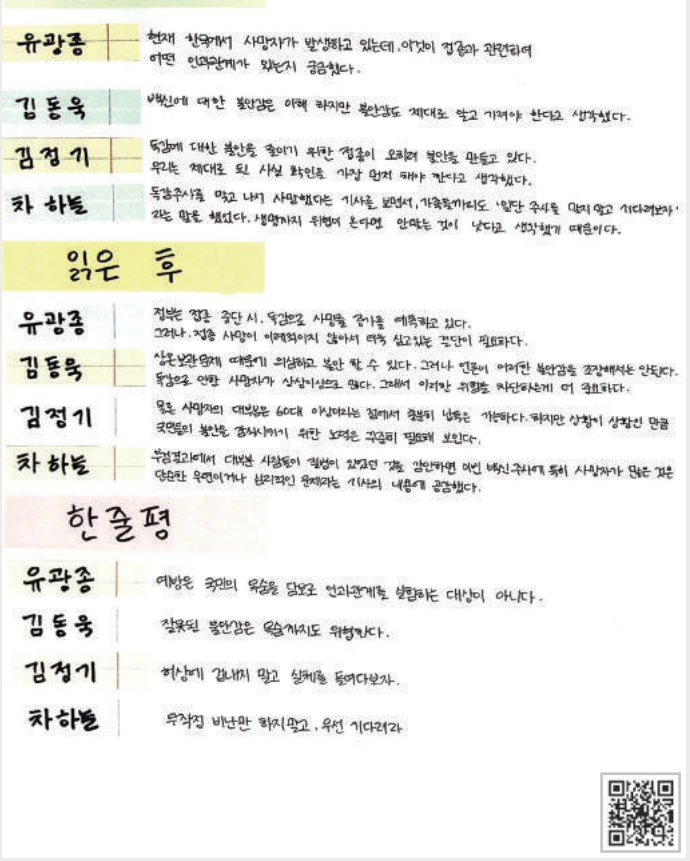
< 정부 측>
↳ 나 , 유진

의사들이 파업으로 정부 방침에 맞서는 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라고 생각.

< 내 의견>

나는 정부측의 의견에 좀 더 공감이 된다. 지금 당장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 의료의 힘이 절실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대상으로 위협하는 행위 같아서 합의가 급히

## 대구대학교 김동욱, 김정기, 유광종, 차하늘



**유광종** 현재 한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권과 관련되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궁금했다.

**김동욱**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이해 하지만 불안감도 제대로 알고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정기** 독감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불안을 만들고 있다. 무는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차하늘** 독감주사를 맞고 나서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가슴뜨끔하지도 '일단 주사를 맞지 않고 기다려보자' 라는 말을 했었다. 생명까지 위험이 온다면 안맞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읽은 후

**유광종** 정부는 정책 중단 시, 독감으로 사망률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사망이 이해되어지지 않아서 더욱 심고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김동욱** 상온보관으로 때문에 의심하고 불안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류에 이러한 불안감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상상이상으로 많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는게 더 중요하다.

**김정기** 물론 사망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은 가능하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국민들의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필요해 보인다.

**차하늘** 뉴스 댓글에서 대부분 시설들이 정성이 있었던 것을 알았다면 이런 백신주사에 대해 사망자가 많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거나 심리적인 문제라는 기사의 내용에 공감했다.

### 한줄평

**유광종** 예방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대상이 아니다.

**김동욱** 잘못된 불안감은 목숨까지도 위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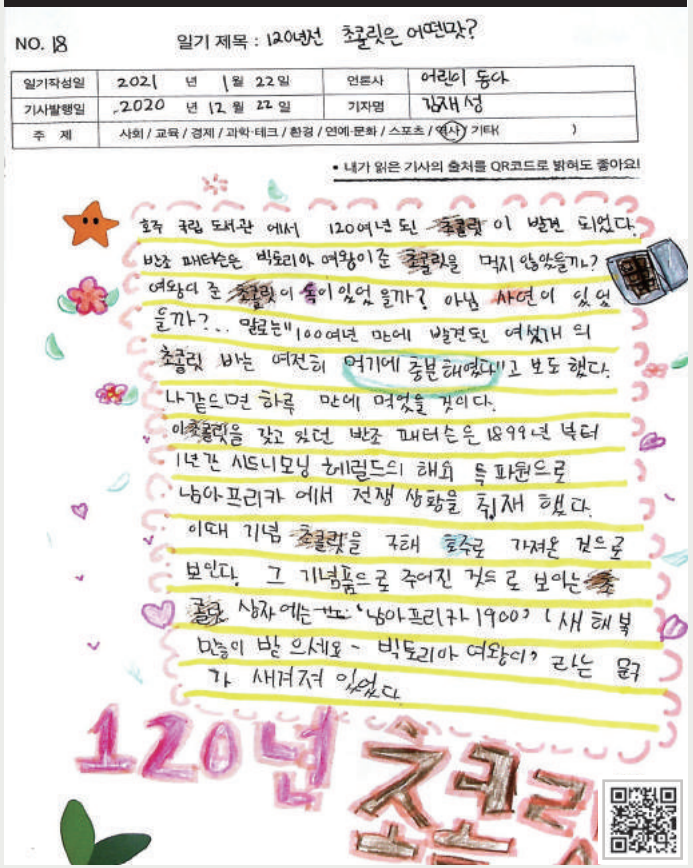
**김정기** 희상에 갇히지 말고 실체를 들여다보자.

**차하늘** 무작정 비난만 하지말고, 우선 기다려라

# 특별상 - 다양하상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읽었어요!

## 해맑은지역아동센터 김유빈



NO. 18 일기 제목 : 120년전 초콜릿은 어떤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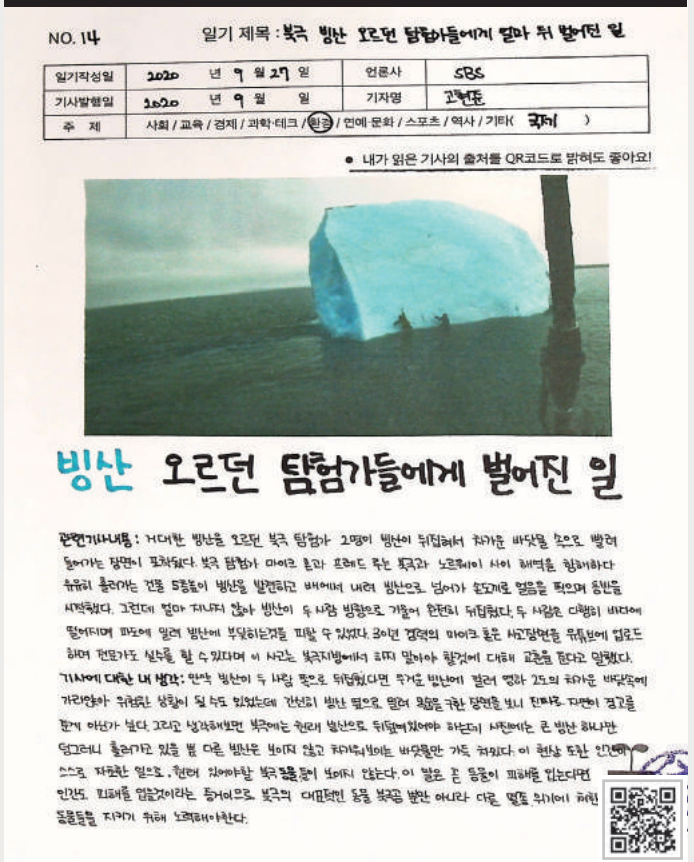
| | | | |
|---|---|---|---|
| 일기작성일 | 2021 년 1월 22일 | 언론사 | 어린이 동아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2월 22일 | 기자명 | 김재성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호국 국립 도서관 에서 120여년 된 초콜릿 이 발견 되었다.
빅토 패터슨은 빅토리아 여왕이 준 초콜릿을 먹지 않았을까?
여왕이 준 초콜릿이 독이 있었 을까? 아님 사연이 있었을까?.. 말로는 100여년 만에 발견된 여섯개 의 초콜릿 바는 여전히 먹기에 충분 해였다고 보도 했다.
나 같으면 하루 만에 먹었을 것이다.
이 초콜릿을 갖고 있던 빅토 패터슨은 1899년 부터 1년 간 시드니모닝 헤럴드의 해외 특파원으로 남아프리카 에서 전쟁 상황을 취재 했다.
이때 기념 초콜릿을 구해 호주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 기념품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이는 초콜릿 상자 에는 '남아프리카 1900' 'Ⅰ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빅토리아 여왕이'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120년 초콜릿

## 만수초등학교 6학년 백유선



NO. 14 일기 제목 : 북극 빙산 오르던 탐험가들에게 일어 난 일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9월 27일 | 언론사 | SBS |
| 기사발행일 | 2020 년 9월 일 | 기자명 | 고혁준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국제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빙산 오르던 탐험가들에게 벌어진 일

관련기사내용 : 거대한 빙산을 오르던 북극 탐험가 2명이 빙산이 뒤집혀서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극 탐험가 마이크 홀과 프레드 루는 북극과 노르웨이 사이 해역을 항해하다 유유히 흘러가는 건물 5층높이 빙산을 발견하고 배에서 내려 빙산으로 넘어가 손도끼로 얼음을 찍으며 등반을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빙산이 두 사람 방향으로 기울어 한쪽이 뒤집혔다. 두 사람은 대형의 바다에 떨어지며 파도에 밀려 빙산에 부딪히는것을 피할 수 있었다. 30분 경력의 마이크 홀은 사고장면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며 전문가도 실수를 할 수 있다며 이 사고는 북극지방에서 흔히 일어나 할것에 대해 교훈을 준다고 말했다.

기사에 대한 내 생각: 만약 빙산이 두 사람 쪽으로 뒤집혔다면 추가로 빙산에 빨려 떨어 2명의 차가운 바닷물에 가라앉아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건선히 빙산 밖으로 떨어 목숨을 구한 장면을 보니 진짜로 자연의 경고를 받게 아닌가 생각 그리고 생각해보면 북극에는 현재 빙산으로 뒤덮혀있어야 하는데 사진에는 큰 빙산 하나만 덩그러니 흘러가고 있을 뿐 다른 빙산들 보이지 않고 차가운 바닷물만 가득 차있다. 이 현상 또한 인간에 스스로 자초한 일으로 현재 있어야할 북극 얼음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 얼음 큰 등장이 피해를 입는다면 인간도 피해를 입을것이라는 증거이므로 북극의 대표적인 동물 북곰 뿐만 아니라 다른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 특별상 - 꾸준하상

오랜 기간, 꾸준히, 정기적으로 일기를 작성했어요!

## 이승록

NO. 34 일기 제목 : 전남 곡성서 산사태로 주민 3명 사망 · 3명 매몰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8 월 8 일 | 언론사 | 충청리상뉴 |
| 기사발행일 | 2020 년 8 월 8 일 | 기자명 | 김동희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7월 오후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섬덕마을 야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3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돼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다. 7월 오후 8시 30분께 섬덕마을 인근 야산이 무너져 토사가 주택 3채를 덮쳤다.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70대 여성등 3명이 구조됐으나 숨졌다. 소방당국은 무너진 산안에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굵은 비가 지속되며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0시부터 밤 11시까지 곡성은 강수량 237.8mm를 기록했다. 산림청은 밤 9시 전남등 전국 12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해 많은 비가 내려 비 피해가 심했다. 그러면서도 유독 산사태가 많이 발생 인명 피해로 이어지곤 했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멈추게 하면서 태양광을 설치하느라 온 산을 파헤친 결과였다. 산에 나무가 울창하면서 산사태는 거의 없었는데 태양광 설치를 야산을 개간 나무를 다 베어내고 하는 바람에 생긴 인재가 급증했다. 이런 일이 금년에만으로 끝날 일도 아니고 또 태양광 설치를 계속해게 허가면 그 피해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전기를 생산 사용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인한 난개발을 어찌할거가? 이제는 정리하고 기준을 찾아야 한다. 보다 엄격한 규제로 산림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막도록 해야 할것이다.

## 이정신

NO. 20 일기 제목 : "주민 등록 번호 갖고 싶어요"... 있어도 없는 아이들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12 월 18 일 | 언론사 | 문화방송 MBC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2 월 16 일 | 기자명 | 시 정연기자 |
| 주 제 | (사회) (교육)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법 ) | | |

"주민등록 번호갖고 싶어요"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있어도 없는'아이들.. [MBC 전종휘재M] 2020년 12월 16일 뉴스를 시청하고 우리나라에 주민등록 신청을 거부 당하는 아기들이 있다는 것에 머리 골라고, 아프고 화가 몰아왔다. '사랑의 법' 엄마만 있어도 등록할 수 있고 아빠만 있으면 등록이 안 되는 '사랑의 법', 출생 증명서에 엄마 이름이 등록돼 있어 아빠 혼자만으로 신고 등록 허락을 못 받는 법, 태어난 우리나라 국민의 아기들 모두가 차별없이 주민등록이 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하루속히 빨리 통과 되기를 소원한다.

교육관이 높은 나는 종종 어린이 날 노래를 부른다. 달릴 수 있는 발판을 아기들에게 어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가?

인천 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조사모, 강인 장모 까지 9명 등록... 비싼 수술비 체납액 석 달치라는 기사를 읽고,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실태와 부정수급에 대해 더는 뉴스도 찾아보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 확인 요청해 부정수급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부정수급으로 100억이 넘는 피해가 발생되어 부정수급이 확인 될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한 징수 청구를 한다 했다. 징수 청구한 액수는 실제로 다 받아 갔는지에 대해선 답변이 없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2020년 6월 말기준 201.539명이나 되고 부정수급자도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자녀인 미혼모 아기들을 주민등록을 안 해주고, 건강보험, 교육, 돌봄 지원과 서비스도 못 받게 막 막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아기들을 돌봐주고 싶다.

(제안)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바라자' UN에서 그렇이나 원고한 상황

"국회에서는 어서 빨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기들 평등하게 주민등록이 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청원자 : 이 정신

※ 법원에 소송을 접수하여 여러번의 재판 과정을 거치고 주민등록신청 접수를 허락 받는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니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현상이다.

# 특별상 - 같이의가치상

우리가 가장 많은 일기장을 제출했어요!(학교, 동호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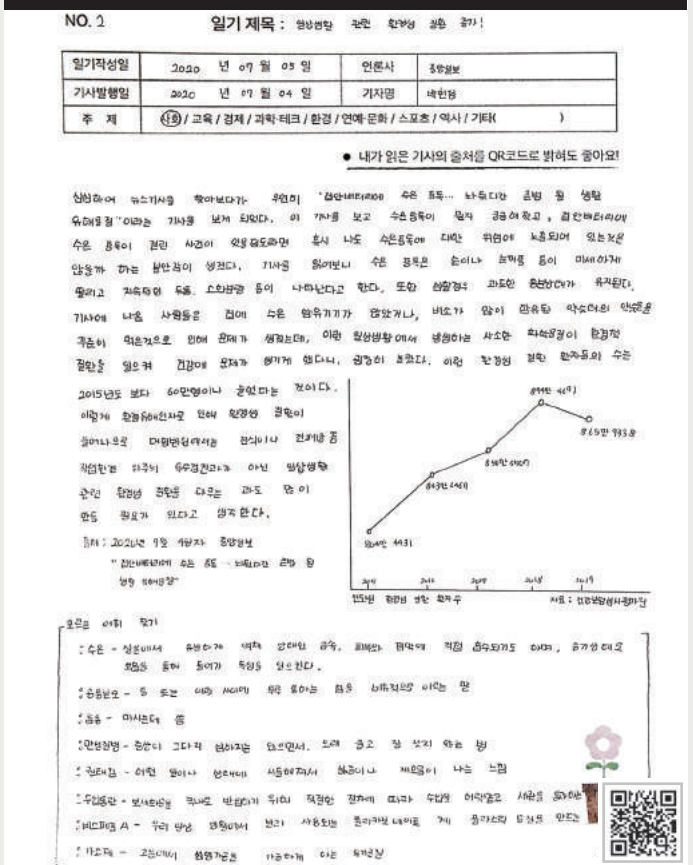
운중초등학교(지도자 조형국)

점촌초등학교 5학년 2반(지도자 김경민)

# 특별상 - 열정이빛나상

이 한 권에 열정을 불태웠어요! 1년의 노력이 빛나요.

## 성덕고등학교 1학년 8반(지도자 박소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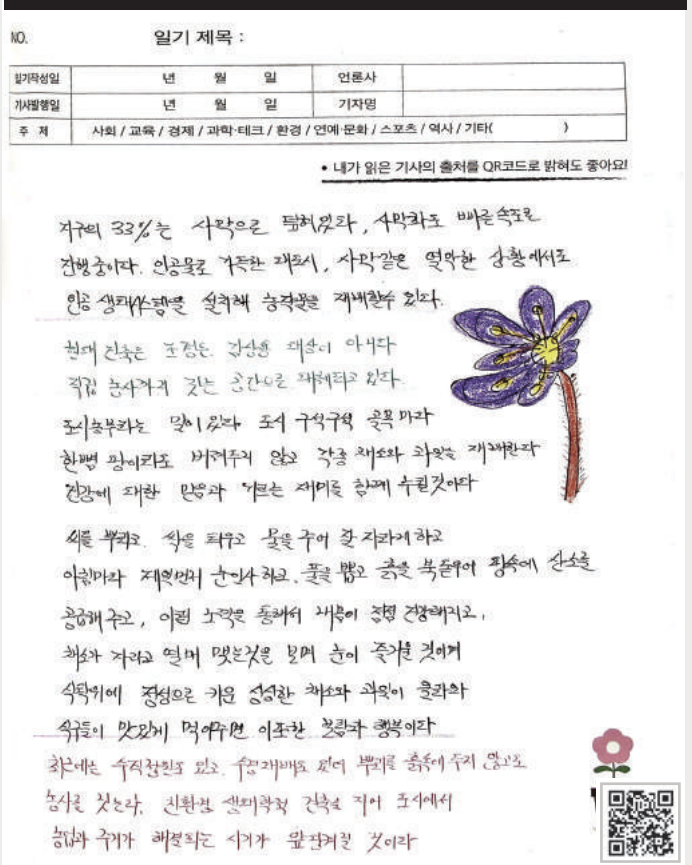


NO. 1　　일기 제목 : 생활밀착 국민 환경성 실천 중기!

| 일기작성일 | 2020 년 07 월 05 일 | 언론사 | 중앙일보 |
|---|---|---|---|
| 기사발행일 | 2020 년 07 월 04 일 | 기자명 | 배인정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정윤기



NO.　　일기 제목 :

| 일기작성일 | 년 월 일 | 언론사 | |
|---|---|---|---|
| 기사발행일 | 년 월 일 | 기자명 |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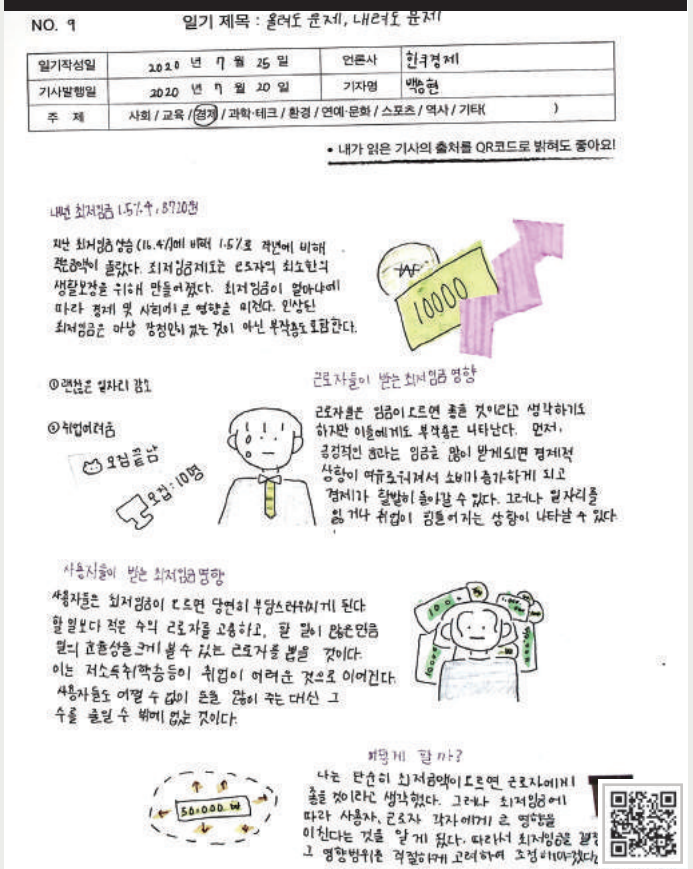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지구의 33%는 사막으로 뒤덮였다, 사막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다. 인공물로 가득한 재래식, 사막같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인공 생태계시스템을 설치해 농작물을 재배할수 있다.
현대 건축은 조경은 감성을 대상이 아니다
직접 눈에 보이는 공간으로 재배하고 있다
조리실부터는 맞이 있다 조리 구석구석 곰팡이라
한뼘 팡이라도 버려주지 않고 작물 채소와 과일을 재배한다
건강에 좋은 맛있는 재료를 함께 누릴것이다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물을 주어 잘 자라게 하고
이웃마다 제일먼저 순인사 하고, 풀을 뽑고 흙을 북돋우어 광속에 산소를
공급해 주고, 이웃 노력을 통해서 사용이 점점 건강해지고,
채소와 자라고 열매 맺은것을 보며 눈이 즐거울 것이다
식탁위에 정성으로 키운 싱싱한 채소와 과일이 풀과와
식구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이보다 뿌듯과 행복이다
학교에는 수직정원도 있고, 수질재배도 있어 뿌리를 흙속에 주지 않고도
농사를 짓는다. 친환경 생태학적 건물을 지어 도시에서
농업과 주거가 해결되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

# 특별상 - 다이어리 꾸미기상

창의적이고 예쁘게 일기를 작성했어요!

## 대전하기중학교 3학년 주윤하



NO. 9 일기 제목 :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

| | | | |
|---|---|---|---|
| 일기작성일 | 2020 년 7 월 25 일 | 언론사 | 한국경제 |
| 기사발행일 | 2020 년 7 월 20 일 | 기자명 | 백승현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내년 최저임금 1.5% ↑ 8720원

지난 최저임금 상승 (16.4%)에 비해 1.5%로 작년에 비해 적은 폭에 올랐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다. 최저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경제 및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마냥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닌 부작용도 포함한다.

10000

① 편법으로 일자리 감소

② 취업어려움

오늘 끝남

오답 : 10명

근로자들이 받는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들은 임금이 오르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들에게도 부작용은 나타난다. 먼저, 긍정적인 점과는 임금을 많이 받게되면 경제적 상황이 여유로워져서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사용자들이 받는 최저임금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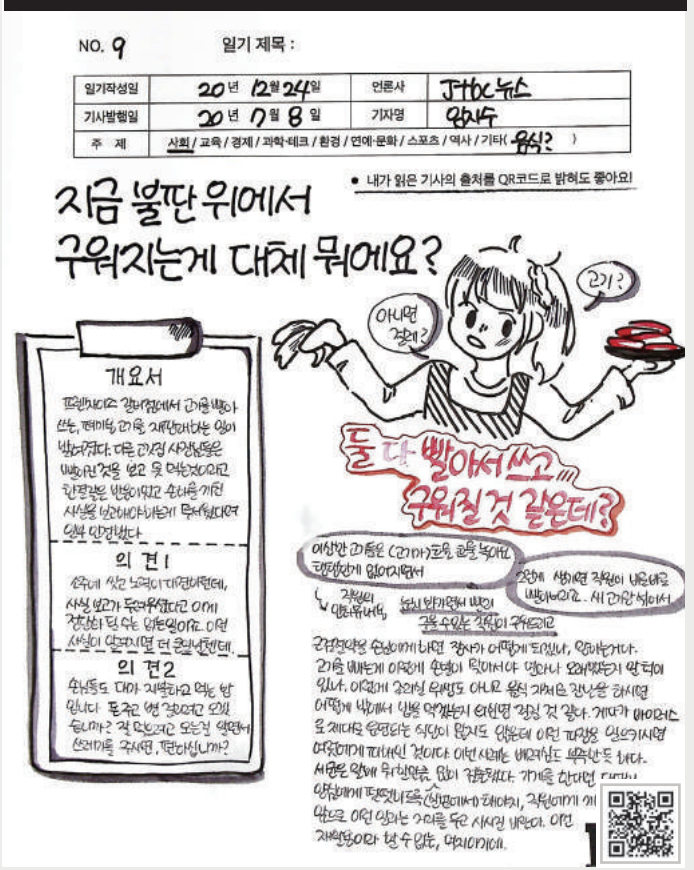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부담스러워지게 된다 할 일보다 적은 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할 일이 많은 만큼 훨씬 효율성을 크게 볼 수 있는 근로자를 뽑을 것이다. 이는 저소득취약층들이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이어진다. 사용자들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많이 주는 대신 그 수를 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50,000 ₩

어떻게 할까?

나는 단순히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에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따라 사용자, 근로자 각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 그 영향범위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조정하여야겠다.

## 문향고등학교 3학년 문태희



NO. 9 일기 제목 :

| | | | |
|---|---|---|---|
| 일기작성일 | 20 년 12 월 24 일 | 언론사 | JTBC 뉴스 |
| 기사발행일 | 20 년 7 월 8 일 | 기자명 | 양지수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음식?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지금 불판 위에서 구워지는게 대체 뭐에요?

아니면 경제?

리?

개요서

프랜차이즈 갈비집에서 고기를 빼다 쓴는, 폐기물, 고기를 재판매하는 일이 발견되었다. 다른 고깃집 사장들은 비슷한 것을 보고 못 먹는것이라고 한결같은 반응이었고 우리를 기만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묵비권이라니 인륜 만연했다.

의 견1

수주에 싼고 노력이 대단하련데, 사실 보고가 뚜껑 뒤집어졌다고 이게 정상화 될 수는 없는일이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더 혼란스럽겠네.

의 견2

우리들도 다아 지쳤거고 먹는 밥 입니다 또주고 생 것이라고 오지 등니까? 적 먹으라고 모든걸 맡겨서 신뢰가를 주시면, 편하십니까?

둘 다 빨아서 쓰고... 구워질 것 같은데?

이상한 고기들은 (고기가)도망, 곰을 녹이다, 프랜차이즈에 없어지면서

우연히 생기면 직원이 내용이를 빼버리죠. 시 고깃집에서

직원이 이용하다, 눈치 보기 때문에 빼고 곰을 수입한 것처럼 구워드리고

고깃집 사장은 순진하게 나타난 장사가 어떻게 되었나, 알아보거나. 고기를 빼돌려 이익에 눈멀어 맞아서다 멍청하고 오랜세월 맨 덕에 있나. 이렇게 장사의 유혹도 아니고 원칙 고기라는 것 산을 하시면 어떻게 나오게 입을 약점은 의원면 정상 것 같다. 게다가 배우라는 요 제대로 운영되는 식당이 없지도 있는데 이런 파장을 일으키시면 여러분에게 피해신 것이다 이런 사람는 배려심도 부족산도 하다. 서윤은 앞에 유치원부터 없이 자들었다. 가게를 한다면 양념에게 포장지 등 (신문에서 해야지, 그릇에게 게 맡고 이런 일이는 그리를 두고 시시정 나온다. 이런 자세였이라 믿을 수 없다, 먹지이기에.

# 특별상 - 명필가상

한 글자, 한 글자 심혈을 기울여 일기를 완성했어요!

## 사직여자중학교 1학년 문경림

| 일기작성일 | 2020 년 10 월 11 일 | 언론사 | NEWSIS |
|---|---|---|---|
| 기사발행일 | 2020 년 10 월 2 일 | 기자명 | ?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 EU (유럽연합) 회원국의 환경장관들 ·····

비공식 회담 통해 앞으로

1990년도에 비해 2030년 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최소 55% 까지 줄이는데 합의.

동참의 스페니아출제 환경부 장관 <

유럽 국가들의 '협력'가 중요

이 목표를 지키기 위해 EU의 단합이 필요

특정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일 맡아서 진행할 필요 있다

" 이를 위해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노력의 결과는 기후변화에 대한 좋은 결과 이끌어 낼 것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도에 비해서 25% 밖에 줄이지 못했다

「생물 다양성」

EU 환경·에너지·대양 커미셔너 바르기니우스 산거비시우스 <

생물 다양성의 상실은 경국 식량안보와

경제, 미래의 건강과 기후변화

대응에도 악영향 미칠 것

↳ 생물다양성 보호 문제는

2021년 중국 쿤밍에서 열릴 제 15차 세계 생물 다양성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

〈나의 생각〉 EU에서 지구의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한 것이 멋지, 놀랍고 공감스럽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해결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 만수초등학교 6학년 서혜린

NO. 8 일기 제목 : 오륙도 파도 휩쓸린 14살 사망 "친구들 영상 찍는라 신고 늦어"

| 일기작성일 | 2020 년 8 월 6 일 | 언론사 | 중앙일보 |
|---|---|---|---|
| 기사발행일 | 2020 년 8 월 6 일 | 기자명 | 홍민정 기자 |
| 주 제 | 사회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연예·문화 / 스포츠 / 역사 / 기타( ) | |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로 밝혀도 좋아요!

서혜린

### 사건

최근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중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 있던 학생들이 영상을 찍고 웃느라 신고가 늦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군은 지난 4월 오후 3시쯤 부산 남구 오륙도 선착장 앞바다에 들어간 뒤 파도에 휩쓸렸다. 그리고 한 시간 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지난 5월 청와대 게시판에는 '억울하게 죽은 점석이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친구들은 장난인줄 알고 웃으며 영상을 찍었다."며 "영상을 찍을 시간에 구급대원을 불렀으면 살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처벌을 부탁드린다."고도 호소했다. A군의 또 다른 지인은 SNS에 "A군이 애타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친구들은 장난인줄 알아 휴대폰을 꺼내고 플리플 등한 쉬앙스로 동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다."면서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후였다"고 적었다.

### 의견

애초에 그 곳에 왜 들어간 지는 모르겠지만, 14살이나 나이를 먹었는데 그런 상황에 왜 그런 행동을 한 건지 모르겠다. 내 생각에는 뭔따... 같은 것을 잡혔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무리 14살이라지만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장난인 줄 알았더라도, 주변에 있던 두분나 페트병을 던져주었더라면 아마 죽지 않았을 것 같다. 금시쯤 파도에 휩쓸렸는데 한 시간 뒤 발견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신고를 하지 않고 바쁘며 찍은 건지 궁금하다. 소년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14살이면 위급한 상황의 것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나이인데, 13살인 나도 누가 바다에 빠지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신고했을 것 같다. 얼른 저 친구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 공모전 본상·특별상 수상 명단

• 이사장상

| 수상명 | 성함 | 소속 |
|---|---|---|
| 이사장상 | 김찬미 | 팔마고등학교 |

## 본상

• 개인 어린이 저학년

| 수상명 | 성함 | 소속 |
|---|---|---|
| 금상 | 노도현 | 대구월서초등학교 |
| 은상 | 곽서진 | 민백초등학교 |
| 은상 | 박신아 | 참샘초등학교 |
| 은상 | 배세은 | 대구삼육초등학교 |
| 동상 | 권승형 | 월곡초등학교 |
| 동상 | 김세령 | 좌산초등학교 |
| 동상 | 박서윤 | 월곡초등학교 |
| 동상 | 박예담 | 복수초등학교 |
| 동상 | 정주원 | 아산북수초등학교 |
| 동상 | 주아라 | 개정초등학교 |

• 개인 어린이 고학년

| 수상명 | 성함 | 소속 |
|---|---|---|
| 금상 | 김윤아 | 주감초등학교 |
| 금상 | 방마리 | 서울청운초등학교 |
| 금상 | 유승민 | 서울염동초등학교 |
| 은상 | 김하경 | 개봉초등학교 |
| 은상 | 김형준 | 서울행현초등학교 |
| 은상 | 배준서 | 염주초등학교 |
| 은상 | 서정인 | 운중초등학교 |
| 은상 | 서준서 | 인천만월초등학교 |
| 은상 | 송연우 | 주감초등학교 |
| 은상 | 이서현 | 천안두정초등학교 |
| 은상 | 이준수 | 주감초등학교 |
| 은상 | 정유나 | 부산사남초등학교 |
| 동상 | 곽인영 | 세계중앙지역아동센터 |
| 동상 | 김영찬 | 점촌초등학교 |
| 동상 | 류세진 | 호수초등학교 |
| 동상 | 박은찬 | 서울봉현초등학교 |
| 동상 | 서유준 | 인천삼목초등학교 |
| 동상 | 신예서 | 경남샛별초등학교 |
| 동상 | 신재민 | 서울봉현초등학교 |
| 동상 | 이서연 | 서울지향초등학교 |
| 동상 | 이수현 | 천안두정초등학교 |
| 동상 | 이재원 | 대감초등학교 |
| 동상 | 이지현 | 천안두정초등학교 |
| 동상 | 이현정 | 점촌초등학교 |
| 동상 | 주은아 | 해맑은지역아동센터 |
| 동상 | 최서홍 | 주감초등학교 |
| 동상 | 황세빈 | 점촌초등학교 |
| 동상 | 황호준 | 서울행현초등학교 |

• 개인 청소년

| 수상명 | 성함 | 소속 |
|---|---|---|
| 금상 | 윤혜원 | 신림중학교 |
| 은상 | 김은서 | 상도중학교 |
| 은상 | 김재희 | 구암중학교 |
| 은상 | 양수민 | 인천영종고등학교 |
| 동상 | 김도경 | 구미여자중학교 |

# 공모전 본상·특별상 수상 명단

| | | |
|---|---|---|
| 동상 | 김수린 | 해마루중학교 |
| 동상 | 박시우 | 영남중학교 |
| 동상 | 방은우 | 화명중학교 |
| 동상 | 유의선 | 팔마고등학교 |

## • 개인 성인

| 수상명 | 성함 | 소속 |
|---|---|---|
| 금상 | 우명희 | 해당없음 |
| 은상 | 김미니 | 해당없음 |
| 은상 | 안순옥 | 학마을도서관 |
| 은상 | 장영인 | 영남대학교 |
| 동상 | 김한나 | 해당없음 |
| 동상 | 윤언자 | 해당없음 |
| 동상 | 이우진 | 해당없음 |
| 동상 | 정은진 | 한양여자대학교 |
| 동상 | 조원경 | 말글삶 |

## • 단체 어린이 저학년

| 수상명 | 팀 명 | 소속 |
|---|---|---|
| 은상 | 찐가족의 뉴스 팩트 | 강형문, 이현옥, 강채린, 강유준 가족 |

## • 단체 어린이 고학년

| 수상명 | 팀 명 | 소속 |
|---|---|---|
| 은상 | 신문먹는 아이들 | 장우영, 김규림, 최다희, 문수현 |
| 동상 | 일곱빛깔무지개 | 천안위례초등학교 |

## • 단체 청소년

| 수상명 | 팀 명 | 소속 |
|---|---|---|
| 금상 | 신기소리 | 경민고등학교 |
| 은상 | 신문GO 1,2반 여자아이들 | 대전삼천중학교 |
| 은상 | 98퍼센트 | 서울광양중학교 |
| 은상 | 최윤박 | 팔마고등학교 |
| 동상 | 여우사이 | 경민고등학교 |
| 동상 | 쏘 뉴씌 | 팔마고등학교 |
| 동상 | 신문GO 3학년 5,9,10반 | 대전삼천중학교 |
| 동상 | 한올 뉴스 다이어리 | 온양한올고등학교 |
| 동상 | YOUTH NEWS | 전주희, 김소율, 김예원, 최서윤, 한주희 |

## • 단체 성인

| 수상명 | 팀 명 | 소속 |
|---|---|---|
| 금상 | 뉴스샘 싹쓰리 | 광주월곡초등학교 |
| 은상 | 책향기 인문 독서회 | 학마을도서관 |
| 동상 | 뉴쓰리 | 서울시립대학교 |
| 동상 | 곰두리즈 뉴스쿨(Newschool) | 국립 강원대학교 |

# 공모전 본상·특별상 수상 명단

## 특별상

### • 우수지도자상

| 수상명 | 성함 | 소속 |
|---|---|---|
| 우수지도자상 | 김길환 | 점촌초등학교 |
| 우수지도자상 | 김자영 | 경기안성개정초등학교 |
| 우수지도자상 | 김현경 | (주)한국미디어교육강사연합회 |
| 우수지도자상 | 박우연 | 월곡초등학교 |
| 우수지도자상 | 박효경 | 경민고등학교 |
| 우수지도자상 | 이선희 | 한국미디어리터러시교육협회 |
| 우수지도자상 | 이성철 | 주감초등학교 |
| 우수지도자상 | 이재현 | 미래NIE논술연구소 |
| 우수지도자상 | 장두원 |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
| 우수지도자상 | 정지훈 | 위례초등학교 |

### • 특별상

| 수상명 | 팀 명 | 지도자 |
|---|---|---|
| 같이의가치상 | 운중초등학교(신동규 외 23인) | 조형국 |
| 같이의가치상 | 점촌초등학교 5-2(권나영 외 22인) | 김경민 |
| 같이의가치상 | 월곡초등학교(김송연 외 19인) | 박우연 |
| 같이의가치상 | 독서와NIE학원(오아람 외 17인) | 신성애 |
| 같이의가치상 | 탕정미래초등학교(서승연 외 17인) | 최영신 |
| 같이의가치상 | 점촌초등학교 1-2(김대규 외 17인) | 김길환 |
| 같이의가치상 | 점촌초등학교 6-2(김영찬 외 15인) | 최현길 |
| 같이의가치상 | 위례초등학교(서현준 외 11인) | 정지훈 |
| 같이의가치상 | 개정초등학교(성민석 외 11인) | 김자영 |
| 같이의가치상 | 구미여자중학교(김도경 외 11인) | 김유숙 |

| 수상명 | 성함 | 소속 |
|---|---|---|
| 열정이빛나상 | 신희윤 | 신촌초등학교 |
| 열정이빛나상 | 김주영 | 정릉초등학교 |
| 열정이빛나상 | 손민호 | 대감초등학교 |
| 열정이빛나상 | 이재혁 | 대감초등학교 |
| 열정이빛나상 | 천지은 | 천안위례초등학교 |
| 열정이빛나상 | 정윤기 | 학마을도서관 |
| 열정이빛나상 | 이인순 | 학마을도서관 |
| 열정이빛나상 | 홍성호 | 해당없음 |
| 열정이빛나상 | 지은숙 | 해당없음 |
| 열정이빛나상 | 박신우 | 참샘초등학교 |
| 열정이빛나상 | 김서영 | 정릉초등학교 |
| 열정이빛나상 | 김예령 | 대구월서초등학교 |
| 열정이빛나상 | 조은우 | 대구월서초등학교 |
| 열정이빛나상 | 김다영 | 전주호성중학교 |
| 열정이빛나상 | 손성무 | 전주호성중학교 |
| 열정이빛나상 | 성덕고등학교 1학년 8반 | 성덕고등학교 |
| 열정이빛나상 | 신문GO 7,8반 남자아이들 | 대전삼천중학교 |

| 수상명 | 성함 | 소속 |
|---|---|---|
| 다이어리꾸미기상 | 박제이 | 점촌초등학교 |
| 다이어리꾸미기상 | 김민소 | 점촌초등학교 |
| 다이어리꾸미기상 | 윤지민 | 점촌초등학교 |
| 다이어리꾸미기상 | 오유나 | 점촌초등학교 |
| 다이어리꾸미기상 | 김하은 | 개봉초등학교 |
| 다이어리꾸미기상 | 전다현 | 해맑은지역아동센터 |
| 다이어리꾸미기상 | 최세율 | 월곡초등학교 |
| 다이어리꾸미기상 | 강밀라나 | 월곡초등학교 |
| 다이어리꾸미기상 | 주윤하 | 대전하기중학교 |
| 다이어리꾸미기상 | 문태희 | 문향고등학교 |

# 공모전 본상·특별상 수상 명단

| 수상명 | 성함 | 소속 |
|---|---|---|
| 명필가상 | 주현경 | 대전하기초등학교 |
| 명필가상 | 서혜린 | 만수초등학교 |
| 명필가상 | 안희제 | 서울행현초등학교 |
| 명필가상 | 조수빈 | 동원초등학교 |
| 명필가상 | 조옥경 | 해당없음 |
| 명필가상 | 이수연 | 해당없음 |
| 명필가상 | 정지훈 | 해당없음 |
| 명필가상 | 문경림 | 사직여자중학교 |
| 명필가상 | 배지윤 | 사직여자중학교 |
| 명필가상 | 강가람 | 사직여자중학교 |

| 수상명 | 성함 | 소속 |
|---|---|---|
| 신뢰하상 | 이준혁 | 서울봉현초등학교 |
| 신뢰하상 | 정윤진 | 운중초등학교 |
| 신뢰하상 | 김대환 | 해당없음 |
| 신뢰하상 | 이정은 | 해당없음 |
| 신뢰하상 | 조수민 | 말글삶 |
| 신뢰하상 | 방유비 | 영훈국제중학교 |
| 신뢰하상 | 조준형 | DGA디아글로벌학교 |
| 신뢰하상 | 박수빈 | 구미여자중학교 |
| 신뢰하상 | 김서영 | 사직여자중학교 |
| 신뢰하상 | 세대공감 팀 | 정유태, 정윤서, 정수현, 정왕희 가족 |

| 수상명 | 성함 | 소속 |
|---|---|---|
| 토론했상 | 전형태 | 서울봉현초등학교 |
| 토론했상 | 전영태 | 서울봉현초등학교 |
| 토론했상 | 김연우 | 서울행현초등학교 |
| 토론했상 | 한예진 | 숙명여자대학교 |
| 토론했상 | 성민석 | 개정초등학교 |
| 토론했상 | 남가희 | 문향고등학교 |
| 토론했상 | 손지완 | 전주기린중학교 |
| 토론했상 | 이나윤 | 사직여자중학교 |
| 토론했상 | 스포트라이트 팀 | 대구대학교 |
| 토론했상 | 이정은, 정한별 팀 | 한샘지역아동센터 |

| 수상명 | 성함 | 소속 |
|---|---|---|
| 다양하상 | 백유선 | 만수초등학교 |
| 다양하상 | 정현지 | 천안위례초등학교 |
| 다양하상 | 이송아 | 플라톤아카데미 |
| 다양하상 | 신해린 | 해당없음 |
| 다양하상 | 김은정 | 해당없음 |
| 다양하상 | 최지율 | 용인대청초등학교 |
| 다양하상 | 김유빈 | 해맑은지역아동센터 |
| 다양하상 | 박서영 | 개정초등학교 |
| 다양하상 | 배인선 | 구미여자중학교 |
| 다양하상 | 박현정 | 구미여자중학교 |

| 수상명 | 성함 | 소속 |
|---|---|---|
| 꾸준하상 | 최준서 | 노암초등학교 |
| 꾸준하상 | 이채현 | 천안두정초등학교 |
| 꾸준하상 | 김진미 | 해당없음 |
| 꾸준하상 | 박애령 | 해당없음 |
| 꾸준하상 | 신홍식 | 학마을도서관 |
| 꾸준하상 | 이승록 | 해당없음 |
| 꾸준하상 | 이정신 | 해당없음 |
| 꾸준하상 | 김영수 | 해당없음 |
| 꾸준하상 | 최준이 | 강릉경포중학교 |
| 꾸준하상 | 지하은 | 천안신방중학교 |

더 많은

**뉴스읽기 뉴스일기**

수상작이 보고 싶다면?

# 뉴스읽기
# 뉴스일기

주최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제작 : (주)대학내일
진행 : 미디어교육팀 정현정 과장, 이영균 사원, 이윤주 사원
이 사례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